

IAP! INCHEON ART PLATFORM
이애플! 이애플!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www.inartplatform.kr

IAP! INCHEON ART PLATFORM
OPEN STUDIO 이애플!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IAP! INCHEON ART PLATFORM
OPEN STUDIO

IAP! INCHEON ART PLATFORM

OPEN STUDIO 이압!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총괄최승훈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기획이영리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매니저

정혜원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매니저

발행인안상수 인천광역시청

편집인최승훈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발행일2009. 12. 11

발행처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중구 해안동 1가 10-1

Tel : 032)760-1000 Fax :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디자인비에이디자인 허윤정

번역박지혜, 방재명, 성은주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Directed byCHOI Sung-hoon,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Curated byLEE Young-ri, Project manager of Incheon Art Platform

CHUNG Hye-won, Project manager of Incheon Art Platform

Published byAHN Sang-soo, Mayor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Edited byCHOI Sung-hoon,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Date of publication: Dec. 11, 2009

ContactIncheon Art Platform

10-1, 1-ga, Haean-dong, Jung-gu, Incheon, Korea

Tel : 82-32-760-1000 Fax : 82-32-760-1010

www.inartplatform.kr

Book designed/produced byBA Design (HEO Yoon-jeong)

Translated byPARK Jee-hae, BANG Jae-myung, SUNG Eun-ju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the Incheon Art Platform.



인사말

인천아트플랫폼은 2009년 9월 25일 개관과 함께 32명의 작가를 선발해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오픈 스튜디오와 특별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짧았지만 열정이 넘쳤던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학과 미술, 비평이나 전시기획 분야에 이르기까지 입주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다양합니다. 해외작가도 참여하여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러한 개성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신하게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감상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가와 작가, 작가와 감상자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안들은 예술의 미래를 위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오픈 스튜디오 행사는 일반에 작품을 공개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을 개방하고 창작과정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나’를 찾고 ‘세계’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살다보면 뜻을 같이하는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도 겪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정신적 요소들이 모여 문화를 이루고 우리는 그 속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작은 생각과 몸짓들이 거대한 흐름을 낳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역사의 한 순간을 엿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열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만나기를, 그리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새로운 역사와 이야기가 쓰이길 바랍니다.

2009년 12월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최승훈

Forewords

Incheon Art Platform opened on 25 September 2009 and began a residency pilot program with 32 selected artists. Now we plan to complete this short yet passionate year with an open studio special exhibition.

From literature to art, from critique to exhibition planning, the works of the resident artists are diverse.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have also participated to portray their native cultural characteristics. Incheon Art Platform hopes that these characteristics work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result in something unique and original. Of course to do so, participation by visitors is most important. New ideas that arise from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and writers, and artists and viewers, will fertilize the future of art.

The open studio is not just the average exhibition for the general public. It is opening the space where art is created. By opening the space and having honest conversations regarding the creative aspects, one can find ‘myself’ and the ‘world’ through this process. In life you meet neighbours and people with completely different minds from yourself. Various minds come together to form a culture and we live in this world. At times one’s thoughts and actions result in great movements. Perhaps you may begin a moment in history at Incheon Art Platform.

The artists of the pilot program open their studios to invite you all. I hope many will visit Incheon Art Platform, to begin writing a new chapter of Incheon Art Platform history.

December 2009

Incheon Art Platform Director

CHOI Sung-Hoon

목 차

04	인사말	
08	파일럿프로그램 입주작가	
	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	
	시각예술	연구, 비평
	강 혁	
	고 윤	
	고창선	
	김영수	
	김 온	
	김혜란	
	남대웅	
	박상희	공주형
	배진호	최 민
	안경수	공주형
	오경환	
	오유경	
	오효석	
	유은주	
	이주영	
	임경수	
	장 진	
	전소정	
	채지영	
	후지이 라이	김원방
134	아트&디자인 스튜디오	
	시각예술	
	사진 홍상현	
	금속 김민희 박현웅 서지민 이현정	
	도자 고민정 박수현	
142	게스트하우스	
	문예창작	
	김한수	
	홍인기	
144	작가약력	
178	인천아트플랫폼	
	시설현황 운영프로그램	

도록에 실린 작품평론은 1:1로 매칭된 이론가와 입주작가의 만남과 토론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외부 이론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ONTENTS

04	Forewords	
08	Resident Artists in the Pilot Program	
	STUDIO, GUESTHOUSE	
	Visual Arts	Research and Critique
	KANG Hyuk	
	KO Yun	
	KOH Chang-sun	
	KIM Young-soo	
	KIM On	
	KIM Hye-ran	
	NAM Dae-woong	
	PARK Sang-hee	KONG Ju-hyung
	BAE Jin-ho	CHOI Min
	AN Gyung-su	KONG Ju-hyung
	OH Kyung-hwan	
	OH You-kyeong	
	OH Hyo-seok	
	YOO Eun-ju	
	LEE Joo-young	
	YIM Kyung-soo	
	JANG Jin	
	JUN So-jung	
	CHAE Ji-young	
	FUJII Rai	KIM Won-bang
134	ARTS&DESIGN STUDIO	
	Visual Arts	
	Photo	HONG Sang-hyun
	Metal Works	KIM Min-hee PARK Hyun-woong SURH Ji-min LEE Hyun-jung
	Ceramic	KO Min-jeong PARK Soo-hyun
142	GUESTHOUSE	
	Creation of Literature	
	KIM Han-su	
	HONG In-ki	
144	Artist Profile	
178	Incheon Art Platform	
	Facilities IAP Programs	

The critiques contained in the book are the results of individual 1:1 meetings and discussions between
resident artists and art theorists. We highly appreciate the participation of all outside theorists in this project.

IAP!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in the Pilot Program

스튜디오 Studio | 게스트하우스 Guesthouse

시각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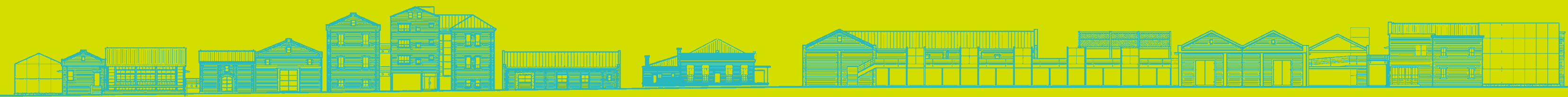
강혁 KANG Hyuk 고윤 KO Yun 고창선 KOH Chang-sun 김영수 KIM Young-soo 김온 KIM On 김혜란 KIM Hye-ran 남대웅 NAM Dae-woong

박상희 PARK Sang-hee 배진호 BAE Jin-ho 안경수 AN Gyung-su 오경환 OH Kyung-hwan 오유경 OH You-kyeong 오효석 OH Hyo-seok

유은주 YOO Eun-ju 이주영 LEE Joo-young 임경수 YIM Kyung-soo 장진 JANG Jin 전소정 JUN So-jung 채지영 CHAE Ji-young 후지이 라이 FUJII Rai

연구, 비평

공주형 KONG Ju-hyung 최민 CHOI Min 김원방 KIM Won-bang



비 바람 나무
Rain Wind Tree
2009
단채널영상, 모니터
2분 19초
가변크기



비가 내리던 날 나의 바람나무가 눕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서로를 부대끼고 있었다.

색다른 방법으로 교차편집을 하고 있다.

어디선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 아이가 이번 작업을 완성하고 있다.



어느 가을 날 ND필터를 이용해 바람나무와 애드벌룬을 약 20분 가량 담아냈다. 자연성에 대한 주제를 살리며 바람나무 작업의 연장선상에 애드벌룬이라는 인공물을 함께 배치한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동영상과 사진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읽히는 방식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

요점은 집약의 미감이다.

바람나무와 애드벌룬
Wind Tree and Ad-balloon
2009
사진
84 x 119 cm

이미지와 운동 : 원인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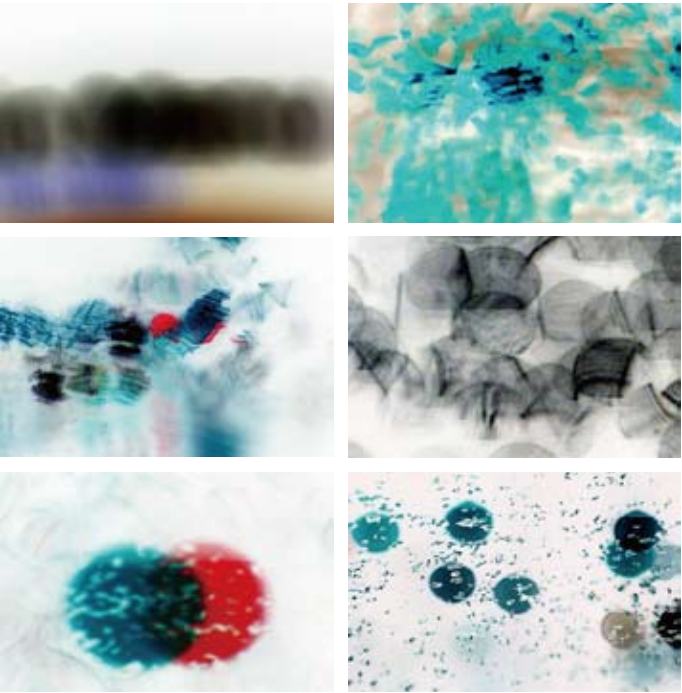
자연의 변화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 속에 존재하는 현상들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같은 생명의 사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존재는 삶의 형식들이 전개되거나 자연의 순환적 현상들이 우주적인 범주로 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혁의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삶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해 자연과 대비시킨다는 것이다. 그에게 자연은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삶의 형식들을 규정하는 법칙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성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그의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규정되는 질서에 대한 운동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지향성은 그의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체의 존재성은 변화와 운동 속에서 확대되는 생명의 과정을 기반으로 우연과 필연의 구조 속에서 하나의 내러티브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내러티브는 삶이 지니고 있는 시간적 역사성을 하나의 과정적 특징으로 구조화시키는 의미의 구조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혁의 작품에서 주제들은 전통 매체 작품에서 자주 고려되어 왔던 것들이다. 그리고 그런 주제들의 기저에는 삶과 자연이라는 이 세계의 실존적 상황들에 대한 기억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예술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경계들을 찾아내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주제적인 접근과 더불어 삶의 패턴들이 가질 수 있는 형식에 대한 접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적인 접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많은 면에서 삶의 형식이 유발시키는 철학적 문제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삶의 형식이 드러내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즉 그의 예술에서 중요한 한 축은 현실을 모방한다는 재현적인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현실은 자연과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은 그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법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연을 통해 변화 속에 존재하는 상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이것을 시간에 대한 재현적 접근과 자연에 대한 주제적 접근으로 형식화 시킨다. <치유>와 같은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현실로서의 작품이라는 상황을 경계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는데, 그 경계는 시간과 존재를 실존적 상황 안에서 묶어 놓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강혁은 자연과 삶의 경계에 대해 자신의 작가노트에서 “자연의 매질들이 만나 섞이고 부서지는 어떤 지점에 대한 경험은 무지개를 발견하는 즐거움에 견줄 만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가 찾는 어떤 지점은 무엇일까. 그 지점은 작가가 경계로 설정해놓은 어떤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경계는 재현과 환영(illusion) 그리고 상상력과 환상(fantasy)의 경계로 환원된다. 그의 작품에서 자연과 현실의 모방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제와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의 상상적 조합이 보여주는 형식적 특성들은 변화라는 자연 혹은

정용도
미술평론가



디지털 레인보우 2
Digital Rainbow 2
2009
투채널영상, 프로젝터
26분 27초
가변크기

“물과 빛이라는 매질(媒質)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연의 매질媒質들이 만나서 부서지는 어떤 지점에 대한 경험은 무지개를 발견하는 즐거움에 견줄만 하다.”

새로운 장면을 일년간 수집해서 두 번째 디지털 무지개를 만들어 본다.
음악을 경쾌하게 하고 두 화면으로 분할 편집하며 투채널 영상으로 구성해 보았다.

*배경음악 : BACH / French Suite No.4 E flat major BW 815 Sarabande DDD 2'35 (Christiane Jaccottet Cembalo)

유기체의 조건들로 다시 환원된다. 여기서 작가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테제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서 환영과 환상의 경계로 전이된다.

그의 작품에서 변화를 시각화 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나무, 2004>, <바람'닝 쿨, 2007> 과 같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자연의 속성에 훨씬 더 밀착되어 있는 소피스트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변화’라는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그리스 고대 소피스트 철학자들의 주장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치유, 2003>, <Having, 2004>, <Self Portrait, 2007> 같은 작품들은 삶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 속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의 특성을 인간이라는 테제 속에서 일반화시키는 문제는 근대철학의 중요한 과제였고, 모더니즘 미학과 철학에서 그 정점에 이르기도 했다. 즉 존재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기억을 만들어내고 기억의 상황이 존재에 대한 언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자연이라는 커다란 모델 안에서 일종의 횡단을 시도하고 있는 인간적 삶의 특성들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그의 사진작품 <바람나무와 애드벌룬, 2009>에 대해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영상과 사진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읽히는 방식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번 사진 작업을 통해서 보다 집약된 힘을 보이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 사진작품은 20분가량의 장기노출을 통해 변화를 하나의 정지영상에 담은 사진작품이다. 즉 변화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존재의 운동은 변화에 종속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운동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움직임의 속성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움직임은 부동성과 비교되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절대적인 운동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움직임은 정지 상태와의 비교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바람과 나무라는 제목의 구성 요소에는 자연의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두 요소가 인간의 시각적 기억과 관련되는 정적인 특성, 즉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을 기억하는 인간의 시각적인 기억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진이라는 정지이미지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해야만 하고 또한 정지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한다. 왜 작가가 움직임과 변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이미지가 아닌 사진을 통해 전작들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예술적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혁의 작품에서 운동과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자연과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 예술의 영원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의미의 결정체로서의 시간의 축적적인 상황이 대입된 존재로서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시간의 문제를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그것이 변화를 지칭하든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지칭하든지 개념적인 것이다. 시간의 개념은 이 세계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하는 객관적 시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해 가는 것들은 생명체의 특성으로, 시간의 개념에 의해 과정적인 진행으로서의 법칙적인 성격을 부여받는다. 법칙과 질서는 개념이고, 그런 개념들의 전개는 시간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강혁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중적인 예술적 변주들의 조합은 자연과 인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들로부터 재현과 환상이라는 미디어적인 특수성을 통해, 움직임의 통해, 생명성과 정지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생명성의 의미로 확장되어간다. 미디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아날로그적인 생명성과 디지털적인 생명성의 차이와, 그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들의 변화에 대한 표현적인 동등성을 찾으려고 하는 작가의 예술적 언어들이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가에게 ‘누구누구의’ 예술이라는 고유명사는 ‘존재’라는 일반명사로 확장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관객이 왜 그의 작품에서 존재라는 일반명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만 하는가를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즉 작가는 탄생과 소멸 등의 인간조건들을 발생시키는 존재의 원인을 삶의 형식으로 변화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삶의 형식들이 예술적 언급을 통해 스스로 존재하게 함으로서, 작가를 포함한 우리를 다른 차원의 개방성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방성은 그의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예술적 모티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은 우리가 여전히 삶의 존재론적 조건들과 자연의 일반성을 통해 스스로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Image and exercise: cause and change

The change in nature is a concept that can be grasped when one thinks of earth as a giant organism. Events like birth and death of humans are closely linked to changes and events in nature. It goes to show how life unfolds or events in nature takes place in a universal framework.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Kang's piece is putting life as one of the categories to be compared with nature. To Kang, nature is not an objective subject, but rather an existence with order and one that defines forms of life. In his piece, Kang tries to show the movement of order defined by flow of time. This trait is a common theme seen throughout his works.

The definition of existence of an organism is shown in a narrative through coincidences and necessity, and is based on life's processes which are expanded through changes and movements. The narrative can be perceived as a structure that defines time's historical element as one process. Kang's themes had been covered by many others in the traditional media. At the base of such themes, memories of actual situations, of life and nature are embedded. Kang's approach explores boundaries of meanings through his self-reflection of art and expresses it in a visual manner. It also goes to show his interest in approaching his themes through forms of life patterns.

Key features of the thematic approach are similar to philosophical questions raised by the way of life in many aspects. The way of life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hus, Kang is telling a tale of reality. In other words, one of the key areas of his art is an aspect of replicating reality. To Kang, the reality is a mix of nature and humans. The nature lends him the rules of order, while humans have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existing in the midst of changing nature. Kang gives this notion a form through replication of time and by approaching nature as a subject. The work <Cure> deals with issues between nature and humans. Kang presents his works in reality through ideas of borders, and the border also acts as a link to tie time and existence within the given situation.

In his notes regarding the borderline between nature and life, Kang says "the experience from a certain point in the interaction of nature's mediums; meeting, melting into each other and breaking down, can be likened to discovering a rainbow." What is the "certain point" that he is seeking? It must be somewhere along the border that the artist has determined. The border in this case, is reproduction and illusion, and imagination and fantasy. The topics created through imitation of nature and reality and combination of images created by media are restored to

Chung Young-do
Art Critic



나무 빛 그림자
Tree Light Shadow
2009
단채널영상, 프로젝터
4분 54초
가변크기

일상이 준비하게 널려있는 아파트 담벼락에 늦여름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멀리서 오는 조금은 덜 선명한 일렁이는 빛방울이 근경의 잎새들이 만든 세밀한 그림자들의 움직임과 함께 하고 있었다.

카오스와도 같은 수많은 세상의 움직임들이 어떤 절대적 질서를 연상시키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다. 카오스 자체가 절대적 질서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특정한 신이 주는 질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 신이기도 한 부분과 전체가 하나인 자연성에 대한 경외이다.

nature's or organism's characteristics. At this point, the artistic thesis yields to the border of illusion and fantasy from the border of nature and man.

Kang's works that visualize changes are "The Wind Tree, 2004" and <The Wind Vine, 2007>. These works are sophist expressions with closer ties to nature's attributes. Kang reiterates ancient Sophists' notion, such as Herakleitos' thoughts that the most basic element of the world is defined as "change." On the other hand <Cure, 2003>," <Having, 2004>, and <Self Portrait, 2007> are direct commentary on life. Separating identity, which is imbedded in changes and generalizing it through thesis on humans was an important breakthrough for modern philosophy, and it peaked with modern aesthetics and philosophy. Reflection on existence formed memory and situations in the memory allowed existence to be discussed. The attempt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rest in how to form relationships with traits of humans' attempts at crossing the giant model called nature.

When it comes to his photographic works, <The Wind tree and an Ad-balloon, 2009> handles time quite differently. The way it impacts viewers are also different, each medium striking its viewers in a different way." Kang added, "I wanted to show its intensified powers through my latest work." Kang's latest collection records changes in film through roughly 20 minute exposure. Thus one may be able to say, what changes may not exist; movements by an existence is a part of change, but one can go on an extreme to say that an existence is a part of change, but matters that exist within movements do not exist. We, as the audience need to reflect on the properties of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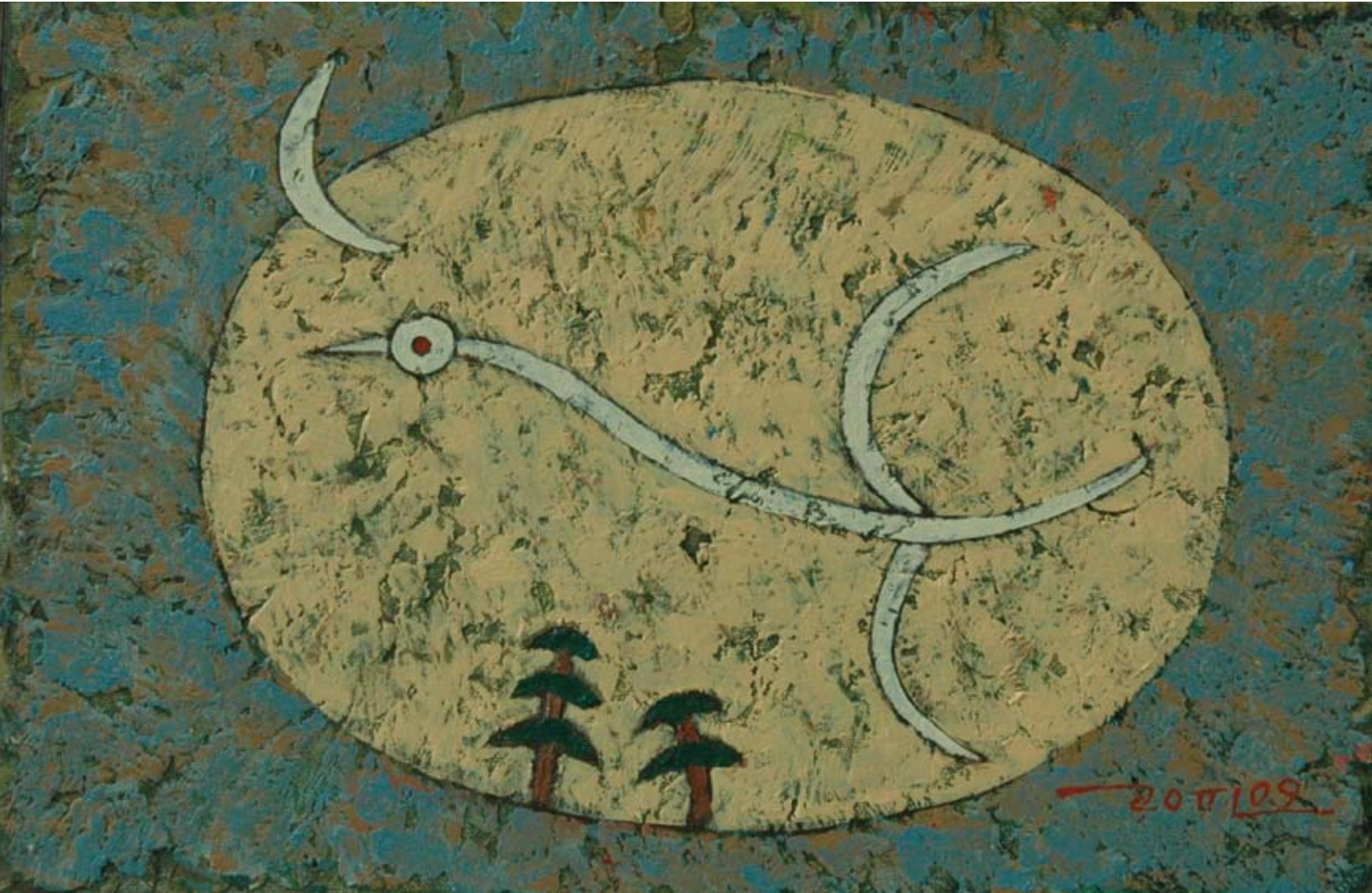
Movement can also be defined by its comparison to stability. Automobiles moving at the same speed do not have relative movement in a macroscopic scale. They can only attest to movement in a sense of absolute movement. Therefore movement is best distinguished against objects in suspension. In the piece, the wind and the tree, two elements that are subject to nature's changes shows passive characteristics related to man's visual memory. Viewers need to first figure out what the frozen Image represents in addition to the hidden element placed inside that image. Viewers need to reflect why he chose the photograph to show movements and change, rather than the most natural medium of video in furthering his artistic vision.

The nature and man represent movement and change when seen as art permanence, it can take on characteristics of a being that substitutes Compression of time when viewed as final representation of meaning. The issue of time can be substituted there. To humans, time is a concept that can either represent change or a crucial moment. The concept of time can explained by and related to an objective view that is understood by those that views the world as a structure. Spring turns to summer and as time passes, life naturally perishes. And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concept of time receives its law through scientific progression. Law and order is a concept and can become concrete through time's trait of segmentation.

The combination of two-sided artistic variation revealed in Kang's work expands all the way to the meaning of life through extractions of very basic condition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recreation and illusion, and through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media, Kang's attempts can be explained as artistic concepts sought by the artist as he seeks to find equivalence of expression between differences among analog meaning of life and digital meaning of life. In other words, using the proper noun, a piece with the "name of the artist" expands into a general noun, "existence." Meaning, artists do not really talk about the issue of identity, but shows why the audience needs to think about the identity of the general noun, "existence." An artist transforms the cause of human traits of birth and demise, basically the reason for existence. Furthermore, the artist helps various forms of life to exist on its own through artistic expressions, leading the audience, as well as the artist himself into the next level of openness. That openness can even be called the artistic motif that leads his piece. Though his work, Kang speaks volumes about the fact that we all need to remember our existence through conditions for life's existence and the generalness of nature.



희망 그리고 행복
2009
mixed media
46 x 53.5 cm



희망 그리고 행복
2009
mixed media
22 x 33.3 cm

체험적 삶의 파편과 추상적 사유의 만남

:고운의 <화합>에서 <세월>에 이르는 그림이야기

박남희
미술비평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의 시간들을 관통해온 작가의 삶은 그만큼 켜켜이 쌓여있는 지층을 통해 작업으로 드러났다. 전쟁, 피난, 월남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사건들이 고스란히 작가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인지 치열함의 정서를 체함케 하는 작업이었다.

청년시절부터 생업을 책임지며 살아왔다는 작가는 오랫동안 패션디자이너였다. 그럼에도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보장받은 생업의 길에서 그를 멈춰 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유년시절의 꿈이었다.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던 소년의 꿈이 뒤늦게 화가로서의 길을 가게 했던 것이다. 그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진심을 담으며 산다는 작가의 토로는 진지한, 너무나도 진지함에 고개가 숙여지게 했다.

그것은 작업에 대해, 세계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 이전 근본적인 태도에서 작가로서의 삶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까닭이다.

손끝의 표현 욕망에서 추상적 사유로 나아가다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작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초기 그의 작업은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에 몰입하는 것으로부터였다. 유년시절의 꿈과 재능이 손끝에서 표현에의 욕구를 발산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었으리라. 묘사력에 대해 스스로 탐닉하고 표출했던 그때이후 작업에서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방식은 추상적 사고였다. 작가의 추상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 언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이 작가의 감동이나 느낌의 표현이라면 반드시 사실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이나 색채 등 기본적인 조형요소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음악에서 가사 없이 리듬의 완급이나 소리의 강약만으로도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추상화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면 볼수록 다가오는 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미학적 사색이나 반성과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추상미술은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작업노트 중

바실리 칸딘스키(Vassily Kandinsky)의 추상에 대한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그의 언급은 꽤 오랜 여정을 거치며 작업으로 체화된다. 사실, 작가의 공식적인 화단 활동의 궤적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꾸준히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위한 오랜 탐색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단체전은 1991년에 처음으로, 개인전은 1994년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보아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같이 진지한 화단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물성과 오브제를 통한 내면의 정서를 각인하다

2002년부터 작가는 추상의 물성과 오브제라는 형식적 자기규정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현대미술의 템포로 보자면, 시대적 양식과는 별개로 진행된 작가의 추상이었다. 작가가 추상에 이르는 방식은 정제된 선과 면의 색채 구현으로부터였다. 2002년부터 2006년경까지 <화합(Harmony)>이라는 제명으로 드러나는 작업들은 캔바스에 아크릴로 제작된 반복적 구조와 물질적 실험이었다. 옷감 텍스처가 지닌 수직과 수평의 반복적인 짜임이 확대된 듯 보이는 표면구조는 한국 현대미술의 단색화 작업들이 고민했던 물성을 환기시킨다. 물론 외적 유사성으로 보자면 단색화 작업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구체적 인 사건이나 목적성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테면, 붉은 색이 주조를 이루는 <화합>의 한 예는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색 물결을 이루었던 인파와 함성이 작업의 모티프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에서 작가의 패션디자이너로서 지내왔던 시간들은 설사 다른 영역의 작업인 회화를 수행한다할지라도 무의식적인 반복적 행위와 유사한 시각적 패턴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도 다르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서구의 탈회화적 추상(Post-paintly Abstraction)의 의도와도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 소통을 욕망하며 물성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니 말이다.

삶의 파편과 사유의 단상이 만나다

최근 들어 작가가 보여주는 <세월(YEARS)>이라는 제명의 일련의 작업들은 내면의 은유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의 삶과 사유의 단서들이 결합된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동판이나 동철 혹은 납과 같은 소재들은 조형적 형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가에 의하면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한다. 그와 같은 작업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정신과 삶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였고 동판, 동철, 납 등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변함없는 민족성과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한 것”임을 작가는 말한다. 이와 같은 소재의 의미와 더불어 그의 추상작업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수직과 수평의 질서외식은 반복이 아닌 압축되어 조형적 표면을 만든다.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에 이미 실험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형성은 작가의 내면을 솔직하고 체험적으로 드러낸다. 삶의 파편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된 사례로는 <세월>시리즈 가운데 베니어판들이 붙여지는 작업들이 있다.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비정형적 형태로 자리한 구멍 난 이 판은 청, 장년기를 지나오면서 간직해선 실제 삶의 흔적들이라고 한다. 작가는 비정형적 평면에 만져질법한 마티에르로 추상적 사유의 프레임을 만들고 베니어판과 구리 혹은 기타 이질적인 소재들은 삶의 파편들로 등장시킨다.

일상의 오브제가 화면위로 올라오기까지 작가의 내면의 정서만으로는 치열한 삶과 예술을 표출하지 못할 것 같은 표현적 갈등과 새로움에의 욕망이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몬드리안(Piet Mondrian)이 수직과 수평의 면을 분할하는 데는 치수를 재는 자 이상의 정확한 시각적 분할의 능력이 전제된 것이었다. 작가의 화면 역시 수직과 수평 그리고 비정형적 타원이미지들이 서로 자연스런 결합을 이루어내는데, 아마도 패션디자이너로서 옷감 패턴을 재단할 때의 손의 기억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래서인지 거칠고 강한 인상을 주는 그의 작업들은 삶의 정서적 환기를 느끼게 하는가보다.

작가의 자신의 작업이 근작들의 경우처럼 삶의 파편들과 자신의 과거이자 미래의 역사성을 담보한 국가의 진보를 염원하는 데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그간에 치열하게 이끌어왔던 작가의 의지와 태도 때문일 것이다. 행여 작가의 작업이 미술사의 궤도에서 이슈나 쟁점을 제기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할지라도 그는 이미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진입한 행복한 존재인 것이다.

희망 그리고 행복
2009
mixed media
32 x 41.5 cm

Rendezvous of pieces of empirical life and abstract reasons

: Ko Yun's painting stories from <Harmony> to <Years>

Park Nam-hee
Art Critic



희망 그리고 행복
2009
mixed media
32 x 41.5 cm

Ko Yun's life through the fette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revealed itself in his work of art through the stratum built during the his course of life. Perhaps because his life journeyed through some of Korea's significant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the taking refuge down South, and the crossing of the border into South Korea, his works showed a sense of fierceness. Ko, who has been the breadwinner of his family since his early days, used to be a fashion designer for a long time. But it was his childhood dream that stopped him from continuing his career as a fashion designer which guaranteed a comfortable life. The dream of a boy who developed a desire to paint while looking at the paintings of Millet led him to fulfill his belated dream of being a painter. He says he does his very best to paint with all his heart and I cannot help but bow my head in respect for his sincerity. That is because he gives genuineness to his life as a painter in the most fundamental way before arguing about the work or world view.

From the desire to express at the fingertips to abstract causes

According to Ko's memoir, he became a painter in the 1970's. During the early days, his work was absorbed in reproducing a concrete subject. His dream and talents of childhood years materialized in terms radiating the

desire to express through his fingertips. After the days of indulging in and expressing the power of description by himself, he used abstract thinking as the method for embodying reality in his work. Ko's point of view about abstraction may be confirmed through his direct comment.

“Assuming that a painting is an expression of a painter's emotions or feelings, it need not necessarily be realistic. Using basic formative elements such as lines and colors alone can express thoughts and sentiments as much as one wants. This is along the same lines as making great music by varying the tempo of a rhythm or dynamics of a sound without adding lyrics... although abstract painting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it has no concrete subject, the more you look at one, the more you will be able to appreciate the beauty of it. It may be related to the aesthetic contemplation or reflection for trying to find what is seen in what is not seen, and what is not seen in what is seen. In a way, abstract art is the fruit of hard work to paint a world that is not seen rather than one that is seen.”

- from Ko's work notes.

Ko's comments, which is similar to the thoughts of Vassily Kandinsky regarding abstraction, materialized into a form of work after a long

journey through time. In fact, Ko's official activities in the painting circles can be traced back to the 1990's, and it seems that he spent a long time untiringly developing his own style of work. Judging from the fact that he participated in his first group exhibition in 1991 and held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in 1994, he started his painting circle activities with the same sincerity he put into his works.

Imprinting the inner sentiment through property of matter and objets

From 2002, Ko started to exhibit a formal self-definition of property of matter and objects of abstraction. In the context of the tempo of the modern art, his style of abstraction was different from the style of the times. Ko's method of embodying abstraction began with materializing colors of refined lines and surfaces. From 2002 to 2006, his works titled “Harmony” included repetitive structures made with acrylics over a canvas and physical experiments. The surface structure, which looks like an enlarged view of the texture of a fabric woven repetitively in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awakens the issue of property of matter which has been troubling monochrome works in Korean modern art. Although the work of Ko reminds of monochrome with its external similarity, it's different from monochrome for it is sentimentally based on premises of concrete events or finality. For instance, the surging crowd of people and their cheers that formed the great red wave at the 2002 World Cup was used as a motif in “Harmony” with the color red as the dominant note. Meanwhile, Ko's style of abstraction may also be different from others due to his experience as a fashion designer, affecting his painting work with visual patterns similar to unconscious and repetitive actions, even though the two areas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Yet his works are not the same in essence as the intentions of post-painterly abstraction of the Western world because Ko's style of abstraction desires inner communication that is not seen and does not pursue the property of matter itself.

Pieces of life meet fragmentary thoughts of reasons

Ko's recent series of works titled “Years” go beyond inner metaphorical expressions and show combination of actual life and traces of reasons.

According to Ko, materials used in most of his works such as copperplate, copper-iron, and lead not only contribute to formative shaping, but also have a special symbolic meaning.

He says such works are “produced with a focus on great spirit and lives of Koreans, and the copperplate, copper-iron, and lead represent the unchanging characteristic of Koreans who overcome difficulties with a strong will to survive, as well as the bright hope for the future.” Together with the meaning of such materials, a sense of order for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consistently shown in his abstraction works, creates a formative surface by condensation instead of repetition.

Such formative works are said to have been through a process of experiments between late 1980's and early 1990's show Ko's inner side in a frank and empirical manner. Examples which show pieces of life more directly include some of the works from “Years” series using veneer boards. The veneer boards with holes atypically placed on the right side of the canvas are actual traces of his life kept through adolescence and the prime of life. He formed touchable matière on an atypical surface to make a frame of abstract reasons, and had the veneer boards, copper or other different materials to appear as pieces of life. Expressional conflicts, which implied inability to express fierce life and art using inner sentiments of the painter alone, and his desire for newness seem to have acted up until the ordinary objects appeared on the canvas. For Piet Mondrian to divide the surface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t was preconditioned that he had the ability to visually divide more precisely than a tailor. Ko's canvas also shows a natural combination of vertical, horizontal, and atypical elliptical images. This may be the result of his hands still carrying the memories of cutting the fabric during his fashion designer years. Maybe that is why his works have coarse and tough impressions yet rouse sentiments of life.

Ko expressed his hopes for his works to show fragments of life and his wish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untry, securing his past and the future historicity. The reason his hopes do not sound hollow can be attributed to Ko's strong willpower and the attitude he kept all these years. Even if his works are irrelevant to raising issues in the course of art history, Ko is already a blessed man who is living the dream.



한발로 서서 한눈으로 보기
2009
혼합매체



우리시대의 미디어아트 또는 세기말 세대의 독백

김노암

상상마당 전시감독

세기말의 정서

누가 그러던가, 한국의 줄 세우기(줄서기가 아닌) 문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작동한다고. 창작과 예술의 성취도 또한 계량화되어 통계학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한다. 더욱이 통계학의 이면을 구조하는 ‘누구에게 봉사하는 통계인가?’라는 예술의 정치학이 자리하는 것도 현실이다. 모든 것이 매개되는 사회에서 예술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는 마치 욕망하는 동물처럼 콧김을 훅훅 내뿜으며 충족되지 않을 것들을 찾아 무한히 운동한다. 욕망하는 미디어의 과잉운동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세기말, 우리는 복수의 미디어를 거쳐 경험되고 해석된다. 예술가는 과잉현실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세상살이의 압력을 맨 몸으로 견디는 것이다(Standing on the ground, 2008). 우리에게 세기말은 한국의 현실 한가운데(happiness of ordinary, 2005)에서 맞이한 과잉현실이고, 미디어의, 미디어에 의한, 미디어를 위한 순환하는 운동과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세계였다. 미디어가 욕망하기에 우리는 예술을 욕망한다.

고창선은 세기말을 전후로 본격적인 예술가의 삶을 걷는다. 그런데 바로 그 세기말의 정서가 예술가로서 정체성이 주조되는 과정의 결정적 요인 또는 순간(The Gate of Emotion, 2004)으로 작동한다. 작가는 톱 던지듯 이야기한다. 해외유학과 대안공간을 모두 경험하였으나 그것이 또 어땠다는 것인가? 작가가 예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유학을 결심하고 대안공간에 들어선 것은 일상과 현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형세전화를 위한 망명과 같다.

한국의 현실은 이미 작가는 물론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이 견고한 구조가 되어 예술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실존의 끝 또는 그 경계로 작동한다. 세기말은 역사의 종말이며 이야기의 정점이다. 누가 이 강렬한 신화로 채색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시기의 예술가들의 내면은 어두운 정서와 송고한 비극의 클라이막스가 자리한다. 종말을 통해 종말을 넘어서는 것이 세기말의 정서를 품은 자들의 과제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러한 세기말의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고창선에게서 느껴지는 정서와 사색과 중간 중간 끊어져야만 하는 표현, 절름발이식 또는 미완성의 연술 방식(달리는 비행기/ 생각처럼 잘 안돼요, 2008)에 다가갈 수 있다. 세기말의 정서를 공유하는 작가들은 종종 자신을 감추고 익명으로 등장한다. 그러한 세기말 예술가의 의식(또는 무의식)은 실제 작품의 주제와 키워드 또는 전시연출에서 드러난다.

미디어와 언어 또는 명명하기

고창선 작가의 일련의 개인전에서 보여준 작업들을 하나의 물질적 경험이나 관념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면, 삶과 창작의 융합과 그 고백이라고 말하겠다. 이



추억과 기억

2009 혼합매체, 슬라이드 프로젝터

융합과정은 작가의 내적인 변화는 물론 외적 변화의 원인으로 보여 진다. 그에 게서 우리는 오늘날 예술가의 삶은 일상과 창작(비일상), 노동과 여가, 예술과 미디어 간에 어떠한 틈을 발견할 수 없이 통합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의 삶과 예술은 소위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며 더 이상 다른 통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인터페이스는 단연 언어이다. 언어를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존재하는 무엇도 이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명명한다. 원형적인 욕망이고 삶이다. 예술가의 삶은 무엇인가에 이름을 부여함으로 시작하고 또 종국을 맞이한다. 이 끝없는 이름붙이기는 작가의 현존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름 붙이기는 무언가를 끝없이 현재로 소환하는 것이다(소박한 간판 만들기, 2007). 그럼으로써 그의 세계(Something around, 2002)가 창조되고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오늘날 이 명명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 미디어이다. 미디어는 그 태생부터 결코 예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디어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재였고 본래 대중교육과 의사소통의 공유지, 상투성의 재생산과 유통을 위한 것이었다. 미디어는 개인이 아닌 대중을 창조한다. 따라서 우리가 미디어를 다루는 작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에 대해 사색하고 표현하기(칼로리시리즈, 2009)이다.

여기서 고창선은 미디어의 정중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짝 비껴난다. 이 비껴남 또는 엇박자의 태도와 제스처, 통제 불능의 미디어작업을 통해 관객은 물론 창작자인 자신조차 현대 미디어의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백한다. 그의 생득적 반미디어(anti-media)의 정신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난다. 어쩌면 그에게 친절한 미디어아트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어쨌든 고창선의 미디어 작업은 관행적인 미디어아트의 개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단지 불편한, 낯선 미디어아트의 소박한 연출과 그 사이에 놓인 긴장과 우울한 뉘앙스가 길게 놓인다.

통제 불능의 미디어와 불가능한 조작操作은 어떻게 예술가가 과잉현실 속에서 현존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구체적인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설계된 작품들은 밝은 일상과 과잉현실의 그늘을 은유한다. 불완전한 소통과 미숙한 언어가 견고한 세계의 체계에 틈을 낸다. 어느 관객도 눈치 채지 못한다(Standing in Myoung-Dong/ Daily affairs/ In the bus/ You so sexy, 2005).

고백 또는 독백의 힘

우리 가운데 누가 작가의 노트를 읽고, 누가 작품의 설명과 작가론을 읽는가? 어쩌면 아마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않은 채 상투적인 의사소통의 제스처를 서로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작가는 끝없이 중얼거리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 또는 독백의 힘이 그의 작품에 끈끈한 네러티브와 질긴 긴

장감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직접적으로 또는 잘 들리지 않게 웅얼거리듯 자신의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끝없이 표현하고 고백한다. 마치 그가 흥미로운 미디어아티스트로 소개되거나 이해되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술가와 예술을 매개하고 다루는 미디어의 무소불위의 힘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대중매체를 선용하지 않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매스미디어 생태계에서 예술가는 어떻게 자신의 중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매체이론가 레지 드브레(R. Debray)가 제시한 매체변화를 통한 사유의 역사를 보자. 상형문자 또는 신의 로고스가 지배하는 시대를 가로지르며 글쓰기가 발명된 이후부터 인쇄기가 등장할 때까지의 문자계(logosphere), 1448년부터 1968년까지 이성과 텍스트가 지배하는 20세기 초중반까지의 활자계(graphosphere), 그리고 오늘날 텔레비전과 각종 첨단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각계(vidiosphere)로 구별하였다. 그런데 예술계로는 드브레가 나눠 놓은 것들, 즉 인간의 사유와 문화를 지배했던 로고스, 이성, 텍스트,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휩쓸려 들어온다. 드브레의 분류는 그 진위를 떠나 관념적으로는 가능해도 감각과 물질의 신경계들과 정신과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 속 예술은 과거와 현재의 그 모두를 아우르며 어떤 실체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어떤 미지의 또는 가능성의 영역이고 예술가들은 각각의 시대의 부름에 응할 뿐이다.

고창선의 경우는 어떤가? 그의 홀로 치는 탁구대(혼자 뛰기, 2009)는 오늘날 예술가가 처한 이러한 냉엄한 현실과의 부대낌과 무한 반복되는 고백과 독백의 현상학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시대의 부름 또는 세기말의 부름에 대한 응전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삶, 또는 예술의 원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그러니 홀로 대하는 탁구대는 실상 조밀하게 얽힌 현실과의 관계에 포착된 개인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고창선의 고백 또는 독백은 고백과 독백의 형식을 차용한 복수의 목소리(Tell me, 2005), 복수의 존재들이만 들어내는 관계의 화성과聲인 셈이다(Three-comered relation, 2006). 세상은 순수한 고백과 독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통제와 관리의 체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창선의 고백 또는 독백이 일종의 사이비 고백인지 또는 사이비 고백을 가장한 일종의 전복의 힘을 내부에 품고 있는 것인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작가는 주위는 온통 사이비 꿈과 사이비 환타지아(warm-up, 2009)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Media Art of Our Age and Monologue of the Generation of the End of Century

Sentiment of the End of Century

Someone said the ranking culture of Korea, not a lining-up culture, operates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In Korea, even art creation and achievement is quantified in the realm of statistics. Moreover, there actually exists the political science of “who does art statistics serve?” constructing the other side of the statistical data. In a society where everything is intermediated, art cannot be an exception. Media around us continues its infinite movement in search for something to satisfy its insatiable needs snorting out hot air through its nostrils. The excessive movement of media puzzles us.

At the end of century, we are experienced and interpreted through multiple media. Artists bear the pressure of living in this world unable to reject it (Standing on the ground, 2008). For us,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as an excessive reality we had to face at the center of the reality of Korea where the circular movement and pressure of the media, by the media and for the media were intensifying more and more. Because media desire, we desire for art.

Koh Chang-sun started his career as an artist around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the sentiment of the end of the century served as the critical element or moment for formation of his artistic identity (The Gate of Emotion, 2004). He casually remarks. Yes, he studied abroad and experienced an alternative space but so what? When 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went overseas to study and entered an alternative space, for him, it was like seeking asylum to turn the table around.

The reality of Korea became a solid structure built deep in the minds of all of us as well as the artist and worked as the end or the boundary of existence for all of those who wanted to form an artistic identity. The end of a century was the end of a history and the apex of a story. Who could escape a reality painted with such strong myth as this? In the minds of the artists of the end of the 20th century resided a climax of abysmal sentiment and sublime tragedy. It seemed as if overcoming the end with the end was the task given to the people who harbor the sentiment of the end of the century. By understanding this sentiment of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e can approach the sentiment and contemplation of Koh Chang-sun, his expression that has to be choppy and his limping or unfinished way of speech (Running Airplane/ Does not work as well as I thought, 2008). Artists that share the sentiment of the end of century often present themselves

Kim Noh-am
Exhibition Director of Sangsang Madang

anonymously. That consciousness (or non-consciousness) of the artists of the end of century is reflected in the theme and the key word of an actual art work or its exhibition production.

Media and Language or Naming

If I have to describe the work of Koh Chang-sun I encountered in his solo exhibitions in terms of material experience or concept, I will say his work is a fusion of life and creation, and its confession. The trigger of this process of fusion seems to be the artist's internal change and also external change. From him, we learn that the life of an artist has become so integrated today that one cannot find any crevice between daily affairs and creation (non-daily affairs), labor and leisure, and art and media. That is, daily affairs and art share so-called interfaces and they do not have different channels anymore. Of course, the most typical interface is language.

We cannot escape from language. At the same time, nothing that exists in the world can escape from its name. We create something and name something. This is our prototype desire and life. The life of an artist starts and ends with naming something. This endless work of naming i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proving the current existence of the artist. Naming is about recalling something again and again (Making a simple signage, 2007). By doing so, the artist creates his world (Something around, 2002) and owns his time.

Today this power is granted to mass media. From its birth, media was not something for art ever. It was public goods to serve public needs, a place for mass education and communication by its nature and a place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liché. Media creates the masses and not individuals. Therefore, what we expect from artists who work with media is not some kind of interpretation of media but contemplation on and expression of media itself (Calorie series, 2009).

Here, Koh Chang-sun does not focus on the center of the media but digresses a little from it. Through this digression, off-beat attitude and gesture, and his uncontrollable media work, he confesses that viewers and also the creator of the work, himself, are not free from the reality of media. His innate anti-media spirit reveals itself regardless of his will. It seems it may be impossible to expect a kind media art. Anyway, the media work of Koh Chang-sun cannot be captured in the conventional concept of media art. Only his simple production of uncomfortable and unfamiliar media art, the tension in between and its gloomy nuance lay their body long on the surface.

Uncontrollable media and impossible creation of a work provides an example of how an artist can exist in an excessive reality. His art works designed to endure specific discomforts metaphorize the brightness of daily affairs and the shade of excessive reality. Incomplete communication and immature words create a chasm in the solid world. No viewer notices it (Standing in Myoung-Dong/ Daily affairs/ In the bus/ You so sexy, 2005).

Power of Confession or Monologue

Who among us reads artists' note, explanation on work or studies of artists? Aren't we maybe just repeating typical communication gestures to each other without feeling or understanding? That is why the artist mumbles and confesses endlessly. And the power of such confession and monologue create the cohesive narrative and tough tension in his work. The artist expresses and confesses endlessly about the relations between his life and art in direction speech or in faint mumbles. Given that he has been introduced or understood as an interesting media artist, one can feel the omnipotent power of media that mediates artists and art and handles them. In this ecosystem of mass media where those who do not make good use of mass media are left behind to degenerate, how an artist can maintain and spread his species?

The French media theorist, Régis Debray suggested a history of contemplation in terms of changes in media. He divided history into three: the logosphere that spans from the time of hieroglyphics or the time the logos of the gods ruled the world and invention of writing to appearance of a printer: graphosphere that spans from 1448 to 1968 and to the early and mid 20th century when reason and text ruled the world: and vidiosphere of today where images rule the world via television and other advanced media. However, Debray's division, that is, logos, reason, text and image which all ruled the contemplation and culture of people, are swept away together into the world of arts. Debray's division shows that although it is plausible in terms of notions regardless of its factuality, art in our reality where the nervous systems of senses & materials and spirits & minds are inter-mingled encompasses all those and creates a substance. That is the domain of the unknown or possibility and artists just respond to the call of the age.

What about the case of Koh Chang-sun? In his work of “Ping-Pong Table with a Lone Player (Running Alone, 2009)”, he describes well the phenomenology of the struggle of an artist in this stern reality and the eternal loop of confession and monologue. This is how he fights back the

call of the age or the call of the end of the century.

When something looks obvious on the surface, it never is true. Really important life or the principles of art does not appear important on the surface. The ping-pong table with a lone player implies an individual captured in the densely knitted relationship with reality. In other words, the confession or monologue of Koh Chang-sun is a voice of revenge (Tell me, 2005) in a form of confession and monologue, and a concord of the relations created by multiple beings (Three-cornered relation, 2006). The world does not allow innocent confession and monologue. Maybe they are too dangerous. It is because they are not governed under the system of control and management.

Therefore, we have to look carefully at the confession or monologue of Koh Chang-sun to see if it is a kind of pseudo-confession or a confession that look like false but has the power of subversion in it. It seems like he tries to tell us that our surroundings are full of pseudo-dreams and pseudo-fantasia (Warm up, 2009).

혼자 뛰기
2009 혼합매체





문
2009
digital print
110 x 150 cm



오래된 시간 1
2009
digital print
38 x 56 cm



오래된 시간 2
2009
digital print
38 x 56 cm

김영수 사진 - 검은 상흔

김영수의 작품 스펙트럼은 넓기도 하고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이 땅과 사람이다. 그는 주변 지인들을 촬영했고 나아가 그 얼굴들과 풍경을 결박시켜 놓았으며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 바다와 섬을 찍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도시의 이곳저곳을, 삶의 비린내가 짙게 풍겨 나오는 그런 장소를 찍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삶을 살아온 이들의 삶의 목록과 자취가 그것이다. 또한 사람의 얼굴에서 탈, 가면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한결같이 흑백사진의 깊이 있는 검은 색 톤과 그만의 응시가 자리한 사진들이다. 나로서는 그의 인물사진의 인상이 꽤나 강렬하게 남아있다.

철조망을 부여잡고 있는 백기완의 사진과 본인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겹쳐놓은 작업 등이 그렇다. 그것은 단지 기록적인 초상사진과는 거리가 멀었다. 역사와 현실 등과 결부된 한 개인의 실존적 초상이자 현란한 생의 굴곡들이 응고된 상처들이었다. 그는 문짜를 프레임으로 이용해 그 사이에 얼굴 사진, 초상사진을 배치한 감각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풍경만큼이나 한 개인의 삶을 여러 지점에서 유추하게 해주는 통로이자 은유로 기능한다. 문이란 단절과 고립, 보호와 위장, 안과 밖을 동시에 떠올려주는 매개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문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와 동시에 사진이 오브제와 연결되어 풍부한 울림을 자아내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도 김영수 사진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는 여러 오브제들을 사진에 연동시켜 사진의 생과 힘을 증폭시키는데 집중된 감각을 선보였다. 그러나 그의 사진은 여전히 정직한 어법이고 시선이며 흑백사진의 깊은 톤에 매료되어 있다. 아울러 생각해보면 그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늘상 관심을 가져왔다. 풍경을 찍을 때도 그렇고 가면을 찍을 때도 역시 관심은 인간이었다. 풍경 속의 사람들은 그 풍경과 함께 뒹군 이들, 그 땅과 바다와 하나로 칭칭 엮인 이들이며 가면이란 것 역시 인간 존재가 뒤집어 쓴 또 다른 위선에 대한 메시지 일 것이다. 최근 사진에서 감지되는 변화라면 그의 흑백사진에 부분적인 색상이 개입된다는 점, 흑백과 컬러의 상반된 대비감각을 극화시키면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한편 그의 오랜 사진적 소재인 인물과 탈, 도시와 바다를 종합해 내는 과정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오랫동안 김영수는 바다 사진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왔다. 그는 바다와 섬을 고향으로 둔 자다. 유년기의 기억들은 ‘장소애’라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여 그에게 섬과 바다를 한 평생 찾아 헤매게했다. 장소애의 본질은 장소가 세계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경험하는 중심이며, 개인의 자아와 문화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심원한 중심이라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사람의 의식과 정서는 태어나고 자란 장소와 불가분의 관련, 아니 너무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그의 바다사진은 비릿한 비린내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다가온다. 그것은 바다를 단순한 풍경으로 조망한 것도 아니고 경관으로만 위치지운 것도 아니다. 충분한 수분과 안개, 바람과 짹짹 소금기와 고된 노동으로 인한 땀 내음으로 온통 범벅진 이 바다는 아름다우면서도 거칠고 생경하고 참혹하고 서럽고 슬프면서도 황홀하다. 그가 건져 올린 바다사진은 시각과 촉각, 청

박영택

경기대교수, 미술평론

각과 후각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래서 그의 사진 앞에 서면 바라보는 이의 몸이 바다 한가운데 무방비로 던져진 듯 하다. 아찔하다. 통감각적인 이 바다 사진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바다라는 장소로 나를 내몰고 내 몸을 바다의 질료 성안으로 마구 끌어들인다.

김영수는 바다를 여러 시점으로 포착한다. 바닥으로 붙어 훑어나간 시선은 갯벌과 모래, 바위와 자갈과 선착장의 풍경을 살처럼 드러낸다. 다시 눈을 들어 허공을 보면 하늘과 구름, 안개와 비, 갈매기가 분주하다. 다시 바다를 보면 배와 섬이 위치해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등장한다. 실은 이 모든 것이 바다풍경이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습하고 다소 흐리고 어두우며 거칠고 스산한 풍광이 사진을 흠뻑 적시고 있다. 끈적거리는 수분의 촉감, 파도의 포말과 짜디짠 바다 냄새가 원초적으로 덮치는 장면이다.

김영수는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만난 바다의 체험을 생생히 증거하고 기록한다. 자신의 몸이 사진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간다. 그는 우리 국토의 여러 섬들을 고산자 김정호처럼 떠돌아다녔다. 그는 자신의 삶의 기록을 사진으로 증거하고 그 사진은 그의 육신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재현한다. 그의 여정이 바로 사진의 여정이고 그의 체험이 사진의 경험이다. 따라서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 시선, 프레임은 변화무쌍하다. 아니 육체 전체가 눈이 되고 발이 되고 렌즈가 되어 떠돈다. 정처없이 사물과 대상을 바라보고 잡아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특정한 시점, 일관된 조망, 분명한 프레임은 무의미해졌다. 그저 온 몸으로 보고 온 몸으로 만나고 온 몸으로 찍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경남 욕지도 모녀

1981 gelatin silver print 12 x 16 inch



그래서인지 그의 사진을 ‘사진의 지리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사진적 지리학에서 그의 고향인 바다/섬은 인격과 정서가 뿌리를 내린 중심점에 다른 아니라 늘 그 주변을 배회한다. 그 중심에서 멀어질 때 그는 실존의 근원적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 현상을 겪는다. 한 번 고향을 떠난 자는 영원한 실향민이다. 김영수 역시 실향민 의식이 사진적 지리학의 동인이 되고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체류지에 대한 회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신의 실존이 처음으로 자리한 그 뿌리를 향한 회귀욕망과 관련된다.

섬은 어딘가에 분명 홀로 떠있다. 바다를 가로질러 가다보면 꿈처럼 섬들은 드러나고 그것은 광막한 우리네 인생에 구원처럼 빛난다. 김영수에게 섬은 상실되고 절망된 삶에서 구원의 이미지도 부른다. 섬과 섬을 점선으로 이어나간 여정이 그의 사진이 되었다. 알다시피 섬은 바다를 둘러싸고 물과 떨어졌으므로 고립과 유희의 표상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섬은 전체를 지속하는 세상과의 단절, 파편, 불연속성, 탈맥락의 표상물이기도 하다. 실상 바다에 떠있는 섬은 물에 가려지지 못해 위로 남은 부분이다. 차마 바다가 다 가리지 못해 남은 상처 같은 흔적이 섬이다.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바다가 지우고 가려버린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해주는 간절한 부위다. 차마 소멸되지 못하고 남은 잔해같은 것이다. 섬은 홀로 그 바다의 막막함과 겨눈다. 바다에 떠있는 듯한 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섬의 고독하고 홀로 고립된 듯한 존재성을 은연중 자기 내면에 투사한다. 그 섬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섬은 늘상 조금은 외롭고 호젓하며 쓸쓸한 수사에 의해 호명된다.

작가는 섬을 찾아 나서며 자신을 찾고 나아가 자신의 유년의 기억과 추억을 찾았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없거나 그로부터 도피하는 방편으로 바다/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섬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저울질하고, 그러는 잠시 섬은 그에게 느끼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욕망, 하나의 신비 속으로 홀로 들어가고픈 욕망, 가장 황량한 풍경에 머물고 싶어 하는 바램이 그를 섬으로, 바다로 불러들였다.

그가 찍은 바다와 섬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야성적 자연들이다. 그 야성성이, 인문화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날것으로서의 자연과 그 자연과 함께 한 역시 날 것의 삶들이 그가 찾아나선 풍경이다. 그 날 것들이 그 야성성이 비로소 그를 진정시킨다. 그러나 그 야성의 자연들은 또 다른 섬과 바다를 찾아나서는 과정 그 자체를 위해 지연되고 대체된다. 사진은 그런 지연과 연장을 담담히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가 찍은 섬과 바다사진은 또 다른 섬과 바다를 찾기 이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정박한 순간의 감흥이 고여 있다. 그의 사진은 바로 그러한 여정의 순간을 충실히 담아낸다.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매 순간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찾아 나서고 싶었던 일종의 향수와 기억과 유년의 추억, 상실된 꿈과 회한을 응집하고 있는 섬이란 장소에 대한 고백과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 또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부추켜 주는 것인 지도 모른다.

삶은 그 삶을 떠받치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와 공간의 힘이고 경이

다. 사람은 어디에 살고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그 장소들의 총체에 의해 규정되는 바가 있다. 따라서 김영수의 실존과 정체성은 그가 찍은 풍경사진, 그가 헤매고 찾아나서는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의 사진은 전통적 필름 사진 인화방식으로 처리된 사진 원본을 다시 디지털 방식으로 스캐닝하여 판화용 종이에 잉크젯 프린터로 확대 인쇄한 것이다. 따라서 그 톤과 분위기는 수묵화나 그림 같다. 그는 자신이 보고 만나고 체험한 바다와 섬을 정직하게 기록한다. 그 과정에서 사진이미지의 힘이 따라붙었다. 망망대해에서 시야에 잡히는 것은 수평선, 물너울, 물너울의 높은 곳에 걸친 햇빛, 갈매기, 가끔씩 떠다니는 배와 섬이 전부다.

김영수는 자신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한 자연을 가능한 한 그것 자체로, 날것으로, 인위나 인문화된 것이 아닌 상태로 우리 눈앞에 놓아둔다. 그는 야생의 자연으로 회귀하고 더 야생적인 자연을 찾아 떠난다. 그 이동경로와 지리의 발견이 그의 사진이 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이 국토는 그런 면에서 그에게 큰 위안이다. 그는 그 바다와 섬을 피안으로 구하고자 하는 본능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그곳까지의 길은 그다지 낭만적이거나 즐겁거나 황홀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질고 습한 안개 속에서 불쑥 몸을 들이치는 바위와 조금씩,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섬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부들과 아이들이 있고 바닷물에 닳아버린 자갈과 끈적한 개펄, 새까맣게 물려다닌 갈매기의 어지러운 소리와 이 서모가 저 섬 사이를 떠도는 배와 그 배에 실려 가는 지친 사람들이 있다. 그것들은 불쑥 불쑥 등장하고 느닷없이, 우연히 출몰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처연한 바다가 나타나고 또 우연적인 대상들이 지워처럼 드러나는 그런 여정이다.

그의 사진은 이렇듯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면서 시선에 긴장을 부여한다. 습하고 짹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이 바다와 섬사진, 그리고 도시의 골목길, 이 땅의 이름 없는 이들의 초상,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그로테스크 하고 어두운 악몽같은 가면시리즈는 결국 모두 하나로 묶여있다. 그는 지독한 탐미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말을 건넨다. 그 사진은 단지 시각적 이미지에 응고되지 않고 그 이면에 드리운 어두움과 상흔 까지도 건워 올리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차마 사진의 피부위에서 다 말해줄 수 없는 무수한 사연을, 정신을 섬광처럼 안긴다. 그것은 결국 검은 상흔들이다.

Photo by Kim Young-soo : Dark Scars

Kim Young-soo's work spectrum is wide as it is limited. His interest is with land and people. He captures people close to him and takes it further by binding their faces with the scenery. He then takes a step back to photograph the sea and islets. He photographs all corners of the city, places that wreak of life and captures the essence of those who live a destitute and hard life. He at times progressed from faces to disguises and masks. The black and white images and the depth of the darkness in each image depicts his unique perspectives. His portraits have made quite a strong lasting impression with this critic.

The portrait of Baik Gi-wan (Korean politician) grasping at the wire fence or the self portrait overlapping with his residence card are good examples. These works are far from simple portraits that record the moment. It is the life portrait that intertwines history with reality. They are the coagulated scars of a life that's been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a tumultuous life. He used a door as the frame and arranged his self portraits in the frames, the arrangement itself showing his unique style. On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it is a metaphorical analogy, a pathway of one's life at various points much like a very fine landscape. The door is a double medium that represents severance and isolation, protection and camouflage, in and out. We all have our own doors. Another interesting aspect of Kim Young-soo's photographs is how the photos connect to objet and acts as a medium that reverberates from deep within. He presents an intense flair for associating various objets to a photo and amplifying the life energy and power of each image. However his work speaks truth as his perspective, and shows an affinity toward the deep tones of black and white photography. What's more is that if you think about it, he has always had a strong interest towards humans. Whether he is taking a photograph of scenery or masks, his focus has always been humans. The people in the scenery are those who writhe with the scene, the ones who are bound together with land, sea, and sky. The masks also symbolize the hypocrisy by people wearing masks.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his recent work is partial colors on his black and white images. The contrast effect against the black and white amplifies the message of each image. It also gives the impression that his long favored themes of portraits, masks, city and sea are transforming into something more comprehensive.

For a long time, Kim Young-soo has shown a deep attachment toward images of the sea. He comes from the sea and islands. His childhood memories are tied to his attachment toward this place, which is why he constantly seeks after it. The place is the center of his world and experiences, and it is where one's self and cultural identity is formed. A

Park Young-taek
Art Critic,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person's consciousness and emotions are inseparable or is deeply connected with his birth place and home. His images of the sea wreak of the salty sea and it is intertwined with the lives of those who live there. The sea is not just a scenery or a location. The sea is more with its moisture and fog, wind and the salty sweaty smell of labor jumbled together. It is beautiful as it is coarse, it is crude as it is devastating, and it is mournful as it is magnificent. His photographs of the sea tantalizes the four senses of sight, touch, sound, and smell. When standing in front of his work, it's as if one is thrown into the middle of the sea defenseless. It is absolutely terrifying. The image that assaults the senses doesn't just stop at giving the viewer a strong impression but seems to fling the viewer into the sea and pull relentlessly into the material sustenance of the sea itself.

Kim Young-soo captures the sea through various view points. The view point towards the ground shows the beach, sand, rocks, gravel, and marina. Adjust your view point to the air and one can see the sky, clouds, fog, rain, and the busy seagulls. Again if you look at the sea, you find your focus on the boat and islet. In between, you catch a glimpse of people and this in itself is an inseparable sea landscape. Most of his work shows humidity, bleakness, darkness, coarseness and a sense of restlessness. The sense of sticky moisture, wave foams, and the salty scent of sea descends on the basic senses. Kim Young-soo records and captures his personal experiences with the sea. His body is integrated with the photo. He has traveled to various islets around Korea like Gosanja Kim Jung-ho. Through photography he records his life and the photos are exact recreations of the path his body has traveled. His journeys are his photographic journey and his experiences

위선의 탈 1
2009 digital print 46 x 69 cm



are his photographic experiences. Therefore, the viewpoints and frames are forever changing. His body has become the eyes, the feet, and the lens as he wanders from place to place. The more accurate description would be that he aimlessly views subjects and captures them on film. Things like specific viewpoints, prospects, and clear frames have become meaningless. He has simply experienced, met with, and photographed whole heartedly, body and mind.

Perhaps that's why his photography should be classified as 'photographical geography.' In photographical geography, his home - the sea and islet - is the focus of his personality and sentiment and his work hovers around this aspect. The farther he is from his focus, he experiences a sense of exclusion. Once one leaves the home, one becomes an eternal refugee. The sense of displacement is evident in Kim Young-soo's photographical geography. His nostalgia of hom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his reminiscence of his place of sojourn. It has more to do with the recurring desire towards seeking his roots.

The islet is floating somewhere alone. When travelling across the sea, islets appear like a dream and it shines as if it is salvation in the vastness of life. To the artist, the islet is the image of salvation in a life of loss and despair. The journey that links the islets have become his work. Islets are surrounded by a body of water, isolated from the mainland, and symbolizes desolation and confinement. It not only represents an isolation from the world but also disintegration, discontinuity, and decontextualisation. Islets floating on the sea are actually remaining land that wasn't engulfed under water. They are like the scars that couldn't be completely covered up by the sea. The islets are reminders of what the sea has erased in its passing. They are desperate reminders of what not to forget. They are the remains of what has yet to vanish. The islets stand against the desolate sea. People associate with the isolated islets floating on sea with their estranged existence and project internally. They become one with the islets. That's why islets are always associated with rhetorics like loneliness, solitude, and bleakness. The artist seeks out islets searching for himself, and his childhood memories. He is unable to stand in the center of his world and he seeks escape by traveling into the sea or the islets. The islets help him measure his emotions, and for a brief moment it teaches him to live and feel. The desire to avoid human contact, to enter into a mystical world alone, the desire to stay in the most desolate environment calls to him to seek out the islets and the sea. The photos he took of the sea and islets are records of sublime beauty and the wild nature of the sea and islets. The wildness, raw and untamed by human touch, life of raw nature is what he seeks for his scenery. The wildness is what calms him. The wildness is kept at bay and replaced in

the journey to seek out a new island and sea. The photographs quietly state as much. There is a sense of peace and rest in his images of the islets and sea. It's the brief moment of peace before seeking out another islet and sea. The photos dutifully capture such moments of his journey and it itself is meaningful. Perhaps it's his desire to travel to these places to seek out the nostalgic memories, his childhood, the lost dreams and regret. It is perhaps these same reasons that push him to wander. Life is the energy and wonderment gained from the places. People are defined by where they've lived and traveled. It is these places that define a person. Therefore, Kim Young-soo's existence and identity is deeply rooted with his landscape images, the places he continues to seek. The original photographs that been through traditional film printing methods and have been digitally scanned, magnified, and printed using inkjet printers. Therefore the tone and ambience of the photograph is like Korean ink painting. He records the sea and islets from his journey honestly and viewers can follow the energy of the process. All that can be seen from the broad expanse of water is the horizon, billow, sunlight at the upper tip of the billow, seagulls, and the occasional boat and islets.

KIM Young-soo displays his experiences with nature, in it's purest form, raw, with no artificial or human contamination. He returns with the wild nature, and journeys again to seek a more raw form. His path and discovery of land has become his work. Korea is surrounded by water on three sides and to the artist this is a huge solace. He isn't afraid to show his instinct to seek escape with the sea and islets. However the path along his journey is not always romantic, pleasant or blissful. There are ragged rocks that surge up from the thick damp fog and the islets that slowly reveals itself. There are fishermen and children living destitute and hard lives. There are abraded pebbles and sticky tidelands, black masses of noisy seagulls screeching and worn out people on a boat wandering from this islet to the next. They appear without warning and disappear into the melancholic sea, only to reveal itself unexpectedly like hidden land mines. Much like his journey, disparate aspects coexist in his photos to enhance tension. The image of the sea with its damp salty breeze blowing toward the island, the back alleys of the city, the nameless portraits of Korea, his close family and friends, and the grotesque and dark mask series are all linked to one another. Whereas he maintains a strong aesthetic stance, he reaches out to all things in the world. The photographs doesn't limit his work to just visual images, but has the power to reveal the darkness and scars hidden on the other side. In a matter of moments, the photographs have the power to reveal all the stories and soul that couldn't be told. Ultimately they are the dark scars.

김온

KIM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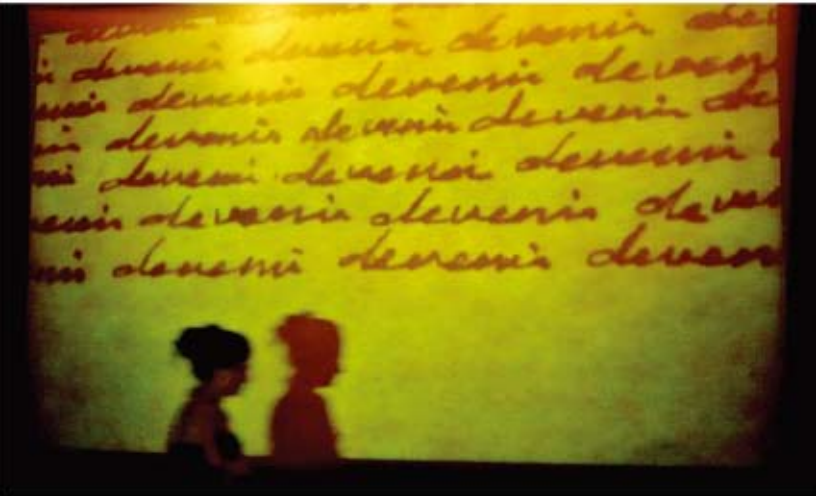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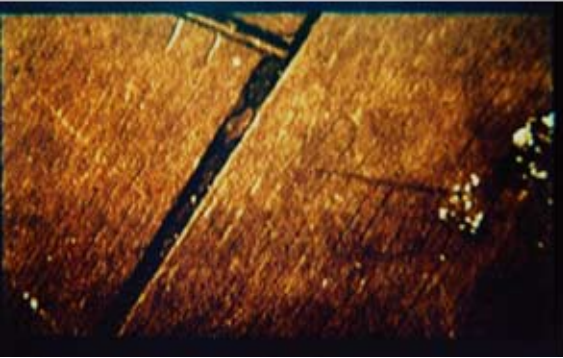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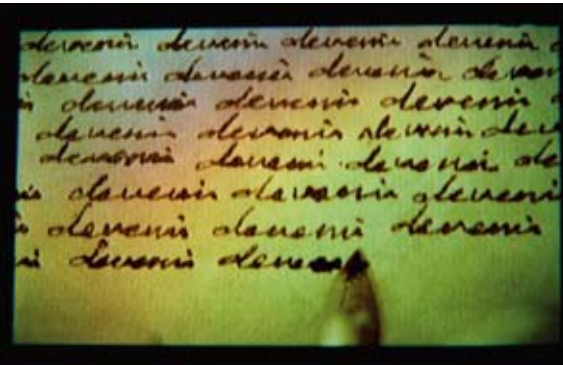
Costume Play
2009
Reading & Sound Performance
20min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책 “STARCK EXPLICATIONS”, 산울림 소극장.



과자의 문학적 혁명
2008
Sound Poetry & Sound Performance
5min
예술공간 헛



태우기 위한 책
Livre à fumer -devenir-
2002
Video Projection, sound
7m 47sec



듣기 쓰기 읽기

_ 읽은 텍스트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김온은 2009년 산울림 소극장에서 있었던 ‘Costume Play’ 라는 퍼포먼스 작품에서, 관객석에 앉아 볼어로 쓰여진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 (Philippe Starck)의 책 <STARCK EXPLICATIONS(Editions du Centre Pompidou, 2003)>를 20분간 읽는다. 관객은 볼어로 들려지는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음율만을 언어 혹은 사운드로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 뿐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Object-Book 즉 책을 만드는 학과를 전공으로 한 김온은 책이라는 형식, 사람과 텍스트 사이에 벌어지는 행위(읽기, 듣기, 쓰기)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에서 관계 짓는 사고들에 관한 작업을 한다. 김온은 기호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표의 기의를 분리 혹은 해체 함으로써 그 독립적 소통의 방식을 연구한다. 읽기, 쓰기, 듣기가 갖는 기표, 즉 기호의 지각과 전달이 가능한 물질적 부분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개념이라는 의미에서의 기의를, 분리될 수 없지만 합쳐질 수 없는 존재로, 즉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기 보다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연결된 존재로 실험한다.

보르헤스 보르헤스 보르헤스

김온의 작업은 대학시절 읽은 보르헤스의 글이 주는 색다른 체험에서 출발한다. 작가가 이야기하듯, 보르헤스의 글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을 끊는다’.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비선형적 구조와 그 가능성을 작가는 작업에서 기표를 변형시키고 기의를 해체하는, 또한 이러한 과정이 끝없이 연달아 이루어지는 반복성으로써 재현한다. 시리즈 “허구들”(2001-2006년)에서 임의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전동식 타자기에 옮겨 적는다. 이후, 텍스트가 새겨진 검은 마그네틱 테이프를 벽에 붙이며, 이러한 테이프는 마지막에 새의 날개모양을 이루는 작업을 하였다. 기표를 바꿈으로써 기의가 변형되는 방식으로, 텍스트가 형태를 변형하여, 텍스트의 내용이 담긴 마그네틱 테이프는 새의 날개 모양이 되며 새로운 의미전달 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텍스트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실험은 2002년의 ‘Livre parallélépipède ni ouvert ni fermé (닫혀있지도 열려있지 않는 육면체의 책)’의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작가는 보르헤스의 소설 “픽션들” 중에서 <바벨의 도서관>의 텍스트를 A4종이 단한 장에 전동타자기로 옮기며, 이때 겹쳐 쓰여진 글은 해독이 불가능하다.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관한 지속적 기표와 기의의 해체와 결합의 실험은 2009년 “그런 곳은 없다”에서도 존재한다. 작가는 ‘그는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불렀다. 그리스어로 그것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다.’로 시작되는 보르헤스의 책 ‘허구들’에 있는 글 “지친 자의 유토피아”를 읽는다. 작가가 읽는 하나의 목

양지윤

독립큐레이터, Lab201



닫혀있지도 열려있지도 않는 육면체의 책
Livre parallélépipède ni ouvert ni fermé
2002
전동타자기로 타이핑, A4, 텍스트
보르헤스, <픽션들> -바벨의 도서관-

소리로 시작하여 점차 왼쪽귀와 오른쪽귀에서 번갈아 반복적으로 두 겹 세 겹, 점차 겹침이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뱉으며, 글의 콘텍스트의 전달은 불가능해진다. 책의 본래적 기의는 겹쳐진 책읽는 소리 에 의해, 그 의미 전달의 1차적 기능은 철저히 소멸된다. 여기에 작가는 ‘지친 자의 유토피아’를 제목과 각주만을 남기고 지우는 보르헤스의 글의 시작성 또한 해체한다. 텍스트는 겹게 지워지고, 여백과 그 허구의 의미만이 남는다.

비생산적 창작

김온이 실험하는 기표와 기의의 해체와 결합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작품이 자본주의적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있는 행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비 생산적 행위로서 새로운 긴장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둔다. 사운드라는 매체가 가지는 비물질적 특성은 텍스트의 기표와 기의가 다시 연루되는 방식에서 주되게 드러난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간다 (2002)’ 어린이용 의자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16번의 과정을 담은 텍스트를 벽에 실크스크린한 작업이다. 관객은 낮은 의자에 앉아 작게 적혀진 텍스트를 읽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간다’에서 시작하여 ‘나는 무한한 시간 동안 변기에 앉아 있음을 꿈꾼다’, ‘벽에 걸려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건처럼.’까지의 글을 통해, 관객의 불편한 자세로 앉아 텍스트를 읽기 위해 집중하는 순간, 시간은 멈춰지며, 무한한 ‘시간’이 펼쳐진다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비생산성의 작업결과물은 메타내러티브가 전제하는 계몽주의적 주체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 메타내러티브란 역사적 경험이나 지식을 이해하는 ‘의미의 총체가 되는 이야기를 말한다. 리오타르가 이야기하듯, 메타내러티브는 권력의 구조를 생성하며 강화시키고, 인간의 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한다. 김온의 작업에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메타내러티브 퇴화된 순간들은 규범화되고, 설명적이던 내러티브 언어의 요소를 해체한다. 메타내러티브가 추구하는 뛰어난 목적의식이 사라지며, 영웅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위험 요소는 소멸한다. 김온의 작품은 역사적 발전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을 구체화한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다양한 비생산적 열정들을 밖으로 드러낸다.

‘과자의 문학적 혁명 (2008)’에서 작가는 약 5분간 과자 패키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일괄적 행렬방식으로 읽어가면서, 소비를 조장하는 현란한 패키지들의 크고 작은 활자들을 사운드로서 평등화시킨다. 한편의 소리 시(Sound poetry)이기도 한 작업에서, 읽는 행위라는 매개를 통해 자본주의의 소비물품의 문체가 갖는 소비주의적 가치의 해체를 실험한다.

‘Livre à fumer –devenir- (태우기 위한 책, 2004)’ 작업에서 김온은 devinir[~되

다, 생성]이라는 한 단어를 반복해서 날카로운 펜촉으로 얇은 종이 위에 쓴다. 관객은 쓰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글이 쓰여진 종이를 프로젝션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글이 다 쓰여지면, 이 종이를 말아 담배로 핀다. 이 순간 어떤이의 입에서 글자는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담배꽂초에는 “devenir”의 “de”가 사라진 채 venir[~오다,~이르다] 단어가 되며, 이는 마지막 불씨가 명을 다하고 재가 되어 사라진다.

창작의 공유

김온은 텍스트의 기표와 기의를 바꾸어 비생산적 창작을 하는 과정에 꾸준히 관객의 참여를 요구한다. 작가 자신이 이야기하듯, 작품 자체가 갖는 ‘자폐적 성향’은 때문에 반대로 그 소통을 다룬다. ‘215분 44초 간의 친밀한 시간, 여기 그리고 다른 곳에’라는 작업에서 작가는 “만약 당신이 소리 내어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면, 원하시는 책과 함께 녹음실로 초대합니다” 라는 초대장을 발부하여 광고를 한다. 2002년 11월 29일부터 2003년 5월 22일까지 행해진 이러한 “책 읽기”프로젝트. 초대를 통한, 그 참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작업으로 11개의 다른 언어, 34명이 참여한다. 책 선택과 읽는 시간은 참여자의 자유에 있었으며, 책 저자와 책제목은 읽지 않는 전제하에 녹음이 실행된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 다른 이야기, 다른 책 읽기 방법, 다른 억양, 다른 언어들을 통해 소리적인 공동“거주” (habitation)를 경험한다. 관객들은 불교의 경전에서 호머의 오디세이, 로미오와 줄리엣, 성경, 비어 사전, 챗팅 텍스트, 자기 고백 글 등을 다루는 215분 44초의 각기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명상한다.

‘힘에 개입된 소리 “ㄱ” (2007)’은 작가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한글의 자음, 모음의 시 청각적 구성법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다. 대구에 위치한 힘(HIM)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사사무소공간에서 진행된 본 작업에서, 관객은 ‘힘에 개입된 소리 “ㄱ”의 자음과 모음을A4 종이 위에 붓펜으로 각각 분리하여 쓴다. 건축사사무소 이름인 “힘”, 즉 권력 과 “him”의 동음이의어의 언어적 놀이발상에 근거하며, 기억과 ‘ㄱ’ 동음이의어의 방법적이면서도 유희적인 놀이를 ‘소리’라는 매체와 관객의 글 만들기 참여를 제시한다.

글을 뺏으며

김온은 책의 ‘쓰기’, ‘읽기’, ‘듣기’ 라는 행위와 이를 통한 기표와 기의의 해체-변형을 실험한다. 이는 특정한 공간에서의 일시적인 작업으로, 관객 참여를 근거로 혹은, 사운드와 퍼포먼스, 소리 시(Sound Poetry), 설치미술,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실현하며, 이를 통해 비생산적, 반 자본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하는 하나의 순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Hearing, Writing & Reading

_ Lost Text

“Writing leads to reading and reading encourages hearing.

Hearing triggers writing.”

-Quote from interview with Kim On

In “Costume Play” performed at Sanwoollim Theatre in 2009, Kim On takes a seat in the audience and begins to read out Starck Explications (Editions du Centre Pompidou, 2003) written in French by the designer Philippe Starck for 20 minutes. Unable to understand the text read in French, the audience only intuitively accepts the rhythm as either a language or a sound.

As a major in Object-Book (book crafting) at ENSAD Strasbourg, France, Kim On’s work is about a form that is a book, activities (reading, hearing, and writing) that take place between people and the text, and ideas that interact within and through such activities. She separates or deconstructs signifiers and signified, the elements of semiotics, and studies independent communication methodology of the two elements. Kim experiments with signifiers—that is, the materialistic element which enables signs to be perceived and delivered—in reading, writing, and hearing and signified, a concept that is intended to be expressed, as two inseparable yet uncombinable elements that are neither superior nor inferior over one another but are rather related, albeit with different functions.

Borges Borges Borges

Kim’s works originate from the unusual experience she had in college while reading the book of Jorge Luis Borges. Just as what Kim has said, Borges’ writings “distract and disconnect the reader’s thoughts.” Non-linear structure that continues to disconnect the story and the potential of such structure is reenacted by Kim who alters signifiers and deconstructs signified in an endless repetition. She selects an arbitrary text from Borges’ Collected Fictions and repetitively types the text with an electric typewriter. She then attaches to the wall the black magnetic tape on which the text is typed. In the end, the magnetic tapes on the wall form a shape of bird wings. With the alteration of the signifiers, the signified is also altered, the text changes its form, and the magnetic tape carrying the text takes on the shape of bird wings, creating a new meaning system. The experiment of altering text into a different substance is also found in “Livre Parallélépipède ni Ouvert ni Fermé (Hexahedral Book that is Neither Open nor Closed, 2002).” Kim types the text of The Library of Babel from

Yang Ji-yoon

Independent Curator, Lab201

Borges’ novel Collected Fictions on a single piece of A4 sized paper with an electric typewriter. As the text is typed over the other, the overlapped texts become incomprehensible.

“There Is No Such Place” in 2009 is Kim’s another experiment on continued de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signifiers and signified relating to the text of Borges. She reads out A Weary Man’s Utopia from Borges’ Collected Fictions that begins with “He called it “Utopia,” a Greek word which means “there is no such place.”” At first, the single voice of Kim is heard. The voice is then repetitively heard in each ear in turn and the voice increasingly overlaps in two, three and more layers. Gradually, the overlapping of the voice declines, returning to the single voice that ends the story. In the process, the context of the story becomes incomprehensible. The overlapping sound of the book reading make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original signified in the book, which is to deliver the meaning, completely non-existent. On top of that, Kim deconstructs the viscosity of Borges’ written work by erasing the text of A Weary Man’s Utopia, only leaving the title and the footnote. The text is erased in black and what remain are space and its fictitious meaning.

Non-productive Creation

Kim’s experiments in de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signifiers and signified are non-productive activities focused on creating new tension, not capitalistic use-value or exchange-value. The non-materialistic nature of sound as a medium is exhibited particularly when signifiers and signified in a text are reengaged.

“I Walk into the Restroom (2002)” is a piece which uses a children’s chair and a text, silk-screened on a wall that carries 16 processes of urinating in the restroom. The audience will sit in the small chair and try to read the small text. According to Kim, at the very moment that the audience sits in an uncomfortable position and concentrates on reading the text that begins with “I walk into the restroom,” and ends with “I dream of sitting on the toilet for an indefinite time,” and “Like the towel hanging on the wall that should never become dry,” the time stops and an indefinite “time” opens up.

The work of creating an incomprehensible text, which is a non-productive outcome, is based on the incredulity toward the subject of enlightenment

as assumed by metanarrative. Metanarrative is a totalizing schema which explains historical experience or knowledge. As Jean-François Lyotard has said, metanarratives are created and reinforced by power structures and ignore the variety of human existence. The moments of obsolescence of metanarratives that Kim persistently attempts to create in her work deconstruct the elements of normative and explanatory narrative language. The great goal, great hero, and great dangers sought by metanarratives are lost. Kim’s works embody unacceptable components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exudes various non-productive passion of human hidden within.

In “Literary Revolution of Biscuits (2008),” Kim reads out every single text on the biscuit package in a non-stop, line-by-line manner for about five minutes, using sound to equal out the letters in different sizes printed on the fancy package that promotes consumption. The performance, which is also a piece of sound poetry, is an experiment that deconstructs the consumeristic value of the text’s literary style on the consumer produce of capitalism through the act of reading.

“Livre à fumer –devenir- (A Book for Burning, 2004)” is a performance in which Kim repetitively writes down a word “devenir (meaning “to become”)” on a thin piece of paper using a sharp-nib pen. During that time, the image of the paper with the text written is projected to the audience. Once the writing is completed, the paper is rolled up and smoked as a cigarette. At that very moment, the letters of the word disappear with a smoke in a person’s mouth—“devenir” becomes the word “venir (meaning “to come”) without “de,” and then finally turns into ashes and disappears in the air when the paper is burnt out.

Sharing of 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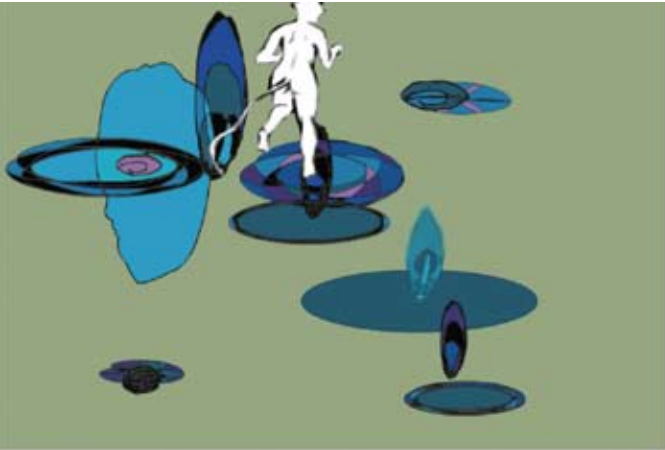
Kim demands continued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non-productive outcome through alteration of signifiers and signified of a text. As she has said, the “autistic nature” of her work, on the flip side, involves communication. For “215 Minutes and 44 Seconds of Intimate Hours, Here and Elsewhere,” Kim sends out an invitation to advertise her work with a message, “For those who enjoy “reading” out a book, I am pleased to invite you to visit the recording studio with a book of your preference.” In the “book reading” project, that began on November 29, 2002 and ended on May 22, 2003, 34 people using 11 different

language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her work. The participants are given the liberty to choose the book and read it out for as long as they wanted, and the recording takes place on condition that the author’s name and the book title are not read. Through difference voices, stories, reading styles, tones, and languages, the participants experience audio-cohabitation. The audience listens to each of the story ranging from the Buddhist Scripture, Homer’s Odyssey, Romeo and Juliet, the Bible, to slang dictionary, chatting text and self-confession for 215 minutes and 44 seconds.

“ㄱ (Gi-yeok)’ Sound Intervened in Him (2007)” is the work that began when Kim returned to Korea after studying abroad and took interest in audio-visual composi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of the Korean alphabet Hangul. In an architect’s office named “HIM”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e audience writes down the consonants and vowels of “ㄱ (Gi-yeok)” Sound Intervened in Him” separately using a calligraphy pen on a piece of A4 sized paper. The work is based on a language game using homonyms—the word “power” is pronounced “him” in Korean, which is also the name of the architect’s office. Memory (“gi-yeok” in Korean) and “ㄱ (consonant of Hangul pronounced “gi-yeok”)” are also a homonym. With such methodological yet entertaining language game, Kim engages the medium “sound” and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into the text creation.

Prologue

Kim On is an artist that experiments with “writing,” “reading” and “hearing” of a book, through which signifiers and signified are deconstructed and altered. The experiments are temporary works that take place in a specific space and are materialized with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or a variety of media encompassing sound, performance, sound poetry, installation art, and video in order to create a moment of sharing non-productive and non-capitalistic values.



A Certain Fear "Run"

2007

animation still

The Cabbage Head "Transform"

2007

animation still

김혜란의 애니메이션

불완전한 인간의 표상

이안
미술평론가



Ambiguous_form 1,2
2009
digital print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 기저에는 불안, 공포, 두려움과 같은 인간 의식의 다양한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물로서 생명을 부여받은 순간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명 과도 같은 것이 된다. 어미의 자궁 속에 생명체로, 창조물로 안착하는 순간 이 불완전한 세상과 대면할 준비를 하게 된다. 곧 최초의 고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불안과 고통의 순간, 바로 출산의 순간이다. 엄마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자궁과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기 위해 아기 또한 고통을 경험한다. 아기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곡선형의 미로를 빠져나오려 있는 힘을 아끼지 않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아기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선경험하는 긍정적 과정이기에 많은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택하곤 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일 게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던 이 세상은 끝없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제시하며 인간의 의지를 시험한다. 어느 날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다수의 사람들은 신이나 종교에 의지하거나 혹은 신을 부정하며 자신에게 더욱 의지하며 자신만의 결정을 밀고 나가기도 한다. 이것 또한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인간은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불완전한 존재임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많은 작가들이 작가로서 혹은 작품이라 내걸을만한 첫 시도를 할 때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을 재현하는데 충실한 사례들이 많다. 김혜란이 90년대 후반 당시에는 흔치않은 애니메이션작업을 시도하면서 제작한 첫 작품은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 내재된 애니메이션이었다. 대개는 알 수 없는 초현실적 분위기의 캐릭터와 생명체를 창조해내는 그 기저에는 인간으로서 작가의 내적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본다. 그녀의 대표작들을 보면, 편안함보다는 불편함 혹은 불안함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그 불안감 혹은 불편함은 솔직한 감정의 재현이기에 긍정적이다. 김혜란은 애니메이션영상작업을 하는 작가다. 김혜란의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위한 지형도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90년대 후반 현대미술계의 애니메이션 문화지형도를 만나야할 것이다.

90년대 후반, 국내 상황을 점검해보자. 97년 김대중정권의 일본대중 문화 개방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아니메anime)의 공개적 수입은 음성적으로 자라던 아니메에 대한 문화적 수용과 경험을 미술계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 및 전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생소했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증가도 한몫 했는데 이는 여러 괴물들 그러나 귀여운 괴물들이 등장하는 포켓몬과 같은 ‘문화산업’이라 일컫는 현재의 ‘문화 콘텐츠’ 혹은 ‘킬러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국내 상업 애니메이션시장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세계미술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지

금은 세계적 작가로 등극한 무라카미 타카시, 모리 마리코가 미국 서부지역에서 일본애니메이션을 차용한 작업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이 두 남녀작가는 일본 팝아트의 전사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른다.

2000년 일본 전통문화와 아니메를 절합한 무라카미 타카시의 ‘슈퍼플랫’ 전시는 전 세계 순회전을 갖으며 이후 세계 미술계에 네오파 열풍을 일으킨다. 특히 개인주의적 경향의 일본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본팝은 미술계의 공인을 받기에 이른다. 워낙에 아니메 오타쿠였던 무라카미는 자신의 실현될 수 없는 애니메이터로서의 꿈을 미술에서 실천한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 그는 루이 비통가방의 디자인으로 세계적 이목을 끌더니, 이내 극장용 3D 장편애니메이션을 내놓으며 화려한 개인전으로 LA미술계로 귀환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 경제논리가 개입되면서 졸업도 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 아니 ‘선점’이라는 경제적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어찌됐든 숨은 보석을 찾아내어 이들을 미래 문화콘텐츠로 키워보겠다는 각오는 상업갤러리들의 해외진출의 수요를 부채질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양적 증가 속에서 질적 증가세도 눈에 뜨게 두드러졌다. 2000년대 이후 영상문화세대들이라는 모토아래 디지털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영상제작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었다. 정지된 이미지에 움직임을 부여하여 생명을 창조해낸다는 애니메이션의 기본 이념은 디지털의 힘을 빌어 덜 수고스러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과정을 모두 종이 위에 그려내야 하던 수고스러움 탓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접근이 용이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국내 상업애니메이션의 발전은 말처럼 효자 노릇하는 문화콘텐츠 되기에 부족했다. 이 틈새시장에, 블루 오션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은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이 확보된 상태였고, 새로움을 전달하기위해 대중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다. 애니메이션을 미술적으로 재현해내려는 노력들이 국내외에서 시도되었고 뉴미디어로서 새로운 형식 실험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갤러리, 미술관을 넘어, 영화제에서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 김혜란 작가를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업의 목표는 관념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감각적 경험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들의 행동이 나의 의식세계와 만날 때 독특한 생명체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앞서 밝힌 바,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작업 중 유사-인간 형상으로 변해가는 고양이 등장하는 1998년작 A Certain Fear는 어느 날 소파에서 TV를 보던 중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공허한 듯 보이는 시선과 마주치며 자신의 불안과 공포심을 환기시킨데서 비롯한 작품이다. 이를 시작으로 Big Heads and Stalking Birds(2006), Cabbage Heads(2007) 같은 대표작을 만들었고 2009년 이들 세 작품을 하나로 재편집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Cycling을 제작한다. 2000년 네덜란드에서 컴퓨터애니메이션을 전공한 후 2006년 한 번의 개인전과 다양한 기획전에 참여해왔고 웹디자이너, 프로듀서, 기획자로

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그녀는 거의 10여년의 세월동안 애니메이션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온 작가지만 그간 전시의 형식보다는 오디오비주얼퍼포먼스에 자주 참여해온 탓인가 미술계에서 그녀의 작업은 아직 익숙지 않다. 2000년대 초반 그녀의 전시이력은 전무하지만, 2006년 이후 최근 다양한 기획전에 참여해오고 있다. 2006년 SK T 타워 코모como에서 Big Heads and Stalking Bird를 상영하기도 했고 전자음악에 관심을 두고 같은 해 미국 버클리대학 일렉트로닉뮤직 비디오 퍼포먼스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신의 내면적 의식과 혹은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아이디어를 채집하는 그녀는 비선형적 구조로 하나의 세포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며 걸어가는 Big Heads and Stalking Birds(2006)의 제작배경을 설명하며 어느 날 악이 자라는 꿈을 꾸었는데, 머리통만 계속 커져가며 강인해지는 악의 존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작품 속에서 이 악의 존재는 반복 변형의 과정을 거쳐 무한증식한다. 2008년작 Cycling에서도 쭈굴쭈굴한 뇌형상의 세포가 등장하고, 유사-인간 인형의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축소, 확대되는 변형과정을 거치며 증식 반복한다.

이처럼 그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알 수 없는 생명체, 악의 존재건, 동물이건 간에, 이들은 작품 속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 파편, 해체, 공포, 긴장감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의 드로잉작품의 이미지들도 해체, 반복을 통해 불안적 요소를 발산한다. 작가 내면세계의 불안한 존재들의 표상은 계속 증식되거나 변형을 이루며 반복 교차한다. 인간의 감정은 너무도 나약해서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반복하고, 악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의 꼬리를 물고 내면세계를 괴롭히기도 하며, 자신이 완전한 존재인 줄 착각하며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기도 한다. 불안한 심리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의 솔직함에 긍정성을 부여하지만, 무심히 걸어가는 사람, 생명체, 캐릭터들의 표정은 무심할 뿐이다. 이를 보는 관람자 또한 무심함을 느낀다면 제작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것일까? 얼핏 그녀의 작업 방식은 1920년대 아방가르드 추상 애니메이션처럼 비논리적, 비선형적 이야기들로 보이는 외형의 틀은 갖춘 듯 하지만, 규칙의 새로움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의 힘은, 도상에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그 스토리가 선형적이든 비선형적이든 간에.

그래서 나는 김혜란을 신진작가라 부르고 싶다. 그녀는 지난 시간 무던히도 작가에게 꼭 필요한 실험의 세월을 지나온 것이 아닐까. 악몽에서 깨어날 때, 생 각해보면 꿈이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공포스럽지만, 비선형적이기에 현실에서는 안도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앞으로 여성성을 주제로 한 작업을 구상중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새로운 작업을 기대한다.

디지털이라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시대 ‘생명을 부여한다(animate)’는 어원을 지닌 애니메이션을 뉴미디어로 차용하는 그대여, 배추머리라는 말처럼 웬지, 약간의 웃음 혹은 유머가 가미된 애니메이션신작을 기다려봅시다. 불완전한 세상의 인간이기에, 역설적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한편의 애니메이션이 기다려집니다. 즐거운 순간을 상상하며... 나만의 생각일까요.

Animation of Kim Hye-ran: Representation of the imperfect human

Lee An
Art Critic

All humans are imperfect beings. At the foundation of such human imperfection lie various emotions of the human consciousness such as insecurity, fear, and horror. The moment humans are given life as living beings on this earth, imperfection becomes part of their fate, something that cannot be controlled by their own will. The moment humans safely snuggle into the wombs of their mothers as a living being, as a creation, they begin to prepare for their rendezvous with the imperfect world. In other words, they prepare themselves for their first encounter with pain. What humans initially face when coming into this world is the moment of insecurity and pain; the moment of birth. Of course, there is no need to mention that the mother is feeling apprehension on her part, but the fetus also undergoes pain as it tries to escape the narrow passageway connected to the womb. The face of the fetus becomes contorted as it puts all of its strength into wriggling out of the curved maze. This process is perceived in a positive light, however, in the sense that it enables babies to undergo an early first-hand experience of what will be in store for them throughout their life. That is why many expecting mothers prefer giving natural, vaginal birth. This perhaps is the natural order. However, the world that seems to carry on in a manner that cannot be uninfluenced by the will of mankind begins to test the human will by presenting numerous moments that call for decisions and choices. When realizing their imperfection, many people resort to religion or god, while others end up more heavily relying on their own self, resolutely pushing forth their decisions. Whatever they choose to do, their choice is a result of their own will and humans will indeed encounter numerous moments of choices and decisions throughout their lifetime, making them realize what an imperfect being they are.

Many artists faithfully relive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s or emotions in their first work of art or their first attempts as an artist. The first work by Kim Hye-ran in the late 1990s, when not many animation artists had come into the art scene, was an animation that expressed emotions of insecurity and fear. Amid the surreal ambience of, and dreamlike characters in, the artist's work, we can find the emotions of insecurity deep within the artist. When viewing her representative works, one feels a sense of unease and discomfort rather than tranquility and ease. However, such unease or discomfort can be viewed positively as they are representation of the artist's candid emotions. Kim Hye-ran is an artist of animation videos. If one is in need of a reference guide to understand the animation of Kim Hye-ran, one should look into the cultural references of animation representing modern art in the late 1990s. Let's first take a look at the domestic art scene at the end of 1990s. After the opening of doors to Japanese popular culture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1997, open and legal import of Japanese animation (anime) began. This triggered a movement to culturally embrace and experience anime which had been illicitly spreading in Korea. Artists working on, and exhibitions held for, animations increased. Of course, the public's growing interest in animation, a rather nominal art form, played a role in this new trend. Such increasing attention stemmed from the expansion of Korea's commercial animation market based on the worldwide success of what we currently call "cultural contents" or "killer contents": the so-called "cultural industry" composed of the likes of Pokemon which features a wide range of amicable creatures that are in fact monsters.

In that same era, in other words in the late 1990s, the global art scene experiences much change. Takashi Murakami and Mariko Mori, who are currently artists of critical acclaim world-wide, started to gain popularity in the West Coast of the US with their art work incorporating Japanese anime, and soon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evangelists of Japanese pop art. Takashi Murakami's year 2000 "Superflat" exhibition, which combined the traditional culture of Japan with anime, was showcased worldwide, throwing the global art scene into frenzy for neo pop art. In particular, Japanese pop art, centered around the young artists of Japan with rather individualist characteristics, received official recognition from the art world. Murakami, a well known anime "otaku," had confessed that he tries to realize his dream of becoming an animator through his art work. After garnering worldwide attention with his designs for Louis Vuitton bags, he released a 3D animation for theater showings, and with an exuberant personal exhibition, returned back into the LA art scene.

Since 2000, economics have penetrated into the Korean art market, resulting in increasing attempts to discover – or perhaps the more appropriate expression would be to secure an early mover advantage over – young artists who have not yet graduated from art school. Zealous drive and determination to find hidden jewels and foster them into cultural contents of the future drove commercial galleries to carry on their search overseas. With the growing quantity of overseas hunts,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quality of the works as well. Since 2000, buoy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t has become easier for young artists known as the so-called "video culture generation" to create video art. The act of creating life by giving movement to static images, which is the basic ideology of animation, is evolving, becoming less laborious to perform. It is true that animation was a genre rather difficult to dive into as an artist because of the toilsome efforts one had to make. For example, the entire process of a single finger movement had to be drawn on a piece of paper. That is why the advancement of domestic commercial animation was not enough

to transform the animation genre into cultural contents comparable to a gold-laying goose. However, there was a blue ocean in this niche market. Animation already had a massive following worldwide and thus, there was no need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is new genre. Attempts to transform animation into an art form were carried out within and outside of Korea, as an experiment of new media. Such works of animation could be found in galleries and art museums, and even film festivals. This is where we can find Kim Hye-ran today.

"I want to express the ideas with the characters and motions of animation in my work. Sometimes I create unique features of living creatures especially when the movements of animals which show instinctive and nimble reactions based on their sensitive experiences mingled into my world of consciousness."

As mentioned earlier, Kim's work of art features and creates various types of living creatures and one of them is captured in [A Certain Fear] featuring a cat transforming into a quasi-human being. The work was initiated by the feeling of insecurity and fear the artist experienced when she realized a cat seemed like gazing at her, looking into the eyes while watching TV on a sofa. Starting from the work, Kim created the masterpieces such as [Big Heads and Stalking Birds (2006)] and [Cabbage Heads (2007)] and these three works were re-edited into one piece in 2009. [Cycling] was created in 2008. After studying computer animation in the Netherlands 2000, Kim held one private art exhibition and has been participating in various exhibitions. She also has been working as web designer, producer and project planner. Although she has been working on animation for almost 10 years, her work of art has yet to be widely appreciated in the community of art. It may be because she has been more active in participating in audio visual performances rather than holding general exhibitions. There was no record of art exhibitions in the early 2000's but the case is different since 2006. She has been joining various art exhibitions until recently. In 2006 [Big Heads and Stalking Birds] was aired SK T Tower Como and being encouraged by her personal interest into electronic music, she also participated in the electronic music video performance held a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the same year.

As an artist, she collects ideas from consciousness from the deep inside of herself or the surroundings around. While explaining how she came to create [Big heads and Stalking Birds (2006)] where a living creature, that looks like one huge cell in the nonlinear shape, is walking with the face in full pains, the artist said one night in her dream she saw the vice was growing out and she walked along with it talking and watching the head of the vice only

bloating out to get more and more strengthened. In the work, the existence of vice is multiplied, going through endless process of transformation. The image of brain with convolutions of creases is also featured in [Cycling (2008)]. The image of creased brain cell is captured and a child in the shape of quasi-human beings is transforming itself, repeating the process of multiplication, being inflated and deflated.

The creatures, that the artist is interested in, whether it being vicious creatures or animals, are recreated in her work of art to remind the audience of the feelings of insecurity, dismantlement, fragment, fear and tension. Her drawings also radiate the feelings of insecurity by repeating certain images or taking them into pieces. The image of insecurity drawn from the inner world of the artist keeps multiplying or transforming itself to cross over with each other. Human beings are so sensitively vulnerable to have no choice but to keep felling good or bad. The vicious thoughts create vicious circle to keep haunting the people in their consciousness and sometimes encourage them to express political ambition falling into the illusion that they are perfect.

It seems like a positive approach to candidly and openly show the insecure world of consciousness of human beings but the face of passers-by, living creatures and other characters in her work of art all seem so detached. If the audience feels the same feelings looking at them, would it be enough to share the desire and understand objectives of the work? On the surface, it seems her works are in the same framework of the avant-garde abstract animation in the 1920's that featured illogical and nonlinear stories and images but they need the new touch of rules. The strength of animation lies in whether it can deliver the story along with the image no matter what the story is linear or not.

That is why I call Kim Hye-ran as a 'novice artist.' She may have been going through the experimental periods that are essential to being matured as an artist. When we wake up from bad dream, we sometimes open our eyes in fear as the dream feel so realistic but soon regain the sense of comfort in the real world as the dream is so nonlinear. I expect a lot from the artist's future works of art as I heard that she is planning to work on the subject of feminine.

The word of animation was originated from 'animate' meaning 'giving birth.' The artist utilize animation as a new media, being given new birth in the digital era and we all expect with full of hope and joy to see new animation work of the artist flavored with a little bit of humor and smile as the title 'Cabbage Heads' signifies. Living as imperfect human beings in the imperfect world, we ironically feel a scene of comfort to wait for the next animation. Image the joyful moment to encounter with the work... I may not be alone in this happy thinking.



이덕화
2009
oil on canvas
116.7 x 91 cm



이덕화
2009
oil on canvas
116.7 x 91 cm

미디어 정치학 비판으로서의 남대웅 회화

김준기

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우리는 자유공원 자락을 에둘러 함께 걸었다. 자장면 거리를 지나 자유공원 꼭대기의 맥아더 동상 앞까지,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들을 돌아보며 한국 근현대사가 만들어낸 역사의 그림자를 이야기했다. 그는 부친의 영향으로 역사에 관해 상당한 조예와 관심을 가진 작가이다. 그에게 있어 역사는 먼 과거의 낯선 서사가 아니라, 동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신의 기억 속의 서사들이다. 그는 가까운 과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아키비스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대웅의 회화적 탐구는 사진과 영상이라는 대중 친화적인 미디어가 동시대의 시공간을 직조하는 방식에 관한 비판적 성찰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현실권력 비판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방식의 미디어권력 비판이든 간에 남대웅의 작업이 현대 사회에 있어 이미지의 생성과 작동에 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점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남대웅의 근작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만나는 주인공을 그린 그림이다. <영웅시대>의 독고영재, <5공화국>의 이덕화, <3공화국>과 <그때 그 사람>의 백운식. 이들은 각각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김대중과 김재규 역을 맡았던 주연 배우들이다. 그는 배우를 그렸다. 동시에 그는 대통령을 그렸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배우를 그림으로써 대통령을 그렸다. 그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대통령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독고영재나 이덕화 백운식 등은 대통령이 아니고 배우이다. 그러나 미디어는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스틸 컷 속에 고정된 이들 배우 이미지는 고유의 복장과 표정 등으로 인해 대통령 이미지를 획득한다. 따라서 그는 대통령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그린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배우/대통령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미디어가 조작한 대통령 이미지를 그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여기서 실재와 가상의 관계가 심각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가 매우 강렬하게 실재의 상황 속에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텔레비전이 만든 대통령 이미지가 실재의 이미지만큼이나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그것이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가상으로부터 실재의 이미지를 발견하곤 한다. 엄밀하게 말해 남대웅은 이미지의 효과보다는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유명인에 관한 이미지는 대중매체에 의해 생성하고 진화한다. 본질적인 맥락에서 남대웅은 매스 미디어가 유포하는 이데올로기 작용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백운식
2009
oil on canvas
116.7 x 91 cm



남대웅이 포착하고 있는 배우/대통령 이미지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이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번 생에서 단 한 번도 박정희나 전두환, 김대중을 만나보지 못했으면서도 그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은 사실은 매스 미디어가 유포한 지식과 정보들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박정희 이미지나 전두환, 김대중에 대해 각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재에 대한 이미지이다. 매스 매디어는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왜곡하고 증폭한다. 가령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박정희 이미지를 가진 독고영재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즉 메타이미지이다. 박정희 이미지를 연출하는 독고영재는 박정희를 대리표상한다. 이것이 첨단의 문명사회가 반복/확대 재생산하는 이미지의 정치학이다.

그는 이전부터 해외의 영화 배우들을 그려왔다. 최근에 그린 한국의 배우/대통령 이미지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그가 그린 대통령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정치권력 비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이번에 대통령 이미지를 그린 것은 대통령이라는 실재에 대한 비판이거나 또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의 비판적 성찰은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매스 미디어라는 미디어 권력에 관한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대중을 직조한다. 그것은 무작위의 사람들을 대중(the mass)으로 호명하여 동일한 코드의 상상을 직조한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만들어낸 배우/대통령 이미지를 회화라는 물질구조로 변환한 남대웅의 작업은 매스 미디어의 일방적인 호명아래 놓인 대중의 고정관념을 허무는 비판적 성찰로 성립한다. 그의 작업실에는 캔버스 페인팅 이외에도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여러 장의 드로잉이 있다. 그것은 캔버스 페인팅을 위한 에스키스였다. 그는 이 에스키스들 속에 한 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사진들을 옮겨 그려놓았다. 그림 속 주인공은 김옥숙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태우 전 대통령 영부인 김옥숙 여사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외교화보 속에서 영부인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한 여성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 옆에 존재하는 영부인의 의례적인 포즈와 표정, 그러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려는 강박. 이러한 복잡다단한 정황 속에 담겨진 심리를 읽어내려는 남대웅의 모색이 여러 장의 에스키스들 속에 담겨있다.

노태우와 김옥숙이라는 두 개인의 관계 속에는 단순한 부부의 관계를 넘어선 권력관계가 담겨있다. 남대웅의 시선은 그 개인 너머의 권력관계에 포커스를 맞춘다. 또한 그가 이 연작에서 발견하려는 것은 의례의 준칙이다. 그 엄격한 의례 속에 포함된 한 여성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스템이 개인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들춰내기도 한다. 남대웅은 영부인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고 분석한 회화작업을 통해서 모종의 상황성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 영부인이라는 사회적 존재를 어떻게 촬영, 편집하고 있는지를 남대웅은 치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평면회화로 옮겨놓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미디어의 일방적인 스토리텔링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그것을 되새겨 보도록 만든다.

그의 회화는 미디어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기능한다. 비판의 근저에는 기계장치와 인간신체 사이의 간극이 있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 이미지처럼 회화 이미지도 또한 조작과 왜곡, 변형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회화술이나 사진술 양자 모두 시각이미지의 일루전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대웅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사진/영상 미디어와 회화라는 미디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헤아리는 일이다. 그는 스틸컷의 떨림을 포착하기 위해서 캔버스에 영상을 투사한 후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동영상 정치화면의 흐릿한 떨림 현상을 매우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영상 스틸 컷을 그림으로 옮겨 그리는 남대웅의 작업은 매스 미디어의 유동성과 순간성을 고정불변의 물질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회화는 사진과 다르며 특히 영상과도 다르다. 회화는 사진의 재현에 비해 훨씬 차갑게 관객과 예술의 거리를 확인시키는 미디어이다. 또한 회화는 영상이 유포하는 시간성의 왜곡이나 변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다. 따라서 사진과 영상을 회화 작업으로 번안하는 남대웅에게 있어 회화는 매스 미디어의 작동 방식에 관한 비판을 매개하는 방법론이다. 결국 남대웅은 기계장치가 재현하는 실재의 그림자를 인간신체의 수행성이 담긴 회화 작업으로 옮겨 그림으로써 기계미학이 작동하는 매스 미디어로의 일방성으로부터 우리의 사유와 감성을 분리해내는 소격효과를 얻어낸다. 따라서 사진/영상 미디어가 생성한 이미지를 회화라는 물질구조로 전환한 그의 회화 작품은 매스 미디어의 안정적이고 강력한 이미지 작용을 비판적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성찰하게 하는 장치이다.

Nam Daewoong's paintings as tools for criticizing the media politics

Nam Daewoong and I took a walk around the Jayu Park. We talked about the shadow that Korea's modern history has left while we passed by the Jajang Noodle street, MacArthur's statue, and several buildings. Nam has considerable expertise and interest in history, which seems to be the influence of his father. For Nam, history is not just the description of a far-away and unfamiliar past, but the description that shapes our contemporary world. He is capable of looking into the recent past, the skill that belongs to archivists. In this sense, Nam's exploration for paintings is the reflection on the way that pictures and videos, the two major elements of the mass media, create the time and space of the modern world. Regardless of whether his reflection is a direct criticism of the power, or an indirect criticism of the media power, Nam's artwork clearly shows the mechanism of how the images are created and their functions in the modern society.

Nam's recent artworks portrayed the main actors of TV dramas, including Dokgo Youngjae of the "Heroic Age," Lee Dukhwa of the "Fifth Republic," and Baek Yoonshik of the "Man of the Past." These actors played the role of Korea's former presidents, including Park Junghee, Jeon Doohwan, Kim Daejoong, and Kim Jaegyu. By drawing on these actors, he also drew on presidents. The attire and facial expressions they wear in the drama give them the images of presidents. In this regard,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say that Nam drew the images of former Presidents, which were created by the media.

As such, the reality and imagination is linked closely to each other. This is mainly because the artificial image that the drama created has deep involvement in the real world. Under the circumstance, we cannot help but be remind of the fact that the artificial images of presidents created by the TV, works as effectively as real images. Although we all know that it is a fake, we find reality in that fake image. Strictly speaking, Nam is more interested in how image functions than their effectiveness. The images that people have for celebrities are created and evolved by the mass media. Nam looks into how the ideology distributed by the mass media works in this context.

Kim Jun-gi

Art critic, Cura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독고영재
2009
oil on canvas
116.7 x 91 cm



The images of actors or presidents that Nam drew, is images of images. Most people know many things about their president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ve not met them in real life. Almost all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we have regarding them comes from the mass media. Each of us has our own image for Korea's former presidents. This image is based on reality, which is then distorted and sometimes amplified by the mass media. For example, the main actor of the TV drama, the "Heroic Age" was Dokgo Youngjae, who was regarded to have the image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Junghee, when he played the former President Park's role. In this case, the image that Dokgo Youngjae embodies is the Meta-image, or the image for the images. Actor Dokgo represents the former President Park by manifesting the images of the late former President. This is the image politics that the modern society continues to amplify and reproduce.

Nam has drawn many foreign movie stars. The images that he drew recently are along the same line. However, what we should note is that his paintings of former Korean presidents are not for the criticism of the power of presidents, or the political power. His criticism is aimed at the power of the media, particularly the mass media. The mass media manipulates people and stereotype them by treating them as "the mass." Along this line, Nam's work of turning the images of actors or former presidents created by the mass media into paintings, can be seen as a critical achievement that can change people's way of thinking, which has been affected unilaterally by the mass media.

In Nam's workroom, there are several pieces of drawings sketched by crayon as well as canvas paintings. These drawings are the esquisse for canvas painting. Nam duplicated the photos that portray a woman at various angles. This woman is Kim Oksook, a former First Lady and the wife of the former President Roh Taewoo. Nam found the photos of the First Lady Kim in former Presidnet Roh's official album. He began to pay special attention to Kim's position as a former First Lady, Nam portrayed Kim's stereotyped poses and facial expressions in formal occasions, and her obsession to be seen as elegant as she stood next to the absolute power of the presidency in an attempt to understand her psychological thoughts through number of different esqui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er President Roh Taewoo and Kim Oksook is more than just a couple. It was based on the dynamics of power. Nam focused on that dynamics, and also the rules of courtesy. He sometimes finds out how a system organizes an individual, by looking at what stance

a woman who should have followed the strict courtesy takes. Nam does a thorough analysis on what messages she tries to deliver by examining her different poses. Through this process, he expands the horizon for interpreting certain situations. Nam observes carefully how the photos of the first lady is taken and how these photos are edited, and turns it into paintings. Nam's work helps people keep distance from unilateral storytelling and relish his artwork.

His paintings serve as a tool to criticize the ideology of the media. The criticism is based on the gap between the machine and the human body. Of course, paintings have the possibility for manipulation, distortion and transformation, just as much as pictures or video images. Also, in some ways, both paintings and photographs have similar mechanism of operation in that they can both manipulate visual images. However, the starting point for appreciating Nam's artwork is to understand how the photographic/visual artwork and paintings are similar and also different. He projects an image onto canvas to capture the vibration of still cuts. As a result, his paintings manifest even the subtle vibration. Nam's work of replicating still cuts on paintings is the process of turning the mobility and simultaneousness, into constancy.

Painting is of course different from photography and especially different from video. Compared to photography, painting reminds us more objectively of the distance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rt. When compared to video, painting is less distortive in terms of the time. As such, for Nam Daewoong, an artist that turns pictures and videos into paintings, painting is the tool to criticize the mechanisms of the mass media. In this context, pictures and videos represent the shadow that machines leave, and paintings symbolizes the human body. Through this method, he prevents people from being affected by the unilateralism of the mass media. Thus, Nam's paintings serve as tools to encourage people to be more critical in appreciating the image functions of the mass media, which can be excessively powerful and strong, if left unchecked.

나의 작업의 주제는 도시이다. 도시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자유의 공간을 주면서 동시에 과거의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담고 있다. 도시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예술적 감흥과 위안을 찾아내려는 시도에서 나의 기억에 의존해 묘사하고 있다. 현재의 작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과 같은 개항기 역사를 갖고 있는 홍콩, 요코하마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며 아름다울 수 있는 요소들을 관객과 공감하고자 한다. 인천은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와 60, 70년대의 격동기를 비롯하여 많은 역사적 격변기를 견디어 내고 여지껏 담아온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시간이 이제는 생활의 시간과 궤적을 같이하며 인천은 오래됐지만 지리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시기에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지배면서 동양과 서양의 양면을 교묘히 비추고 있는 홍콩항과 외국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세기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일본의 개항문이 되었던 요코하마는 역사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모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라는 것이 사뭇 흥미롭다.

인천, 홍콩, 요코하마의 야경이 하나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연결되면서 각 도시의 특성이 부각되는 야경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도시의 미묘한 인공의 빛이 주는 각 도시의 정서를 회화의 스펙타클(spectacle) 한 재현을 통해 이루려 하였다. 인천의 야경을 정감있고 따뜻한 모습으로 담아내면서 인천의 항구적 특성과 역사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 홍콩항의 모습을 거리의 산보자가 되어 정감있게 바라보는 풍경들을 그려보려 하였다.

특히 그림의 주모티브가 되는 야경의 인공의 빛은 대낮과는 달리 그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빛이라는 조형적 요소로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낮의 보편적인 빛보다 더욱 도시의 숨은 곳을 보여주고 문화적 독창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나의 작업의 소재이자 주제로,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인 인천의 밤, 조용하고 단정한 일본의 요코하마 그리고 이국적이면서도 전통의 빛을 담아내는 홍콩항의 밤풍경은 한낮의 훌륭한 그 어떤 풍경에 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그 도시의 색을 정확히 보여준다. 공통항이 되면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세 도시의 밤풍경은 보는 이들에게는 야경의 아름다움을, 작가에게는 세팅된 정물처럼 빛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플라스틱 씨트지를 캔버스에 붙이고 칼로 형태를 따 오려내는 방식이다.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씨트지가 오려지고 붙어있던 작은 조각들이 부조의 평면처럼 굴곡과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더 주목하고 싶었다.

녹색밤
아크릴과 시트지 컷팅
91 x 72.7 cm
2009



도시의 산보자

- 박상희 야경 산책

오직 보름달과 올빼미 때와 우리처럼, 미친 존재들만이 부산스럽다.

과거 인류의 밤은 찰스 올슨(Charles Olson 1910~1970)이 시에서 노래한 것처럼 인간이 아닌 자연의 밤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두렵기도 한 자연의 밤에 불을 밝힌 것은 전구라는 이름의 문명입니다. 24시간 내내 잠들지 않는 낮보다 환한 도시의 밤이 시작된 것이지요. 상점의 네온사인인 현란한 불빛으로 쉴 새 없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켜 자동차가 밤늦도록 속도를 늦출 줄 모릅니다. 도시에 촘촘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고층 빌딩에 꺼지지 않는 형광등들이 문제없는 삶의 증표처럼 여겨 집니다.

인공의 빛 덕분에 도시는 덤으로 밤의 경치를 얻었습니다. 관광 업자에 담겨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령처럼 떠다니는 황홀한 야경에는 백만 불이라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검은 벨벳 천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흩어 놓은 것 같은 명품 조망권이 도시인들의 욕망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기막힌 야경을 보기 위해 끝없이 올라야 합니다. 남다른 조망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식을 넘어서 비용도 치려야 하지요. 별빛을 끄고 불빛을 켜 문명이 결합된 도시의 밤 풍경에서 우리는 높고 뚱뚱해져만 가는 욕망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도시는 어떤 이들에게는 눈요깃거리의 관광지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투자의 대상이지만 이곳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터이고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박상희(1969~) 그림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작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픈 우리 근대사에서 개항장의 역할을 했던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한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이곳은 개발을 둘러싸고 오늘과 내일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습니다. 고단한 현재는 잊히거나 복권된 과거와 함께 존재합니다. 분주한 오늘은 계획되거나 유보된 내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폐허가 된 공간에 오래 머물러 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앞서간 누군가의 체취를 떠올립니다. 그들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돌아다보게 합니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층 빌딩 공사가 한창인 신도시 개발 현장 한 가운데 서있습니다. 무작정 질러 들어가 길을 잃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한 날처럼 두려움이 앞섭니다. 명확한 이정표 없이는 어떤 현란함에도 흔들리지 않겠노라 어린 시절의 맹세를 떠올립니다. 고색창연한 벽돌 건물 앞에 멈추어 섭니다. 오래된 새로움에 이끌립니다. 어제의 흔적이 내일까지 충분히 쓰고 남을 오늘의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 시대의 시간 층이 미로처럼 얹혀있는 공간’이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이 정의한 도시를 작가의 그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도시 상점의 간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접착 시트지를 여러 번 붙이

공주형
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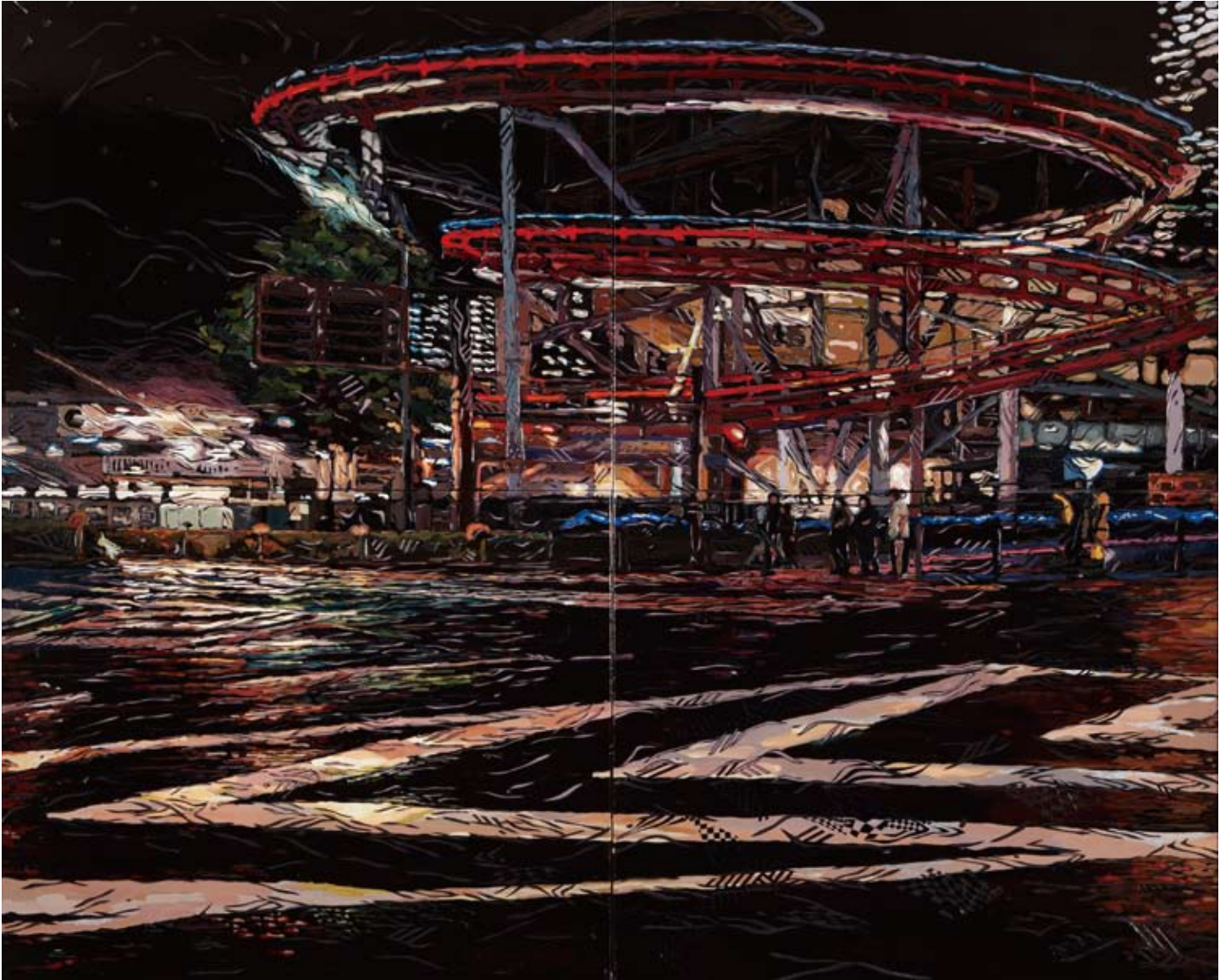
고 칼로 오려 내고 아크릴로 그리는 공정을 거쳐 하나의 공간에 겹쳐진 시간 층을 만들어 냅니다. 동일한 캔버스가 과거를 품고, 현재를 드러내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림 속 오늘은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리매김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보물 창고’라 이름붙인 도시에 층을 만들고 인상을 부여하지만 작가는 반짝이는 네온사인 물결에 넋을 잃고 쳐다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해관계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길을 가는 행인도 아닙니다. 또 다른 도시 체험자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북적거리는 거리를 느린 걸음으로 거니는 것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찾는 도시의 산책자입니다. 도에서 얻은 생의 긍정과 존재에 대한 확신이 황재가 될 수 있는 것도, 그곳에서 끝내지 못한 숨바꼭질이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 헛걸음이 아닐 수 있는 것도 마음을 비우고 특별한 목적 없이 즐겁게 헤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일본 소설 속 ‘보행제(歩行祭)’를 떠올립니다. 말 그대로 보행제는 걷기 행사입니다. 소설 속에서 사건다운 사건이라고는 남녀공학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보행제를 맞아 고등학생들이 오로지 걷는 것뿐입니다. 아침 여덟시에 걸어서 학교를 출발해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걸어 들어오는 소설의 미밋함이 감동으로 바뀌는 지점은 밤이 오면서입니다. 낮이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이 어둠 속에서 오갑니다. 출발점과 목적지가 같은 80 킬로미터 걷기 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줄을 지어 걷다 낯선 나를 만나고 진실하게 남과 소통합니다.

보행제의 목적이 단순한 걷기가 아니듯 박상희 그림의 목표도 도시 풍경을 캔버스에 담는 것에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존재로 차원을 달리하며 회복되는 것은 역사적 지역적 개성을 덜어내고 대동소이하게 평준화된 도시성만이 아닙니다. 주체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떠들썩한 세상’의 차량들 한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해지거나 수심에 잠기게 될 때, 우리 역시 자연을 여행할 때 만났던 이미지들, 냇가의 나무들이나 호숫가에 펼쳐진 수선화들에 의지하며, 그 덕분에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의 힘들을 약간은 무디게 할 수 있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1969~)은 『여행의 기술』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지만 도시 한 가운데서 헛헛함이나 수심이 발목을 잡아도 좀처럼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잠시 떠났다가도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와 머물며 살 수 밖에 없는 도시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삶의 기술’이 아닐까요. 반복되는 삶 자체를 날마다의 산보로 만드는.



놀이공원-요코하마
아크릴과 시트지 컷팅
162 x 130 cm
2009

Strolling the City - PARK Sanghee's Walk in the Night Scene

Kong Ju-hyung
Art Critic

Like the full moon, flock of owls, and humans, only the insane are restless.

In the past the night of humans, as recited by Charles Olson(1910~1970) in his poetry, was not of humans but of nature. What lit the terrifyingly dark night of nature was the light bulb known as civilization. And so began a city keeping awake 24 hours, a tireless city night brighter than day. The brilliant neon shop lights endlessly solicit passersby. Cars with headlights speed into the late night without any signs of slowing down. Each year the number of over crowded street lights and security lights increase immensely. The constantly lit fluorescent lights of skysises seem like evidence of a carefree life. Because of artificial light, the city gained the night scene. The fleetingly breathtaking city night scenes captured in postcards have million dollar price tags. Like diamond dusts on black velvet, prime prospect rights are what cities desire the most. To see the breathtaking night scene one must climb endlessly, and to gain a distinctive prospect right one must pay an obscene amount. In the night where starlight is extinguished and civilization shines brightly with artificial light, we must not only discuss our desires that keep growing bigger but also of ‘ourselves.’ To some the city is a tourist attraction full of things to see, to others it’s an investment opportunity too good to refuse, but to those who live in the city its their place of living and liveli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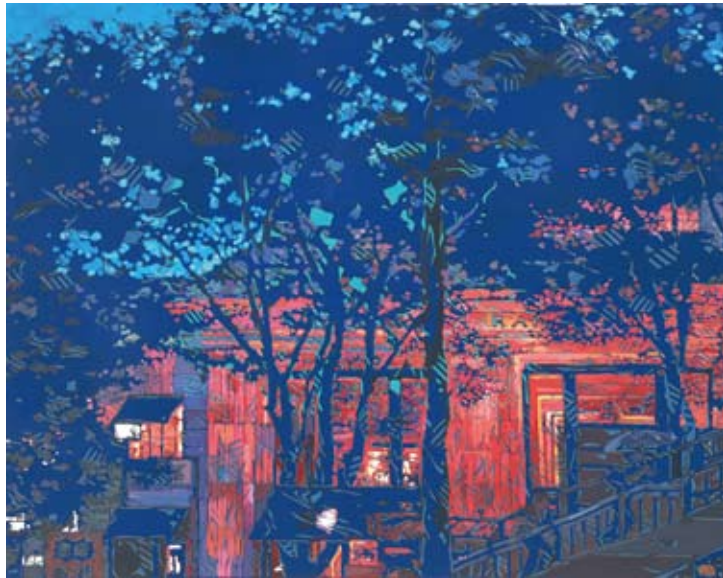
So what does city mean? Park Sanghee’s (1969~ current) work begins with this question. The artist is born and bred Incheon native that continues to work in Incheon. Incheo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co-exist, functioned as an open port in our tormented modern history. Incheon is also where today and tomorrow conflict over development plans toward a futuristic city. This issue is not limited to Incheon but in most cities. The weary present is either forgotten or it coexists with the restored past. The busy today continues together with a planned or reserved tomorrow.

With the past glory behind us, we standstill in a space of ruin. We reminisces the scent of strangers before our time. Their past makes me review my present. I am standing in the center of an endlessly high building construction site that is busy with new city developments. Fear precedes like the one day during my childhood when I recklessly walked in getting lost. I recalled my pledge back then to never succumb to splendor without clear mileposts. I stop by the antique brick building. I am drawn to the age-old new. Yesterday’s traces become the energy of today that will last abundantly into tomorrow.

You can see Walter Benjamin (1892~1940)’s definition of the city - a space where layers of time of several generation are tangled together like a labyrinth - in the artist’s drawing. The adhesive sheet paper used to create shop signs



붉은 등
아크릴과 시트지 컷팅
91 x 72.7 cm
2009



파란 밤
아크릴과시트지컷팅
116.8 x 91 cm
2009



버스정류장
아크릴과 시트지 컷팅
91 x 72.7 cm
2009

on the canvas has been pasted several times, cut with a knife, and drawn with acrylic.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 created a space of overlapped time layers. She embraces the past, reveals the present and foretells the future in one canvas. The present in the drawing only becomes real when it’s related with the past and future. Despite the fact that the artist dubbed the city ‘treasure room’ and has created a layer to the city to give character, the artist is not a spectator enchanted by the sea of neon lights. She is also not a passerby trapped in a web of relationships cut off from the world. She is simply another person experiencing the city. She is a city stroller walking slow aimlessly along the busy streets enjoying the simple pleasures. The reason why affirmation of life and conviction of being gained from the city can be a windfall or why an unfinished game of hide and go seek or returning empty handed may not be a disappointing journey, is because one is prepared to enjoy the city without any special expectations or agendas.

I recall reading a Japanese novel that mentioned ‘bohengjae歩行祭,’ which means a walk festival. In the novel the only event for the co-ed highschool was the annual walk festival. The walk festival begins at 8am from the school and students must return the next day to the same place and time. The highpoint is when night arrives and the plain storyline becomes emotional. Stories that couldn’t be told during day exchanges in the dark. Students mindlessly walk in line for the 80 kilometer walk, where the start is the finish, and begin to communicate wholeheartedly with me, the stranger.

Just as the objective of ‘bohengjae’ isn’t a simple walking festival, Park Sang-hee’s drawings are not simply canvases of city scenery. Urban assimilation is not the only thing recovering from the different dimensions of space to time, time to being, and losing historic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lso the main feature.

When feeling hunger or melancholic in the midst of cars in the ‘clamorous city,’ we recall the images of nature from our travels. We rely on the trees by the streams, the daffodils by the lake and it dulls us slightly from the powers of ‘anger and superficial desires.’

Alain de Botton(1969~current) advised as such in 『The Art of Travel』. Despite chronic hunger in the middle of the city or melancholy grabbing at you by the ankles, one can never truly leave the city. One may leave for a brief periods but will always return to live in the city. Perhaps the best thing for urbanites is ‘the art of life’ where the repetitive life transforms into daily walks.



낙엽
2009 / 가변설치

클로즈업의 미학

찰흙으로 꼼꼼하게 사실주의적으로 형태를 빚은 다음 이를 플라스틱으로 캐스팅하여 조각을 떼내고 채색하는 배진호의 작업 방식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는 관습적인 소조鑄造의 공정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 예기치 않은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 이 효과를 통해 그는 우선 조각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상투적 관념을 혼란시켜 버린다. 첫 번째는 크기에 관련된 것이다. 인체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대할 때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느낌은 우선 실제의 인체의 크기와 더불어 그가 이전에 보았다고 기억하는 인체조각들의 크기에 비추어 형성되는 것이다. 배진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놀라움은 우선 그 스케일 즉 상대적인 크기로부터 비롯하는 것인데 이는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것이 인체 전체가 아니라 얼굴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는 앞에서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작업이 함축하는 특이한 ‘광학적’ 차원을 가리키려는 뜻에서이다.

조각 작품은 손으로 만지기 전에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촉각적 차원은 시각적 질서의 지배 하에서도 여전히 살아남는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조각을 보면 만지고 싶어 한다. 이 촉각적 욕망은 응시라는 시각적 태도 속에 전유되어 융해되는 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응시를 지속시키는 숨은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형상을 대할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동시에 이 촉각적 욕구는 실제의 인간 육체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의 재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등신대等身大를 표준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신대 이상 크기의 조각작품을 거의 자연스럽게 인체의 이상화된 재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스케일이 등신대를 훨씬 벗어난 크기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동화나 신화의 차원에 나오는 거인족에 속하는 것이거나 초인격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배진호의 조각은 얼굴의 디테일의 거의 극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현실의 구체적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즉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 그러나 크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정반대다.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 스케일은 문자 그대로 인위적 확대에 의한 것이다. 이 확대에 의해 구체적, 현실적 차원에서 심리적 또는 상상적 차원으로의 갑작스런 전이轉移가 일어난다.

최민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특수한 물리적 재질과 볼륨과 무게를 지닌 삼차원의 조각이라기보다는 이차원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비물질적, 시각적 이미지로 변한다. 여기서 이미지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가시적 형상만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기억이나 상상속의 비가시적 형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이미지다. 물리적 조각의 영역에서 심리적 회화의 영역으로 자리를 바꾸었다고나 할까. 말하자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더욱이 배진호는 그의 작품을 아주 특수한 조명아래 전시하는데 이 조명이 그의 조각을 보다 비물질적으로 나아가 순수 광학적인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 같다.

여기서 나는 영화의 클로즈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클로즈업은 영화의 다양한 수법 가운데 가장 영화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을 가까이 접근하여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클로즈업은 그 이미지의 크기 때문에 독특한 시각적 충격과 즐거움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이나 사물의 숨겨진 특성 예기치 않았던 면모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아름다운 여인의 클로즈업된 얼굴은 일종의 신비스런 풍경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키스장면을 몇 미터 높이의 엄청난 크기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 한 사람도 있다. 클로즈업은 그 확대의 효과 때문에 이미지의 힘을 크게 증폭시키고 무한한 의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수사학의 용어로 말하면 클로즈업은 우선 부분을 독립시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유법내지는 환유법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동시에 다양한 은유적 작용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 배진호의 요즘 작업은 조각에서 일종의 클로즈업의 미학을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닌 예컨대 구겨진 비닐 봉지 같은 평범한 일상적 사물을 크게 확대하여 만든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 예술적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Beauty of Close-up

There is nothing new with Bae Jin-ho's way of work, establishing a realistic shape with clay, carving pieces out of it by casting with plastic and then adding colors on it. It is a typical process of plastic arts. However, the outcome from the process is alarming, showing unexpected impact. Most of all, with this impact, Bae guides us into a full of confusion to shatter the typical concept we have on sculptures.

The first confusion comes from the size. When they hear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work is human body and come to think of the size of the work, the audience would naturally expect the work to be in typical size of human body or the size of similar sculptures of the body or pieces of it they saw from the past. Watching the artist's sculptures, at first, the audience would be surprised by the relative size of them and this is even more alarming because his work features the profile of human face only, not the whole body.

I said his work is 'showing the impact.' earlier in this article. I carefully chose the word on purpose to indicate the uniqueness of 'optical' detention that the sculptures are implicating.

Sculptures are there to be seen rather than to be touched. However, the sense of touching still survives even under the control of visual order. In other words, the audience tends to feel the desire to touch sculptures when they watch them. This desire of touching is melted away into the visual dimension of staring at the object but at the same time still remains under the surface to keep encouraging the behavior of staring. This is even more true when the audience encounters the shape of human body. The desire of touching in this case also manifests the audience's specific experience with real human body and that is why the audience often expects the real-size of human body as a standard even for the sculptures reproducing it. The audience naturally sees any sculpture coming in larger size than the standard as an idealized reproduction of human body. If the sculpture is presented in an unproportionately larger size of the standard, the audience may see it as something from a land of giant in fairy tales or mythology or a creature of superhumanity.

However, the realistic and detailed description of human face in Bae's work of art leaves no choice for the audience to see it as a real human face. It seems like the face of someone living in here today. However, if it comes to the size, the case becomes the very opposite. There exists huge

Choi Min

Profess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gap between the two. The scale or the size of the work is literary the result of artificial enlargement on purpose. This enlargement initiates a sudden transit from a realistic and material dimension to a dimension of mentality or imagination.

This way, his work of art becomes a non-material visual image that seems belonging to the two-dimensional world, rather than staying as a sculpture with volume and weight in the three-dimensional world. The image here covers broader meanings including not only the visual images we can actually see but also the non-visual images in imaginary world of our mind, memory or imagination. This can be seen as a transit from a material area of sculptures into a physiological world of paintings. I am just saying that it feels that way. Moreover, the artist exhibits his work of art in a very unique lighting and the lighting highlights the non-material features of the work even further to turn them into something purely optical.

Here I cannot help but think of the close-up scenes from movies. Among many others, close-up can be seen as the most cinematically specific technique. Displaying the enlarged image of the object in a tight frame, close-up has been regarded as unleashing special potentials not only by creating unique visual impact and pleasures but also unveiling the hidden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in an unexpected way. One said that the close-up shot of a beautiful lady is one of the most mysterious scenes and the other said that one of the biggest pleasures we expect from a movie is watching the widely magnified kiss scenes from far above, several meters away. The impact from the enlargement in close-up scenes amplifies the power of the image and opens full possibilities of associated interactions. In terms of rhetoric, close-up might be categorized into synecdoche or metonymy as it highlights one small part, being isolated from the whole. Yet, it can be further expanded into the area of diversified metaphors.

In my view, Bae's seems exploring the aesthetic features of close-up while working on his sculptures. The case is true even for his other subject of work except for human face. He seems exploring the same possibility in the sculpture created in the magnified form of simple objects that are easily found in our daily life such as a creased plastic bag. I expect much from his work of art and artistic achievements.



사랑이란
2009
플라스틱에 채색
51 x 46 x 7 cm



A Small Assembly
2009
oriental color & acrylic on canvas
130 x 162 cm



Bluestar
2009
oriental color & acrylic on canvas
85 x 75 cm

나는 놀이한다. 고로 존재한다.

만약 코르크스크루가 없다면 어떻게 와인 병을 딸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최근 이 문제가 즐거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구두나 운동화, 못과 드라이버, 나무와 타월 등을 이용해 와인 병을 따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네티즌들의 열띤 관심 속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인 병 따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본성적 행위인 놀이로 접근한 결과입니다. 한편 익숙한 도구 없이 와인 병을 따는 일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목적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로 접근한다면 말이지요. 더군다나 방향이 제시되거나 주어진 일은 훌륭하게 처리해 내지만 예상치 못한 순발력을 요하는 일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른바 ‘매뉴얼 제너레이션(manual generation)’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예측 가능합니다. 시작도 전에 포기라는 단어부터 떠올릴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호이징하(Johan Huizinga 1872~1945)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인간을 유희하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유희 즉 놀이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문명의 대척점에 선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보니 놀이와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셀링(Thomas Crombie Schelling 1921~) 메릴랜드대 교수의 게임 이론이 합리적인 삶의 선택과 연결 지어 인구에 회자됩니다. 놀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발견합니다.

일정한 규칙과 특정한 도구는 놀이의 성립 조건입니다. 규칙과 도구가 없어도 삶은 존재합니다. 무척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태로 말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안경수(1975~)가 그랬습니다. 삶은 지금까지 따라온 규칙과 사용해 온 도구의 효력 정지를 알리며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규칙을 모색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았습니 다. 맞춤형 도구를 제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한바탕의 놀이는 거기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 다. 신나는 폭죽 세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즐거운 비명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 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는 놀이공원의 정적 속에 홀로 남겨진 듯 우울한 아이들이 2006년 전시 <어렸던 왕자>로 등장합니다. 한 눈에도 침울해 보이는 아이들은 입에 마스크를 했습니다. 한 쪽 눈에 안대를 둘렀습니 다. 팔과 다리 등에 깁스붕대를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도, 제대로 볼 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신체 특정 부위의 장애가 아닙니다. 상처 보호를 목적으로 감은 보호대들이 존재를 압박해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 그림 속에서 중얼거리던 <어렸던 왕자>들이 옮겨 간 곳은 ‘놀이방(playroom)’입니다. 작가가 설정한 공간 속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기구 속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방은 비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아닙니다.

공주형 미술평론가

놀이기구의 종류도 놀이 시간도 놀이방 안에서 지켜야 할 몇몇 수칙들도 어른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만의 독립적인 유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놀이방에서의 다소 불편했던 경험이 무용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비로소 아이들은 아이들의,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다음 번 놀이를 바로 이곳에서 골몰합니다. 2008년 안경수의 캔버스에는 음울한 아이들 대신 장난감 병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만의 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매뉴얼은 이번 놀이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놀이의 규칙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손, 발, 다리, 몸, 등 각각의 인체 부위와 무기, 가방, 지뢰 모자 등이 예상치 못한 결합을 시도합니다. 애초에 장난감 회사가 의도했던 완벽하고 웅망한 군인의 형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군인이 험준한 산의 한 가운데서 전투 중입니다.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장난감 병정은 두 팔 대신 다리를 붙였습니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잘못 만들어진(malformed)’ 결과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형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기에 겉모습이 흉측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안경수 일련의 작업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탐험이나 모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어드벤처 게임(Adventure Game)을 연상케 합니다. 액션성이 아니라 어드벤처 게임에서 필요한 것은 논리적 전개를 위한 고도의 상상력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의 매뉴얼로 조립한 장난감 병정들을 캔버스에 붓으로 옮기는 놀이 같은 작업을 하는 그가 놀이를 하는 목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자존감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놀이를 합니다. 혹자는 긴장을 풀고,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놀이를 합니다. 혹자는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놀이 뒤에 얻어지는 그 ‘무엇’을 목표로 놀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이라면 놀이가 끝난 후의 기쁨이 아니라 놀이를 하며 당장에 생기는 즐거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빨리 촉박하게 일하듯 놀이하지 않습니다. 몰입하고 즐기면서 놀이하듯 작업합니다. 놀이하듯 작업하다 보니 하고 있는 놀이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을 갖습니다. 존재의 결핍을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좀 더 놀고 싶다.’ 안경수는 삶에 대한 애정과 작업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알려진 매뉴얼과 도구로 시간낭비 없이 병을 따서 와인을 마시기보다는 좀 더 다르게 와인 따는 방법들을 즐겁게 고민해 보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자신만의 매뉴얼과 도구를 확보하는 과정은 진정한 주체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놀이가 그러했듯이 존재를 탐험하고, 삶을 모험하는.



A Place of Acquaintance
2009
oriental color & acrylic on canvas
140 x 200 cm

I Play, Therefore I Exist.

If there's no corkscrew, how could you open a bottle of wine? This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at YouTube, a popular video-sharing online site which is lov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Opening the bottle with a shoe and a training shoe, a nail and a driver, a piece of wood and a towel, etc., all going beyond our imagination, are garnering passionate attention among netizens. Those are the result of approaching the issue of opening the bottle as a sort of 'play,' a deed of human nature of enjoying and having fun. Meanwhile, opening the wine bottle without the help of familiar instruments could be so puzzling. It could be so as it's approached as a task to satisfy external purposes or needs. Imagine that this same situation meets with the so-called manual generation, who do an excellent job with tasks whose directions are given, but get puzzled at tasks requiring an unexpected ability to react instantly. The outcome would be as obvious as expected. "Giving up" would be the first words that come to their mind even before they get to start the task.

In his book 'Homo Ludens,' Dutch cultural historian Johan Huizinga (1872-1945) defines men as the player. Enjoying yourself or 'play' mentioned here is the desire and right of human beings standing in the antipodes of a civilization which emphasizes economic and social values. In that sense, I realize that 'play' and life are no different. The game theory suggested by Professor Thomas Crombie Schelling of the University of Maryland, who is the 2005 Nobel Prize Laureate in Economics, is on everybody's lips in connection with reasonable life choices. 'Play' rules are found similar to the rules of life.

Certain rules and certain instruments make up the 'play.' No life exists without rules and instruments. Such Life exists in a very confusing, vague manner. That was exactly what happened to An Gyung-Su(1975-) after graduating from the graduate school. Life informed him of the end of effect of the rules he had followed and the instruments he had used, and called on him to return them all. Life didn't even give him enough time to explore other rules. Life didn't intend to offer other customized instruments. A gust of his expected 'play' just ended there like that. A spectacular display of fireworks disappeared into the dark. Screams of excitement were no longer heard. Gloomy children, as if they were left alone in the silence of the amusement park about to close for the day, make an appearance on his canvas in 2006 as 'Prince Who Was Young.' Such gloomy faced children are masked around their mouth. They wear a patch over their one eye. They sit in a wheelchair with their arms and legs in plaster. They are not allowed to talk, see and move freely. They aren't simply disabled in some particular parts of the body. The protectors the

Kong Joo-hyung
Art Critic

children are wearing to protect their wounds bear heavily down on their existence.

Those 'Princes Who Were Young' murmuring in the picture, "I can make nothing!" then move to the 'Playroom'. The children in the playroom set up all by the artist attempt to dream of flying in the sky in a new ride. But the playroom created by an adult is no ideal space for flying. The types of the rides, playing time and several rules in the playroom are all set up by an adult. Independent playing by the children themselves is not expected. Such somewhat uncomfortable experience in the playroom, however, is not always useless. In this playroom, the children eventually get to think hard about their next play, which is of the children, by the children, and for the children.

Such gloomy children give way to toy soldiers on Artist An's canvas in 2008. It is the beginning of his own 'play' in earnest. The manuals inside the toy box are of no use in this 'play'. Play rules are completely changed anew. Each body part of hands, feet, legs, main body, etc. attempts to make unexpected combinations with weapons, bags, landmine head protectors, etc. Perfect, brave soldiers originally intended by the toy company can now be found nowhere. A soldier with no head is engaged in a battle at the center of a rough mountain. The toy soldier crawling in low creeping has legs attached instead of two arms. He can be seen as malformed, which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anuals. But as the initial interest was not geared toward creating a perfect shape in the first place, his ugly appearance is not minded that much.

A series of Artist An's works spann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re often associated with the image of an adventure game, which employs ever-changing situations, with problems solved and goals achieved through adventure and expedition. What is needed in an adventure game is not an action but a sophisticated imagination for logical developments. Now is about time we need to ask him about what's the purpose of his 'play' as he engages in play-like works of creating with a brush on his canvas toy soldiers assembled with his own manuals. Some play to build their self-esteem and grow their problem-solving ability. Some play to relax and grow their insights. Some others play for self-realization and socialization. However, he didn't begin the 'play' in the first place with any purpose of achieving 'something' to be gained through the 'play'.

If there's any purpose at all, it is the excitement he gets to experience throughout the 'play' rather than any amusement he gets after the 'play'. That is why he never plays as if he works on a tight schedule. Instead, he works, in a perfect immersion and excitement, as if he plays. As he



Harsh mountain
2009
oriental color & acrylic on canvas
130 x 162 cm

works as if he plays, his 'play' naturally creates a consistent flow. It is to identify and then overcome the lack of existence. "I want to play more." Artist An Gyung-Su expresses his affection for life and pleasure of creating works as such. This is heard to me as he will give pleasant thoughts to a bit different ways of opening the wine bottle rather than drinking the wine after opening the bottle with the known manuals and instruments, losing no time. Such a process of securing his own manuals and instruments is also the time during which he finally comes in charge of his own life. The time during which he explores his own self and ventures out to his own life, as 'play' has been.



Cosmos Rhyme
2009
acrylic on canvas
130 x 200 cm



Unverse07
2009
acrylic on canvas
70 x 140 cm

하계훈 단국대학교 교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40년을 한 주제에 몰두한다면 어떨까?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인 1969년 7월 21일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다. 그리고 그 해에 오경환은 서울의 프레스센터 화랑에서 우주와 미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작가는 ‘우주’를 주제로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면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의 길을 걷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경환이 완전히 세상과 등을 지고 은둔의 상태에서 자기 세계에만 몰입한 것은 아니다. 그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포병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해인 1965년에 창작미술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와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5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1970년부터는 대학에서 ! 학생들을 가르치며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35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작업과 창작활동을 병행해왔다. 오경환은 자기 의지가 뚜렷하고 타협에 서투르다. 그는 1973년부터 10년간 주류 화단에 반기를 든 대안그룹인 ‘제3그룹’을 만들어 미술계를 바로 가게 만 들어보려는 현실참여 작가이기도 했다. 미니멀리즘 계열의 추상미술이 미술계를 주도하는 당시에 제 3그룹의 활동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 같은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년 동안 뜻을 같이하는 후배들을 이끌며 한국 현대미술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도 오경환이 일관되게 관심을 가져 온 대상은 우주 공간이었다. 그는 우주에 대한 환상을 키우면서도 과학적 정확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환상적이면서도 과학적이다. 그리고 과학적이면서도 과학적 정확성에만 머무르지 않는 예술적 경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오경환에게 있어 우주는 신비로운 환상과 호기심을 키워가는 예술 작품 창작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무한과 인간실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철학의 장이다. 오경환은 대형 캔버스 속에서 일관되게 우주의 풍경을 탐구하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실험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으로 정년퇴임하던 2005년에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개인전에서 전시 제목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붙였던 것은 오경환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일민미술관의 디렉터는 이 전시의 서문

에서 “(대학 교수로서의) 정년이 지났으면서도 늘 도전하는 젊은 예술가로 살고 있는 작가의 작업세계를 돌아보는 일은 곧 한국 현대미술이 걸어온 길을 반추해 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초기작부터 최근작에 이르는 120여 점의 대형 캔버스 작품들을 선보였었다. 검고 질푸른 우주공간 속에서 화려한 빛을 발산하는 행성들, 별과 운석을 모티브로 한 추상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마치 우주공간을 바라보거나 우주선을 타고 광활한 우주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들어 주었다. 무한한 우주 공간을 표현한 오경환의 유화작품은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작가의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자세를 가능하게 한다. 우주는 인간의 인식체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영역에 존재한다. 그것은 태고의 신비이면서 절대적 공간이고 초월적 존재의 영성과 기(氣)를 품은 물리적 공간이면서 인간의 상상력과 환상을 자극하는 심리적, 정신적 영역이기도 하다. 아폴로 11호가 우주를 날아 달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상황을 맞아 오경환은 자아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자아성찰의 철학을 키울 수 있었다. 우주 풍경화를 통해 오경환은 인간이란 우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작은 존재이며 무한한 우주 공간의 그 어느 곳에서 태어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도교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오고 있다. 낙천주의적인 그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 그는 1997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오랜 투병 끝에 병을 이겨냈다. 그 후 그는 몽골, 러시아, 인도 등을 여행하기도 하고 한 때 거제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작업에 몰두한 적도 있었다. 오경환은 이제 올해 처음 출발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로서 후학들과 함께 창작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 동안 몸에 밴 습관에 따라 새벽에 일어나 2시간 거리의 먼 길을 가면서 작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작품에 옮겨 담는 규칙적인 일상을 지속하는 ‘젊은’ 원로 작가 오경환은 오늘도 우주의 저편을 꿈꾼다. 오경환은 말한다. “어쩌면 예술가란 평생 절망을 연습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런 절망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내야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Cosmos&Garlic
2009
acrylic on canvas
160 x 200 cm

Ha Kye-hoon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A Korean proverb says “even the rivers and mountains change in ten years,” meaning that a decade is an epoch. Then what would it be like to focus on a single subject for 40 years? Exactly 40 years ago, on July 21, 1969, the U.S. manned spacecraft Apollo 11 landed on the Moon while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back on earth were holding their breath. That year, Oh Kyung-hwan presented his view on the cosmos and art at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Press Center gallery in Seoul. From that exhibition, Oh’s unwavering focus has been the theme of “space” for the past 40 years. But that does not mean he locked himself up in his own world, in seclusion from the outside world. In 1965 Oh joins the Chang-Jak Fine Arts Association, the same year he completed his military commitment as an artillery officer, and graduating from an art college. While continuing to establish himself as a serious artist, he also taught as a high-school art teacher for five years. He becomes as a university professor in 1970 and teaches for 35 years until retiring as the head of the School of Visual Ar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05.

Oh is a strong-willed and uncompromising artist. In 1973, Oh forms the architect of “The Third Group,” as an alternative group to the mainstream art scene, to “correctly guide the art scene” through direct involvement. The Third Group’s efforts must have look like David taking on Goliath, as minimalist abstract art dominated the Korean painting circles at the time. Oh was undaunted, however, and led the group of like-minded colleagues over the course of a decade to set the Korean contemporary art on the right course.

While leading The Third Group” against the establishment, Oh maintained his passion: the theme of the cosmos. Since he suggests the fantastic beauty of the cosmos without compromising scientific precision, his paintings are fantastic and scientifically accurate, as well as artistic. For him, the cosmos serves not only as the main artistic theme which fosters mysterious fantasy and curiosity, but also a philosophical venue in which he meditates fundamental issues about infinity and human existence. While Oh maintained exploring the universe on the large canvas, he was always willing to experiment or take on new challenges.

The name of a solo exhibition in 2005, the year of his retirement as the head of school,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eld at Ilmin Museum of Art in 2005, speaks volumes about Oh’s characteristics. In the preface of the exhibition, the director of the museum said, “The reason behind the title is, although Oh has reached a retirement age as a

professor, reflecting on works of the artist that is continuing the challenge himself, as a young artist in his prime can be likened to ruminat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 the exhibition, the artist displayed about 120 large canvas paintings, ranging from his early works to the most recent. Celestial motifs represented in his works like planets, stars, and meteorites glowing brightly against the dark blue space background made the viewer feel as though they were seeing the galaxy or rocketing across the vast space on a spaceship. His oil paintings leave us in awe of the infinite universe and to see the artist’s unrelenting passion for space. The universe defies human comprehension. It holds ancient mysteries and the absolute space: a physical space filled with ethereal matter and spiritual energy: and a psychological and mental space that stimulates human imagination and fantasy. The epochal lunar landing of Apollo 11, which made it possible to look back to our planet from the outside and observe it as an object in space, allowed the artist to self-observe objectively and to self-reflect. Creating scenes of mystical outer space on canvas guided him to the Taoist realization that human beings are only a tiny part of the universe and are supposed to return back to being a part of the universe. And now he is expressing his thoughts on canvas.

Although Oh led an optimistic life, he faced hardship. He was diagnosed with stage II colorectal cancer in 1997. After a long battle with cancer, Oh survived it. Since recovering, he has traveled to Mongolia, Russia, and India and retreated alone to a remote place in Geoje to fully concentrate on his work. Oh is now the artist-in-residence at the Incheon Art Platform which opened this year and is working actively with young artists. His long-time morning routine begins at dawn, starting the day with a two hour walk, incorporating ideas that he contemplates during the walk into his work. The “young” senior artist, begins another day, pondering about the universe. Oh says “Perhaps, artists are people who practices despair through their life. Because they know that overcoming the despair is what creates masterpieces.”



무제 2부작
2009
acrylic on canvas
160 x 200 cm

A high place
2005
빨간리본으로 감싼 부러진의자
40 x 50 x 500~700 cm



AIR-FLOWER
2009
송풍기, 비닐
가변설치



예술가는 치유자일 수 있다

Artiste peut être un guérisseur

심상용

미술사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오유경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질식하게 했던 것들에 대한 조용한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화이트 큐브(White cube)’, 그 권위적이며 불순물이라곤 티끌 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근대의 기치이자 예술의 준엄한 검열이 작동하는 장(場), 모든 미술적 의미들을 발가벗기고 재규정하는 공간의 권력, 계몽과 순혈주의의 의사당, 보자르(Beaux-Arts)의 성전聖殿인 그것이 오유경의 우선하는 보복 대상이다.

오유경은 화이트 큐브의 정체적 핵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다. 그 방식은 비닐 재질로 재현된 그것의 내면을 대기氣보다 더한 가벼움, 부재보다 공허한 부재의 콘텐츠로 가득 채워 넣는 것이다. 헬륨 가스는 그 신념에 찻던 것의 내부를 다만 가벼움과 공허로 대체하고, 줄지에 유아용 놀이기구처럼 허공을 떠다니는 신세로 전락시킨다. 이리저리 허공을 배회하는, 유목적인 화이트 큐브를 상상해 보라. 그것은 더 이상 근대주의의 요체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거만한 권력의 기호이지도 못하다. 그 가뿐함, 그 민망한 부유로 명성은 실추되고 위엄은 오간 데가 없다. 차라리 부서지는 것이 덜 혹독한 것이 아닐까?

보복은 조각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그 잘 난 3차원성, 질료성에 대한 지고至高의 애정, 묵직한 질량주의의 자만에 대해서도 보복의 예리한 메스가 가해진다. 로망에서 브랑쿠시까지, 무어에서 세자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쾨나 반동적으로 알려진 리처드 세라나 도널드 저드까지 포함하는, 천연대리석과 청동으로 무장한 세계, 그 장구한 역사에 대한 오유경의 질문은 실로 신랄하면서도 통쾌하다. 작품 <큐브먼트, cubement>에서 보듯, 작가는 단번에 그것들을 한낱 바람에조차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것들로 전락시킨다. 고작 선풍기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떠오르고, 추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조각이라니! 3차원 예술의 통렬한 실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복 역시 근대적 개념일 뿐이다. 그 역시 부동의 신념에 근거하며, 자주 회복불능의 파괴와 손상을 야기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절대적으로 타자화함으로써 결국 자신도 타자화시키는 계몽주의의 자기배반적 개념이다. 보복이 오유경 예술의 적지 않은 진실을 짚어내는 매력으로 인해 호명되긴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세계에 긴밀하게 부합하는 개념은 아니다. 작가가 자신의 예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의



Recovering from x (숲, 이동프로젝트)
2005
컬러인화시리즈
60 x 100 cm (2ea)

식이나 맹목적 부정, 율화나 양강을 따위가 결코 아니다.

화이트 큐브의 권력, 권위적 장로서 조각에 맞서는 오유경의 사유를 관통하는 것은 치유의 형이상학이다. 그것의 강령은 결코 타파나 소멸 같은 것일 수 없다. 자기우월감에 도취되거나 자기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격투를 벌이는 것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이 세계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도입했던 개념인 보복의 실체는 사실 왜곡을 교정하고 상처를 싸매는, 곧 치유의 그것이다. 이 치유는 상처를 만들어내는 주체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적 의미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이런 맥락에서 부유하는 화이트 큐브나 질량을 상실한 조각을 여전히 전위주의의 후예거나 반미학적 혁명 같은 모더니즘적 기제로 간주하려 드는 것은 이만저만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가벼움은 오유경의 조형적 방법론일 뿐 아니라 미학적 지침이기도 한 것으로, 그것은 일테면 시뽀적 영혼의 한 쪽으로 난 창문 같은 것이다. 일테면 작가는 가벼움에도 관여하는 유희하는 미술관, 바람결을 타는 화이트 큐브, 온갖 규범에 관대한 열린 조각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선언서를 낭독하거나 혁명의 선두에 서는 노선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 그는 조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각, 즉 치유하는 조각이나 치유된 조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영속적인 것의 상징이며, 권력과 사회구성의 시초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쌓은 구조물 앞에 선풍기를 놓고 작동시키고 탑의 무너짐과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물론 가벼운 종이상자들은 바람의 개입에 의해 이리저리 날라 다니고, 서로 충돌함으로써 위치가 변하며 무너지고 붕괴하지만, 얼마간의 시간 후 그 상자들은 동일한 바람의 힘에 의해 다시 쌓아집니다. 이때 쌓아집은 아주 자유롭게 비형식적이었습니다. 이 붕괴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구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유경)

치유는 파리 유학 초기부터 오유경을 사로잡은 주제였다. 프랑스에 체류하는 기간은 내내 그에게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문하는 시기였다. “나의 창작행위와 그 결과물이 어떻게 아픈 시대와 상처 입은 사회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는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이같은 질문이 아니었다면, 파리의 뒷골목에 버려진 것들에 시선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작가는 특히 부서지고 주저앉은 의사들로부터 시작했다. 기능이 정지되고 작동을 멈춘 것들을 되살려내기 위해 붕대, 솜, 소금 같은 ‘치유를 촉진하는’ 재료들이 동원되어야만 했다. 그 결과 부러졌던 다리는 다시 몸통에 붙고, 주저앉았던 것은 일으켜 세워져야 했다. 창작은 곧 치유의 행위여야 했고, 질료들은 치료제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작품은 치료의 성공을 입증하는 어떤 것 이어야 했다.

이 치유의 예술론 안에서 창작과 치유는 결코 서로 무관한 두 세계일 수 없다. 예술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상실되거나 망각되었던 본래의 의미에 다시 다가서고, 하나의 형식 안에 그것을 붙잡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걸

작은 그 내부에 치유된 상처의 흔적이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자의 치유에 관여하기도 한다. 오유경의 오브제들에서 “무생물을 생명체로 전화시키는 힘과 모성의 따스함 같은 정감이 느껴지는” 이유이다. (장 미셸 뒤라프)

작가에게 ‘치유’는 물려설 수 없는 창작의 동기이자 궁극의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의 고백처럼 : “제 예술적인 목적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변화와 변형, 탈바꿈, 붕괴라는 개념을 통한 사회와 인간의 치유와 회복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우리 시대의 비전을 고칠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힘, 즉 예술을 통해 관람객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고백처럼 작가의 치유 개념은 단지 미학적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치유의 대상은 ‘우리 시대의 잘못된 비전’으로까지 확장된다. 이윤추구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고, 힘이 의미가 되며, 흥행술과 마케팅이 가치창출의 유력한 동기로 자리하고, 관계는 단절되고, 감수성은 메말라 가는... 하지만, 이 뿌리 깊은 병증, 불구화된 지성과 감성을 치유하는 것이 예술로서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 오유경은 시적詩的 사유, 시적 감수성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치유역량을 믿을 것을 권한다. 이 세계에선 화이트 큐브와 같은 거대권력의 산물과 맞서는 데 요구되는 무기는 헬륨 가스로도 충분하다. 장구한 조각의 역사는 선풍기 바람으로 가볍게 전복된다. 모조지로 접은 큐브와 장엄한 형식미 사이의 간극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숙연함과 유희가, 보복과 치유를 동시에 끌어안는 시적 사유 감수성의 한 드러남이다.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의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작가가 쓴 논문의 제목은 「예술가는 치료사인가」(Artiste est-il un guérisseur) 였다. 물론 방어법적인 질문이다. 예술가는 치료사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존재하는 어떤 치료사보다 더 유력하고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치료사이기 때문이다. 단, 예술가가 그것을 내적으로 깊이 믿기만 한다면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의 더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에 잠재해 있는 그 에너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

Artist can be a healer

Artiste peut être un guérisseur

A subtle revenge on things that stifle us is under way in the world of Oh You-kyeong. For instance, the “white cube” which represents the attitude of the modern world which refuses to tolerate even the tiniest particle of impurities; the place where solemn censorship of art is in action; the power of space that strips and redefines all artistic meanings; the parliament of enlightenment and pure-blood doctrine; and the temple of Beaux-Arts. This “white cube” is the initial target of Oh You-kyeong’s revenge.

Oh You-kyeong deals a fatal blow to the basis of the white cube’s original form. This is done by filling the inside of the white cube, which is reproduced with vinyl material, with contents of absence that is lighter than air and emptier than absence itself. Helium is used to replace the beliefs that once filled its inside with lightness and emptiness, degrading it to the likes of a child’s toy. Imagine the nomadic white cube that loiters in the air. It is no longer the core of modernism, nor is it the preference of arrogant authority that has firmly taken root amongst us. Its reputation is lost and dignity vanished due to such lightness and the pitiful manner in which it floats in the air. Wouldn’t it have been less harsh for it to have been broken into pieces?

Revenge is sought on sculpture as well. A sharp scalpel of revenge cuts deep into the most sublime affection held for three dimensionalness and matter, as well as into the arrogant belief in the supremacy of mass. Oh You-kyeong questions the world armed with natural marvel and bronze, a world in which can be found artists from Rodin to Brancusi, from Moore to Cesar, and even Richard Serra or Donald Judd, both known to be men with considerable reactionary characteristics. She questions such a world and its long-standing history in a most incisive and thrilling manner. As can be seen in <Cubement>, all things mentioned above are reduced to something that is so brittle and weak, they cannot even stand against a gust of wind. Sculptures that float into the air, then collapse and tumble, merely because of a breath of wind created by a motor fan! Indeed, it is a bitter fall of three dimensional art.

However, revenge is yet a modern concept itself. It itself is based on an immovable conviction and frequently causes irreversible destruction and damage. But above all, it is a concept of self-betrayal found in enlightenment, as it brings about an othering of oneself through an absolute othering of one’s counterpart. Although revenge has been used to describe the appeal of Oh You-kyeong’s art which points to some considerable truth, in the end, it is not a concept that tightly fits into her world. What the artist fundamentally tries to express through her art is

Shim Sang-yong

Dongduck Women’s University, Ph.D. in Art History

by no means feelings of victimization, absolute denial, resentment or retaliation.

At the heart of Oh You-kyeong’s reasoning for standing against the white cube’s authority and against sculpture as an authoritative genre lies the metaphysics of healing of which its epitome cannot be overthrow or destruction. It is a far cry from fierce confrontations triggered by a sense of self-superiority or the need to justify oneself. The actuality of revenge, a concept implemented to highlight the discrimination in this world, in truth aims at correcting distorted reality and patching up wounds. Healing here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medical definition in the sense that it is based on a clear perception of the subject that has perpetrated such wounds. Therefore, interpreting the floating white cube or the sculpture stripped of mass as art derived from avant-garde or as a modernist innovation such as an anti-aesthetics revolution is truly palpable nonsense. Lightness is not only Oh You-kyeong’s formative methodology but also her aesthetic guideline, which can be compared to a window of the poetic soul. In the mind of the artist exists a festive gallery in which even lightness of objects are welcome, the white cube that rides the wind, and sculpture that is not constrained to any rules. Such thoughts have nothing to do with declaring a manifesto or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a revolution. The artist is not denying sculpture but thinking of a different kind of sculpture, a sculpture that can heal, a healing sculpture.

“In general, (my work) is a symbol of stability and things that are perpetual. It signifies the beginning of power and creation of society. I set up a motor fan in front of a stacked structure and observed its fall and alteration. Of course, the light-weight paper boxes would swing here and there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wind. They would collide with one another, thereby landing somewhere different from where they were originally placed, falling and collapsing. But after a while, the boxes managed to pile up once again due to the force of that same wind. The piling up this time around was very much unrestricted and free from formalities. I believe that this collapse represents a new formation rather than destruction.”

- You-kyung Oh

Healing was a theme that had fascinated Oh You-kyeong from the early period of her stay in Paris as a student. Her days spent in France were a time throughout which she contemplated ove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n artist. “How can my creative efforts and their outcome help to care for and restore wounded societies and an era inflicted with pain?” Were it not for this question the artist endlessly asked herself, she would not have taken note of thrown-away objects lying in the back allies of Paris. She started working with damaged, broken chairs. In order to restore objects that no longer functioned properly, she had to use materials that could “facilitate healing” such as bandages, charcoal, and salt. As a result, a damaged leg could be reattached to the main body of a chair, and what had been broken could be resurrected to its original form. Creation had to be an act of healing and the applied materials the tools for treatment. The art piece itself had to be evidence of successful treatment.

Within the boundaries of this theory of art as an act of healing, creation and healing cannot be two worlds apart. Creating art is an act of stepping towards original meanings that have been lost or neglected and capturing such meanings into a certain form. In almost all masterpieces can we find not only traces of wounds that have been healed, but also signs of their intervention in healing others. This is why we can feel “the power that transforms inanimate objects into living organisms and sentiments comparable to the warmth of maternal affection” in Oh You-kyeong’s artwork. (Jean Michel Duraf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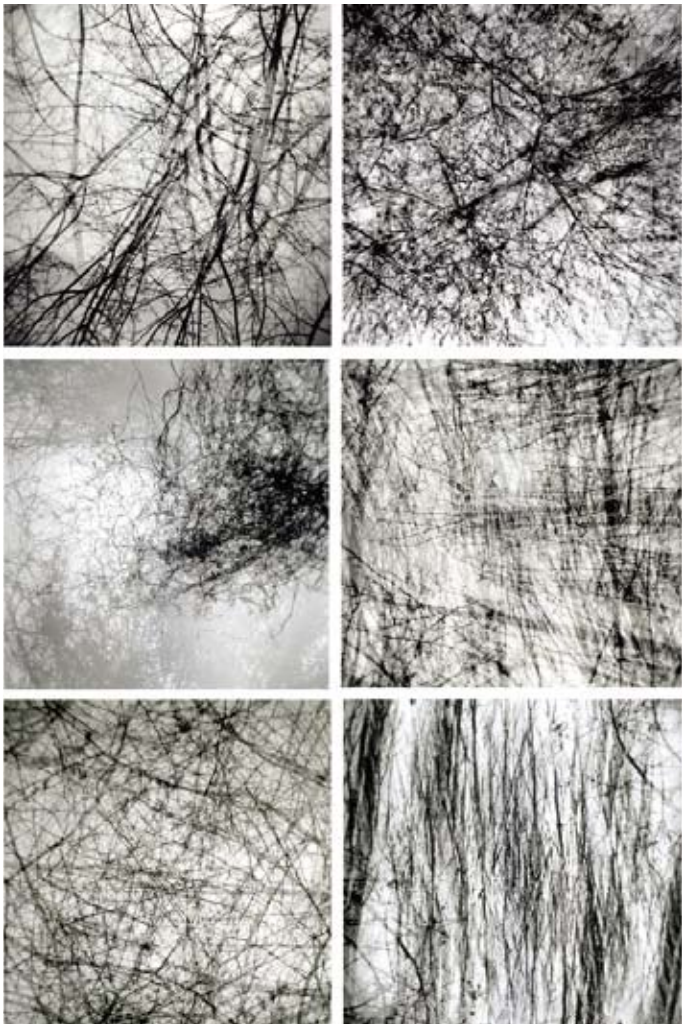
To the artist, ‘healing’ is motive for creation that cannot be surrendered as well a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er creative endeavors. “If I may touch upon my artistic purpose, it is to heal and restore society and mankind through concepts of change, transformation, metamorphose and collapse. Through a specific force that holds overwhelming influence capable of rectifying erroneous visions of our time, in other words through art, I hope to deliver a message of hope to all spectators of my work.” As in the testimony of the artist, the concept of healing is not confined to aesthetics. The object of healing is expanded to the “erroneous visions of our time.” The pursuit of profit having become our greatest value, power bearing the greatest significance, tactics for appealing to the audience and marketing being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value creation, relationships being severed, and emotions drying up...But how can art heal such deep-rooted sickness and crippled intelligence and emotions?

Oh You-kyeong recommends that we place faith in the potential healing capacity inherent within poetic thinking and poetic sensibility. Helium gas is sufficient to stand against the outcome of massive authority such as the white cube in this world. The long-standing history of sculpture can be easily overturned with wind blowing from a motor fan. There virtually exists no gap between the cubes made with folded vellum paper and

solemn formality.

The title of the thesis the artist wrote as she completed her formative art master’s program at Université Paris VIII was “Is an artist a healer” (Artiste est-il un guérisseur.) Of course, this was a rhetorical question. Not only can an artist be a healer, but an artist actually is a healer that is more effective and in urgent need than any other healer in existence. But an artist can assume such a role only when he/she has deep faith in such capabilities he/she posses. Unfortunately, many artists of today fail to believe in the potential energy that exists within art.

Un Grand Voyage (프랑스 자프섬 나뭇가지 이동프로젝트)
2006
바리타지 흑백 인화시리즈
50 x 50 cm (6ea)



오효석

OH
Hyo-seok

내마음의 고향
2009
mixed media
50 x 110.6 cm



행복한 날에는...
2009
mixed media
110.6 x 50 cm



오효석, 구상적 추상, 추상적 구상

오효석의 작업실을 일년여 만에 다시 찾았다. 최근에는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작업실도 얻어 그림그리기에 탄력이 붙은 양상이다. 일본에서의 개인전이 호평을 받고 귀국한 터라 표정도 밝고 자신감도 배가 된 모습이다. 일본에서 작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작품들이 많이 쌓여 있어 그의 끈기와 근면성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청각장애로 일반인과의 소통이 불편한 오효석은 그림을 통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지향한다. 이때 자연은 소통이 불편한 작가와 외부를 매개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오효석은 집요하리만큼 자연과 이의 이면을 관찰하고 이를 그의 작품 속에 투영시킨다. 그러나 그는 그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만은 않는다. 그것은 송고한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대상과 공간과의 관계, 빛과 대기의 격정,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 자연의 순환 고리, 그리고 인간의 흔적을 머금고 있는 대지에 대한 동경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한 동행
2009
mixed media
80.3 x 130.0 cm



이경모
미술평론가

담기와 버리기의 변증법

이를테면 그의 작품 <봄-농가>의 경우 투시원근법과 색채원근법이라는 전통적 회화기법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서도 대상을 부감俯瞰함으로써 경물을 풍부하게 바라보고 유채색과 무채색의 적절한 조화에 따라 대상은 강조되거나 은폐된다. <봄-목련>이나 <봄-배꽃>에서도 작가는 대상과 여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도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작가의 주제의식이 잘 들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효석의 그림에서 우리는 대기를 통과하는 빛의 파장과 그 안에서 공유하는 대상들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목도할 수 있다. 이때 그의 화면은 거친듯하나 맑고 그 속의 빛은 어두움 속에서 자신은 드러내지 않은 채 대상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며 살아있음을 강조하거나, 스스로 형태로 존재하며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작가가 빛을 해석하는 전반적인 기조는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기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의 화면에서 빛은 대기에 흡수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미미한 선의 일부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가의 표현기법은 다음과 같은 작가의 독백에서 명증성을 획득한다.

“바쁘게 순환되는 시·공간 속에 많은 것들을 ‘담기’와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영원히 담을 수 있는 것도, 영원히 버릴 수 있는 것도 없음을 안다. 다만 그 둘의 간극에서 나는 소통할 뿐이다.”

매우 서정적인 그의 풍경화 세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파묻혀 삶을 영위하고 곡식을 키우며 산책할 수 있는 정감 있는 곳이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자연은 한결같지만 늘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의 화면은 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온기가 느껴지나 매우 걱정적이고 거칠기 까지 하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낳고 자라서 뼈를 묻어야 할 대자연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이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은 얼마나 고요하면서 또 얼마나 격정적인가!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4계의 순환 고리가 그러하듯이 자연은 늘 한결같다.

“다만 봄의 색으로, 여름의 색으로, 가을의 색으로 화장을 바꾸고 다가올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과 인연을 맺으며 그 인연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숨’과 같아서 숨쉬기 위해 부여잡고 그려내어 ‘연(緣)’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매순간 그 형용할 수 없는 다채로움을 잡기 위해 그리고, ‘연’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쁜 손놀림으로 자연을 담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자연관은 세련된 기교보다는 활달한 손놀림으로 자연계에 내재되어 있는 생의 요소들을 표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의 <여름-베니스>나 <가을-계곡>, 그리고 <겨울-풍경> 등은 고즈넉한 자연의 정경을 그린 것이지만 작가는 이러한 주제를 강조한다. 이를테면 그의 화면에서 명백한 병립이나 명료한 대조는 융합이라는 전제에 의해 대체된다. 대상과 형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통해 끊임없이 운동이 매개되고 있다. 분화와 통합이 생명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변증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정물화, 이를테면 <봄-진달래>나 <여름-백장미>, <가을-석류>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부분이다. 이는 기교의 원숙미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심성이 대상과 물아일체가 되어 생의 요소를 들추어 낼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경지일 것이다. 작가는 자신을 대상에 육화시킴으로써 진정성이 담보된 화면을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생명성의 총화

이처럼 오효석은 꽃과 과일 같은 정물화의 통상적 소재는 물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대상을 포착하여 ‘풍경적 정물’의 형식으로 재현해 낸 것까지 다양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때의 정물들은 화면 안에서 전체적 부분으로써 스스로의 자태를 뽐내지만 화면전체의 구성과 리듬에 거슬리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으로써 자신의 확고부동성을 강조하면서도 화면의 일원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물이 화면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술사를 통해 미술작품의 의미를 역추적 해보면 그 본질이 결국은 생명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오효석은 풍경 또는 정물이라는 비교적 전통적인 분야를 선호하나 그의 그림은 오히려 추상회화를 닮아있다. 작업방식도 그러려니와 그 효과도 그렇다. 잠

깐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재현의 충실성보다는 대상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성과 화면이 갖는 물질성에 주목한다. 대기氣라는 프리즘은 하나의 장면을 다각도로 굴절시키고 그 안에서 대상들은 스스로 존재론적 정당성을 가지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때 색채는 대상을 규정하기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지녀왔던 심상의 색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의 화면이 풍기는 표현주의적 요소와 대상이 갖는 생동감, 그리고 빛의 파동에 따른 자연의 모습이 통상적인 대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생동적인 모습을 통하여 만고불변의 자연법칙을 시사할 뿐이다.

최근 오효석은 주목할 만한 화면의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일단 그는 캔버스에 애포르멜적 추상회화를 그려낸다. 이때 화면은 작가가 의도한 대로 물질을 가득 머금은 지지대로 변하는가 하면 물감과 빛의 변주에 따라 풍부한 마티에르의 격정적 화면으로 거듭나게 된다. 근대 회화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에 그가 선택한 대상을 재현해 넘으로써 격정을 완화시킨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 코스모스 등 계절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소재들은 스스로 은은한 자태를 뽐내거나 화면에 녹아들기도 한다. 자연을 닮아 있으나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의 그림은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그의 심상을 닮은 듯하다.

필자는 우선 그의 <행복한 날에는>이라는 개성적인 그림에 주목한다. 슬프도록 만개한 개나리 주변에 다소곳이 봉우리 진 진달래는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라 다시 만개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미 만들어낸 바탕의 화면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토양인지 또 다른 유기물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든지 상관은 없다. 단지 그의 화면에서 드러나는 유형·무형의 형태가 주는 예술적 성취와 회화적 가능성에 주목할 뿐이다. 약 400년전 김명국이 일본에서 벽에 금액(金液)을 뿌리고 그렸다는 그림이 아마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의 <진달래>연작 역시 매우 개성적인 필치를 보여준다. 오효석은 비균질적인 바탕화면에 생명감 넘치는 진달래꽃을 듬성듬성 그려 탐스러운 화면을 일구어 내고 있는데 이처럼 ‘색채로 뒤덮힌 평면’에 또 다른 색채로 대상을 규정짓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효석은 마치 연금술사와도 같이 황량한 화면에 생명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효석은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여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매개로 하여 예기치 않게 생동적인 작품들을 생산해 냈다. 그가 매우 금욕적인 방법을 통하여, 즉 현란한 색채와 고도의 기교적 유희를 스스로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색채와 형태의 상관성은 물론 인간적이면서도 자연의 법리에 충실한 어떤 형태와 밀도, 무게를 가진, 그리고 표현방법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그만의 표현어법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함 때문일 것이다.

Oh Hyo-seok, Figurative Abstract, Abstract Figurative

I visited the atelier of Oh Hyo-seok for the first time in about a year. He seems to have gained momentum in his paintings after newly opening his art studio courtesy of the Incheon Art Platform. His expression is bright and confidence doubled, as he has just returned from a successful solo-exhibition in Japan. His paintings from the exhibition, however, have not yet arrived. Nevertheless, his studio is already filled with many pieces of his work, which seem to demonstrate his perseverance and assiduity.

It is a well-known fact that Oh Hyo-seok, who has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due to his hearing impairment, tries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through his paintings. Nature is used as a venue linking the artist, who faces challenges in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This is why Oh Hyo-seok so thoroughly and persistently observes and looks into the intrinsic attributes of nature, and projects his findings into his art. However, he does not stop at merely depicting nature. His art reflects his various impressions of nature, from recognition of the sublime natural order to an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 and space. An admiration for the passion and energy found in light and the atmosphere, for the cycle of nature which undergoes constant change, and for the earth which beholds traces of mankind can also be found in his art.

Dialectic of incorporation and discard

In his painting titled <Spring-Farmhouse>, the artist utilizes traditional techniques of painting such as liner perspective and colour perspective while at the same time commands a bird's eye view of the object, thereby examining the scenery of the seasons in a more comprehensive and full manner. He also adequately balances the use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thereby emphasizing or concealing the object in the painting. In <Spring-Magnolia> or <Spring-Pear Flower>, the artist organically links the object with the negative space, but at the same time, does not fail to highlight his motif which is incorporation and discard. Meanwhile, in the paintings of Oh Hyo-seok, we can find spectrums of light passing through the atmosphere and the mystic movements of objects within the light. Such paintings may look rough but are in fact gentle and delicate. Also, the light in the paintings either highlights the objects and emphasize their existence without exposing itself or draws the attention of spectators by taking a certain form within the painting itself.

However, the overall manner in which the artist interprets light in his work is through the method of concealment rather than exposure, as in his paintings, light is expressed as faint lines or as being absorbed into the air. Such expressive techniques of the artist can be verified in his own words.

Lee Kyung-mo
Art Critic

“As the “incorporation” and “discard” of numerous objects continue throughout the vastly changing time and space, there is nothing one can perpetually incorporate or discard. What I am doing is simply trying to communicate through the chasm separating the two (the incorporated and the discarded).”

The world portrayed in the artist's lyrical landscape paintings is an amiable world in which one can enjoy a peaceful life, raising crops and taking leisurely strolls. According to the artist, nature seems to be consistent and never changing but is in fact, constantly presenting to us something new and different. Likewise, we can feel the warmth similar to that of a mother's bosom from the paintings of Oh Hyo-seok in which no human forms can be found, but we can also witness great passion, violent emotions and brutality. This is perhaps because the artist's deep affection towards Mother Nature in which he was born and raised, and to which he will ultimately return, is reflected into his work. As we all know, how tranquil but at the same time full of passion and emotions is natu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however, nature is fundamentally constant as is the cycle of the four seasons.

“It is merely approaching us in different colors, decorating itself in shades of spring, summer, and fall. All human beings have a bond with nature. That bond to me, a person who cannot speak nor hear, is like the “breath” I take and I am clutching on to and drawing nature in order to breathe and thereby continue this bond. Every moment I move my brush, it is to capture nature on my canvas, so that I may portray its diversity which is beyond description and honor the bond I have with it.”

Based on his view of nature, Oh Hyo-seok focuses on using vibrant brushstrokes, rather than sophisticated techniques, to express the elements of life inherent within nature. His artwork such as <Summer-Venice>, <Autumn-Valley>, or <Autumn-Scenery> portrays serene and tranquil scenes of nature but the core of these paintings is in fact the artist's theme of life. Distinct coexistence or clear contrast is replaced with the premise of harmony. Object is tied to shape, and such a tie enables endless movement. Centered around the axis of life, division and integration continues. This is a common feature that can be found in the artist's still-life paintings such as <Spring-Azalea>, <Summer-White Rose>, and <Autumn-Pomegranate>. What makes this possible is not the use of

sophisticated techniques but the artist becoming one with the object and in turn being able to identify the elements of life within the object. By incarnating himself into the object, the artist is able to create a painting filled with true authenticity.

Vitality's harmony with the whole

As noted above, Oh Hyo-seok captures general subject matters of still-life paintings such as flowers and fruit as well as objects that exist as part of nature and creates paintings in the form of “landscape-like still-life paintings.” In such paintings, the object proudly poses itself as part of the large picture but remembers to constrain itself so that it will not hurt the overall structure or rhythm. In other words, its immovable place as the object of the painting is emphasized but it also remains to be one of the many elements of the painting. Much significance can be placed on the fact that the still-life object can be compared to an organism within the painting. After all, when tracking the significance of artwork in the history of art, we can find that the essence of art lies in vi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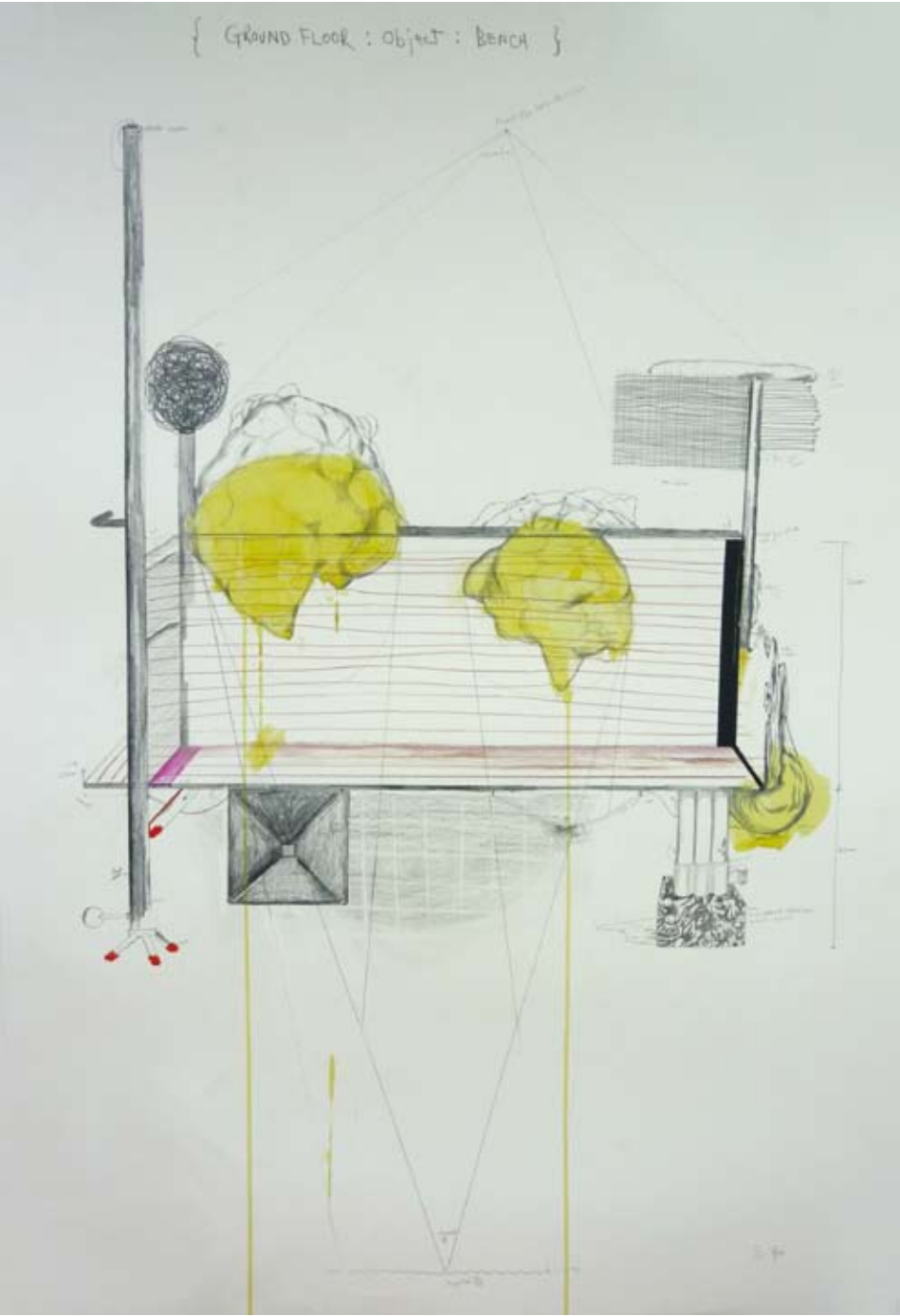
Oh Hyo-seok prefers to draw relatively traditional landscapes or still-life paintings. However, his work resonates more with abstract paintings, not only in terms of the style of his artwork but also its effects. As was shortly mentioned above, rather than faithfully reenacting the object in his painting, he focuses on its vitality and the materiality of his paintings. Atmosphere becomes a prism through which scenes are refracted at different angles and within each refracted outcome can be found objects with just causes for their existence. It is highly likely that colors are used for reflecting the mind and sentiments long harbored by the artist rather than prescrib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objects tend to possess. The basis of this assumption is the artist's reluctance to portray objects in the way they are generally observed by the naked eye. Instead, he focuses on highlighting expressive elements and vitality of the object as well as the impact the fluctuation of light has on nature. Paradoxically, the artist presents the unchangeable law of nature by capturing on his canvas the vitality of nature that continues to undergo change every minute.

Recently Oh Hyo-seok has been attempting a notable variation in his paintings. First, he draws on the canvas an informel-style abstract painting. As the artist has intended, the canvas transforms into a foundation extensively covered with matter or a painting of violent emotions created through the use of *matière* based on the variation of oil colors and light. In modern painting, this would be sufficient to be accounted as a completed piece of art on its own. However, the artist goes on to alleviate the passionate and violent emotions by reprodu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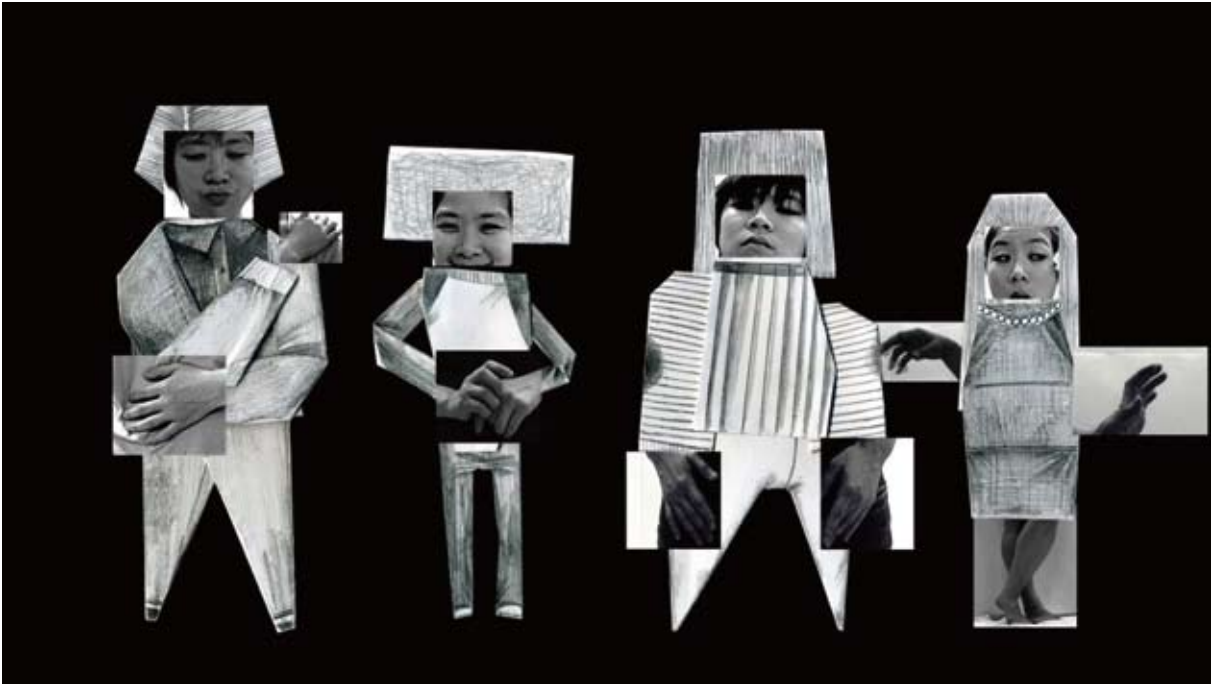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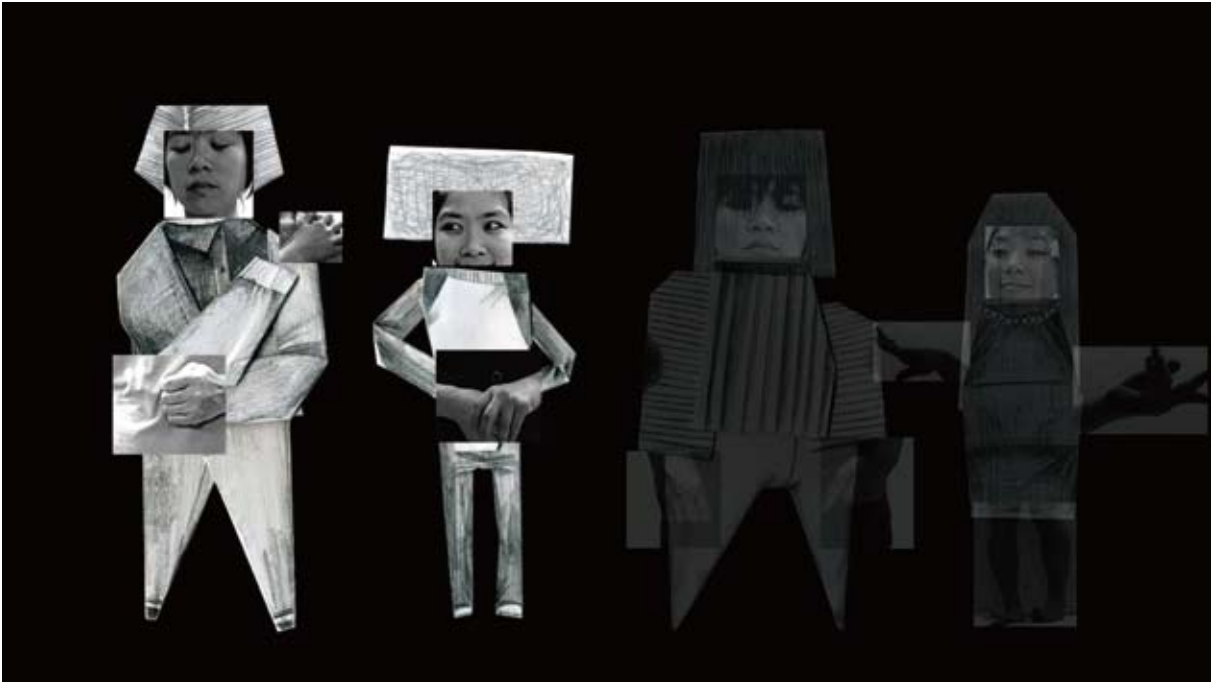
the object of his choice. Subject matters such as azaleas, forsythias, magnolias, and cosmoses, carrying the scent of their respective seasons, take vague forms on the canvas or are dissolved into the background. His paintings which resemble nature but somehow seems unnatural, and at the same time are too natural to be called artificial, take after the calm but intense image of the artist.

I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a unique piece of the author titled <On a Joyful Day>. The forsythias in full bloom and the azaleas which are starting to blossom will follow the course of nature, turning yellow and falling from its stems after being in full bloom.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 makes you wonder—is it the soil or another organism? But whatever it is, that is not important. One must focus on the artistic accomplishment and pictorial potential of the material and immaterial forms found in his work. Perhaps the mural painting drawn by Kim Myung-kuk four hundred years ago in Japan using golden liquid was a work of similar style. Oh Hyo-seok's <Azalea> series also demonstrate the artist's unique stroke of the brush. A scrumptious painting is created by sporadically drawing azaleas on an uneven surface. One can presume that depicting an object by applying color on top of a “surface covered with color” is not an easy task. Nevertheless, Oh Hyo-seok breathes life into a dull canvas as if he was an alchemist.

As such, Oh Hyo-seok discovers and attaches significance to the various aspects of nature, then uses them as medium for creating art full of unexpected vitality. Why is it that even though he has exercised asceticism in his paintings, in other words constraining the use of exuberant colors and refraining from the act of playing with techniques, his art can still touch our hearts? It is probably because of the refreshing sensation we feel when having encountered his artistic creations in which we can find correlativity of color and shape as well as a certain form, density, and weight that are true to the law of nature but also have a human touch; artistic creations which allow a wide range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implemented method of expression.



Object 1: Bench
2009
종이 위에 혼합재료
121 x 76.5 cm



Villains 2,3
2009
video still

퍼포먼스와 시각 작업의 통섭을 높이하다

김채현
춤평론가, 무용원 교수

유은주의 이번 오픈스튜디오 작업은 2010년 2월 인사미술공간(인미공, 서울)에서 가질 작업의 선행 단계에 해당된다. 인미공 작업에서 소재는 ‘악행惡行’이며, 인미공 3개 층의 공간을 무대로 설치 및 퍼포먼스 양식이 악행의 세계를 표현할 예정이다.

악행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아는 듯 하면서도 그 범위나 의미를 선뜻 정하기가 망설여지는 악행은 상대 개념인 선행善行과 비교되면 그 실체를 좀 빨리 드러내는 것 같다. 권장하지 못할 행위 가운데 교묘히 남에게 상처를 안기거나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악행에 속하지 않을까.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사람들의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 은 악행의 일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인천아트플랫폼으로부터 멘토링 의뢰를 받고나서 유은주 작가에게서 맨 처음 들은 소재 ‘악행’은 우선 나의 호기심을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일상이 사실 악행의 일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니까. 한없이 넓은 악행의 영역에서도 유은주 작가는 일차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일은 아니되 우리 주변의 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인생 행로에 큰 영향을 미칠 나쁜 사건이나 인간 관계’로 정리하였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작업을 위해 멘토와 작가는 2주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화 연락(도합 90분간), 7회의 인터넷 메일 소통, 1회의 면담(40분간)을 가졌으며, 작가가 해외에 잠시 머무는 사이 멘토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오픈스튜디오를 한 차례 미리 답사하였다.

예술에서 특정 소재가 자극하는 큰 호기심은 예술 작업의 단서가 될 진 몰라도 그 작업의 최종 성과마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술 작업에서 구사되는 재료나 매체가 일정한 양식으로 융합되어 빛는 내러티브가 관건이다. 거꾸로 말해, 어떤 재료, 매체, 양식 및 내러티브가 공감을 살 만큼 어울린다면 얼핏 호기심을 사지 못할 소재도 예술화될 만한 가치를 얻게 된다. 이 대조적인 경우들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이렇 것이다. 소재는 재료, 매체, 양식 및 내러티브의 싹을 돋우고 그것들이 불타오르게 하는 계기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주지하듯, 소재에 관한 인식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은 예술 작업의 근본에 속한다. 물론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재 인식이 다듬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번 멘토링의 첫 단계에서 멘토는 작가에게 ‘악행’의 의미와 내용을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악행에 해당하는 행동거지, 그리고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들을 조사해볼 것을 주문하였다.

작가 역시 진작부터 나름의 설문지 조사로써 일반인들이 겪은 악행의 체험을 조사하고 악행을 여덟 가지 유형(모함·비하 무시·스토크 유형 등등)으로 분류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작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악행과 연접한 낱말은 악작惡作·악업惡業·악설惡說·양설兩說·먹튀족을 비롯하여 북한말인 뒤편장질·모서리주기·오그랑수手·쥬걸음 등 꼬리를 물고 등장하였다. 사전은 오그랑수를 겹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이라 풀이한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 세상 어디서나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고 남을 어지럽히며 자기 잇속만 챙기는 등등 악행이 그득하다는 심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김채현
춤평론가, 무용원 교수

신은 악행을 저지르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이 아닐 것이다. 이 우주에서 악행은 인간만의 행위이자 가능성이다. 개개의 인간이 타인을 부정적 대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근원적인 악행은 존재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가령 악행이 더 자행되는 지역이나 특정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은 악행을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예술화해서 사람들의 성찰을 유도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설문지 조사·낱말 조사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유은주 작가가 소재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을 통해 어떤 상상력을 품게 되었는지 안심하고 단언하자면 아마도 ‘악행’ 작업이 마무리될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만 설문지·낱말 조사 두 작업을 통해서도,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보다 악행을 당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악행에 관한 부정적 진단이 작가에게서 그대로 건지된 것은 작가가 악행을 사소하지만은 않은 심각한(사회) 병리 현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은주 작가는 자기 이력을 이렇게 구술하였다. 조소彫塑 전공자로 대학에서 연극동아리 활동을 한 터에 공연예술 형식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원과정부터는 퍼포먼스·신체 움직임이 포함된 영상 작업을 주로 했다. 최근엔 일반 관객이 참여하는 4~5주간의 워크숍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비디오에 삽입하는 방식을 시도하며 언더 더 브릿지(다리 밑)란 단체 이름으로 거리 공연을 한 경우도 있다. 그 단체는 아마도 원맨 프러덕션이 아닌가 싶다.

작품 ‘악행’에서 작가가 동원하는 설치와 퍼포먼스라는 매체를 작가는 이전에도 수차례 다룬 적이 있었고, 이는 작가가 개설한 사이트(http://underthebridge.tistory.com/)에서 확인된다.

‘너의 꿈 속에서 춤추는 나’ ‘빨간 구두’ ‘악인들’ 같은 근래의 시도들에서 멘토는 작가가 이끌리는 매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몽타주 사진과 애니메이션의 모자이크적 혼합, M. C. 에서 풍의 몽환적이며 단절된 세계를 연상시키는 선묘화線描畵, 퍼포머들의 동화적童話的이며 기형적인 의상과 치장, 그리고 그들의 꿈 속 장난질 같은 돌출 행위가 그것들이다. 이들 매체로 형태화된 이미지들은 대체로 세심한 디자인을 대하는 듯한 정교함을 갖추어 우선 작가가 민감한 관찰력을 소유했음을 직감케 한다. 이 점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일상적으로들 무심코 넘기기가 예사거나 당연시하는 악행과 같은 현상을 병리 현상으로 애써 강조하려는 일이 적어도 유은주 작가에게서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멘토인 나의 상식에 비추어, 퍼포먼스와 세심정교한 이미지의 결합은 드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흔한 것도 아니다. 이 둘의 관계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꽤나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둘의 결합을 꾸준히 모색해온 작가로부터의 ‘악행’ 작업은 기대를 걸게 한다. 세심정교한 이미지는 능히 단독으로 존재하겠고, 이 세상에서 다반사로 행해지는 퍼포먼스 역시 대부분 단독으로 존재한다. 퍼포먼스에 ‘세심정교한’ 이미지를 혼합하는 유은주 작가 식의 작업은 국내에서 극소수 작가들의 관심사였던 것 같다.

현단계에서 퍼포먼스나 무대 양식의 장르 관점에서 시각 이미지와의 결합은 관심을 키우기 마련이다. 유은주 작가는 나에게 비평 매칭을 의뢰한 이유를 이

렇게 설명한다.

자기처럼 장르 구분이 애매한 작가에 대해 자기가 속하지 않은 분야의 비평가의 시선이 궁금하고 또 퍼포먼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누군가와 검토하면서 작업을 보다 뚜렷이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 또한 공연예술계나 시각예술계 모두 각각 ‘복합 매체’를 사용하지만 비평 교류가 많지 않고, 상대 쪽의 특질·성격 등에 대해 무지한 폐단을 넘어서고 싶다는 것이었다. 작가가 밝힌 궁금증과 폐단은 장르별 비평에서 퍼포먼스가 사각死角 지대로 남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퍼포먼스와 세심정교한 이미지의 통섭統攝(consilience), 그것이 퍼포먼스의 표현 범위를 확장시켜 의미와 양식을 풍부하게 하며 세심정교한 이미지(더 나아가 썰치를 포함한 시각 작업)에 강한 생명적 활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유은주 작가는 ‘악행’ 오픈스튜디오 작업 준비 단계에서 여러 유형의 설치물을 구사하여 세심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의욕을 내비쳤다. 신에 작가에게서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일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적극성에 대해 나로서는 다음처럼 양면적 느낌이 들었다. 즉 오픈스튜디오 현장에서 이번 작업을 가급적 포괄적으로 펼쳐 다양한 소감을 유도하려는 열망, 혹은 본인의 작업이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리고 검증해보려는 열망.

이번 오픈스튜디오 작업은 조만간 있을 인미공 ‘악행惡行’ 작업의 선행 작업이므로 굳이 완성작일 필요는 없다. 오픈스튜디오 작업의 초점은 인미공 ‘악행(惡行)’에 관한 예술적 판단을 겸한 조언을 수렴하는 데 있을 것이므로, 관람객(또는 방문객)이 작가의 오픈스튜디오 작업 취지를 수용해서 스스로 조언하고 참여하는 능동적 분위기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멘토는 특히 오픈스튜디오 작업과 관련하여 단순간결성의 이점을 강조하고 작가와 이를 단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멘토와 작가 사이에서 소통된 생각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형상화 매체와 전개 과정을 간결성 쪽으로 손질한다면 어느 정도여야 효율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작품의 내러티브를 인상깊게 뒷받침할 표제(제목)로는 무엇이 적합할까 하는 점에 집중되었다.

인미공 ‘악행’에 대해 작가는 우선 ‘기만’(인미공의 1층) → ‘배타’(지하층) → ‘불신’(2층)의 소재목(?)으로 나뉜진 3부작을 구성할 구상을 내비쳤다. 3부작의 세 공간에 대한 작가의 구상을 요약해본다.

1층과 지하방은 영상과 사운드의 흐름이 평온한 상태-긴장의 상태-공격적 상태-처음의 평온한 상태 순으로 비슷하게 이어진다. 1층 벽면에선 공격적인 입술들이 전시장 양쪽 벽면으로 노이즈와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가 노이즈가 끊길 때 같이 사라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층에서는 배타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관람객과 물체를 등진 뒷모습의 사람들이 나란히 선 모습과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의 얼굴들을 양쪽으로 배열하고, 2층의 방들은 타인과 관계 맺기에 거둢 실패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등장인물이 불신의 방에 숨거나 가뒤흔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멘토링 과정에서 나는 작가에게 이렇게 물은 바 있다.



배우모집 전단지
2009
color
29.7*21cm

1. 자료로 정리된 악행들의 양상에 비추어 예술 행위로 형상화할 때 부각시켜 강조할 것(어느 내러티브, 무슨 종류의 느낌?)은 무엇인가?
2. 그것을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매체와 퍼포밍은 무엇인가?
3. 작가가 선택한 매체와 퍼포밍으로 관객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낄까, 아니면 관객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희망하는가?

이와 동시에 나는 멘토로서 악행에서 연상되는 시청각적 이미지 몇 가지를 제안하였고 관객의 느낌은 악행과 연관이 깊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위에 소개된 작가의 구상은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해도 작가의 최종 결말로 보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인미공에서의 작업 그리고 오픈스튜디오 작업 때까지 작가에게는 응답을 변경할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나의 물음에서 주요한 작업 요소로 손꼽아질 것은 내러티브, 느낌, 매체, 퍼포밍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자. 퍼포밍과 세심정교한 이미지로 처리되면 효과가 클 악행 내러티브는 무엇일까? 그런 과정을 거쳐 구현된 악행 내러티브에서 관객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 악행 내러티브에서 구사된 퍼포밍과 이미지는 악행 내러티브를 예술로 성립시킬 만한 양식을 갖출 수 있는가?

이번 오픈스튜디오 작업은 예비 작업으로서 구실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것은 인미공 ‘악행’으로 가는 종군種軍 실험실이다. 이런 뜻에서 맨 끝에 다시 정리된 세 가지 물음이 이번 오픈스튜디오 작업에서 작가와 관람객을 불문하고 ‘악행’의 내러티브·이미지·퍼포밍 각 측면에서 높이 활용될 종군을 논하고 발 견해내는 화두가 되었으면 한다.

Playing Consilience between Performance and Visual Art

Eunju Yoo's open studio art work is a preparation for her exhibition at the Insa Art Space, expected to take place in January, 2010. The subject of the Insa Art Space exhibition will be "Evil Deed" and she is planning to express them through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rt using the three-floor space at the Insa Art Space.

What is an evil deed? The concept seems familiar to us, yet one feels quite hesitant to set the extent or the exact meaning. However, revealing its true nature becomes easier when compared as the opposite concept of a good deed. An evil deed would include any act that is not recommendable and inflict pain or damage on others. Evil deeds committed by human, may it be a conscious or an unconscious act, are too numerous to list. This leads me to ponder if our daily lives are filled with one evil deed after another.

After Inchoen Art Platform asked me to mentor Yoo Eunju, I was first introduced to the subject of "Evil Deed" which piqued my curiosity. Evil deeds seemed to be omnipresent in our daily lives. Out of infinite range of evil deeds, she limited her scope to "any bad incident or relationship, though it may not be readily noticeable, but may have significant psychological impact on individuals or on their future decision making."

During the mentoring for her open studio work, she and I had around ten telephone conversations (total 90 minutes) and seven e-mail exchanges and one 40 minute face-to-face meeting. While she was abroad, I checked out the Incheon Art Platform's Open Studio in advance.

Curiosity spurred by a certain subject may provide an important beginning for an artistic work but it does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final result. Narrative that can be created by a harmony of materials and medium in a certain style is the key. In other words, if certain materials, medium, style or narrative strikes a compelling harmony, then any subject that might not trigger instant curiosity can be given an artistic value. The implication these two contrasting situations provide is that subject must work as a catalyst that helps material, medium, style and narrative to sprout and shine brightly. As is well known, defining the concept of the subject is part of the basic steps for art work. Of course, it is not rare to find the concept of the subject defined naturally during the process of creation. Nonetheless, from the very initial process of the mentoring, I asked the artist to study behaviors that are deemed as evil and words that refer to such actions to clarif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evil deeds.

The artist had already carried out a general public survey to study the experience of evil deeds and categorized them into seven types (including incriminating, sneering, ignoring, stalking and more). Also the artist listed a number of words that refers to evil deeds including Akjak (evil deeds committed by body) Akeop (wrongdoing), Aksul (evil deeds committed by mouth), Yangseol (playing one against the other) and meoktuijok (ingratitude).

Kim Chae-hyun

Dance Critic, Professor at school of Dance

She also provided words that are often used in North Korea to refer to evil deeds such as Moseorijugi (ostracizing) and Ogeurangsu, Dwinajangjil and Jwigeoleum. Ogeurangsu means committing an evil deed or attempting treachery by deceitful words or act.

This study offers reasons to believe that the world is filled with evil deeds where one constantly goes back on his words and only pursues one's own interest.

Does God commit acts of evil? If so, it will no longer be God. In this universe, evil deeds are distinctive acts and possibilities of human beings. The moment individuals began to recognize the others as objects of dislike; these fundamental evil deeds must have sprung to life. But the sentiment that there is a certain place or time where evil deeds was more widespread, necessitate artists to sublimate such sentiment into art from social or cultural perspective to encourage the public to reflect on it.

In order to declare safely the kind of subject recognition the artist gained through the surveys and related vocabulary research, or the imaginations that were spurred by such recognition, one must wait until the artist finishes her work on "Evil Deed." However, the artist's sustained negative diagnosis of the evil deeds itself, which render the victim unable to cope, rather than the individual that committed such evil act illustrates that the artist is perceiving evil deeds as a form of social pathology that should not be dismissed easily.

Eunju Yoo introduces her experiences in the following manner, She was a sculpture major who was active in theater club at her university which led her to be interested in performing arts style of expression. Starting from the graduate school, she focused on visual art which included performance or physical movements. Recently, she attempted to create a short film from selected movements taken during a four to five week long workshop, where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d and joined a street performance under a group name, "Under the Bridge." I assume the team seems is a one man production organization.

Installation and performances are the mediums that will be in use for the "Evil Deed" project have been used by Yoo on her previous projects. Her works can be checked at her site, <http://underthebridge.tistory.com/>

I was able to sort the artist's preferred mediums into few categories by studying her recent attempts: "Me, Dancing in Your Dream," "Red Shoes" and "Villains." The preferred medium that I verified were montage picture, mosaic mixture of animations, line drawing portraying dreamy and secluded world reminiscent of M.C Escher, distorted and fairy tale-like costumes and ornaments on the performers and their unexpected actions that reminds people of playful dreams. The images that were visualized mostly show delicacy of meticulous design, which intuitively give the feeling to the audience that the artist is a sensitive observer. Looking further into this point, it may not be a coincidence that the artist emphasized many evil deeds as a social pathology even though most deeds are easily forgotten or generally seen as inevitable part of life. As far as I

can recall, the combination of performance and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 is not rare per say, but far from being comm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inherently close but in reality the two elements are hard to combine. So it seems only fair that I have high expectations for "Evil Deed" by the artist who has been pursuing the combination consistently.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s could easily exist alone and performances take places in the world often enough, so they fare well independently. Combining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s to performance, like Eunju Yoo is attempting, are pursued by only a handful of artists in Korea.

At the current step, combining visual i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 or stage style genre is destined to spark interest. Eunju Yoo explained her reason for requesting a mentorship by a critic. She was curious about the perspective a critic from a different field would have on artists, such as herself, who works in a very vague genre. She also had high expectations for the mentoring to lead her works with more clarity by reviewing together her ideas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performance.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both utilize complex media, but a critic that crosses genres are hard to find. She also wished to overcome an inappropriate custom of being ignorant of each other's characteristic and distinctive nature. Her curiosity and the inappropriate custom illustrate the reality where performance exists in the blind spot of genre critic.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consilience between performance and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 expands the range of expression of a performance thus enriching sense and style, injecting strong vigor to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s (furthermore visual work including installation art). However, the artist expressed her desire, while preparing for "Evil Deed" Open Studio, to have various types of installations to express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s. Her proactive approach, which is fairly easy to spot amongst beginning artists, gave me two different impressions. One is her passion to create a variety of impressions by making her work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at the open studio and the other is her desire to promote her work or her world widely and have the works checked by the public.

This open studio work is a preparatory step for "Evil Deed" at the Insa Art Space, thus it does not have to be completed. The focus of the Open Studio is likely to be on collecting feedback including artistic opinion for "Evil Deed" at the Insa Art Space. This means that a welcoming atmosphere that allows visitors or audience to understand the artist's focus and encourages them to voluntarily advise and participate would be crucial.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open studio work, the advantage of keeping her work uncomplicated and simple was highlighted and proceeding discussions were based on that premise. The discussions concentrated mostly on finding the ideal level of streamlining the medium of visualization and steps of proceeding toward simplification and the

most appropriate heading (title) that can support the narrative of the work. The artist expressed her vision of creating "Evil Deed" in three series: deceit (1st floor of Insa Art Space), exclusion (basement) and distrust (2nd floor). The artist's vision on the three spaces for the three series is as follows.

First floor and the basement will have similar flow of visual and sound from tranquility, tension, aggression and then back to initial tranquility. The artist is considering aggressive lips to suddenly appear with noise, on the first floor walls and then disappear when the noise stops. On the second floor, in tandem with the image of exclusion, a visual image of people showing their back to the visitors and objects and faces with a look of disregard will be displayed. In the rooms of the second floor, the circumstances where individuals continuously fail to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s or feel betrayed will be expressed and the artist is contemplating to have characters either hide or confined in the room of distrust. The questions that were asked during the mentoring process to the artist were:

1. Reflecting on the pattern of evil deeds organized in the data, what kind of narrative or feeling should be emphasized when sublimating it to an artistic performance?
2. What media or performing would be needed for visualization?
3. What and how would the audience feel toward the selected media and performing? Or, what does the artist wish to make them feel?

At the same time, as a mentor, I suggested audio-visual images that can be associated with evil deeds and added own opinion that the feeling of the audience must be relevant to evil deeds. The vision introduced above was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but it is still premature to be considered as the final conclusion. The artist is given the freedom to change her response until her work at the Insa Art Space and the Open Studio.

Four major elements for work that three questions emphasized were narrative, feeling, media and performance. To rephrase the questions with a focus on the four elements: Which evil deed narrative would have the most impact if expressed through performance and delicate and meticulous images? How would the audience feel about evil deed narrative that was visualized through the process? Can the performance and images expressed at the evil deed narrative have the style that can sublimate the evil deed narrative into art? The open studio work would have fulfilled its purpose if it serves as a preparation process. It is a test bed to proceed toward "Evil Deed" at the Insa Art Space. In that context, I wish the three questions would serve as an important theme that engages both the artist and visitors in discussions resulting in the discovery of a core element that can be widely utilized for evil deeds' narrative, image, performance.



Incheon Walker' Stories, Flyer #2
2009

Incheon Walker' Stories No.1
Text (Korean and English), 2009
Screen capture from Incheon Walker' Stories:
<http://incheonstories.blogspot.com/>

Family Mart Social 1
Flyer, 2009

Scratching the Surface-Diving in Deep Part 2
(Jooyoung Lee and Sextags)
Radio Apartment #22, 2008

배다리, 홍예문, 맥아더, 청타: 동인천역에서 인천역까지

정현
미술비평

“그러나 결국 여행 특유의 즐거움이란 도중에 내릴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과 도착 사이의 차이를 뒀 수 있는 한 알아차릴 수 없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러한 차이를 가능한 한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유럽사회에 배회자가 등장하던 시기는 근대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였다. 도시를 향한 시적 응시를 의미하던 배회는 단순히 걷기의 즐거움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피였으며, 모태로의 회귀와 다르지 않았다. 초현실주의자들의 몽상은 비현실이라기보다 탈현실적인 심리적 접근이 강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도시화와 상업화가 만든 공적영역의 확립은 도시에서 일상과 삶의 기슭을 지워버렸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파리에 남아있는 삶의 흔적을 찾아 대로가 아닌 좁은 길을 선호했다고 한다. 배회는 또 다른 의미로 시적 생존의 행위였다. 그리고 벤야민에 의해 근대의 신인류인 배회자가 등장한다. 가끔은 배회자는 개념만 존재하는 벤야민의 순수한 발명품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혹은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른다. 배회자는 도시라는 익명의 장소, 군중이라 불리는 불특정다수 속에 살면서 동시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대의 관찰자이자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은 거대한 사건, 시대의 이념을 대변하는 장소를 성화시키는 대신 개인의 삶은 도시의 이야기 안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배회자는 이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를 탐험하고 거대한 역사의 고고학이 아닌 가려진 기억을 되살리고 역사화된 과거와 다른 사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흔적을 탐구하는 주체적인 고고학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주체적 걷기: 장소의 발견

무엇보다 이주영에게 타인, 이질적인 문화를 만나는 행위와 과정은 작업의 원동이다. 그녀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Scratching the surface diving in deep /part2> (2008)는 노르웨이의 레지던시 경험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로 과거부터 문명의 교차로이자 한국의 근대화의 원점이었던 인천에서 진행되었다. 영국인 DJ인 유진 블레이크의 사사를 받은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 미닛 모탄을 일일DJ로 변신시키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주영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빚어낸 이주와 노동의 텍스트를 문화적 문맥으로 전복시키면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 속의 위계질서와 자본논리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질문이었다. 본격적으로 걷기 작업이 실행된 것은 <패밀리마트 소셜(Family Mart Social)1>(2009)로부터 촉발되었다. 이주영 외에도 권오현, 클라우디아 페스타나가 참여하면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24시간 편의점인 패밀리마트가 동네 공동체의 사랑방 기능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이 프로

젝트는 한강 복안에 위치한 양화진을 출발하여 주변의 패밀리마트를 이정표 또는 정거장 삼아 합정동과 홍대 인근을 탐험하는 도시탐사를 빙자한 ‘걷고 마시고 수다 떨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흥미로운 점은 양화진의 장소성에 있다. 양화진은 조선시대 인천을 연결하는 나루터였으며 군사적으로도 18세기 말 한강진·노량진·동작진·송파진과 함께 한양의 오진(五鎭)중 하나로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이후 병오박해(1849년)에 의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여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참수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100년 후에 절두산 순교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조성되었다.

<패밀리마트 소셜1>은 현대의 산물이자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물이 혼재한 가장 일상적이면서 전위에 서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첨병인 24시간 편의점이 세계화의 한 단면이자 부정할 수 없는 서울이란 대도시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다. 패밀리 마트와 양화진은 현대서울의 장소에 대한 겹을 응시하게 해준다. 마치 벤야민이 파리의 배회자가 근대의 신인류임을 주장할 때, 그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내딛는 한 걸음마다 가려진 과거가 놀라운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는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주영이 연결시킨 두 장소는 근대화의 지표인 역사적 장소인 양화진과 기억이 부재한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상점의 이면을 교차시키면서 긴 역사를 가진 서울이란 영토의 겹에 물음을 던진다. 만약 영국 식민지 역사의 끝을 기다리는 홍콩이란 장소에 대한 이중적인 배경으로 등장한 왕가위의 영화 <중경삼림> 속 편의점은 만남과 이별에 대처하는 현대인의 ‘쿨’한 정서를 보여주면서 시대를 변화를 비유한 알레고리였다면, 벤야민은 파리의 과거를 “두 겹으로 이루어진 바닥을 비추는 가스등 불빛”이라며 근대화된 파리를 묘사하면서 바닥 밑에 묻힌 역사 밖의 과거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주영의 인천 걷기가 가려진 인천이란 시공간의 겹을 보여줄 수 있을까?

두 겹의 바닥: 동인천역부터 인천역까지

인천의 걷기 프로젝트는 동인천역에서 시작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구 시가지의 전형적인 풍경으로 남겨져 있다. 80년대의 도심지에서 풍기는 노스탈지아와 익명의 높지 않은 건물들이 오밀조밀 조합된 동인천역 주변에서 과거 배다리는 문화적 지표로 현책방과 식도락 지역으로 상당히 알려진 장소였다. 건축이나 도시문화연구를 하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배다리 기행은 꽤 알려진 답사 지이기도 하다. 사실 블로그와 같은 개인미디어를 통해 이 장소는 나름의 유명세를 갖고 있으며, 내가 이주영과 함께 산책한 경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걷기와 도시를 탐사하는 행위 그 자체는 그날따라 유난히 을씨년스러웠던 날씨 덕분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겹의 시간을 밟고 지나가는 인상을 받았다. 동인천 주변을 지나 자유공원으로 향하면서 개화기의 인천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장소의 진정성은 모방할 수 없는 유일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나이를 가능하기 힘든 거대한 플라타너스의

너른 품과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이는 적산가옥들, 산등성이 틈으로 형성된 좁은 골목들, 맥아더 장군상 앞에서 비로소 들리는 기적소리와 연안부두의 정경은 적당한 이국적인 자태로 다가왔다. 자유공원을 너머서자마자 펼쳐지는 차이나타운은 도시재생을 위해 급하게 개발을 한 흔적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살고 있는 화교들의 삶이 있기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이방인 마을의 기운 또한 공존하고 있었다. 다소 영성한 삼국지 벽화가 그려진 화교학교를 지나니 과거 청일 간의 영역다툼의 흔적이 계단을 중심으로 그대로 남겨진 조계지가 등장한다. 이 사이 계단을 내려오니 창고를 개조한 아트플랫폼 역시 언캐니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낮은 구릉을 몇 번 오르내리다 보니 벌써 목적지다. 이주영의 걷기는 개화기와 근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감성적인 산책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경로에 따라 산책의 느낌은 사뭇 달라지겠지만, 현재 인천이 겪고 있는 개발의 현장을 비껴가면서 도착한 아트플랫폼이란 문화적 장소가 사실은 이 개발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비장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벤야민 자신이자 그가 만든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는 배회자가 걸었던 두 겹의 바닥을 이주영과 내가 걸었던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산업화 시대의 자취를 밟았고, 배다리 근처의 현책방에서 문명의 석임을 만났다. (나는 현책방에서 이탈리아 칼비노의 “If on a winter’s night a traveler”와 사르트르의 불어판 “구토”를 단돈 6000원에 구입했다. 이곳에선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심지어는 히브리어의 책까지도 진열되어있다.) 곧이어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홍예문과 맥아더 상을 지나 신인천개발의 논리 하에 재현된 허구화된 차이나타운을 여행자처럼 걸었으며 (여기에서 2000원이란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청타오 맥주를 샀다) 개화기라는 시대적 지형도도 탐사할 수 있었다. 다소 감상적일 수 있겠지만, 기억의 흔적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영토화를 동시에 관찰하는 걷기 과정은 작가가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일련의 미션(일회용 사진기를 이용한 기록과 지도 그리기와 길거리에 분필로 낙서남기기와 같은)을 수행하는 과정의 기록을 통해 스스로 주체적인 걷기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지형도를 그리게 된다.

이주영은 궁극적으로 매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술가의 역할이 생산자가 아닌 문화적 매개자로, 개인의 일상과 그 경험을 잡지, 라디오, 인터넷 방송, 블로그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기록되고 소개되는 일련의 행보를 작업을 매개로 한 상호교환성에 있다. 침입과 저항, 수탈과 교환, 이질성과 동질성과 같은 대립항의 흔적과 기억의 공간으로서 인천에 집중된 최근의 작업은 계획되어졌다고보다 하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으로 연장되면서 새로운 영토를 찾아 떠나는 노마드로서 이주영은 이제 동아시아의 조계지, 요코하마와 상하이로 인천의 문화인류학적 궤적을 확장하고자 한다.

Pontoon Bridges, Hongyemun, MacArthur, and Ching Tao : From Dong-Incheon Station to Incheon Station

Jeong Hyun
Art Critic

“After all, the joy of traveling is not in being able to quit mid-way through the journey..... It is in deepl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when the journey begins and when it comes to an end.”

- Marcel Proust

When modern cities began to be developed, wanderers started to emerge in the European society. Wandering, which meant taking a poetic gaze into the cities, was more than simply enjoying the delight of walking. It was an escape, no different from a return to the mother’s womb. Let’s remember that the dreams of surrealists had a break-from-reality approach, rather than an unrealistic one. The public territory created by urban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border between routines and life cities. So surrealists, who were in search of the remaining vestiges of life in Paris, preferred narrow roads to highways. In another sense, wandering was a means of poetic survival. The concept of the wanderer, a new modern-day persona, was created by Walter Benjamin. Sometimes it seems the word is Benjamin’s pure invention, just a concept. Or it just may be a metaphor of the square peg in a round hole, the one that fails to fit in the large organization called society. Whatever the case may be, the wanderer represents modern day observers who oppose changes of the era, living in anonymous places called cities, amongs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called the public. The plan to build cities brought to life, a place that represented the pivotal events and ideologies of the era. However, the stories of individual people were lost in these new cities. In contrast, wanderers are practicing an active type of archeology by exploring the cities, bringing back the forgotten memories and searching for the traces of a personal and routines rather than the past which has been written into history.

Walking Actively: Discovering a Place

To Lee Joo-young, the act and process of experiencing a different culture are what inspires her work. She works on a variety of joint projects simultaneously. Among these projects, “Scratching the surface diving in deep /part2” (2008) was inspired by a Norwegian-residency experience. The project started out in Incheon, which has been the historic intersection of civilizations and the origin of modernization in Korea. In the project, Minut Motan, an immigrant worker from Nepal, is transformed into a DJ for a day with the help of Eugene Blake, a

professional DJ in Britain. Lee tries to culturally reverse the concepts of immigration and labor created by capitalism, posing two important questions. One is about the role of an artist in modern society, and the other is in regards to social status, which is determined based on social hierarchy and capitalism. The idea of walking through cities was derived from “Family Mart Social” (2009). The project, which also involved Kwon Oh-hyun and Claudia Pestana, was actually inspired by a 24-hour convenience store in Korea called Family Mart. Lee found that Family Mart served as a venue of social intermediation, a place where th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gathered together. The project started out at Yanghwajin, which is north of the Han River, and continued on through Hapjeong and to areas around Honggik University, making a short stop at every Family Mart along the way. It was all about walking, drinking and chatting while exploring the city. Yanghwajin is a historically important area and made the project all the more meaningful. During the Chosun Dynasty, Yanghwajin was a dock along the waterway to Incheon from other areas. It was also a strategic military post in the late 18th century, as one of Hanyang’s (Seoul’s old name) five major strategic locations, along with Hangangjin, Noryangjin, Dongjakjin, and Songpajin. During the Byeong-Oh persecution in 1849, nine missionaries from France and around 8,000 Catholics were beheaded. A century later, the Jeoldusan Martyrs Museum was established and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was organized.

Through the “Family Mart Social 1,” you can see that the 24-hour convenience store represents today’s Seoul, as a cultural spot in the capitalist society, which is a product of the modern era and the most common and leading type of society where diverse civilizations coexist. Family Mart and Yanghwajin allows you to appreciate the areal layers of Seoul, which reminds one of the words Benjamin used, the claim that the wanderers in Paris were the new modern-day persona. The sentence goes, “In the asphalt over which he passes, his footsteps awaken an astonishing echo.” Lee connects Yanghwajin, a historical place and an indicator of the modern era, with the 24-hour convenience store with virtually no memories, drawing attention to the areal layers of Seoul, challenging the city’s boast of long history. The movie Chungking Express directed by Wong Kar Wai told two different stories of Hong Kong, a city that awaited the end of the British colonial rule. In the movie, the convenience store was used as an allegory that portrayed changing times by showing how casually modern day people dealt with relationships. However, Benjamin described modern Paris as “a gas lantern shining light on a two-

layer ground,” providing an allegory of the forgotten past buried under the ground. Then, will Lee’s project of walking through Incheon be able to reveal the hidden layers of Incheon’s space and time?

Two-layer ground: From Dong-Incheon Station to Incheon Station

The Incheon project starts off at Dong-Incheon Station. The areas around the station still depict the typical landscape of old city streets. Where the inner city, still with sense of nostalgia of the 1980s, and the anonymous low-story buildings meet, stands the pontoon bridges, a cultural spot famous for used book stores and epicurism. Pontoon bridges are a popular destination for people interested in architecture or studying city culture. The bridges have been featured in a number of internet blogs as well. In fact, when Lee and I visited the bridges ourselves, we followed a course introduced in one of the blogs. May be it was the especially bleak skies, but the walking and city exploring felt like stepping through numerous layers of time. Walking past Dong-Incheon towards Jayu Park, we were able to imagine Incheon during its modernization period. I believe the authenticity of a place comes from inimitable uniqueness, and there was something very exotic about everything there, from the wide branches of the extremely tall Platanus, to the seemingly inhabited Japanese style houses, to the narrow paths between the mountain ridges. To the train whistle that was finally heard only when we neared the statue of General MacArthur, and the quayside atmosphere nearby the statue greeted us with enough sense of unfamiliarity. The Chinatown, which was right past Jayu Park, was evidently built in a rush. The Chinese-Koreans living there lent an exotic touch to the area. We went past the Chinese school, with rather slipshod paintings of the three Kingdoms era lined the walls. Then we came across a concession, where the vestiges of the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 could be found on the steps. We came down the steps to spot an Art Platform remodeled from a warehouse, standing in an uncanny way. After climbing up and down several low-lying hills, we arrived at our destination. Lee’s walking project was an emotional activity that takes you through the modernization period. The walk would feel different based on the route she chooses, but you can not deny the fact that the Art Platform, a cultural place that was also our final destination after passing by the areas newly developed in Incheon, is actually a non-site built in the same context as the newly developed areas.

I wondered, did Lee and I just walk on the same two-layer ground that the

wanderer, Benjamin himself or the fictional character he created, walked? During our walk, we came across the traces of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At the used book store near the pontoon bridges, we encountered the melting pot of civilizations. (At the book store, I bought Italo Calvino’s “If on a winter’s night a traveler” and Sartre’s “Nausea” in the original French for just 6,000 won. The store had books written in Japanese, Chinese, German, French, English and even Hebrew.) Shortly after, on the path leading up to Jayu Park, we went past an arched gate and General Macarthur’s statue, and walked through the seemingly fictionalized Chinatown (where I bought Tsing Tao beer at the unbelievable price of 2,000 won) that was built under the new Incheon development project, allowing us to explore the urban plan of the modernization period. It may sound rather emotional, but the walking, the act of searching for the traces of memories and observing the creation of areas for survival, allows you to draw a psychological map by recording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missions presented by the author (such as taking pictures with a disposable camera, drawing maps, and scribbling on the streets with chalks).

In the end, Lee poses a question about the media. The daily life and experience of an artist, who has a role as a cultural mediator, rather than a producer, are introduced through mass media including magazines, the radio, internet broadcasting, and blogs. This entire process is based on interchangeability. The recent project focused on Incheon, a place filled with memories and traces of contradictory concepts such as invasion and resistance, exploitation and exchange, and heterogeneity and homogeneity, was not planned in advance but carried out as one project extended into another. And as a nomad in search of new lands, Lee hopes to expand the cultural anthropological traces of Incheon to the concession in East Asia, to Yokohama and to Shanghai.



변성하는 집중 01
Biomorphic convergence 01
2009
Steel & Mixed media on Panel
124 x 82 cm



변성하는 집중 02
Biomorphic convergence 02
2009
Steel & Mixed media on Panel
124 x 82 cm

사유하는 힘, 잡설의 뿌리를 형상화 하다

- 임경수의 '판의 회화'가 갖는 의미들



변성하는 집중 03
Biomorphic convergence 03
2009
Steel & Mixed media on Panel
124 x 82 cm

김종길
미술평론가

삶의 긍정과 부정 사이에 예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개의 추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삶의 긍정 바깥에 예술이 존재한다. 이 경우 예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삶을 긍정하는 자들의 시선에는 예술이 현실과 괴리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삶의 긍정 안에 존재한다. 이때 예술은 사치품이 되거나 오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술은 자신의 존재목적과 상관없이 이해되고 소비될 것이다. 셋째, 삶의 부정 바깥에 있다. 초현실이다. 삶의 부정에 휩싸인 자들은 예술이 현실을 초월한 선악지에 존재한다고 믿을 게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삶의 부정 안에 예술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예술은 '현실'이 될 것이다. 역사는 증언한다. 삶의 부정을 '긍정'하는 시대에 비로소 가장 현실적인 걸작들이 탄생했음을. 맹자는 에둘러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仁義禮智, 非由外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즉 “인의에 지는 외부에서 나를 녹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본래부터 있던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바꿔 말하면, 예술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은가!

임경수의 <변성하는 집중>과 <이상한 집중> 연작은 두 개의 물음을 우리에게 던진다. 삶의 긍정과 부정이란 물음을. 그래서 그의 회화는 삶의 긍정과 부정 사이에 존재하는 회화적 언어라 할 수 있다. 박상룡의 입을 빌자면 그 언어는 '잡설'에 가깝다. 박상룡은 선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등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 민담, 패설, 신화 등을 넘나들며 하나의 소설을 잉태시킨다. 그는 이것을 잡설이라 부른다. 임경수의 작품이 모든 종교와 철학, 신화를 응결해 낸 문학적 회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상룡식 잡설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의문, 하나의 화두를 잡고

있단 얘기이다. 그리하여 그의 회화는 회화이면서 동시에 의식의 상징, 의식의 기호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은 앞에서 언급했던 삶의 긍정과 부정 사이의 예술에 대한 가정적 세계를 모두 열어 보인다. 그의 회화에는 현실세계에서 자란 비현실과 초현실의 물음표들이 등장하고, 부표와 같은 소리의 흔적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임경수의 회화적 잡설은 작품의 제목이 말해주듯 '변성'과 '이상'에 있다. 변성은 '變成'과 '變性'의 차이를 함입한다.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또한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열어 두었을 때 변성은 완성된다. '異常' 또한 다르지 않다. 다름이 아니라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음”을 뜻한다. 최근의 미학적 개념으로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에 근접할 것이다. 생물학적 용어로서 메타모포시스는 형태변화를 거쳐 성체가 되는 '변이' 혹은 '변태'를 말하지만, 생태미술과 새로운 자연미술을 실험하는 작가들에게 이 개념은 '이숙(異熟)'으로 변환된다. 불교에서 이숙이란 과거 업의 결과로 생긴 것이지만 그 자신은 선도 악도 아닌 것은 의미한다. 풀어 말하면, 오래된 업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현재의 몸인데, 이 몸 자체는 선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계(佛界)에서 우리는 이숙의 결과물인 셈이다. 끊임없이 변화해 온 몸이라는 이것. 임경수의 회화는 그러한 몸의 진리, 몸의 소리들, 몸의 이숙을 해제하고 살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잡설인 것이다.

두 개의 연작에는 사람의 옆얼굴을 단순화 한 '기호형상'이 등장한다. 철판을 디지털 커팅으로 잘라 낸 이 형상은 메타모포시스가 발아하는 중심이다. 특히 사유체계를 관장하는 뇌와 소리를 담당하는 입은 이 형상구조에서 도드라진다.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이것들을 화면에 배치하면서 그는 변성과 이상의 의미소들을 끌어 올린다. 흰 바탕에 구도가 잡히면 붓을 들고 그 의미소의 소리들을 드로잉하기 시작한다. 화면의 균형과 색채의 균질감, 형상의 뿌리들이 구체화 되는 순간들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의미소들이 구체화 되었다고 하여 그의 작품이 현실적 구상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미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품의 시각적 개성, 동질성은 무화되고 초현실적 상황으로 돌변한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색점들과 기이한 형상의 기호들, 분절적이며 파편화 된 문자들이 등장하고, 생식세포 또는 줄기세포를 닮은 생명체가 엿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신경전달 세포인 뉴우런일지도 모른다. 기실 우리는 이 뉴우런의 혁명을 통해 '지혜의 인간'이 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임경수 회화의 특징은 삶의 긍정과

부정 사이에 뿌리내린 사유와 지혜의 잡설이며, 그것들의 의미소 즉 해독 불가능한 이미지 문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의 내부에서 울리는 이 의미소들의 흔적을 발굴하고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유사한 이미지로 등장하지 만 결코 동일한 소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임경수의 회화가 어떤 진리, 어떤 화두의 끝을 보여주는 완성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우선 삶의 긍정과 부정사이라 가정한 그 지점의 잡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삶'의 구체성을 찾는 것조차 힘이 든다. 삶을 제거한 긍정과 부정 혹은 그것과 전혀 다른 지형의 이미지들이라 해도 쉽지 않다. 두 개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첫째는 리얼리티의 문제다. 지독한 현실로부터, 모순에 찬 현실로부터 잡설의 뿌리를 찾지 않는다면 사유와 지혜 따위는 공허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미지의 리얼리티, 이미지의 서사, 이미지의 상징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둘째는 잡설의 서사구조를 페이팅에서 찾다는 점이다. 그의 회화는 회화가 아닐 수도 있다. 절단된 철판을 평면에 배열, 배치하는 것을 회화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지의 소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갈 때 그의 평면작품은 큰 상징으로 응결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색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작가는 인식해야 한다. 기호화 된 인물과 소리의 도상들, 인식의 구조들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잡설의 힘은 충분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가 가정한 긍정과 부정사이라는 가정을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을 터이다. 이미지의 뿌리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는데서 찾아진다고, 삶은 긍정과 부정을 나누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것들이 카오스, 즉 혼돈에 찬 상황으로 존재하는 것이 곧 현실이다. 우리는 결코 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도 달아날 수도 없다. 임경수의 회화가 잡설의 미학으로 보다 명료해 지기 위해선 이 현실이 발언하는 소리를 기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바깥과 안, 비현실과 초현실도 발언의 판타지를 구체화 할 때만이 리얼리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Power of Reasoning Has Formated the Root of Hybrid Language

- Meanings of ‘Paintings in the Shape of Plane’
created by Yim Kyu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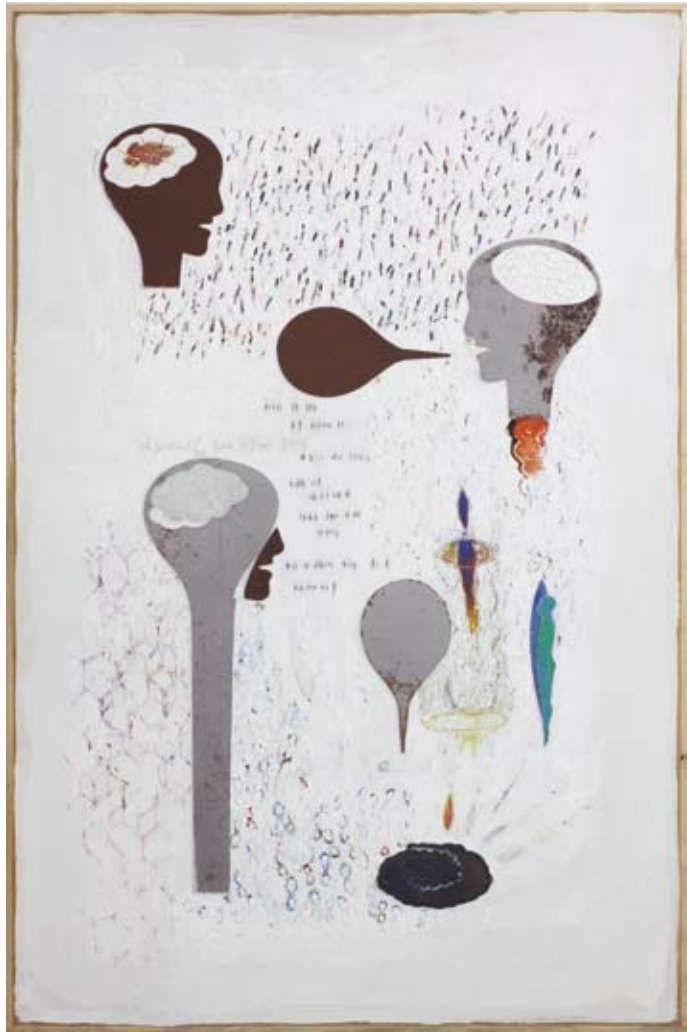
Let’s assume that art exists in between being positive and denial of life. We could generate several theories from the assumption. First, art exists outside of being positive of life. In this case, it is much likely that art is considered as something non-realistic as it may seem to stay isolated from reality for those who are being positive about life. Second, art exists within the area of being positive of life. In that case, art may be seen as something for luxury or entertainment and art could be understood and consumed regardless of the original purpose of existence. Third, it exists outside of being denial of life. It is surreal. Those who are preoccupied with being denial of life may believe art exists in somewhere that transcends reality. Lastly, what if art exists within the area of being denial of life? In that case, art may finally become ‘reality.’ History itself has shown that the most realistic masterpieces of art were created in the times when people remained ‘positive’ about being denial of life. Mencius may want to explain this in an indirect way by saying “The four virtues of kindheartedness, determination, harmony and wisdom do not come from the outside. It has already been there within the people but they just do not recognize yet.” In other words, art exists inside of people, not the outside but they just do not notice or appreciate it yet. What a paradox it is!

<Transforming Concentration>and <Strange Concentration>, the series of works created by Yim Kyung-soo are asking two questions. What is being positive of life? And what is being denial of life? His paintings are interpreted as another form of visual language existing in between being positive and denial of life. As Park Sang-rhyoung mentioned, the visual language created by Yim is more like a ‘hybrid language.’ Park has been creating novels that reflect and are inspired by the mixture of diversified religions, philosophy, folk tales, hearsay and mythology, encompassing Zen Buddhism, Buddhism, Christianity, Catholicism, Hinduism, Lamaism, Zoroastrianism and Jainism. Park named this mixture of everything a ‘hybrid language.’ I am not saying that Yim’s work of art is paintings in the form of literature that solidify the gist of all religions, philosophy and methodology. I am just saying that Yim’s paintings are capturing one truth, one question or one agenda that could be unraveled in the form of ‘hybrid language’ defined by Park. Yim’s work is presented in the form of paintings but at the same time, it emerges as a symbol or sign of consciousness. On top of that, his paintings open all the possibilities of existence of art that has been described above in between being positive or denial of life. This is well manifested in the fact that his paintings are asking question of reality about being non realistic or surreal and his works also portray the full traces of sound like a floating buoy.

Kim Jong-gil
Art Critic

The visual hybrid language in Yim’s paintings, as the title signifies, lies in ‘transformation’ and ‘strangeness.’ Transformation here in Chinese language unifies the gap between the two same sounds of the letter, ‘regeneration’(變成:Byun-seung)’ and ‘decentralization’(變性:Byun-seung). Transformation completes itself when it succeeds in opening full possibility in the circle of changes where one thing becomes another and then changes into something else with no barrier. The case is not so different with ‘strangeness’(異常:Ee-sang). It indicates ‘something suspicious or mysterious.’ This means something similar to the concept of ‘metamorphosis’ defined in recent aesthetics. In biology, metamorphosis means ‘variation’ or ‘transformation’ but this has come to indicate ‘different maturation’(異熟: Ee-suck) for the artists who are experimenting with ecological art or new type of nature art. In Buddhism, 異熟 (Ee-suck) means existing in between virtue and vice but being neither of them, generated from karma of the past life. In other words, the body in this life is formed based on the accumulations of karma from the previous lives but is not ether virtuous or vicious itself. In Buddhist world, we are the outcome of maturation going through a series of transformations. Yim’s paintings explain and oversee the process of maturation of the body and in the process, the hybrid language is generated.

The two works of art in a series features ‘symbols’ that are simplifying the profile of human face. The symbol signifies the center from which metamorphosis germinates. In particular, the brain that oversees the thinking mechanism and the mouth that serves as a channel to make sound stands out among the structure of symbols. Placing one or multiple things on the board, the artist has drawn the episememe of transformation and strangeness. Once the composition is established on the white board, he starts drawing the sound of the episememe using a brush. This is the moment when the balance on the board and the roots of each shape begin to be materialized. However, materialization of the episemem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is work of art starts to take realistic formation. On the other hands, the more the episememe get materialized, the harder the work of art retains visu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and it becomes more likely to get surrealistic. Colorful but abstract spots, symbols in odd shape and fragment or segment of letters are emerging and the trace of living creatures that looks like a generative cell or a stem cell are shown. This may feature a neuron, a cell on nerve system delivering messages. Actually,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the evolution of neuron that human beings became the creature of wisdom. Accordingly, the paintings of Y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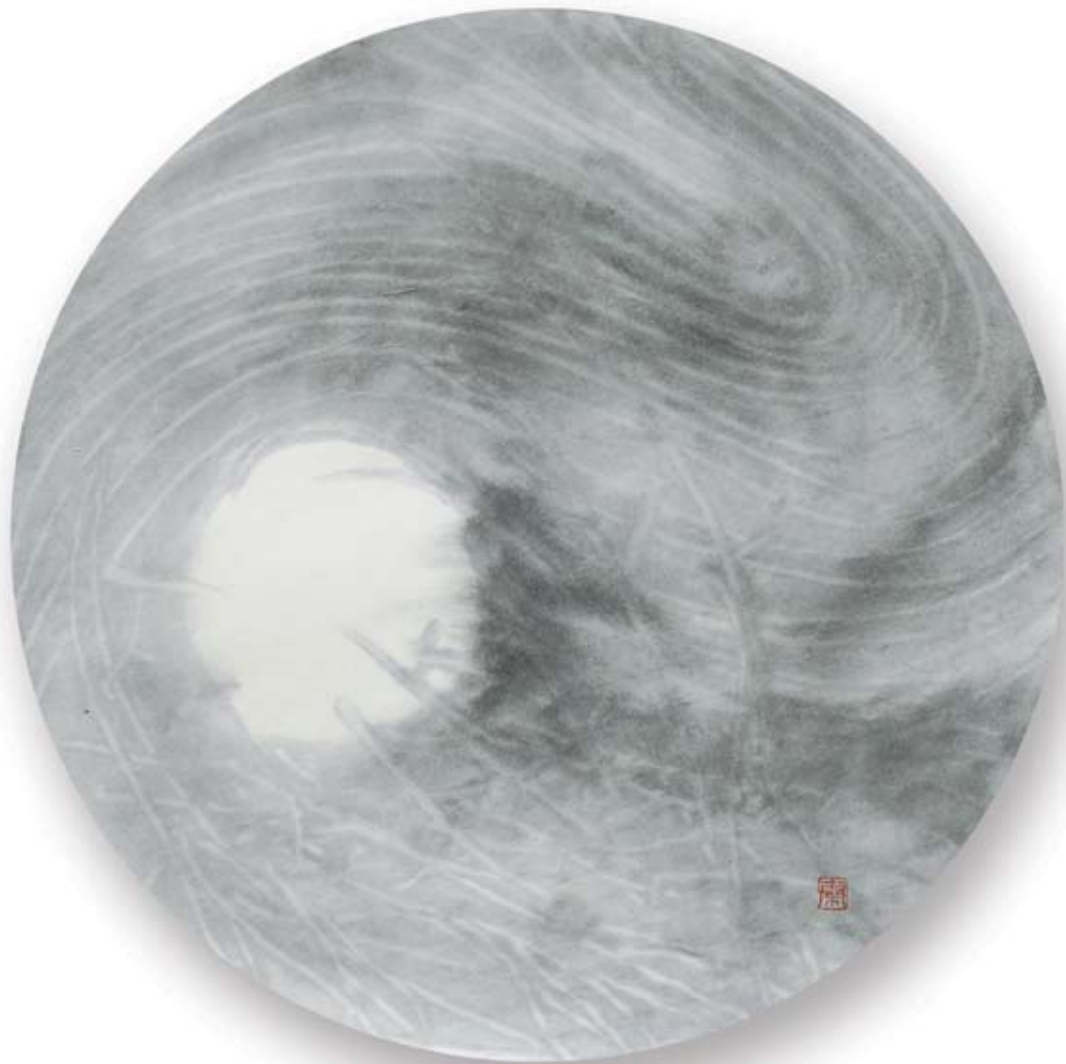


변성하는 집중 04
Biomorphic convergence 04
2009
Steel & Mixed media on Panel
124 x 82 cm

distinguishes themselves in the form of hybrid language of reasoning and wisdom that takes root in between being positive and denial of life and in other words, they are the image of letters that cannot be deciphered into episememe. The artist explores the trace of episememe that is resonating inside of him. His paintings present similar images but non of them capture the same sound of meanings.

However, it seems a bit premature to say that Yim’s paintings are completed ones that show the ultimate of a certain truth or an agenda. Most of all, it is not clear where the hybrid language that is assumed to exist in between being positive and denial of life is heading. It is even not easy to find the specifics of ‘life.’ One might say that his work of art is an image come from the area of being positive or denial with the presence of life deleted or may come from a totally different terrain but it is still challenging to decipher the image. There might be two reasons for that. First, it is a matter of reality. If the hybrid language does not find its origin in the down-to-earth reality even if it is full of paradox and contradictions, reasoning or wisdom will be just ringing hollow. It seems required to deploy certain strategy to recover the reality of image, narrative of image and symbols of image. Second, Yim is finding out his narrative structure in paintings. His paintings may not be a painting eventually. A placement or arrangement of cutting iron boards can hardly be called a painting. When the sound of image is pushed to the farthest, Yim’s work on a plane can be concentrated into a meaningful symbol. The artist shall be aware that colors might be vanishing in the process. Maybe rearranging and redesigning the symbolized features, sounds in shape or structure of recognition is enough to express the significance of hybrid language to the full.

To this end, we may need to revisit the assumption we made at the start of this article on the existence in between being positive or denial of life. Maybe we can find the root of image from not distinguishing the status of being positive from being denial. Maybe life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two. Reality is there in chaos full of confusion. No one can escape or stay free from the reality. Yim’s paintings need to symbolize the sound from the reality to stand stronger as aesthetics of hybrid language. This is because reality is formatted only when the sound of fantasy is materialized whether it is inside or outside of life or whether it is non-realistic or surrealistic.



Moonlight Prism
2009
한지에 수묵
지름 25 cm ø



Moonlight Prism
2009
한지에 수묵
지름 25 cm ø

심상에 깃든 자연의 사색, 그림과 시 되어 노래 부르네

세상이 잠든 밤, 고요해진 어둠 속에 눈을 살포시 감고 명상에 잠기면 마음은 어둠을 벗 삼아 무한의 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시간의 흐름 속에 평온해진 몸과 영혼은 희미한 기억의 틈사이로 몽환적 상상의 나래를 편다. 심연 깊은 곳, 삶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아련한 기억-喜怒哀樂-의 감정들은 흥중에 부는 바람에 실려 찰나의 어느 순간 산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달이 되고, 바다가 되고, 파도가 되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가슴에 피어오른 심상 이미지, 이제야 영혼은 옛 선비들이 금강산의 빼어나고 신묘한 절경에 만취되어 자연을 유람하며 풍류를 즐기고 시를 지었던 것처럼 유랑시인이 되어 마음에 부유하는 무한의 세계-내면적 소우주-를 유유히 여행하며 자유로운 시적언어를 흥얼거린다.

잠시 동안 몽롱한 환영에 사로잡힌 것이었을까? 작가 장진을 방문하기 위해 소낙비 오는 밤길을 걸어 인천아트플랫폼에 도착한 후, 그의 아틀리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작품에 대한 첫 인상은 자연세계와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누고 심미적 감동 속에서 자연물 혹은 대상과 합일된 담백하고 순수한 내면의 이미지가 그대로 화폭에 전이된 자연의 ‘생명력’과 ‘혼의 울림’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정신적 체험과 상호적 교감의 깨달음-자연과 작가 장진 그리고 장진의 그림과 제 3의 人-은 작가의 작업방식의 주요한 화두 ‘시적인식’과 일맥상통하다. 프랑스의 미학자 자크 마리탱(Maritain Jacques, 1882-1973)의 이론을 인용하여 장진이 말하는 시적인식이란 “사물들의 내면적 존재(생명력)와 인간적 자기의 내면적 존재상(울림)의 상호교통을 말하며 사물 혹은 대상과 인간사이의 어떤 내면적 일치나 공본성^{共本性}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시인 혹은 화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 빛 속에, 한 송이의 들꽃 속에서 자신의 내면적 존재와 일치되는 어떤 것, 공본성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자신이 상호 교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영혼이 쏘신 된 것 같은 신선한 격양감이 장진의 작품 안에서 미적 감동을 체험하게 되고 감흥에 겨워 시어를 함께 공유할 것 같은 어떤 느낌, 그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즉 11세기 중국 북송 시대의 소식(蘇軾, 1037-1101)이 제기한 “시는 소리가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다.(詩中有畫 畫中有詩)”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이론을 작품 창작과정에서 실천하고 기법모색을 위해 복잡함과 정교함을 반대하면서 필묵과 조형원리를 가장 단순화시키고 아울러 일종의 함축적이면서도 평담한 회화 공간을 구성한다. 그 결과 그의 회화의 시적표현은 형상 밖에서 회화창작 그 자체에 일종의 필묵 자체가 갖는 독특한 미감을 부여한다. “그림을 형사로 논한다면 어린아이와 소견이 다를 바 없다”라는 소식의 지론처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모습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송나라의 시인 겸 화가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주장처럼 “무릇 서화는 기운을 보아야 한다.”라거나 혹은 “말이 다하더라도 뜻은 무궁해야 하는”효과의 중시를 강조한다.

차은영
갤러리 아이 대표



Moonlight Prism
2009
Korean paper and indian ink
38 x 45 cm

또한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을 담고 있으면 붓 끝에서 한 점의 속된 기운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식수양을 화가의 본업으로 알고 현대미술이 지향하는 세속적인 영역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장진은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철학적 사색과 진실성에 바탕을 둔 학구적인 자세로 연구하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담담하지만 생동감이 있다. 필의가 막힘 없이 자유분방하여 천지자연의 비밀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형식의 각박함이나 활력 없는 밋밋하고 딱딱한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조화롭다. 형사를 추구하지 않는 작가 장진의 의식 있는 행위에 의한 사의와 정감을 화선지 위에 펼쳐내어 정신적 내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형식을 숭상하지 않고 자연스런 아취를 숭상하며, 격식을 숭상하지 않고 참신함을 숭상하는 현상을 드러낸다. 또한 맑고 산뜻하여 범속함을 초월한 심원한 운치가 있으며 천박하고 세속적이며 칙칙한 풍경이 없다. 그러므로 화면의 구성이 순박하면서도 빼어나며 조작한 분위기가 없으며 담담한 운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작가 자신을 위한 정신의 자유해방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정신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현대예술에서 주장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순수성에 가치를 두는 회화양식을 드러낸다. 즉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의 단순한 묘사나 기예가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이상으로 품고 있던 천지만물의 신묘한 변화를 끝까지 밝혀내어 조화와 심원한 섭리를 헤아려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상호교감의 정신을 담아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실제상으로는 장진의 마음속에 이상으로 품고 있던 평화롭게 은거할만한 경계를 표현하여 그와 대상과의 마음을 허락하는 사건의 매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사실’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개인적인 생각을 펼쳐내는 요소가 화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장진의 회화가 이렇듯 천지자연의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필묵의 형식 위에 뿌리를 둔 작업방식 때문이다. 굵혀진 듯, 굵직한 필선이 종이 위에 그려낸 미묘한 표정, 거기에 먹의 변화무쌍한 색조를 살려 신비한 변화로 하여금 천지자연의 조화와도 같은 창조활동에 참여하면서 조화롭고 심오하고 신비한 또 다른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특히 물기를 듬뿍 묻힌 발묵법 풍의 표현법인 번지기와 선염법을 구사한 대담한 표현이 눈길을 끈다. 변화가 다양하며 윤기 풍부한 담묵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현에 물결치는 곡선의 표현은 청아함을 띠면서 필치가 스스로 움직여가는 듯한 생동감을 보여준다. 장진에게 있어 붓과 먹이란 미적 질감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며 회화 표현 추구의 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결과 장진은 고의적으로 동시대 작가들이 사용하던 시각적 흡인력을 갖는 필묵과 색채 및 보다 극적인 긴장감을 지닌 조형과 구도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평범함과 산뜻함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양식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이러한 그의 작업방식은 문인의 기본 성격 속에 있는 ‘반속’의 경향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

성에서 전위정신의 전통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인다. 지식과 교양이 높은 현사들과 은거하는 고사들이 ‘인’에 의거하고 ‘예’에 노닐면서 깊은 자연의 이치를 탐색하고 찾아내어 자신들이 체득한 고아한 감정을 한결 같이 화폭 위에서 승화했던 것처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업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문에 매진하며 지식과 교양의 높은 덕을 작품을 빌어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작가 장진의 어깨에 한국화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대나무 숲을 담백하고 간결하게 담아낸 장진의 그림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단숨에 빠른 속도감으로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여 화색의 먹빛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필치의 운동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자연스러운 색감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우선 먹으로 그려진 화면 위에 다시 화선지를 겹으로 부치어 더욱더 은은하고 고요하며 평온하고 안정된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난히 강한 붓질로 표현한 대나무 숲은 아마도 장진이 벗과 함께 즐겼던 곳을 것이며 또한 나를 화면 속으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들려 온 바람소리였을까?!... 아니면 장진의 마음속에 일었던 무언가의 울림이 그의 그림을 통해 나와 상호교감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언젠가 가보았던 대나무 숲속의 영상이 잠들어 있던 나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의 노래가 출렁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닐까?!... 순간 꿈을 꾸고 있는 착각에 어느 깊은 가을 밤, 상쾌한 바람과 달빛의 유혹에 이끌려 그것들을 벗 삼아 어느 덧 대나무 숲의 산책로에 들어선 나의 모습과 바람이 전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한동안 귀 기울이며 기쁨에 젖어 나도 모르게 장진의 그림 앞에서 시를 짓는 시인이 된다.

Lost in nature’s reflection on the mind, becomes a song and a painting to sing

Cha Eun Young
Director of Gallery I

With the world in deep sleep, the darkness guides the mind deep into meditation and the mind starts the journey into the world without limitations. One, two, three... The body and the soul find comfort with the flow of time. Through the cracks of blurred memories, dreamlike imagination starts. Deep inside the mind, emotions aroused from the memories of various life experiences are carried by the wind and become trees, mountains, flowers, the moon, the ocean, and the waves painting a beautiful picture. Images come into the mind and allow the soul to freely travel the world without limitations - the universe within us- reciting poetry like the intellectuals of old who explored nature and wrote poems lost in the love for art and the beauty of Mt. Geumgang.

Was the mind and soul possessed by dreamlike ghosts? I finally arrive at the Incheon Art Platform after walking through a late night rain shower to meet with Jang Jin, The first impression of Jang Jin’s art work scattered around the atelier was that his artwork embodies “the vitality of nature” and “the resonance of the soul” and reflects the innocence and simplicity that can only be discovered when the mind becomes one with nature or natural objects after being overwhelmed by the beauty of nature through imaginary conversations. Such surprising spiritual experience and a new realization of mutual connectedness –between nature, Jang Jin himself, his paintings and a third person – are in the same context with how Jang Jin paints, the “Poetic Recognition.” By quoting Maritian Jacques, a French aesthetician, Jang Jin’s poetic recognitions can be explained by the following: “It refers to an interaction between objects’ internal being (vitality) and the internal being of a humane self (resonance). It is an understanding formed by the discovery of an internal unity and connaturality. Therefore, the poetic recognition occurs “when a poet or a painter discovers something that connects him or her to the moon light, a flower on a field or something connatural, and feels the interaction between him or her and the object.”

Would that be the reason? From Jang Jin’s artwork, an individual is born again and is given a new soul, as well as refreshing excitement. An experience that deeply touches and moves individuals aesthetically and gives rise to urge to rejoice in poetic words engulfed in a feeling of rebirth. Such experience brings words of Su Shi, a Chinese intellectual from the Northern Song dynasty to mind, “Poetry is a painting that speaks, and a painting is a silent poetry.” Such theory is applied and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 artwork and the usage of brush and ink, and shapes are simplified in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complexity and



Moonlight Prism-月尾島
2009
Korean paper and indian ink
38 x 45 cm

details for the sake of searching new methods, and forms simple but comprehensive space in a painting. As a result, the artwork of Jang Jin’s poetic expression has a special aesthetic touch of creativity to his usage of brushstrokes and ink, one that is distinctly separate from shapes. As So Shi said, “Discussing a painting about the forms and shapes results in nothing more than a child’s opinion of the painting,” Jang Jin’s understanding far surpasses understands of shapes and forms. Huang Ting Jian, a Chinese poet and painter from the Song dynasty, said “Paintings and writings must see the aura,” or “Even when the words stop, the meanings should live on,” iterating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continue learning in order to avoid becoming obsessed with the worldly aspects of the modern art and take the saying “If one has the knowledge of ten thousand books, not a single brushstroke would exert crass energy” into heart.

Jang Jin is an artist that continuously pursues learning with an academic interest based on philosophical contemplation of nature and truthfulness. His artwork is serene but exciting. His style is free and unhindered. Based on such style, Jang Jin exposes the secrets of nature. His style is harmonious and does not adhere to formality or liveless and strict borders. Jang Jin’s focus is not on copying shapes and forms. He paints what is between hi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and emphasizes the spiritual aspect of art. He does not admire formality but natural arches. He does not admire established norms but ingenuity. His art is simple and clean. It has depth beyond ordinary, but it is not shallow, cheap, or gloomy. Therefore, his paintings are formed in a way that is very simple, elegant, extraordinary, and gives an aura of serenity. His work shows Jang Jin’s independent mind that is strongly built on the spirit of freedom, creativity, and imagination. His style reflects the sentiment of “Art for art’s sake,” or the purity that modern art emphasizes. In other words, Jang Jin does not simply depict nature. He gets to the bottom of mysterious changes that occur in the nature, understands harmony and principles of nature, and paints changes in nature with an aim to reflect the interaction within it. He is trying to demonstrate the border he has been idolizing, to which he can peacefully retire and by doing so, he is allowing the interaction between himself and the object. Therefore, his paintings reflect some unrealistic aspects and clearly express personal opinions.

Jang Jin’s work has achieved harmony with nature because of his style, which has its roots in brush strokes and ink formations. Unreadable and mysterious facial expressions created by scratchy and thick lines

and mysterious changes of colors create an outstanding impression of nature and enhance an observer’s understanding of a new, mysterious, deep and harmonious principle. His bold expressive methods through ink manipulation, which lets the ink spread on paper by mixing high volume of water, and the gradation technique, are especially noteworthy. His light ink brushstrokes are diverse and rich, and curved lines are refined and alive. For Jang Jin, the brush and ink are the tools to create aesthetic textures, and they are imperative in the process of creating artistic expressions. As a result, Jang Jin shies away from the visually enticing usage of brushstrokes, inks, and colors as well as formations and angles with dramatic intensity that are commonly used by his peers. Instead, he chooses to include everything under the concepts of ordinary and clarity. His methods come from a tendency of an intellectual that oppose commonly accepted norms. His works attest to consciously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avant-gard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Just like highly intellectual and cultured sages and nobilities lived by the virtue of benevolence, practiced the value of good manners, who explored and discovered the principles of the nature, and embodied the lofty emotions that were acquired in paintings, Jang Jin strives to develop creative and innovative methods and to reflect his knowledge and experience on his paintings. On his shoulders lies the future of the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Jang Jin’s depiction of the bamboo forest in a simple and clear manner can still be seen when I close my eyes. It captures the moment in one stroke and dynamically expresses it with gray, highlighting the brush stroke. To express the peaceful, calm, serene and mysterious characteristics of nature, Jang Jin overlaid another piece of paper on top. The bamboo forest painted with extra strong brushstrokes is most likely the place where Jang Jin enjoyed its beauty with his friends. It also acts as a focal point to draw me into the painting. The sound of the wind, was that a gentle whisper from the painting that swept past me? Or did Jang Jin’s inspirations on paper speak directly to me? Resonating with my soul? If not, did the painting stir the dormant visual memory of a bamboo forest from the recess of my memory? Waking my soul, causing me to hear the sounds of life embedded in the brush strokes? On a late autumn night, I am mesmerized by the refreshing wind and beauty of the moon light. Immersed in the moment, I find that my walk took me to a trail in the middle of the bamboo forest. I am elated to carefully listen to the tales of the unknown world that the wind whispers in my ear. In spite of myself, I turn into a poet while appreciating Jang Jin’s work.



Story of dream - Suni
2009
installation



꿈 열흘 밤¹⁾

현시원 미술이론

<p>#. “배경막이 올라가고 뒤로 겹겹이 드리워진 빨간 커튼이 차레로 걷히며 낡은 극장이 보인다. 극장 위에는 세 배우가 서 있고 배우가 서 있던 극장무대는 점점 작아져 배우들의 얼굴에 꼭 맞게 된다.(배우 1: 무대 위를 오르내리며 심호흡을 한다)”</p> <p>- 전소정, <꿈의 이야기-순이>Story of Dream-Suni>(2009) 중.</p>

극장에 관한 수많은 은유와 놀라움을 적은 호들갑스러운 관찰기들 사이에서도 <꿈의 이야기-순이>에 등장하는 ‘점점 작아지는 극장’의 묘사는 특별하다. 작가는 배우들의 얼굴에 꼭 맞게 된 작은 무대를 목탄 드로잉으로 그려내고 카메라에 담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극장무대 속에서 배우들은 무대에 꼭 맞는, 코끝에 달을 만큼 가까운 얼굴로 세계 자체를 드러낸다. 동시에 심호흡을 하며 무대 위아래를 움직인다. 기가 막히게도 점점 작아지는 무대로 말미암아, ‘공간’은 그 안의 존재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배경막이 된다.

이미지들과 평행하게 달려가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어 한껏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꿈의 이야기-순이>에 등장하는 이들은 미치광이 뺨에로들처럼 종잡을 수 없다. 슬펐다 웃었다 하지만 움직임은 낮고 목소리는 없다. 자폐적인 공간에 밀폐된 것 같은 서늘한 느낌의 장면들이 겹치면서 체온을 내려 서로 운동한다. 별 동작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이란 애초에 없는 꿈 속 존재 방식을 따라하는, ‘움직이는 그림들’이다.

<꿈의 이야기-순이>에 등장하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조선족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의 갈등에 대해 수직적인 어법으로 토로할 듯 하다가도 꿈 속 한 장면인 듯 금세 멀어져간다. 어른의 표정으로 모여 앉은 아이 셋은 모래놀이가 지루하다고 투덜거린다. 시간제 직원은 ‘시간이 없다’고 소리치고 댄스 교습소에서 춤추던 사람은 ‘춤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누군가의 동작을 따르는 한 무리가 된다. 이야기 또한 점점 작아지는 극장처럼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넘나들며 여러 개의 단편처럼 공존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꿈과의 대화에서 출발하는 정신분석을 애초 잡을 수 없는 것, ‘실패’를 이론화하고 ‘실패’를 아카이브 하는 작업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전소정의 작업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나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끝났던 꿈의 작업과 닮았다. 이 체험은 ‘나’ 밖의 수없이 많은 타인들의 사연들과 포개지고 쌓이다가, 상상화 여러 개를 겹쳐놓은 것처럼 썰 새 없이 어디론가 움직인다.

작가가 만든 동시다발적 이미지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불연속적인 대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데 이들은 완전히 꿈속의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전소정은 닫힌 꿈의 통로에 뭔가 다른 이유를 갖고 있으리라는 호기심을 품고 여러 겹의 통로를 열어놓는다. 작가의 내밀한 꿈은 ‘비현실’이라는 둔탁한 문을 열고 나온다. 독일에서 댄서로 살고 있는 한국인 ‘순이’를 만났던 실제 경험을 작가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작업을 통해 비로소 기억한다. 그것은 유예된 실패가 아니라 다다를 수 없는 시공간을 향한 모험이자 제언이다. 전소정의 영상화면을 채우는 건 검고 좁은 동굴 벽에 붙어있을 것 같은 강렬한 기운의 종이 드로잉들이다.

현시원 미술이론

<p>영상, 드로잉, 설치물이 놓인 전시장은 극장무대 또는 그들의 댄스홀처럼 현실의 한 가운데에 펼쳐져있다.</p> <p>#. “무대는 완전히 어두워진다. 조명이 들어오고 여자들이 줄지어 앉아있다. 주위로 철제 크레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여자들은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한다. 낡은 기계 앞 전구는 곧 나갈 듯 깜빡깜빡 거린다.” 전소정, <꿈의 이야기-순이>Story of Dream-Suni>(2009)의 텍스트 중.</p>

움직임에 환호하는 것은 극장무대를 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다. 눈앞에서 마치 손으로 잡힐 듯이 세계가 오밀조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찬 기쁨으로 진짜라고 믿는 건 눈 맑은 몇 어린아이들뿐이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순간의 믿음, 순간의 연기(play), 순간적인 몰입은 허락된다. 단 제한된 공간, 극장무대라는 꿈의 교환이 허락되는 현대적 공간으로 들어설 때다. 세계의 극장은 꿈이 현실과 교차되는 공존하는 공간이다. 전소정 또한 꿈을 기억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극장무대를 만든다. 하지만 그의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어두워진 무대에서 배우들을 기다리는 ‘반짝이는 조명’이 아니라 ‘짓는’ 과정으로서 조명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나갈 듯 깜빡깜빡 거리던 무대 위의 고정된 조명을 장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명이 들어오고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하는 순간’이다. 누군가 공간의 어느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언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것마저 포함하는 다층적인 순간들의 누적이다.

그래서 전소정이 짓는 극장무대는 광활한 공간을 누비는 넓은 곳이면서도 비밀스럽고 어딘가 몸통을 숨긴 듯 좁게도 보인다. 그 공간 안에서 이야기는 군무였다가 혼자 추는 춤이 된다. <꿈의 이야기-순이>에서 작가는 자신이 꾸었던 여러 날 밤의 꿈들을 불러내면서 하늘을 나는 코끼리의 등을 타고 이동하는 이미지를 띄웠는가 하면, 섬 너머 무대 저 편을 꼬리에 꼬리를 문 듯 등장시켰다. 그런가하면 <일인극장 One man Theater>(2009)에서 작가는 몸에 꼭 차는 작은 무대공간을 직접 만들어 한 명 한 명을 배우로 무대 위에 세웠다. <The Finale of a Story>(2008)에서 작가를 매혹시켰던 핀란드 숲을 나무, 풀밭, 인형, 토끼 등의 무대로 만들었던 전소정은 <일인극장>에서도 필요한 소도구들을 직접 그의 손으로 만들었다.

손으로 만든 극장무대는 다시 환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를 기억하게 한다. 우리는 검은 방 흰 벽에서 펼쳐지던 여우의 이야기와 종이를 오려 만든 얇은 종이인 형극의 가볍게 흔들리던 이미지와 화면의 기차소리에 화들짝 놀라 과성을 질렀던 옛 사람들의 체험담을 기억한다. 색과 형태를 가진 그림을 오려붙여 움직이는 입체 물로 만드는 동작들.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무척대고 큰 믿음을 건

1) <꿈 열흘밤>은 일본 작가 나츠메소세끼의 소설 제목이다. 사무라이와 종의 깨달음, 눈 먼 아이를 버리려고 산을 헤매는 아버지, 조각가의 이야기, 전쟁터, 글쓰기 등 열 가지의 너무나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열흘 밤의 꿈이라는 공간을 빌려 펼쳐진다. 이야기들은 ‘이런 꿈을 꾸었다’로 시작한다. 소설은 아름답다.

네쳤던 나의 극장에 관한 기억들 말이다. 작가는 <꿈의 이야기-순이>뿐 아니라 얇고 평평한 종이를 손으로 움직이면 대상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카메라의 간단한 촬영원리를 통해 <The Hospital>(2008), <Truthiness Show>(2007)도 움직이는 그림으로 둔갑시킨 바 있다. 화면을 거침없이 채웠던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작가가 손으로 그린, 얇고 가벼운 종이 드로잉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작가의 이동 기술, 배치의 놀이(play)다.

작가에게 극장무대는 세계의 이동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고, 이야기를 농축시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한시킨 무대다. 전소정이 세운 <일인극장>의 틀은 간소하기 이를 데 없다. 무대 프레임은 간단히 조립하고 붉은 천막을 이용하여 작가는 무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대신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담는 조각’으로 만들었다. 얼굴이 꼭 차는 점점 작아지는 극장을 상상했던 것이 ‘일인무대’에서는 현실이 된다. 한 명 한 명의 참여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인 무대를 전소정의 카메라는 클로즈업한다. 최소한의 장치만을 가진 ‘일인극장’이라는 동일한 출발점 위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자신의 상황을 드라마틱한 제스처로 발설한다. 간소한 무대장치는 마치 무의미하다는 듯 참여자들 중 일부는 열렬한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무대 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시각화하기 위해 전소정은 극장무대를 만든다. 작가는 이 극장의 첫 번째 관객이자 카메라의 빨간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기록자다.

Story of dream - Suni drawing #3
2009 charcoal on paper 110 x 120 cm



#. “정현: 나 우습죠? 여자는 이제 완전히 결박당한 듯 보인다.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정현: 나 우습죠?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여자는 심하게 웃어댄다. 모든 것을 멈추고 여자는 정면을 한참 노려보고 서 있다. 화가 난 듯 여자는 커튼을 거칠게 닫고 극이 끝난다”

- 전소정, <일인극장 One man Theater>(2009) 중

전소정이 만든 극장 안에서 이야기는 낭송이 되기도 하고 퍼포먼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커스가 되기도 한다. <일인극장>에서 어떤 참여자는 이야기 대신 노래를 부른다. 누군가는 무대 정면을 향해 걸어 나오며 이야기를 끝내고 어떤 여자는 거칠게 커튼을 닫는다. 꿈과 현실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공간을 타고 흐르다가 끝이 난다. 타인의 이야기에 매혹당하고 내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놓는 무수한 행위들은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힘을 얻고 빼앗긴다. <The Finale of a Story>에서 핀란드 숲속에 살던 어느 댄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환상적인 이미지들로 공간과 이야기를 보여줬던 것처럼 작가는 여전히 공간을 찾고 또 그 공간을 조각하듯 이야기를 짓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삶의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거니는 것과는 다르다. 때로 삶의 제한된 벽과 마주한다는 의미다. 공간의 이동은 이야기에 있어서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인물로 하여금 자기 의사와 무관한 제한된 틀을 만나게도 한다. <꿈의 이야기-순이>에서 몇 십 년 전 독일로 간 한국인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이곳에 왔지만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집단적인 역사와 갈등을 소화하듯이. 현실에서의 공간은 호기심의 차원을 비웃을 만큼 잔혹하기도 하다. 수많은 모험담은 낯선 공간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지만 공간을 바꾸는 것은 꿈직한 기다림의 원천이 될 때도 많다.

그렇다고 그 기다림이 경이롭고 매혹적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릴 이유는 없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핀란드의 한 낚시꾼이 ‘진짜 미칠 것 같은 시간이 오지만’, ‘낚시는 손맛이자 기다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작가가 햇빛도 어느 정도 비춰야 물고기가 빛을 보고 바늘에 물리고 바람의 강도 같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 그 상황이 연출된다는 걸 느꼈던 것처럼 말이다. 무대 공간을 채우는 이질적인 요소는 언제나 한 순간을 기다린다. 공간과 이야기에 대해 말하자니 작가의 작업실에 놓여있던 보르헤스의 소설집 <세익스피어의 기억>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게다가 모든 여행이란 공간적 아님니까. 한 혹성에서 다른 혹성으로 가는 것은 마치 건너편에 있는 농장으로 가는 것과도 같은 거죠. 당신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하나의 공간 여행을 한 것이지요” “그렇군요-나는 맛장구를 쳤다-또한 우리 때에는 화학원소들과 동물들의 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친 자의 유토피아>. 현실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꿈을 따라하면서 지금도 무대 위에 올라가고 있다. 그 무대에 우리는 맛장구치며 위로받는다.

Ten Night's Dreams¹⁾

Hyun Shi-won

Art Theory

#. The backdrop lifts up, followed by layers of red curtains opening one by one to reveal an old theater. Three actors are standing on the stage the stage shrinks until it becomes the size of the actors' faces. (Actor 1 takes in deep breaths while climbing up and down the stage.) A scene from Jun So-jung's "Story of Dream-Suni"(2009)

Many flippant observations of metaphors and surprises seen on stage are made, but even among them, the description of the "shrinking stage" in "Story of Dream-Suni" stands out. The artist captured the image of the charcoal drawing of the small stage, which is a perfect fit for the size of actors' faces. In this one-of-a-kind stage, with the focus up close, right-up-to-their nose close, actors reveal the world itself. They take deep breaths in sync and ushers movement to the stage. On the ever shrinking stage that defies imagination, the "space" morphs to become a backdrop that distorts the actors' very existence.

No one can tell where the story that runs parallel with images starts. Perhaps it's already hurling towards the climax. Characters in "Story of Dream-Suni" run around the stage like crazy clown: unpredictable. They show sadness and also laugh, but their movements are subdued, their voices silent. They are sealed in their own autistic world; chilly images overlap, heats up, and interacts with each other. The "moving pictures" live in a dream world, characters believing they can fly without much effort and the concept of "impossibility" is alien as far as they are concerned.

The dispatched miner and the dispatched nurse and the Korean-Chinese migrant labor all seem poised to express their personal conflicts in accordance to their capacity, only to fade away like a fleeting dream. Three children sit around acting like adults, complaining about their boredom while playing in the sandbox. An hourly worker shouts, "There is just not enough time!" a dancer at a dancing studio believes, "only the moment she dances is reality." and can be a part of the group by following the movements of another. Like the ever-shrinking theater, stories are fragmented into episodes moving between space and time at will. Sigmund Freud called psychoanalysis that stems from a dialogue with a dream, an elusive goal. Freud called it theorizing "failure" and archiving "failure." Jun's work is similar to the work of a dream; it disappears without telling us where it went, and it ends without showing the end. The experience overlaps and stacks interactions with episodes of many others outside the interaction with the "self", and moves all over the place like a stack of a number of imaginary paintings, moving without taking a moment to pause. The images created by Jun are in constant flux, they are based on disjointed objects seen in her dreams. Those images however, do not just remain in the realm of dreams. She opens up many channels at various levels to the closed off fragments of dreams. Recognizing that it holds a different purpose, she approaches it with curiosity. Her private dreams are revealed through a rather blunt medium called "unreality." She finally

recalls the actual experience of meeting Korean-born dancer in Germany named Suni, only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observation and record keeping. The experience is not a delayed failure, but a suggestion and a challenge against space and time that is just out of reach. What fills Jun's screen are drawings with intense aura, which resemble those found in dark, narrow cave walls. The exhibition space with video, drawings and structures are laid out in the midst of reality, like the dancer's dance hall.

#. The stage is dimmed completely. When the lights fade in, women are sitting in a line. In the background, a steel crane is in motion, making loud noises. Women start singing to piano tunes played by a piano. The bulb in front of the old machinery flickers as it struggles to stay on." Excerpt from "Story of Dream-Suni" (2009)

Being excited about movements on stage is a basic attribute audience members have. While only a few bright-eyed children get excited about the intricate make-believe world on stage, and believe it to be real. It's a world that unfolds right before their eyes, a world that feels as though they can just reach out and touch. However, even adults are allowed to be enticed by the dream world, to trust momentarily, to become absorbed by the play, only if for an instant. This is only possible when the dream world on stage transforms to modern space of the real world with restrictions. Jun constructs her stage to remember and visualize scenes from her dream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n that stage is not the bright spotlights the actors are waiting for, but rather the introduction of the spotlight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stage as an element. It is not the act of placing the flickering light on stage, but is the moment when "the lights are turned up and the song is sung as the ivory is struck." The audience focuses on certain parts of the stage, waiting for an action to unfold. That anticipation is accumulated as part of the multifaceted moments.

That is why the stage Jun crafts is a vast landscape for actors to weave across, yet on the other hand, is seen as a narrow corridor with intrigue and hidden elements. On this very stage, the story transitions from a group dance to a solo performance. In the "Story of Dream-Suni" the writer summons images dreamt over number of days, floating images of flying through the sky while on an elephant's back, and the world just beyond the island on the other side of the stage is brought before the audience as if they were linked by a chain.

1) "Ten Night's Dreams" is a title of a novel by Japanese author Natsume Soseki. Ten short stories from wide range topics are contained in the novel, including a realization by a samurai and monk, father that wanders the mountains after abandoning his blind child, story of a sculptor, a war story, writing to name a few. All stories in the novel begins with, "I dreamt that..." The novel is beautiful.

Meanwhile, though another piece, "One man Theater" (2009), Jun crafted a small stage that just barely fills the frame of individual actors, and put them upon stage as individual actors. In "The Finale of a Story" (2008), Jun was fascinated with the Finnish forest and created it using a crafted tree, grass fields, doll, rabbit and other elements. In the "One Man Theater," she also handcrafted all necessary small devices by hand.

The handcrafted stage makes the audience recall the way illusion is viewed. We recall; the story of the fox played out in a pitch dark room with white walls, the image of thin paper dolls, waving ever so slightly during a paper doll play, and the experiences of our ancestors, letting out a shriek when a sound of a train is played through the speakers. Movements that create three-dimensional objects from colorful cutouts with shape, the memory of my plain and not-at-all flashy theater that was a source of baseless confidence, they helped jar my memory. The artist used the simple principle introducing movement to paper characters by using cameras; moving the characters by hand. This method is not only used in "Story of Dream-Suni" but also in "The Hospital" (2008) and the "Truthiness Show" (2007). The characters that boldly filled the screen were all drawn by hand on thin paper. Utilizing those players and organizing and moving them, turning it into a space to tell a story shows the artist's skills of movement manipulation, and "play" of positioning.

To Jun, the stage was the space selected to show the movements of the world, and a setting restricted to effectively show the concentrated story. The frame of Jun's "One Man Theater," is simplicity itself. Instead of creating a rigid structure, Jun constructed a simple frame and set a red tent inside it, crafting a "sculpture that can hold a story" with flexibility in storytelling. The stage that keeps shrinking, all the way down until it can only fill one face is now possible, whereas it existed only in the realms of imagination in the past. Jun's camera gets up close and personal with the one person stage, a stage where each and every participant recalls their painful memories. The starting point for all participants in the "One Man Theater" is the same, on the simple stage stocked with bare essentials. But from there, each participant reveals their situation through dramatic expressions. Once on stage, some participants become passionate, expressing their emotions dramatically, the simple stage is already forgotten in their mind. Although the stage is borders transparency at this point, if not for the stage, the participants would not have revealed themselves. Jun creates the stage to visualize the story that already exists in compartments of our mind. She is not only the first audience member of this theater, but is also the scribe that hits the red record button on the camera.

"Jung Hyun: 'I am a laughing stock, right?' she looks to be in an inescapable bind, she starts laughing out loud. Jung Hyun: 'I am a

laughing stock' as if unable to stop, her laughter gets louder. Then she suddenly stops, and just stares into the camera. As if overwhelmed with anger, she violently shuts the curtain and the show ends." Excerpt from Jun So-jung's "One Man Theater" (2009)

Inside the stage created by Jun, a story can take many forms. It can be a recitation, a performance, and sometimes even a circus. Some participants in the "One Man Theater" opt to sing instead of telling their story. Some end their story by walking towards the center of the stage, while a woman finishes it by violently shutting the curtain. The story that weaves across the dream and reality travels through many spaces before coming to an end. Being fascinated by story of others, and telling one's own story, all these actions interact with the space surrounding them, lending or losing power in the process. Jun still finds the space and sculpts a story from that space, just as she had when she recalled a story of a dancer that lived in a Finland forest and told the story by filling the space with illusion-like images in "The Finale of a Story." Moving between spaces in real life is different from walking through a utopia in one's dream. In another words, you are bound to run into the wall of life's restrictions. Moving through spaces offers the story an infinite freedom, but the storyteller may run into restrictive spaces unwittingly. Korean immigrants to Germany in the "Story of Dream-Suni," made their decision to Oimmigrate a few decades prior, but as their recollection shows, despite their personal efforts to resist being in conflicts or become lumped into a group, could not avoid involvement. The cruelty of the space in reality may ridicule curiosity. Many recollections start by seeking an unfamiliar space, but more often than not, can become a source for terrifying anticipation.

But above is no reason to give up on anticipation of the curiosity and fascination associated with waiting. In "The Old Man and the Sea," one Finnish fisherman shows that while "there are times when madness overwhelms you", "fishing is about the sensation transmitted through the rod, and the waiting." Just like how the author realizes, interpreting and recreating that scene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sunlight to be present in order for the fish to see, to take the lure. Wind conditions must also be met to recreate that scene. Various and distinctive elements filling the space on stage are anticipating for that one moment.

While talking about space, I recall the passage from "Shakespeare's Memory" by Jorge Luis Borges, which just happened to be atop Jun's desk. "Are not all travels spatial? Traveling from one planet to another is like going to a farm on the other side. When you walked into this space, you traveled through space." "That's right", I agreed with him and said, "in addition, we discussed chemical elements and various animal species also." Excerpt from "A Weary Man's Utopia" by Jorge Luis Borges. Numerous biographical stories following patterns of dreams are told on stage even as we speak. We are consoled by relating to them



Words and Beyond, Artist society Pulchri
헤이그, 네덜란드
2008
복합재료, 조명, 사운드
가변크기

쓰여지지 않은 역사, 기록될 수 없는 기억

조선형
독립 큐레이터, 미술이론가



Substance and Light
유티카시 공공 도서관 설치 작업, 미국 뉴욕 주 유티카
2006-7
조명, 아크릴, 센서, 스피커,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변크기

한 때는 사람들의 온기가 감돌았겠지만 지금은 가구조차 없이 텅 비어 있는 버려진 집 안에 조용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바닥에 펼쳐진 흰 천 조각은 춤을 추듯이 다시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면서 우아한 곡선을 그린다. 마룻바닥 아래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가능해졌지만 그런 테크닉적인 차원에 굳이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은 이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섬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낡은 벽에는 가로로 긴 흠들이 나 있다. 흠을 통해 바깥의 눈부신 햇살이 비쳐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천 주변에 빛의 그물을 만들어 낸다. 집 바깥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자동차 소리와 새소리, 그 밖의 소리들이 이 빛과 움직임의 공간에 조용한 화음을 보낸다. 인위적인 장치는 최소화되어 있다. 공간을 둘러싼 자연의 요소들과 작가가 만들어낸 장치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서로 어우러진다. 천이나 햇살의 움직임과 틈 속으로 스며들며 흔들리는 것은 한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꿈들이다. 이 기억들은 단순히 개인의 그것이 아니라 이 집과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문자로 쓰여진 역

사가 아니다. 작가 채지영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록될 수 없고 보관될 수 없는 역사, 빛, 바람, 움직임, 소리와 같은 일시적이고 비표상적인 것을 통해서만 현존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이다.

작가가 살았던 미국 뉴욕주 유티카시에서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위에 호스로 물을 뿌려 일종의 물방울 스크린을 만들고 거기에 유티카시의 이미지를 투사한 작업 <Utica Tree>(2003) 역시 비표상적인 기억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 그 자체가 실체성이란 면에서는 연약한 존재이다. 더욱이 호스에 의해 뿌려지는 물방울 스크린 위의 영상은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존재한다고 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속적이고 견고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혹은 공식적인 언어로 단단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존재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라고 이 작품은 질문한다. 나아가서 존재의 이 또 다른 형태들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망각되고 쉽게 억압되어왔으며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글 첫머리에 묘사했던 작업 <An Abandoned House>(2003)을 비롯해서, 채지영은 7년간의 미국 체류기간 중 특정 지역의 역사와 그곳 주민들의 기억이나 꿈을 소재로 작업을 해왔다. 그는 종종 지금은 산업의 재편으로 쇠락해버린 지방 소도시의 역사와 그 지역주민들의 기억을 채집하여 그것을 자신의 기억에서 이끌어온 감성(예를 들어 어린 시절 반딧불과 쥐불놀이의 기억에서 이미지를 얻은 작업 <Floating Lights on the Lake>(2001)에서처럼)과 섞어서 작품화한다. 그는 작업을 실현하기에 앞서 오랫동안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작가 자신이 이런 면을 작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역사적인 장소들과 전통적인 산업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 작가 노트에서) 그가 다루는 역사는 종종 상당히 사회정치적인 내용을 갖는다. (예컨대 <Breads Installation>(2005)의 모티브 중 하나였던 흑인 인종차별 폭동에서 희생된 소년의 사례나, <Gazebo Installation>(2005)에 등장하는 담배 공장 노동자로 살아온 뉴욕주 빙햄튼시 주민들의 이야기 등) 이러한 관심사와 실제 작업에서 느껴지는 내밀한 서정성은 얼핏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역사가 ‘쓰여진 것’의 차원에서만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사실 지역 리써치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작업이 빠지기 쉬운 상투성의 함정 중 하나는 실증주의의 그것이다. 자신이 찾아낸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를 작업에 사용해야겠다는 이런 태도는 종종 객관에게 그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겠다는 일종의 계몽주의적 편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수천마디의 말과 수백페이지의 글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시간 동안 행해진 인터뷰라고 할지라도 그 말들은 모두 텅 빈 것들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록되고 제공된 정보의 양을 작품의 질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소통’이라는 단어 속에 나이브하

게 포장하기도 한다. 채지영의 작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의 문제를 실증주의적 차원에서 벗어난 곳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 감상을 버려야 객관적 현실에 접근한다는 것 역시 하나의 신화일 것이다. 사람없는 텅 빈 집이나 버려진 양계장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곳이 고립된 유아론적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발견 그 자체가 소통의 한 방식이다.

물론 그도 종종 지역 사람들과의 일종의 ‘인터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정보적 차원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역시나 비표상적인 차원에서 작동되는 언어의 힘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티카시의 오래된 공공 도서관의 천정에 설치한 작업 <Substance and Light>(2006-2007)을 보자. 5층으로 된 도서관의 3개 층 천장에 각각 10개의 라이트박스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센서로 잡아내게 한다. 사람들이 라이트박스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붉은 빛이 서서히 커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이에 맞춰 시를 낭송하는 듯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 목소리이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감정을 넣지 않은 채 책을 읽는 듯한 이 목소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어들과 짧은 문장들의 수수께끼 같은 율조림이다. (예를 들어, ‘love’, ‘friendship’, ‘indoor picnic’, ‘meeting people who remember my name’ 등등의) 도서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목소리들은 서로 겹쳐서 들리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한다. 이 단어와 문장들은 작가가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당신의 인생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순간들이 무엇인지를”) 이 메일로 요청해서 얻은 답들이다. 사람들에게 직접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록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라면 평범한 리써치류의 작품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역시나 명시적 정보 아래에 스며있는 발화의 비표상적 측면을 드러내줌으로써 일차적인 소통 이상의 것을 겨냥한다. 짧은 단어와 문장들의 이어짐은 최면적인 느낌마저 주며 발화의 율림 그 자체가 일종의 음악적 리듬으로 공간을 채운다. 빛과 바람, 햇살이나 물방울의 움직임처럼, 여기서 언어는 내용적 명확성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틈, 간격, 순간이 잠시 머무는 지점에서 공간에 조용히 스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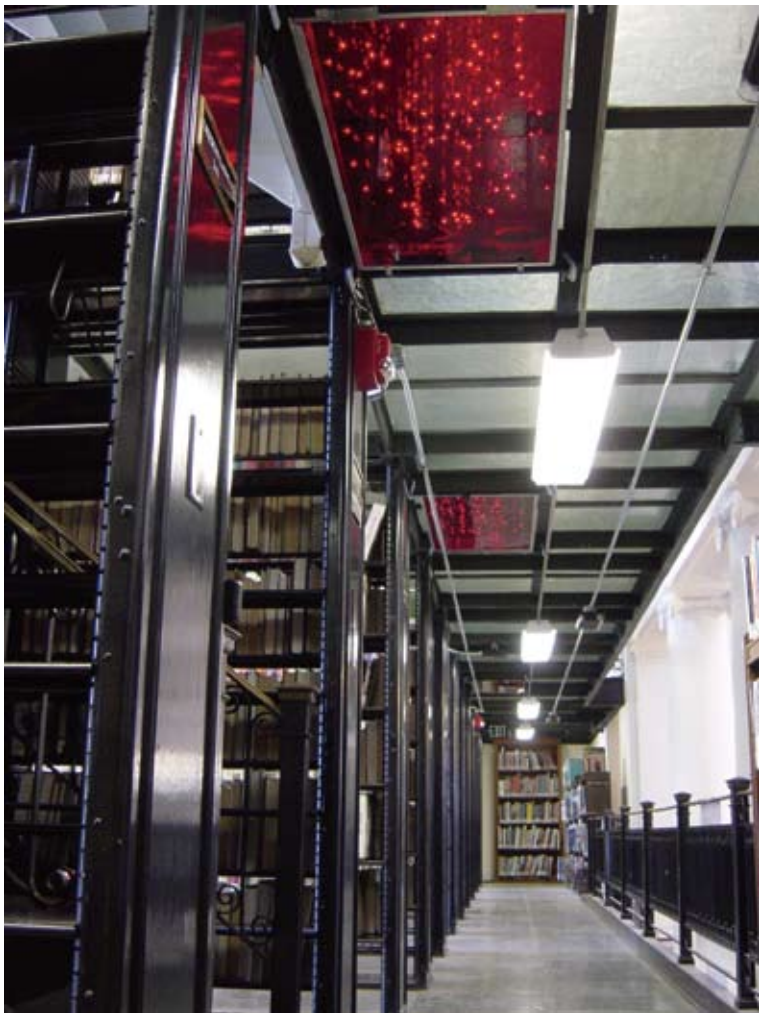
2009년, 한국으로 돌아온 채지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을 리써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모임에 나가고,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고, 답사를 다니고, 지도를 연구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 어쩌면 이번엔 한국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 기록될 수 없는 기억의 켜들을 현존화시키고 주관성과 객관성이 교차하는 그물망을 엮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An Unwritten History, Non-Recordable Memories

Cho Sun-ryung
Independent Curator, Art Theoretician

A quiet movement is being sensed inside an empty abandoned house without any furnishings, which used to find people's warm presence. A white cloth makes an elegant curve, just like dancing, repetitively moving up and down. The mechanic assistance installed under the floor to create wind makes this movement possible, but the movement is so natural and subtle that such a technical aspect gets very little attention. Long horizontal flutings run through the old wall. Breaking from the outside through the flutings is bright sunshine, which in turn, creates a net of light around the moving cloth. Sounds of cars and birds, and some other sounds coming in from the outside of the house add a low-pitched melody to this space of light and movement. Artificial settings are being the most minimized. Natural elements surrounding the space and the artist-created settings interact in harmony as if they used to. The movement of the cloth and sunlight, and their moving around, breaking through the flutings, are the memories and dreams of those who used to live here. In that these are not simple individual memories but memories of those who used to live in this house and in this city, these memories can be called history. But they are not a history written in any objective, evidence-supported documents. The artist's attention is being paid to an another type of history that can't be recorded nor filed up and can only exist through instant and non-presentative elements such as light, wind, sound and movements.

Artist Ji-Young Chae's attention to such non-presentative memories is also well demonstrated in 'Utica Tree (2003),' a work in which she created a sort of water drop screen by hosing water over a tree standing at the entrance of her village in Utica, NY, USA and projected there the images of Utica. The images themselves projected on the screen are weak in its substance. Moreover, such images projected on the hosed water drop screen don't even exist a bit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ism. However, the work starts to question if things that are not fixed as constant and solid or things that are not recorded in an official language are also other forms of existence. And the work goes further to question if these other forms of existence need to be more valued as they lack political power and are easily forgetful and easily suppressed. As shown in 'An Abandoned House (2003)' described earlier, throughout seven years of living in USA, Artist Ji-Young Chae has focused on the history of particular communities and



Substance and Light
유타카시 공공 도서관 설치 작업, 미국 뉴욕 주 유타카
2006-7
조명, 아크릴, 센서, 스피커,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변크기

their memories or dreams. She often researches the history and memories of small cities which have now gone down with industrial reorganization, and combines them with her emotional memories to create her works as shown, for example, in 'Floating Lights on the Lake (2001),' whose images were acquired from her childhood memories of lightning bugs and Catherine Wheel. Before starting her work, she takes enough time out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community, study its history and talk to those who live there. The artist herself regards this as an integral part of her work creation process. "The whole process of reading books in the library, visiting historic sites and traditional industrial areas, talking to the residents and participating in their local cultural functions is all an integral part of works production (from the Artist's Notes)." The history she deals with often contains a great deal of socio-political aspects. Examples are found in 'Breads Installation (2005),' one of whose motives was a boy killed in the racial discrimination riot of the black, and 'Gazebo Installation (2005),' which contained the stories of the residents of Binghamton, NY, who worked at the cigarette factory. These areas of her focus and the subtle lyricism felt in her actual working process are seemingly conflicting with each other, but they aren't. They seem so only to those who believe that history exists only in terms of things "written."

In fact, one of the most normal traps that a great deal of community research-based art works are likely to fall into is that of positivism. This kind of attitude that in producing works, you have to make available all the documents and information you've researched often turns into a sort of enlightenment mission that you need to convince your viewers of all those. However, we know that sometimes, thousands of words and thousands pages of writings simply speak for nothing. All the words said in a one-hour long interview can only be as hollow as it seems. As we identify the quantity of information recorded and provided with the quality of a certain art work, we tend to pack up such records naively in the word, "communication." The greatest strength of her works is that she stays out of the perspectives of positivism when dealing with the issue of communication. The number of people you have met doesn't necessarily guarantee communication. And also, it will be a myth that being detached from subjective feelings allows you to reach out to an objective reality. It is a way of communication as well, to find out that working in an empty house or an abandoned chicken yard doesn't necessarily mean such a space remains isolated, exclusively to you.

Of course, she often attempts a sort of interview with the community, but that is also all about the power of language that information fails

to contain and that is workable in non-presentative manners. Take 'Substance and Light (2006-2007),' for example, which was installed on the ceiling of an old public library in Utica. Ten light boxes installed on the ceilings of each three floors in the five-story library building catch passing people's movements through their senses. Whenever people pass by below those light boxes, red lights slowly repeat being turned on and off, and accordingly, low-key voices are heard as if reading poetry. These are two voices, man and woman. What these voices, that are soft and quiet but detached from emotions as if reading books, are telling is not some sequenced stories but a mysterious reciting of some words and short sentences like 'love', 'friendship', 'indoor picnic', 'meeting people who remember my name', etc. These voices overlap and next moment, separate accordingly with the movements of passing people in the library. These words and sentences are the answers of the question, "What are the moments that have warmed your heart and made you a better person in your life?" which was placed to the residents in the artist's email in order to find out about their dreams. If she had brought in a camera and shown some recorded outcome, the work could have turned out to be that of a normal research, but instead, she chose to target beyond such a simple communication by making non-presentative aspects revealed. Such a sequence of short words and sentences even gives a hypnotic effect, and the sonority of the voices itself fills the space with a sort of musical rhythm. Just like light, wind, sunshine or the movement of a water drop, the language here doesn't assert itself through its content-definiteness but quietly sinks into the space at points of cracks, intervals, and short moments.

Artist Ji-Young Chae, who came back to Korea in 2009, has been researching around the neighborhood of the Incheon Art Platform, where she currently lives. She attends the local community meetings, studies the community history, makes field trips, and researches the community maps. By doing so, she once again attempts to give life to non-recordable fragments of memories and weave them all together into a net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this time around, in a new context of being in Korea so in a bit different ways.



Roundscape
2009
Ink(Sumi), Color Ink(Saiboku), chinese paper on hardbord
38 x 45.5 cm each

* Mr. Fujii Rai's residence at Incheon Art Platform is also supported by the Arts Commission Yokohama.

상상과 무의식의 공간

- 후지 라이의 작업

소위 ‘선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일렬로 배열된 공간 혹은 시각이미지들의 연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로부터 생겨난 사건의 인과관계라는 관념도 실은 그러한 배열로부터 우리가 상상해 낸 환영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시간을 ‘여행’하면서 기록한 모든 사건의 이미지들을 상상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믿고 기술한다. 이러한 점은 개인적 삶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리 계획되었건 아니건, 여행에는 소위 ‘여정’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열이 생겨난다.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여행의 이야기(스토리)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객관적 실제로 가장한 상상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과 삶의 역사적 궤적들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창조적인 순간이 있다. 그것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우리가 여행의 사진앨범을 꺼내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감상할 때이다. 우리가 번덕스러운 시간점프를 행할 때마다, 공간과 시간의 순차적 질서는 모두 무력화된 다. 그것은 바로 ‘사건의 실제적 영역’에서 ‘사건의 상상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이다. 또한 동시에 ‘실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기존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상상과 실재를 나누는 울타리는 이렇게 허술하다. 그리고 쾌락이란 바로 그러한 울타리를 넘는 재미이다. 또 이 지점에서 ‘실제로부터의 도피’, ‘쾌락’, ‘창조’ 이 세가지 용어는 동의어가 된다. 본래 쾌락이란 것은 현실에서 좌절된 만큼 상상을 통해 충족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렇게라도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리비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신질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있다.

인천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인 후지 라이는 자신이 여행한 곳의 풍경들을 마치 기록하듯이 순차적으로 그려 나간다. 그리고 그 풍경들을 일렬로 이어서 긴 영화필름 같은 형태로 전시한다. 모든 그림들이 하나의 밴드처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음과 마지막의 구분도 사라진다. 그래서 작가는 이를 ‘Roundscape’



김원방

미술평론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라고 이름 붙였다. 이것은 시간적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환형구조(루프)를 만들어내며, 관객은 마치 앨범을 뒤적거리듯이 그림들의 여러 지점들을 마음대로 거닐며 그 연관성을 상상하도록 허용된다. 마치 이미지 속을 여행하듯이 말이다. 이것은 마치 프로이트가 분석한 꿈의 상태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는 꿈 속의 이미지는 질서화되고 시간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뭉쳐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의식은 시간을 알지 못하며, 꿈 속에 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들은 문법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직 ‘부정사’(infinitive) 형태의 언어처럼 나타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무엇을 했다, 한다, 할 것이다’라는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무엇하기’, ‘무엇임’이라는 무시간적이고 비현실적인 양태로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후지 라이의 그림들은 시각적으로는 일렬로 배열되지만, 관객은 전시공간의 한 가운데에 서서 임의적으로 그림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객관적 기록’이라는 통시적 시간이 무너지고, 대신 우리의 심리와 욕망의 투사, 자유로운 연상이 이루어지는 무의식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상상적 공간은 그의 <Picture letters>(그림편지)라는 작업에서도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겉에 그림을 그린 많은 편지들을 길게 붙여서 나열한 작업이다. 그 편지봉투 안에는 후지 라이가 실제로 쓴 편지가 담겨 밀봉되어 있으며,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도 겉에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관객은 편지의 내용물을 열어볼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비밀로 지켜진다. 이 영원한 비밀은 일종의 알레고리이다. 봉투 겉면에 그려진 풍경의 이면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알레고리이다. 비밀을 감싼 그림 혹은 그림 속에 칼처럼 잠입한 비밀... 풍경들의 진실된 의미와 출처, 관련된 에피소드는 모두 보는 자의 상상과 욕망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후지 라이의 그림들은 이와 같이 현실이라는 장소를 비밀과 상상의 장소로 바꾸는 작업이다.



Space of Imagination and Unconsciousness - Work of Fujii Rai

The so-called ‘linear time’ is nothing but a series of spacial or visual images arranged in a lineal order. Moreover, the concept of casualty of events created from the lineal arrangement of time is also just an illusion we have made. In this sense, the history of human beings can be defined as a creative arrangement of images from the events that people have described while they were ‘travelling’ in the time. We, human beings, believe and describe the events as an objective historic reality. The case is not so different for personal trips we take in individual life. Whether planned or not, we create an arrangement of space from the travel that is called ‘itinerary’. The story that is created from the arrangement is also nothing but imaginary edifice under the cover of an ‘objective reality.’ However, sometimes we encounter the moment of creation when the barriers are dismantled in all these arrangements of historic events or trace of individual trips to make everything in the time mixed and intertwined. One of those magical moments comes when we flip through an album of photos from a travel, recollecting the moment from the past. Every time when we travel back and forth across the time, the lineal order of spacial and visual arrangements is naturalized and that is the moment when we are jumping from ‘an area of objective reality’ into ‘an area of imaginary edifice.’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moment when the belief on ‘objective reality’ starts to lose its grounds. You may ask to yourself “Was this really happening?” That is how frail and ambiguous the barrier is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and while moving across the barrier, we feel a sense of pleasure. This is also the moment when all three expressions, ‘escape from the reality’, ‘pleasure’ and ‘creation’ start to have the same meaning. In its origin, pleasure has been and shall be fulfilling the vacancy created by the setback in reality and imagination has been the tool to perform the work. If we do not manage and control our psychic energy or libido by doing so, all of us will be eventually falling victims to psychic illnesses.

Fujii Rai, a member of the 1st artists-in-residence group at Incheon Art Platform, has drawn the landscape he captured while travelling along in a lineal order as if he was describing what he saw as it was. The exhibition is offered in the form of long movie film by linking each of the landscape in line. All the pictures are connected to form a huge band, making it impossible to tell where the whole picture starts or ends. That is why the artist names it ‘Roundscape’. This creates a repetitive loop of time and the audience are given open choices to make imaginary associations, travelling across the spots and moments in the picture as if they are flipping through an album, full of photos from a trip from the past. This is just like a walk through creative images.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concept

Kim Won-bang

Art critic, professor at Hongik Graduate School of Art

of dream analyzed and defined by Freud. He believed that the images in dream are not arranged in an orderly or timely manner. Rather, he believed that it is just a cluster of various images. He said unconsciousness does not recognize the time and symbolic images in dream are not defined in grammar or order. He rather mentioned that the images are emerging just like ‘infinitive’ in language. In other words, they are not arranged in lineal time order as in the expression of ‘did, do or will do something’ but exist, transcending time or space as in the expression of ‘doing something or being something’.

Pictures of Hujii Rai are arranged in lineal order but the audience are allowed to have random access to any of the pictures,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room. By doing so, the audience can dismantle the barrier in diachronic time of ‘objective description’ to open a space of unconsciousness with full of projection of sentiment and desires or with open choices of free associations. This space of imagination is also interestingly captured in the artist’s other work, <Picture letters>. The work of art is presented by connecting many envelopes of letters with full of interesting pictures on them. The envelopes are closed, holding the letters actually written by Fujii Rai, himself and the address of the sender and recipient is also written on them. Yet, the audience is only allowed to see the outside of the envelopes while the letters inside remain unrevealed. It will remain this way forever. The ever-lasting secret in the envelopes is a kind of allegory. An allegory, holding a secret that will last forever in the inside of the landscape on the envelopes, just as a mysterious picture concealing a secret or a disguised secret like a knife hidden in a picture..... The true meaning and source of the landscape and associated episodes will remain open as subject of imagination or desires of the audience. The pictures of Fujii Rai are to change the space of reality into a space of secret and imagination.

IAP!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in the Pilot Program

아트&디자인 스튜디오 Art&Design Studio | 게스트하우스 Guesthouse

시각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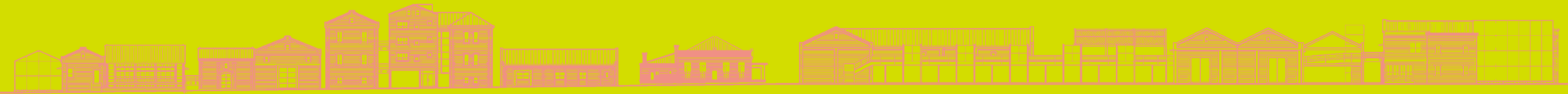
사진 홍상현 HONG Sang-hyun

금속 김민희 KIM Min-hee 박현웅 PARK Hyun-woong 서지민 SURH Ji-min 이현정 LEE Hyun-jung

도자 고민정 KO Min-jeong 박수현 PARK Soo-hyun

문예창작

김한수 KIM Han-su 홍인기 HONG In-ki



홍상현
HONG Sang-hyun



흑백 아날로그 은염 사진을 전공한 홍상현이 운영하는 사진스튜디오이다.
존시스템zone system을 이용한 흑백사진을 주로 작업하고 있으며, 『한국적 특수성의 사진재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꾸준히 작품 및 연구/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후, 인천을 소재로 한 흑백사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반인들과 함께 사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기초사진반, 포트폴리오반, 존시스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아직 떠나지 않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수작업을 통한 은염사진에서 배어 나오는 은은한 회색조 사진을 통한 아날로그의 감성을 일반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This is the photo studio owned by Hong Sang-Hyun who majored in black and white analog silver photography.
He mainly works with black and white images using the zone system, and continues to work, study, write on the subject 『Photo Recreation Study under Korean Characteristics』. Upon moving into Incheon Art Platform,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lack and white photography project of Incheon, and is currently teaching photography to general public. He currently teaches classes in introduction to photography, portfolio, and zone system classes. Despite the digital age, he shares the nostalgic subtle silver grey hues of hand developed photography from the analog days.



공화춘 로비
2008
gelatin silver print

슈필라움
SPIELRAUM



슈필라움

‘슈필라움’은 금속공예를 전공한 4명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공방이다. 각기 다른 연령과 성별, 스타일을 다분히 ‘금속공예’의 교집합으로 출발시켜, 하나의 열린 공간 안에서 이들의 교집합을 필두로 한 공동 작업은 분명 각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회화, 새로운 오브제, 새로운 장신구 등의 창작 역량 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만
낄 수 있게 한다. 이들은 이러한 각자의 새로운 작업 외에도 기초 금속공예 워크샵인 ‘보물찾기’를 통해 주말마다 인천 시민에게 흥미로운 금속작업을 일깨워주
고 있다.
‘슈필라움(Spielraum)’..., 이는 운동장, 혹은 놀이터로 불리어지는 독일어로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동적(動的) 공간’이다. 누군가에게서 ‘슈필라움’이라 불리어질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의 의미가 더해진다면 분명 새로운 예술을 꿈꾸고 지향할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의 다이나믹한 날개 짓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Spielraum

‘Spielraum’ is a creative workshop by 4 individuals who majored in metal craft. It began as an intersection of metal craft artists of different age, sex, and style that work together in an open space offering their unique creative abilities in new paintings, objet, and decorations creating a synergy effect. They each pursue their own projects as well as run an introductory metal craft workshop called ‘Finding Treasures’ every weekend to Incheon citizens enlightening people to the pleasures of metal craft. ‘Spielraum’ in German means playground or park. The more basic meaning is ‘space of movement.’ With new meaning of possibilities added to ‘spielraum’ each and every time, ‘spielraum’ has become the space for people dreaming of new art making dynamic contributions to art.

김민희
KIM Min-hee



Story of Nature
2009
정은, 종이, 금박

서지민
SURH Ji-min



바람 조금
2008
Silver 935
680 x 900 x 12 mm

박현웅
PARK Hyun-woong



동네 한바퀴
2009
mixed media
575 x 295 mm

이현정
LEE Hyun-jung



Manna II
2009
정은, 진주
50 x 50 x 15 mm

床品

SANGPUM



床品 : 상품

‘床品’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자예술을 전공한 박수현, 고민정 두명의 작가로 구성된다. 뚜렷이 다른 개성을 가진 이들이 흙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형태, 치밀하고 예리한 묘사 등을 통해 절고 풍성하게 작품을 풀어간다.

‘床品’은 생활식기를 선보이는 ‘床’(상), 오브제, 가구 등을 선보이는 ‘品’(품) 두 가지 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현대에 맞는 새로운 Tableware를 제시할 ‘床’은 한국전 통에 기반을 두고 변화하는 현대 한식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발전시키는 생활식기이다. 오브제, 가구 등의 Artwork으로 구성된 ‘品’은 기존 도자의 한정적 영역에 서 벗어나 창조적인 시각이미지를 도출하고, 타 재료와의 결합을 통해 신선하고 실용적인 감각의 도자작품을 소개한다.

‘床品’은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Sustainable Design’(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모토로 독특하지만 장식성이 요란하지 않은 담백한 형태를 추구한다. 이는 오랜 시간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다다가 충실히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床品’의 100% 수공예 방식으로 생산되는 작품들은 작가의 감성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공간과 생활에 멋을 더하며 사용자에게 일상에서 가깝게 예술을 접하여 풍요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Sangpum

“床品 (Tableware)’ is composed of PARK Suhyun and KO Minjung, ceramic artists, who graduated Ehw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With their clear distinct styles, their work shows youthful abundance as they express the earth’s soft pliable form in an intricate and detailed manner.

‘床品’ consists of two formats - ‘床’(sang : table) that shows daily tableware and ‘品’(pum : product) that shows objet, furniture and etc. ‘床’ shows the newly developed modern tableware created using traditional Korean methods but reflecting the modern Korean trends. ‘品’ is art of objet, furniture, and artwork that break free of the restricting limits of normal ceramic and draws out a more creative visual image. By incorporating foreign materials into the process, the artists show a fresh and practical aspect of ceramic art.

Under the motto “affordable environmentally aware ‘Sustainable Design,’” ‘床品’ seeks simple clean designs that are unique and not overtly elaborate. It’s ageless quality appeals to users for lasting durations while performing it’s original function. The 100% handcrafted pieces from ‘床品’ portray the artist’s soul and devotion to their work and add a little flair to everyday living. Those who use these pieces will be able to experience art up close and enjoy each piece.



고민정
KO Min-jeong

Plates
2009
ceramic



박수현
PARK Soo-hyun

Chair
2009
ceramic
30 x 36 x 83 cm

김한수

KIM Han-su

홍인기

HONG In-ki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김한수, 홍인기 두 명의 소설가가 입주하여 창작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기 위한 스토리 구상 및 집필 단계에 있으며 향후 출판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다음은 홍인기 작가가 인천아트플랫폼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의 일부입니다.

제목과 내용은 사정상 밝히지 못합니다.

수협공관장 뒷길 남항부두에 비가 내렸다. 공관장 옆으로 해금, 오성, 연백식당과 연안만물상회가 들어선 상가의 간판들이 이른 겨울비에 축축이 젖어 빗물을 똑똑 떨어뜨렸다. 부두를 끼고 멀지 않은 곳에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서 있다. 덕적 이작 연평 백령 등 황해의 섬들과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배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 뒤 서쪽으로 이십여 년의 공사 끝에 바다를 매워 만든 신도시가 높은 빌딩의 위용을 자랑하며 바다 한끝을 거뭇하게 가로막고 있다.

선착장으로 가는 부둣가에 붉고 노란 어망더미들이 무너진 옛 성곽처럼 비를 맞으며 쌓여있는데, 그 옆으로 개펄 빛으로 탁하게 어둔 얼굴의 사내 서넛이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지나갔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소리와 작고 짙마른 체구로 보아 동남아시아 뱃사람들인 듯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백 톤급 근해안강망 어선과 10톤 미만의 낚장망 낚싯배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 쪽에서 배와 배끼리, 또는 배가 붉은 밧줄에 묶여 부두 콘크리트 방벽에 부딪치는 소리가 늙은 노파의 울음처럼 들려왔다.

복인수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선착장으로 발을 옮겼다. 부두에서 선착장으로 연결된 철제 다리 아래에서 만조로 한껏 몸을 불린 바다가 출렁였다. 수백 개의 대나무에 달린 흰색 청색 붉은색 깃발들이 둥근 스티로폼 부표에 꽂혀 사람 키만큼 쌓인 그물더미 위에서 펄럭이고, 비둘기 몇 마리가 부교위에 내려앉아 모이를 찾아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친 비닐천막 안에서 아낙 네댓 명이 그물을 손질하며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정박한 배들이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와 섞여 음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복인수는 아낙들을 지나쳐 작은 낚싯배 갑판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기관실 낮은 처마 밑에서 상체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짧은 머리에 얼굴빛이 검고 몸의 근육이 단단해 보이는 사십대 후반의 사람이었다.

“저-혹시, 인성 이백 철호 한명호 선장님 아니신가요?”

“당신이 배 타겠다는 그 사람이우?”

“네, 전화로 말씀드린…….”

선장이 몸을 일으켜 부두로 올라서며 복인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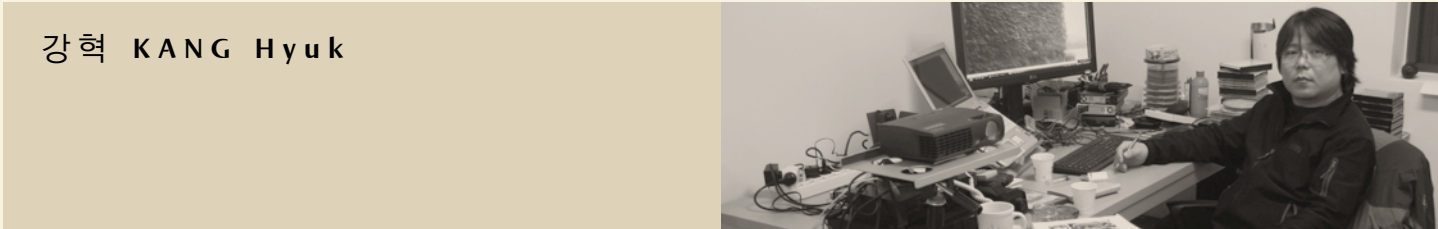
“뱃일이 처음이라고 했지? 험테 낫설지가 않아. 우리나라 사람 맞아?”

마르고 작달막한 몸에 유난히 검은 피부를 가진 복인수는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주위에서 골잘 듣는 말이어서 피식 웃음을 흘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 배는 저거야. 겉보기엔 녹슬고 추해보여도 아직 황소처럼 힘이 좋아. 사흘밤낮 태풍도 끄떡없이 견디는 놈이지.”

선장은 백 톤급 근해안강망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맞은편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의 입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와 빗속으로 사라졌다.





2009	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2009	M.A.F in painting, Incheon University
2000	시립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2000	B.F.A in painting, Incheon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09	‘은유적 자연성’ (인천아트플랫폼)	2009	A Metaphorical Nature (Incheon Art Platform)
2007	‘경계속의 시간’ (스페이스빔 갤러리)	2007	The Time in a Boundary (Space Beam Gallery)
2005	‘은유적 경계’ (인천 문화예술 회관)	2005	A Metaphorical Boundary (Incheon Art Center)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2009 인천 국제여성비엔날레 조울전 (인천아트플폼 등)	2009	International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ncheon Art Platform)
2008	인천미디어아트 기획전 (부평 역사 박물관)	2008	Incheon Media Art Festival (Bupyeong History Museum)
2006	단원미술제 미디어아트안산2006전 (단원전시관 제3관)	2006	Daegu Mass media Art festival ‘Navigator’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인천-터키 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Turkish-Korean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Incheon Art Center)
2004	Zc Special Presentation Series (Seoul - Chelsea, New York전)	2004	Zc Special Presentation Series (Seoul - Chelsea, New York)
2003	서울-파리 교류전 (FRANCE 갤러리 파리 보부르)	2003	Entre Paris et Seoul (Galerie Paris Beaubourg. Paris, France)
	대구영상미술제 (대구문화예술회관)		Degu Mass media Art Festival “Contemporary Trends & Installations”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2002	DIGITAL ART NETWORK展 (서울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	2002	DIGITAL ART NETWORK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Seoul Subway World cup Stadium)
	空想と創造展Ⅲ 韓國現代美術 “家族”(日本 かすがい市民文化財團)		空想と創造展Ⅲ 韓國現代美術 “家族”(日本 かすがい市民文化財團)
2001	New Vision-DIGITAL ART NETWORK展 (서울 테크노마트)	2001	New Vision-DIGITAL ART NETWORK (Seoul Techno Mart)
RESIDENCY PROGRAM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2009	제8회 한성미술대상전(서울 예송미술관) 장려상	2009	The 8th hansung paekche art Contest (Seoul Yesong Gallery)
2006	제31회 창작미술대전(세종문화회관) 특선	2006	Changjak Art Contest (Seajong Art Center)
2001	제12회 미술세계 대상전(서울예술의 전당) 특별상	2001	12th Misulsegae Contest
	제7회 신진작가발언전(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상		The 7th proposal exhibition of up and coming artists (Misulsegae - Seoul Museum of Art)
COLLECTIONS			
2009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rain’	2009	Art Bank Incheon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ll Rights Reserved)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stream’		Art Bank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4	인천여성문화회관 ‘healing 2004’	2004	Incheon Woman’s Cultural Center



2008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자예술과 졸업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craft M.F.A.
2004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Jeju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Design B.F.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To heart, From heart’ (Hanaartgallery, Seoul)	
2008	현대도예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관, 서울)	Contemporary Ceramic Art Exhibition (Ewha Woman's University Convention Hall, Seoul)
	한국정예작가초대전·지성의 펼침전 (안산단원전시관, 안산)	Korea Elite Artists Preview - Expansion of Intelligence (Ansan Danwon Art Gallery, Ansan)
	자이갤러리초대전 (서교동 자이갤러리, 서울)	
2007	김옥길기념관초대전 (김옥길 기념관, 서울)	XiGallery Preview (Seogyodong XiGallery, Seoul)
	한중일현대도예-신세대교감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서울)	
	현대도예작가초대전 (한국강화문화예술원 마리산미술관, 강화도)	
	석사학위청구전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관, 서울)	
2005	한일현대도예-신세대교감전 (아이치현 도자자료관, 일본)	
	한국미술우수대학원초대전 (안산 단원전시관, 안산)	
RESIDENCY PROGRAM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AWARDS		
2006	제 7회 사발공모전	M.F.A. Exhibition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Hall, Seoul)
2003	대한산업미술가협회공모전	
2002	제주도문화상품공모전 수상	Korea-Japan Contemporary Ceramics - Exchange Exhibition of New Generation (Aichi Province Ceramics Museum, Aichi, Japan)
		Invited Exhibition of Korean Excellent Art Graduate Students (Ansan Danwon Art Gallery, Ansan)
RESIDENCY PROGRAM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2006	7th SaBal Contest	
2003	Korea Industrial Artist Association Competition	
2002	Jejudo Culture Souvenir Contest	



1966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개인전	
2009	13회 개인전 (종합문화예술회관)
2008	12회 개인전 KASF “Korea Art Summer Festival 2008” (SETEC)
2006	11회 개인전(카르페디엠 갤러리 기획 초대전) 10회 개인전 (초록 갤러리 기획 초대전)
2005	9회 개인전 (동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한마음큰잔치 전시 행사)
2004	8회 개인전 (프랑스 파리 오니바 갤러리 초대-현지참여)
단체전	
2008-	인천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2005-	미술세계(온라인 모임) 이사 인천시 환경 미술 협회 창립기여
2002-04	남동구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자로문위원
2001-03	남동구 문화예술회 회장
2000-	경인미술 초대작가 인천케이블TV 사람사는이야기 예술을 향한 진념의 인생 인간승리 서양화가 고윤편 25여회 방송
1999-	한일 교류회 이사 인천시 초대작가 이사
1995-	이형회 이사
1995-01	청조회 부회장
1995-97	인천시 미술협회 감사
1994-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2009	이형회 특별작품상 수상
2006	학생 교육 우수 교사상
2004	남동구 구민 예술상 수상 이형회 아리가다상 수상
1985-	일본 국미전 금상,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등 각종 국내외 미술대전에 서 40여회의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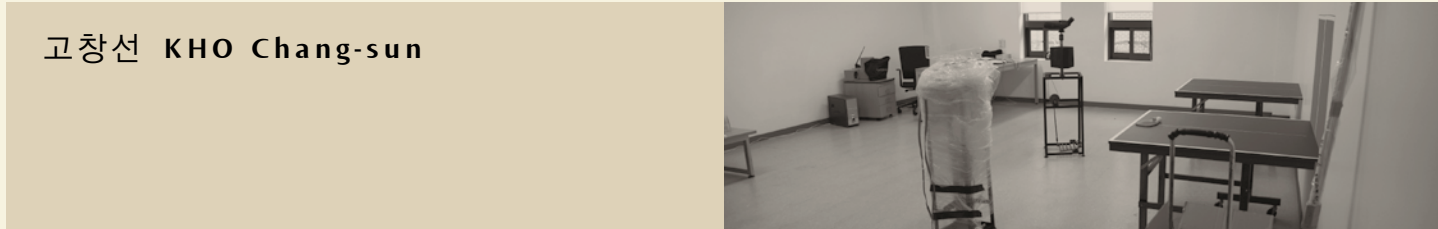
1966	Graduate of Hongik University, Architecture Major
------	---

SOLO EXHIBITIONS	
2009	13th Private Exhibition (Cultural Art Center Complex)
2008	12th Private Exhibition KASF “Korea Art Summer Festival 2008” (SETEC)
2006	11th Private Exhibition(Carpe Diem Gallery Special Exhibition) 10th Private Exhibition (Green Gallery Special Exhibition)
2005	9th Private Exhibition (Dongbu Primary School Parent Student Together as one Exhibition)
2004	8th Private Exhibition (Invitation from Galerie Oniva Paris, France-On location participa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Incheon Art Competition, Featured Artist
2005-	Art World (Online Community), Director Contribution in founding the Incheon Environmental Art Association
2002-04	Namdong-gu Art Decoration Jury and Advisor
2001-03	Namdong-gu Art Council Chairman
2000-	Kyongin Art, Featured Artist Incheon CableTV. Story of People, Life of solicitude toward art - The story of oil painter KO Yun (over 25 episodes)
1999-	Korea Japan Exchange Council, Director Incheon City Featured Artist, Director
1995-	Leehyunhoe, Director
1995-01	Chungjohoe, Vice Chairman
1995-97	Auditor for Incheon Fine Art Association
1994-	Member of Korea Fine Arts Association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2009	Leehyunhoe Special Work of Art Award
2006	Superior Teachers Award for Student Education
2004	Namdonggu District Inhabitant Art Award Leehyunhoe Arigada Award
1985-	Japan National Art Exhibition Award (Gold Statue), Korea National Art Exhibition Award, etc. Awarded over 40 tim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in Korean and abroad.



2006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예술공학 전공) 박사수로
2000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조소전공(MA) 석사졸업

개인전	
2009	‘warm_up’ 갤러리 퍼즈 (파주 헤이리)
2008	‘Standing on the ground’ (브레인 팩토리)
2006	‘Someone running to the counterpoise of power’ (대안공간 미끌) 외 3회

단체전	
2009	망막의 진실, 인터알리아, 서울 무자녀 만찬전, 브레인팩토리
2008	Invisible Art Exhibition , 베이징 한국 문화예술원, 중국베이징 꿈꾸는 푸른별, 강진, 강진군문화회관, 전남 강진 브레인 팩토리 5주년 기념 베네팩 행사, 토탈미술관, 서울
2007	크리스마스 숲을거닐다. 두산 갤러리 아트인시티 경기 안양, 인덕원 프로젝트, 경기도 안양 동안구 관양2동 일대 세계문화유산27, 갤러리 27
2006	Punch Drunk Works, 대안공간 미끌 외 20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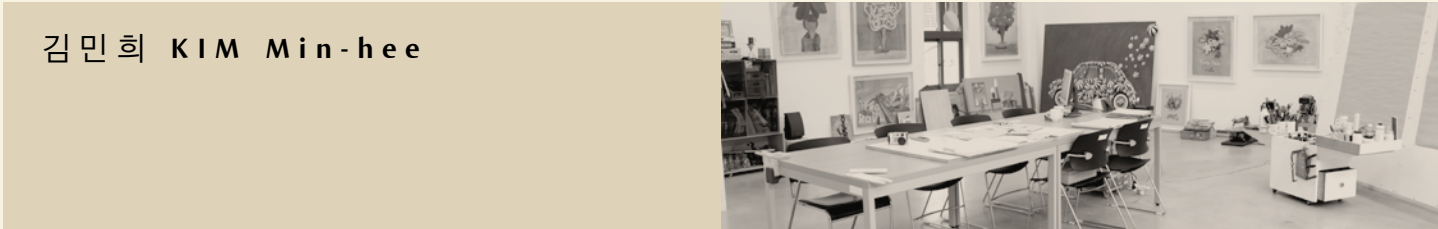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6	Chung-An University, GSAIM ART & TECH, completed Ph.D in Art technology
2000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Fine Art (MA)

SOLO EXHIBITIONS	
2009	warm_up, gallery puzz (paju heyiri)
2008	standing on the ground (Brain Factory, Seoul)
2006	someone running to the counterpoise of power (alternative space Miccle, Seoul) and 3 other exhibition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Truth about retina, interalia seoul the mujayun supper, Brain Factory, Seoul
2008	Invisible Art Exhibition, beijing Korea culture center, China ASIAGRAPH Conference, Shanghai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Science/Grand Hall, China dream of blue-star kangjin, kangjin Art center, Jeollanamdo the 5th anniversary Brain Factory, Total museum, Seoul
2007	Walking in the Christmas forest, Doosan gallery, Seoul Art in ctiy Kyungki Anyang, Indunkwon project, Kyungki- Anyang World cultural heritage 27, gallery 27, Uiwang
2006	Punch Drunk Works, alternative space Miccle and 20 or so other exhibitions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2007	중앙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박사) 졸업	2007	Ph.D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8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석사) 졸업	1998	M.F.A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졸업	1996	B.F.A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2009	Story of Nature-KIM MIN HEE (이세탄백화점 기획초대전-동경)
2008	Story of Nature (일본/한국)
2005	KIM MIN HEE Jewelry Exhibition (Open your mind)
2004	KIM MIN HEE Solo Exhibition
1999	자연을 닮은 장신구전

단체전	
2009	S & K mlg 기획초대 부스 개인전(S&K mlg Gallery)
2008	Korea Metal Art & Jewelry Design Toda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International Korean cultural Expo art exhibition (North Carolina, Convention center) New York Art expo (Jacob K. Javits Center, New York)
2007	벨기에 인터네셔널 라인 아트페어 타쉬켄트 국제 비엔날레 SSAF 2007 SEOUL FORCHHEIM contemporary Art & Design & Crafts (KOREA(Gallery HO)/GERMANY(Gallery Artodrome) SOFA-NEW YORK(NEW YORK)
2006	LOOT! 2006(Museum of Arts & Design-NEW YORK/31갤러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2001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대전 우수상
2000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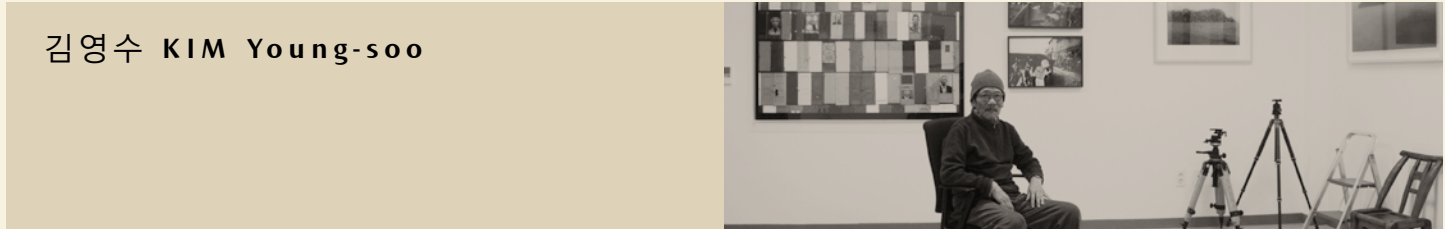
2007	Ph.D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8	M.F.A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6	B.F.A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09	Story of Nature - KIM MIN HEE (Special Invitational of ISETAN - Tokyo)
2008	Story of Nature (Japan / Korea)
2005	KIM MIN HEE Jewelry Exhibition(Open your mind)
2004	KIM MIN HEE Solo Exhibition (Special Invitational of Plus Art Festival)
1999	1st Solo Exhibition - Nature made by Hum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Special Invitational of S & K mlg (S&K mlg Gallery)
2008	Korea Metal Art & Jewelry Design Today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International Korean cultural Expo art exhibition (North Carolina, Convention center) New York Art expo (Jacob K. Javits Center, New York)
2007	Belgium Line Art Fair Contemporary Jewelry Art from KOREA Tashkent Contemporary Art International Biennale SSAF 2007 SEOUL FORCHHEIM contemporary Art & Design & Crafts (KOREA(Gallery HO)/GERMANY(Gallery Artodrome) SOFA-NEW YORK(NEW YORK)
2006	LOOT! 2006(Museum of Arts & Design-NEW YORK/Gallery 31)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2001	National Arts (Part of Crafts), Prize Winner in the Second Place
2000	National Arts (Part of Crafts), Selected



1968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중퇴	1968	Hongik University Applied Arts, left midcourse
------	-----------------	------	--

개인전	
2007	광대 (공화랑)
2004	떠도는 섬 (가나포럼스페이스)
1996	정물 (나무화랑)
1993	사람-문(門) (스페이스 샘터화랑)
1988	사람-고문 (그림마당 민)
1987	사람-주민등록증 (바탕골미술관)
	사람-등신대 (두손갤러리) 외 다수

단체전	
2009	포토코리아 - 슈팅 이미지 (코엑스 장보고홀, 서울) 서울 포토 2009 (코엑스 인도양관, 서울)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전(국립현대미술관)
2005	광복 60년, 시대와 사람들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가까운 옛날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2002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3 집행유예 (광주시립미술관 상무대지구)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예술과 인권 (광주시립미술관) 등 다수

출판	
광대 (눈빛출판사, 2007), 떠도는 섬 2 (눈빛출판사, 2007)	
떠도는 섬 (일 출판사, 2004), 사랑하는 것도 슬픔입니다 (도서출판 책소리, 2002)	
떠도는 시간의 기억 (열화당, 1997), 정물 (도서출판 일, 1996)	
사람-문 (눈빛출판사, 1993), 한국의 나무탈 (열화당, 1993)	
사람-고문사진 (열화당, 1988), 사람-증명사진 (열화당, 1988)	
사람-주민등록증 (시각출판사, 1987), 사람-등신대 (시각출판사, 1987)	
당신은 내게 산입니다 (오상출판사, 1986), 현존 (시각출판사, 1982)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중국 노신미술대학 루메이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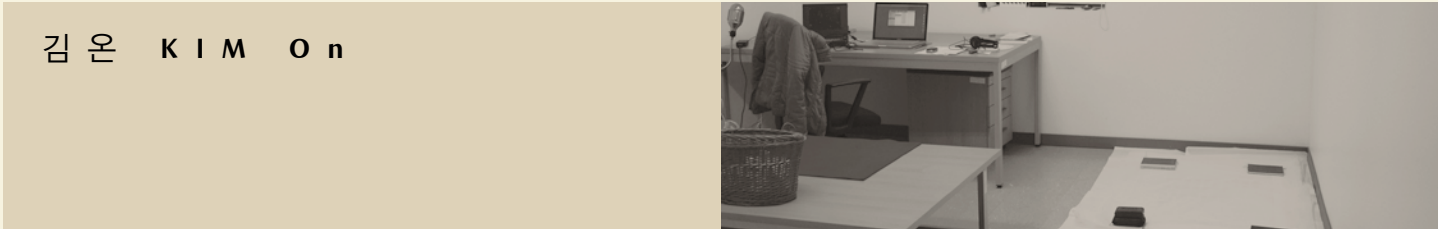
SOLO EXHIBITIONS	
2007	Clown (Gong Gallery)
2004	Wandering Island (Gana Forum Space)
1996	Still Art (Namu Gallery)
1993	Human-Door (門) (Space Wellside Gallery)
1988	Human-Torture (Drawing Garden Min)
1987	Human-Resident Identification Card (Batangol Art Center)
	Human-Life Size Cut Out (Duson Gallery)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Photo Korea - Shooting Image (COEX Changpogo Hall, Seoul) Seoul Photo 2009 (COEX Indian Hall, Seoul)
2008	Korea Modern Photography Past 60 Years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5	60 Years of Independence, Times and People (Seoul Marronnier Art Center), Near Past (Japan Fukuoka Asian Art Museum)
2002	Gwangju Biennale-Project3 Probation (Gwangju Art Museum Sangmudae District)
2000	Gwangju Biennale Special Exhibition - Art and Human Rights (Gwangju Art Museum) etc.

PUBLICATIONS	
Clown (Noonbit Publishing Co., 2007), Wandering Island (Il Publishing Co., 2004)	
Wandering Island 2 (Noonbit Publishing Co., 2007)	
Love is Sorrow (Chaeksori Publishing Co., 2002)	
Wandering Memories of Time (Youlhwadang Publisher, 1997)	
Still Art (Il Publishing Co., 1996), Human-Door (Noonbit Publishing Co., 1993)	
Korean Wooden Masks (Youlhwadang Publisher, 1993)	
Human-Torture Image (Youlhwadang Publisher, 1988)	
Human-Portrait Image (Youlhwadang Publisher, 1988)	
Human-Resident Identification Card (Visual Publishing Co., 1987)	
Human-Life Size (Visual Publishing Co., 1987), Existence (Visual Publishing Co., 1982)	
You are my Mountain (Osang Publishing Co., 1986)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COLLECTIONS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na Luxun Academy of Fine Arts-Lumei Gallery, Gana Art Gallery etc.	



- 2003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 장식미술 학교, Sound, 포스트 디플롬 졸업
- 200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 장식미술 학교, Object-Book 학과 졸업
- 1999

프랑스 파리8대학교 조형예술 학과 졸업
- 1997

프랑스 낭뜨 미술학교 Art 과 졸업
- 1993

경원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 퍼포먼스

- 2009

< WRH (Writing & Reading & Hearing) > Collaboration with 최정우, 산울림 소극장, 서울
- 2007

<힘에 개입된 소리 ‘ㄱ’ > 제6회 OUT DOOR, 개인전기획전, 건축사 사무소 힘, 대구

단체전 & 퍼포먼스

- 2009

< Versus> 독립매거진2호 출판 기념행사, 사운드퍼포먼스, 갤러리 팩토리, 서울
<방문자> 흑석2동 268-2, 서울
- 2008

<소리와 울림> 대구 TBC 라디오 “소리의 힘” - 3부 소리콘서트, 퍼포먼스 /공연진행, 떼아뜨르 분도, 대구
< L’Arche de Corée> 제4회 한국 영화, 음악, 페스티벌-설치미술&소리미술, 씨네마 스타,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 Sound Effects Seoul Radio 2008> 크로프트 갤러리, 예술공간 헛, 서울
- 2005

< Régionale 05> Gallery Plug.in, 바젤, 스위스
- 2004

< 20minutes of attention “(de) venir”>, 독일 프랑스문화원, 프라히부르그, 독일
< Paris-Seoul-Strasbourg> 파리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 2003

< HICETNUNC> 바뚜띠 옛 병원, 산 비토 알 파리멘토, 이탈리아
< Festival Espèce d’interzone> Collaboration with Joachim Motessuis, 퍼포먼스, 라 쇼프리,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 Oro del Reno- Modena> Gallery Quaranta2, 모데나, 이탈리아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및 작품소장

- 200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2002

< Prix AGAMI>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 장식미술 학교 후원협회상)

- 2003

Post-Diplôme, Lab Sound-video, E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Strasbourg, France
- 2002

Diplôme de l’ESADS, Object- book, E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Strasbourg, France
- 2000

Licence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8, France
- 1998

DNAP, Ecole des Beaux-arts de Nantes, Nantes, France
- 1993

Licence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Kyoungwon, Korea

SOLO EXHIBITIONS & PERFORMANCES

- 2009

<WRH (Writing & Reading & Hearing)>Collaboration with Choi Jung Woo, Sanwollim Theater Company, Seoul, Korea
- 2007

<Sound ‘ㄱ’ intervened in HIM>6Th OUT DOOR, planned solo exhibitions, HIM Architectural Firm, Daeg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PERFORMANCES

- 2009

<Versus> Magazine N.2 launch party, Performance, Gallery Factory, Seoul, Korea
<Visitor> Heuksuck-2Dong 268-2, Seoul, Korea
- 2008

<Sound & Resonance>TBC Radio Special Documentary “Power of Sound”, Part 3- Concert, Performance& MC , THEATRE Bundo, Daegu, Korea
<L’Arche de Coree> 4Th Strasbourg Korean Film & Music Festival – Sound & Installation, Cinéma star, Strasbourg, France
<Sound Effects Seoul Radio 2008> Gallery Croft, Art Space HUT, Seoul, Korea
- 2005

<Open Studio> Alsace Lorraine Baden Wutremberg- Strasbourg, France
<Regionale 05> Gallery Plug.in, Basel, Swiss
- 2004

<20minutes of attention “(de) venir”>, Franc Culture Center, Fribourg, Germany
<Paris-Seoul-Strasbourg> Korea Culture Center, Paris, France
- 2003

<HICETNUNC>, Antico Ospedale dei Battuti, San Vito Al Tagliamento, Italy
<Festival Espèce d’interzone> Collaboration with Joachim Motessuis, Performance, La Chaufferie, Strasbourg, France
<Oro del Reno- Modena> Gallery Quaranta2, Modena, Italy

RESIDENCY PROGRAM

-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 & COLLECTION

- 2006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rt Bank, Korea
- 2002

<AGAMI> Prize (E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Strasbourg Support Association) France



- 2000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미술학교 졸업
- 1998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08

제4회 성남탄천페스티벌 미디어퍼포먼스, 탄천둔치특설무대, 경기도
- 2006

기획공모당선전 - 낯선 기호들의 침입 Intrusion of Unfamiliar Signs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빛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09

EXCEPT by Limen arte Contemporanea, Sala Silentium, Bologna, Italy
I.D. Gig 4 Incheon : Drawing Gig.4, 진영프라스틱공장, 인천
- 2008

3rd Space – isAT 2008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and Technology, 한국예술종합학교 갤러리
MOA Cine Forum 4 : Digital Portfolio, 서울대학교미술관
- 2007

제11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수원화성(장안문, 서북공심돈)
- 2006

제7회 서울뉴미디어페스티벌, 갤러리 꿈 서울
Living Furniture 2006부산비엔날레, SK 파빌리온 부산 해운대
Electronic Music and Video Performance, Center for New Media (CN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 USA
녹음 錄音, COMO’s Audio and Video Project, SK T 타워, 서울
- 2005

서울청년미술제 포트폴리오 2005 , 서울시립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 2000

HKU-Hogeschool voor de Kunsten Utrecht, The Netherlands , MA (Master of arts in European Media)
- 1998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e arts, BFA

SOLO EXHIBITIONS

- 2008

the 4th Sungnam Tancheon Festival, Media Performance, Gyeonggi-do, Korea
- 2006

Intrusion of Unfamiliar Signs, Moonshin Museum, Light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9

EXCEPT by Limen arte Contemporanea, Sala Silentium, Bologna, Italy
I.D. Gig 4 Incheon : Drawing Gig.4, Jinyoung Plastic Factory, Incheon, Korea
- 2008

3rd Space – isAT 2008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and Technology, KNUA gallery, Seoul, Korea
MOA Cine Forum 4 : Digital Portfolio, Museum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2007

the 11th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Suwon, Korea
the 7th Seoul New Media Festival , Gallery Ggum, Seoul, Korea
- 2006

Living Furniture 2006 Busan Biennale, SK Pavillion, Busan, Korea
Electronic Music and Video Performance, Center for New Media (CN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 USA
Green + Sound, COMO’s Audio and Video Project, SKT Tower, Seoul, Korea
- 2005

Portfolio 2005, Seoul Museum of Art

RESIDENCY PROGRAM

-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남대웅 NAM Dae-woong



2008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원 졸업	2005	M.A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NY, USA
2002	Parsons School of Design 대학 졸업	1998	B.F.A Parsons School of Design, New York, NY, USA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09	Seduction of Material Ghost, 옆집 갤러리, 서울	2009	Seduction of the Material Ghost, Next Door Gallery, Seoul, Korea
2008	진리와 욕망, 갤러리 쿤스트 독. 서울	2008	Truth and Desire, Gallery Kunst Doc, Seoul, Korea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Wonderful Pictures, 일민 미술관, 서울	2009	Wonderful Pictures, Ilmin Museum, Seoul, Korea
	Movie & Movie Star, 가나아트 부산, 부산		Movie & Movie Star, Gana Art Center Busan, Busan, Korea
	창원 현대 아시아 미술제, 창원		Changwon Asian Contemporary Art Festival, Changwon, Korea
2008	IAS Media Screening 2008,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8	IAS Media Screening 2008, Insa Art Space, Seoul, Korea
	Reality-Portraits, 자하 미술관, 서울		Reality-Portraits, Zaha Museum, Seoul, Korea
2007	Drawing on the Invisible, Nabi Gallery, 뉴욕	2007	Drawing on the Invisible, Nabi Gallery, New York, NY, USA
2006	Art for Healing, Mushroom Arts Organization, 뉴욕	2006	Art for Healing, Mushroom Arts Organization, Flushing, NY, USA
	Paradise Refigured (two person show), Nabi Gallery, 뉴욕		Paradise Refigured (two person show), Nabi Gallery, New York, NY, USA
2005	From Earth to the Moon, Planaria Gallery, 뉴욕	2005	From earth to the moon, Planaria Gallery, New York, NY, USA
	City of Dreams (two person show), Nabi Gallery, 뉴욕		City of Dreams (two person show), Nabi Gallery, New York, NY, USA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박상희 PARK Sang-hee



1999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석사학위 취득 (회화 전공)	1995	Graduated from Hong-ik Univ.(Majored in Painting, dept. at Fine Arts)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학사학위 취득	1999	Graduated from Hong-ik Graduate school (Majored in Painting)
개인전			
2009	8회 개인전 카이스 갤러리 (카이스 갤러리, 홍콩)	2009	8th Solo-Exhibition, (Cais gallery, Hongkong)
2007	6회 개인전 신세계 갤러리 기획초대전 (신세계 갤러리, 인천)	2007	6thSolo-Exhibition, (Sinsaege department store gallery, Incheon)
2006	4회 개인전 ‘낯설면서 익숙한’ (갤러리도스 기획공모전, 서울)	2006	4th Solo-Exhibition, ‘Strange and familiar’ (Gallery Dos, Seoul)
2004	3회 개인전 ‘간판은 아트다’ (인사 미술 공간 기획공모전, 서울)	2004	3rd Solo-Exhibition, ‘Sign boards are arts’ (Insa Art - space, Seoul)
1998	1회 개인전 ‘우리 시대의 얼굴 展’ (덕원 미술관, 서울)	1998	1st Solo-Exhibition, ‘Our Contemporaries’ (Dukwon-gallery, Seoul)
단체전			
2009	‘일상과의 대화’전 (아트 팩토리, 경기도) 화랑 미술제 (BEXCO, 부산) 홍콩 아트페어 (홍콩 컨벤션 전시장, 홍콩) 서울 옥션 커팅엣지 전 (LG패션 신사관, 가나아트센터 평창점, 서울) 아트 로드77 아트페어 (북하우스 아트스페이스, 경기도) 아시아 탐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하이얏트 호텔, 서울) 서울 국제 아트페어 KIAF (코엑스, 서울) 상하이 아트페어 SH CONTEMPORARY ART FAIR. (상하이 전시관, 중국) 싱가폴 아트페어 (싱가폴) 상하이 비엔날레 (상하이 미술관, 중국)	2009	‘Daily Conversation’ (Art Factory, Gyeonggi-do) Korea Galleries Art Fair (BEXCO, Busan) Hongkong Art Fair (Hongkong convention center, Hongkong) Seoul Auction Cutting edge (LG fashion Bdg., Gana art center, Pyoungchang-dong, Seoul) Art Road 77 Art fair (Book house, Gyeonggi-do) Asia top hotel gallery art fair (Namsan Hyatt Hotel, Seoul) KIAF, Cais gallery (COEX, Seoul) SH CONTEMPORARY ART FAIR (SHANHAI EXHIBITION CENTER, CHINA) ART SINGAPORE, (SUNTEC, SINGAPORE) The 2009 8th Shanghai Biennale (Shanghai Art Museum , China)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0	버몬트 스튜디오 레지던시 (Vermont studio center, USA)	2010.1~2	Vermont Studio Residency (Vermont studio center, USA)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2007-08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2기 (서울시립미술관)	2007~08	2nd Residency Program, Nanji Art Studio (Seoul Museum of Art)
기타			
2009	SeMA 신진작가지원 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2009	SeMA, Support for New Artists, Artist Selection (Seoul Museum of Art)
2008	인천문화재단 다년지원 작가 선정 (인천문화재단)	2008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Long Term Support Artist Selection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7	인천미술대전 ‘우수상’ (한국미술협회 인천지부 주최) 8.14 Hello, Chelsea 2007 Final 작가 선정(11인) (PS35 gallery, New york)	2007	Incheon Arts Competition ‘Award of Excellence’ (Hosted by Korea Fine Arts Association Incheon Branch) 8.14 Hello, Chelsea 2007 Final Artist Selection (11 Artists) (PS35 gallery, New york)
2005	2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중앙일보사 주최)	2005	The 27th JoongAng Fine Arts Prize, Selected Artist (Hosted by JoongAng Ilbo)
2003	인사미술공간 기획공모전 작가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3	Insa Art Space Competition Artist Selection (Arts Council Korea)
1999	25회 서울 현대 미술제 ‘특선’ (문예진흥원주최)	1999	The 25th Seoul Modern Art Show ‘Special Selection’ (Hosted by Arts Council Korea)
1998	동아미술제 ‘특선’ (동아일보사주최)	1998	Donga Art Festival ‘Special Selection’ (Hosted by Donga Ilbo)
ETC.			



2008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자예술 석사 졸업
2002	이화여자대학교 공예학부 도자예술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단체전	
2009	To heart, From heart 초대전, 하나아트갤러리, 서울 중국톈진교류전, 중국
2008	석사학위 논문展,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07	B101展, 노마갤러리, 서울 김옥길 기념관 초대전 '길, 십자가', 김옥길 기념관, 서울 한국 여성 도예가회 초대전, 강화문화원 마리산 미술관, 인천 Blooming on the pocelain展, 나눔갤러리, 서울
2006	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제8회 지성의 펼침전 '한국미술 우수대학원생 초대전', 단원미술관, 안산 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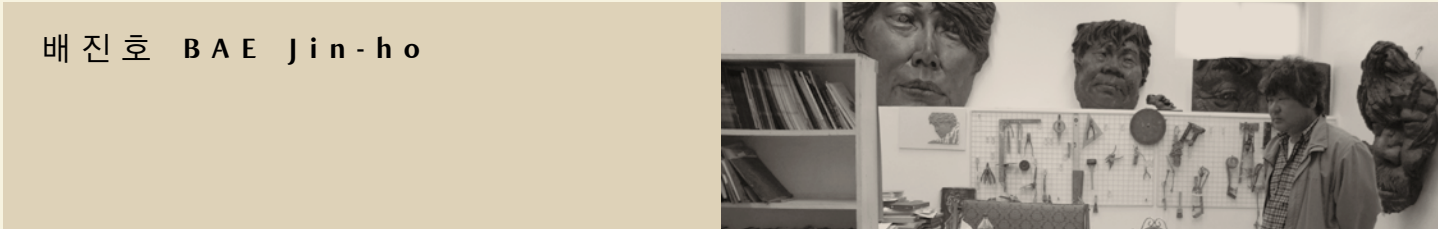
2008	Ewha woman's graduate school ceramic craft M.F.A
2005	Ewha woman's university art history B.F.A Ewha woman's university ceramic craft B.F.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To heart, From heart, Hanaartgallery, Seoul Before Korea and Tianjin art international exchange, China
2008	M.F.A exhibi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B101, Nomagallery, Seoul The 28th Dorim, Ewhaartcenter, Seoul Invited exhibition of Kimokgill Memorial Hall'The road, The cross', Kimokgill Memorial Hall, Seoul Invited exhibition of Korean woman ceramic artists association, Korea Kangwha culture & art center, Incheon Blooming on the pocelain, Nanoomgallery, Seoul
2006	Invited exhibition of Korean Excellent Art Graduate Students, Ansan Danwon Art Gallery, Ansan The 27th Dorim, Ewhaartcenter, Seoul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1회 개인전 (가나아트센터, 인사아트센터, 가나아트스페이스, 삼성동 COEX, 예술의 전당, 중앙 갤러리)
단체전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전 / 미국 뉴욕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 삼성동 COEX 화랑미술제-Seoul Art Fair / 예술의 전당 MANIF 국제아트페어 / 예술의전당 새천년의 지평에 서서/ 서울시립미술관 Arbazaar2007 개관기념전 / 아르바자르 Spring- The new contemporary Artwork Festival/ 예술의전당 The Essay-12인의 작업노트- 전북도립미술관 기획공모전 / 전북도립미술관 체온이 있는 미술 - 아트 사이드 개관 1주년 기념 기획 초대전 13인의 놀이 / 섹트스페이스 한국현대회화100인전 / 우림화랑 Wonderful Picture / 일민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 CJ 케이블넷 본사

M. F. A Graduate School of Hong -Ik University B. F. A Hong -Ik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1th Solo Exhibition (Gana Art Space, Gana art center, Insa art center, Seoul Art Center, COEX, Gallery Joong Ang...)
SELECTED GROUP EXHIBITIONS
The Passion and Beauty of Korean Art / New York U.S.A KIAF / COEX Seoul Art Fair / Seoul Art Center MANIF Seoul / Seoul Art Center Power of accord /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Arbazaar2007 / Arbazaar Spring- The new contemporary Artwork Festival/ Seoul Art Center The Essay-Work note of12 / Jeonbuk province art Museum The Art to resemble the temperature of human body / Gallery Art Side 13 play / Sempio space The Exhibition of 100 Korean Modern Artists/ Gallery Woolim Wonderful Picture / Ilmin Museum of Art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CJ Hello TV



1993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졸업
198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09 제9회 배진호 조각전 -동행- (큐브스페이스, 서울)
2007 제8회 배진호 조각전 (큐브스페이스, 서울) (스페이스 빔, 인천)
2002 제7회 배진호 조각전 (인사갤러리, 서울)
2001 제6회 배진호 조각전 (성보갤러리, 서울)
2000 제5회 배진호 조각전 (토탈미술관, 장흥)

단체전
2009 인천여성비엔날레 조율전(아트플랫폼, 인천)
2008 인천 · 상해국제조각교류전(상해대학미술관, 중국상해)
Deconstruction of Question전(부평역사박물관, 인천)
2007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본전시(포천 반월문화센터, 포천)
2005 공주국제미술제(임림미술관,공주)
황해미술제(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
2004 부산비엔날레조각프로젝트(을숙도, 부산)
실존과 허상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2 한국미술의 자화상전(세종문화회관, 서울)
2000 새천년 3.24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제1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2부 구상계열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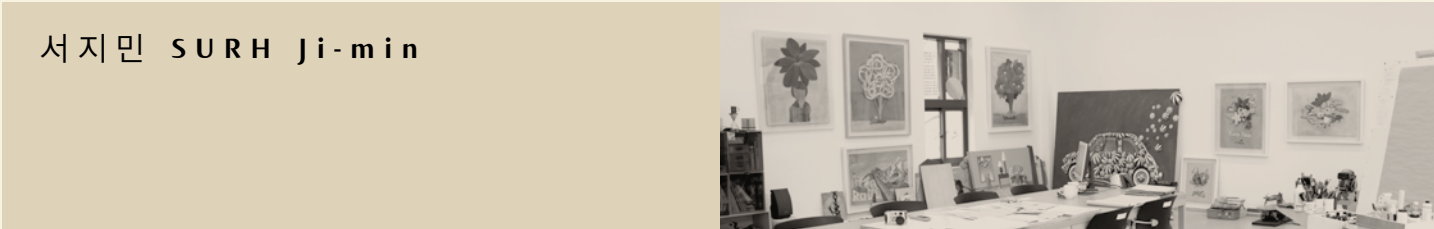
1993 Hongik University Post Graduate School, Sculpture Major
1985 Hongik University Fine Arts, Sculpture Major

SOLO EXHIBITIONS
2009 9th BAE Jin-ho Sculpture Exhibition -Company- (Cubespace, Seoul)
2007 8th BAE Jin-ho Sculpture Exhibition (Cubespace, Seoul / Space Beam, Incheon)
2002 7th BAE Jin-ho Sculpture Exhibition (Insa Gallery, Seoul)
2001 6th BAE Jin-ho Sculpture Exhibition (Sungbo Gallery, Seoul)
2000 5th BAE Jin-ho Sculpture Exhibition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ngheung)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International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Exhibition “Tuning”
(Art Platform, Incheon)
2008 Incheon · Shanghai Sculpture Exchange Exhibition
(Shanghai University Art Museum, Shanghai China)
Deconstruction of Question Exhibition (Bupyeong History Museum, Incheon)
2007 Pocheon Asia Biennale Main Exhibition
(Pocheon Banwol Cultural Center, Pocheon)
2005 Gongju National Art Exhibition (Limlip Museum of Art, Gongju)
Yellow Sea Art (Culture-Art Center Complex, Incheon)
2004 Busan Biennale Sculpture Project (Eulsukdo, Busan)
Existence and Myth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02 Korean Art Self Portrait Exhibi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2000 Millenium 3.24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
16th Korea Art Competition - Part 2 Figurative Art section-Excellence Award



2000 홍익대학교 대학원 금속조형디자인 졸업
1996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 졸업

개인전
2008 서로 다른 풍경 - 서지민 금속공예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0 서지민 금속공예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단체전
2007-09 타타스타타 장신구전(가나아트센터, 서울)
2001-09 한국공예가협회전(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2000-09 홍익금속조형작가회전 (이앙갤러리, 서울)
2008 뉴욕 아트엑스포(Jacob K. Javits Center, New York)
국제공예트렌드페어(COEX,Seoul)
2007 벨기에 인터내셔널 라인 아트페어(Ghent,Belgium)
SOFA-NEW YORK(NEW YORK) 외 다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대한민국 공예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아공예대전 입선 (일민미술관, 서울)
대한산업미술가회 공모전 입선 (디자인진흥센터, 서울)

2008 MFA,metal art and desig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2003 BFA,metal art and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08 Another lanscape - solo exhibition(INSARTCENTER, Seoul)
2000 Mmetal art and design solo exhibition(INSARTCENTER,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7-09 TATASTATA hong-ik jewelry exhibition(GANA ARTCENTER, Seoul)
2001-09 Korea art and craft association(kepco gallery, Seoul)
2000-09 Hong-ik metal art and designer association (gallery iang, Seoul)
2008 New York Art expo (Jacob K. Javits Center, New York)
International Craft Trand Fair (COEX,Seoul)
2007 Belgium Line Art Fair Contemporary Jewelry Art from KOREA
(Ghent,Belgium)
SOFA-NEW YORK(NEW YORK), etc.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National Arts (Part of Crafts) contest exhibit Selected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on)
Dong-A Craft contest exhibit, Selected (Ilmin art museum, Seoul)
Korea industrial artirs association contest exhibit, Selected (KIDP, Seoul)

안경수 AN Gyung-su



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2003	M.F.A.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 Korea
2001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2001	B.F.A.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Dankook Univ., Korea
개인전			
2008	[green mountain], 브레인 팩토리, 서울	SOLO EXHIBITIONS	
2006	[playroom], 갤러리 꽃, 서울		
	[The Once Little Prince], 공평아트센터, 서울		
2001	[View Mirror], 공평아트센터, 서울		
단체전			
2009	BRIDGE PROJECT: project 4. 한국 청년 작가 그룹전, 창아트, 베이징, 중국	2008	Green mountain, Brain Factory, Seoul
	the battle of life, 리나갤러리, 서울	2006	Playroom, Alternative Space Gallery Cott, Seoul
	brainfactory 무자녀 만찬 展, 브레인 팩토리, 서울	2006	The Once Little Prince, Gongpyeong Art Center, Seoul
2008	서교난장: NG 아트페어 New Generation Art Fair, KT&G 상상마당, 서울	2001	View Mirror, Gongpyeong Art Center, Seoul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미술은 지금이다’, 부산문화회관, 부산	SELECTED GROUP EXHIBITIONS	
	The Bridge_가나아트갤러리 개관 25주년 기념전 The 1st bridge『시선의 권리 -scope』, 인사아트센터, 서울		
	제11회 황해미술제 ‘나는 너를 모른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watergate Bridge Project 2부 –REPEAT展, watergate gallery, 서울		
	그문화 개관전 ‘태도가 풍경이 될 때’ 展, 그문화, 서울		
	KIMI For you ‘꿈꾸는 상자’ 展, 키미갤러리, 서울	2009	BRIDGE PROJECT: project 4. Young Korean Artists Group Exhibition, CHANG ART, Beijing, China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10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장기), 고양		The battle of life, Lina gallery, Seoul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Brainfactory documentary party, Brain Factory, Seoul
수상			
2008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지원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08	New Generation Art Fair , KT&G sangsangmadang, Seoul
200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매입공모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Busan Biennale ‘ART IS NOW’, Busan Cultural Center, Busan Korea
	제7회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송은문화재단 주최 인사아트센터, 서울		The Bridge, 25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Gana Art,
2006	익재 허백련 기념 제3회 광주MBC수목대전 특선, 광주MBC 주최, 익재미술관, 광주		The 1st bridge (The Rights of the Gaze-Scope), Gana Art gallery, Seoul
2003	제25회 중앙미술대전 입선, 중앙일보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1th The Hoanghae Art Festival ‘I DON’T KNOW YOU’,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Korea
2002	동아미술제 입선, 동아일보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Watergate Bridge Project 2 - REPEAT, watergate gallery, Seoul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월간 미술세계			‘When Attitudes Become Landscape’, SPACE OF ART, ETC, Seoul
RESIDENCY PROGRAMS			
2009-10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장기), 고양	2009-10	National Goyang Art Studio, 6th Artist (Long-term), Goyang, Korea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2008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지원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08	‘2008 Young artist support’ Selected Artist (Arts council Korea, Seoul, Korea)
200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매입공모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2007	Song Eun Arts Competition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제7회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송은문화재단 주최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Ui-jae Hubagryun commemorative Gwangju MBC ink painting art competition (Ui-jae Art Museum, Gwangju Korea)
2006	익재 허백련 기념 제3회 광주MBC수목대전 특선, 광주MBC 주최, 익재미술관, 광주	2003	Accepted for Jungang Fine Arts Compet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3	제25회 중앙미술대전 입선, 중앙일보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2	Accepted for Donga Art Festiva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02	동아미술제 입선, 동아일보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COLLECTIONS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월간 미술세계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rt Bank’, Korea	
		(The monthly publication) ‘Misulsegae’, Korea	

오경환 OH Kyung-hwan



1982/81	프랑스 마르세유미술학교 회화과 졸업	1982/81	Ecole d'art de Marseille
1963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1963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개인전			
2009	<우주미술>,국제우주대회(IAC) 특별초대개인전 , 대전컨벤션센터	2009	<Art of Spac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AC) Special
2005	갤러리 175, 일민미술관 초대, 서울		Invitation Exhibition , Daejeon Convention Center
2003	Galeria Praxis Arte Internacional, 니마 페루	2005	Gallery 175, Invitation Exhibition to Ilmin Museum of Art (Seoul)
1999	갤러리 퓨전, 서울	2003	Galeria Praxis Arte Internacional, Lima Peru
1994	국제화랑, 서울 외 다수	1999	Gallery Fusion, Seoul
		1994	Kukje Gallery, Seoul
단체전			
2008	미술원 10주년 기념관 (한예중 갤러리)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화가의 30년, 아름다운 변화 (한가람미술관)		
2007	1070년대 한국미술(한가람 미술관)		
2006	창작미술협회 50주년전 (서울세종문화회관)		
2005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전		
	동경예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교류전(예술의 전당, 동경예대 미술관)		
2005/04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2002	한국-아르헨티나 국제전(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미술관)		
	오경환 · 설원기 2인전(사간갤러리) 외 다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1996	대통령 표창 외 다수		
1974	국전 특선		
1973	한국미협 특별상		
1962	국전입선		
SOLO EXHIBITIONS			
2009	<Art of Spac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IAC) Special		
	Invitation Exhibition , Daejeon Convention Center		
2005	Gallery 175, Invitation Exhibition to Ilmin Museum of Art (Seoul)		
2003	Galeria Praxis Arte Internacional, Lima Peru		
1999	Gallery Fusion, Seoul		
1994	Kukje Gallery, Seoul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Academy of Art 1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Gallery)		
	Artist's 30 Years, Beautiful Change (Hangaram Art Museum)		
2007	1070 Korean Art (Hangaram Art Museum)		
2006	Changja가 Fine Art Association's 50th Anniversary Exhibition		
	(Seoul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005	Seoul Museum of Art Invited Exhibition		
	Korea-Japan Interchange Exhibition of Art School Professors		
2005/04	Invited Exhibition of Seoul Museum of Art		
2002	Korea-Argentina International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Buenos Aires)		
	OH Kyung-hwan · SUL Won-gi Joint Exhibition (Gallery Sagan), etc.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1996	Presidential Prize, etc.		
1974	National Art Exhibition, Special Award		
1973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Special Award		
1962	National Art Exhibition, Accepted		



- 2007 파리고등국립미술학교 조형예술학(아뜰리에 주세페 페노네) 국가학위 졸업
- 2006 파리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 2005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졸업
- 2002 서울시립대학교 예술대학 환경조각학과 졸업

개인전

- 2007 ‘메타모포즈-유망청년작가공모-’ 주불한국문화원, 파리(프랑스)
- 2006 ‘살을 주다(Donner la vie)’ 갤러리 아프네, 파리(프랑스)

단체전

- 2009 ‘조각적인것에 대한 저항전’ 서울시립미술관본관, 서울
- ‘Paradis Artificiel-난지도프로젝트-’, 난지갤러리, 서울
- ‘Paper Magic’, 방콕 내셔널 갤러리, 방콕(태국)
- ‘제9회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New harmony 5x5-북경 798비엔날레 특별전’, 아트미아, 북경(중국)
- ‘Two plus ; Beyond the time’ 이브갤러리, 서울
- 2008 ‘세계속의 한국 현대미술 2 -파리-’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전 크레이시옹 08’ 라빌레드 홀, 파리(프랑스)
- ‘4th 여정 / from door to door’ 파크 데미시옹 아프리카엔, 생 피에르 (프랑스)
- ‘뮐루즈 008’ 파크 데 엑스포지시옹, 뮐루즈(프랑스) 외 다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 2008-09 서울난지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장기)
- 2008 시떼국제예술레지던시 입주작가(장기)

기타

- 2009-10 문예진흥원 영아트프론티어 프로그램 선정

- 2007 DNSAP(Dipôm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Plastique) Studio Giuseppe Penone, Ecole Natiola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France
- 2006 M.F.A Art Plastique, Université Paris 8. Paris. France
- 2005 B.F.A Art Plastique, Université Paris 8. Paris. France
- 2002 B.F.A College of Arts, Univ of Seoul. Seoul.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 2007 ‘Metamorphose’ Centre Culturel Coréen, Paris (France)
- 2006 ‘To give the life (donner la vie)’ Gallery Apnée, Paris (Fra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9 ‘Against the Sculptural: Three dimensions of Uncertainty’ Seoul Museum of Art, Seoul
- ‘Paradis Artificiel-Nanjido Project’ Nanji Gallery, Seoul
- ‘Paper Magic’ Bangkok National Gallery, Bangkok (Thailand)
- ‘9th Songeun Artist Award’ Insa Art center, Seoul
- ‘New harmony 5*5’, ARTMIA Foundation Gallery, Beijing (China)
- ‘Two plus ; Beyond the time’ Eve Gallery, Seoul
- 2008 ‘Contemporary Korean Art in the World 2 -Paris-’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 ‘Jeune creation 08’ Grand halle de la vilette, Paris (France)
- ‘4th Itinéraires/From door to door’ Parc des Missions Africains, StPierre (France)
- ‘Mulhouse 008’ Parc des expositions, Mulhouse (France)
- and other numerous exhibitions

RESIDENCY PROGRAMS

-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 2008-09 Seoul City Nanji Art studio, 3rd Artist (long term), Seoul, Korea
- 2008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long term), Paris, France

ETC.

- 2009-10 Korean Cultural and Arts Promotion Fund, Young art frontier program



개인전

- 2009 제2회 개인전 (갤러리진, 인천),(미시마파사디나미술관, 일본)
- 2008 제1회 개인전 (갤러리진, 인천)
- 인천문화발전 연구원 이진 기념 초대전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
- 2005-06 인천 art fair 2회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단체전

- 2009 인천 art fair 화랑부스 초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 2008 인천 art fair 화랑부스 초대전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 송도 DIO 아트센터 개관기념초대전 (디오아트센터, 인천)
- 두레 아트 스페이스 개관 초대전 (두레아트 갤러리, 인천)
- 시립미술관 건립추진 전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 해원갤러리개관기념 초대전 (해원갤러리, 인천)
- 갤러리진 개관기념초대전 (갤러리진, 인천)
- 타워갤러리 상형전초대전 (타워갤러리, 부산)
- 대동갤러리 상형회30주년기념초대전(대동갤러리, 광주)
- 한국대표100人시와그림전(시가다시희망이다)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연 3회 입상
- 인천미술대전특선 2회 우수상, 최우수상
- 곰두리미술대전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문화예술상(2004)

SOLO EXHIBITIONS

- 2009 2nd private exhibition (Gallery Jin. Incheon / Mishimapasadina Art Museum, Japan)
- 2008 1st private exhibition (Gallery Jin. Incheon)
- Invitation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Incheon Cultur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relocation (Incheon Cultur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ncheon)
- 2005-06 2nd Incheon Art Fair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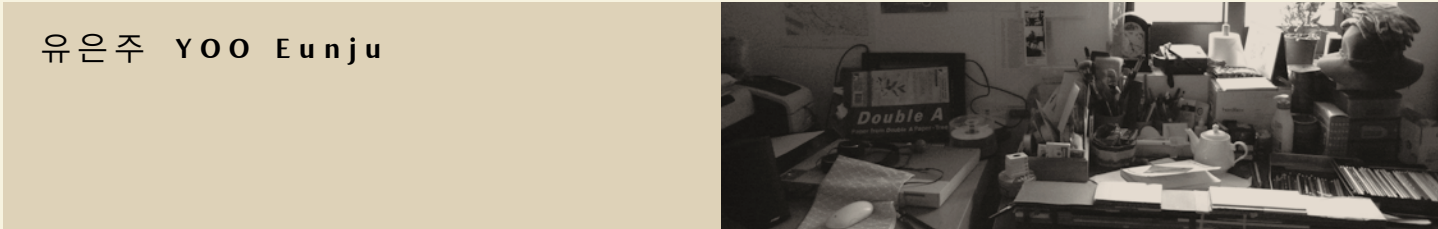
- 2009 Incheon art fair Hwarang Booth invitational exhibiti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 2008 Incheon art fair Hwarang Booth invitational exhibiti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 Invitation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Songdo DIO Art Center foundation (DIO Art Center, Incheon)
- Invitation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Dure Art Space foundation (Dure Art Gallery, Incheon)
- Exhibition to Promote Municipal Art Museum foundati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 Invitation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Hyewon Gallery foundation (Hyewon Gallery, Incheon)
- Invitation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Gallery Jin foundation (Gallery Jin, Incheon)
- Invitational exhibition - visual arts at Tower Gallery (Tower Gallery, Busan)
- Invitation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aedong Gallery visual art convention (Daedong Gallery, Gwangju)
- Invitational exhibition - exhibition of poems and paintings of the best 100 artists in Korea (Poetry Is The Hope Agai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RESIDENCY PROGRAM

-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 Korea Art Competition - three consecutive winning
- Incheon Art Competition - the 1st and 2nd prizes
- Gomduri Art Competition - the 1st prize
- Incheon City Junggu education & cultural art award(2004)



2006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Design by Independent Project 석사졸업
2003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졸업

개인전

2009 아따따 으따따 전, 사루비아 다방 프로젝트 스페이스

단체전, 상영 및 퍼포먼스

2009 Emergency 4, Aspex 갤러리, Portsmouth, 영국
요코하마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요코하마, 일본
<도시춤악대>, 라이브 퍼포먼스 /천 한마당 축제, 의정부 음악극 축제, 춘천 마임축제 외
<눈먼자들>, 라이브 퍼포먼스 / KIAF, 삼성 코엑스, 서울
Call09, 그룹전 / Luis Adelantado 갤러리, 발렌시아, 스페인
<보따리 프로젝트>, 라이브 퍼포먼스 / 카페 가하하, 라퍼커션 스튜디오, 복합문화공간 오백, 서울
<Tim and Buttler> / Girls on Film 상영 / Bredford, 영국
2008 <도시 춤악대>, 라이브 퍼포먼스 / 11회 서울 국제무용축제(SIDance) 춤추는 도시, 서울
2007 <Tim and Buttler> 방영/ BBC SouthEast Today, 영국
2006 <the Dead Book of the Bad Memory> / Assembly 전시 / SouthWing Gallery, Brighton Univ. 영국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기금

2009 영국 Aspex 갤러리 Emergency4 Final List
서울문화재단 생활 속 예술 부문 지원금: <오음: 보따리 프로젝트>
2008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다원예술 신진부문 지원금:
<너의 꿈 속에서 춤추는 나>
2007 영국 채널4 ‘4Talent Award’ Short List.
2006 BBC SouthEast Untold Final List.

2005-06 MA Design by Independent Project, University of Brighton, U.K.
1999-03 BA Hons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2009 ‘Ahtatta Uhtatta’/ Solo Exhibition/ Sarubia Dabang, Seoul, South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PERFORMANCE & SCRE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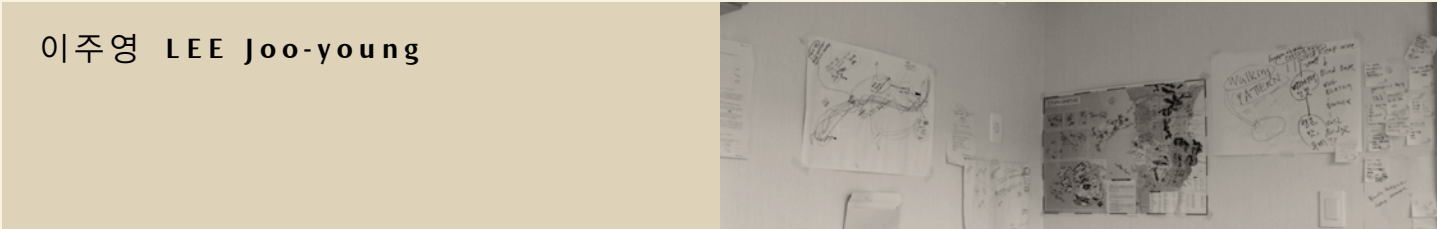
2009 Emergency 4, Aspex, Portsmouth, U.K.
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s and Media Yokohama 2009, Yokohama, Japan
call09/ Luis Adelantado Gallery, Valencia, Spain
‘the Blinds’/ Live Performance/ KIAF(the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COEX, Seoul, South Korea
‘Urban Dancing Band’/ Live Performance/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Gwacheon Hanmadang Festival, 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Tim and Buttler’/Screening/ Girls on Film, Bredford, U.K.
2008 ‘Urban Dancing Band’/ Live Performance/
11th SIDance(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outh Korea
2007 ‘Tim and Buttler’/Broadcasting/ BBC SouthEast Today, U.K.
2006 ‘Assembly’/ South Wing Gallery, Brighton Univ. U.K.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GRANTS

2009 Emergency4 Final List, Aspex, Portsmouth, U.K.
Call09 Final List, Luis Adelantado, Valencia, Spain
Grants for the ‘Bottari Project’ from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8 Grants for the ‘Me, Dancing in Your Dream’ from the Arts Council Korea
2007 Channel4 ‘4Talent Award’ Short list
2006 BBC SouthEast Untold Final list



2001 어소시에이션 리서치 스튜던쉽 골드스미스 칼리지 런던
2000 PGD & MA 비주얼 아트 골드스미스 칼리지 런던

개인전

2007 It's All An Adventure, 거트루드 컨템포러리아트 스페이스, 멜버른
2006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스텐실 워크샵 프로젝트,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04 라디오 휴: 서울미술현장, 이주영 & 데인저 뮤지움, 아트 스페이스휴, 서울
2001 Cutting Levi's, 신지 (리바이스 후원), 런던
Please Wrap Me Up, 살롱15, 홈 라이브 아트, 런던

그룹전

2009 서드 에임 인터내셔널 비엔날레 2009, 마라케시 미술관, 마라케시
일상 새로운 상상, 여성사 미술관, 서울
CAM, Visningsrommet, USF 갤러리, 베르겐
2008 비욘드 아트 페스티벌 2008 변신변종전, 제로원디자인센터, 서울
De: Place, Re: Place, 모바일큐브/도시갤러리프로젝트, 서울디자인올림픽, 서울
ID-drawing Gig, 진영프라스틱 공장, 인천
Scratching the Surface diving in Deep Part 1, 라빠르망 22, 라뻏
It's all an adventure, Stiftelsen 3,14 (Foundation) 갤러리, 베르겐
2007 유클리드 산책전,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연화동 195 레지던시 프로젝트: 100개의 아이디어와 만개의 조화, 연화동195, 서울
2005 점점발전소, 아르코 미술관, 서울
2003 25시 인터내셔널 비디오 쇼, 비디오 파운데이션, 바르셀로나
2002 AKIHABARA TV 03, 코멘드엔, 도쿄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8 플러그파브리켄 포토그래피엔 아트센터, 베르겐
2007 거트루드 컨템포러리 아트 스페이스, 멜버른
2005 창동 미술 스튜디오 단기 입주, 서울
2004 쌈지스튜디오 5기 단기 프로젝트, 서울
2001 크리스찬 엘라이언스 센터, (제네시스 파운데이션 후원), 런던

기금

2008 베르겐 지방 자치단체 제작지원 기금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 기금
서울문화재단 시민문예지원 기금
2006 유네스코 아쉬버그장학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프로그램 지원 기금
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기금
2001 수상: 디자인, 아트, 미디어 & 컬처, 애뉴얼 리포트, 스폰서 란도, 런던

2001 Association Research Studentship in Visual Arts Goldsmiths College
2000 MA & PGD Visual arts Goldsmiths College

SOLO EXHIBITIONS

2007 It's all an adventure, Gertrude Contemporary Art Spaces, Melbourne
2006 Stencil workshop project: Lost in language, Gallery Factory, Seoul
2004 Radio Hue, Danger Museum & Jooyoung Lee, Art Space Hue, Seoul
2001 Cutting Levi's, Cinch, Supported by Levis, London
Please wrap me up, Salon 15, Home Live Art, London

GROUP EXHIBITIONS

2009 3rd AiM International Biennale 2009, Museum of Marrakech, Marrakech
Everyday New Imagination, Women History Exhibition Hall, Seoul
CAM, Visningsrommet USF, Bergen
2008 Beyond Art Festival, Zero One Design Centre, Seoul
De: Place, Re: Place, Mobile Cube/City Gallery, Seoul Design Olympiad
Independent Drawings Gig 4, Jinyoung Plastic Factory, Incheon
Scratching the Surface diving in Deep Part 1, Radio Apartment 22, Rabat
It's all an adventure, Flaggfabrikken Artist in Residence Presentation, Stiftelsen 3,14 Foundation, Bergen
2007 Where Euclid Walked, Seoul Museum of Art, Seoul
Yeonhee-Dong 195 Residency Project: A Hundred Ideas and Ten Thousand Combinations, Seoul
2005 Power Station, Arko Art Centre, Seoul
2003 25hrs Iinternational Video Show, The Video Foundation, Barcelona
2002 Akihbara TV_03, Command N, Tokyo

RESIDENCY PROGRAMS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2008 Flaggfabrikken Centre for Photography and Art, Artist in Residence, Bergen
2007 Gertrude Contemporary Art Space Residency, Melbourne
2005 Changdong National Art Studio,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04 Ssamzie Studio Space, Residency, Seoul
2002 Christian Alliance Centre, Supported by Genesis, London

GRANTS

2008 Production Grant, Municipality of Bergen for Flaggfabrikken Residency
2007 Grant, Art Council of Korea
Gra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Laureate
2004 Grant, Korean Culture and Art Foundation
2001 Award, Design, Art, Media & Culture, Annual Report by Spenser Landor, London



2005 홍익대학교 대학원 금속조형디자인과 졸업
20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09 in His Grace -개인초대전 (아름다운 땅)

단체전
2008-09 한국공예가협회전(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2007-09 한국미술협회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3-09 홍익금속조형작가회전 (이앙갤러리, 서울)
2008 신진작가발굴공모 TYGA 당선작전
(GS타워 로비갤러리 ‘The Street’, 서울)
2007 한국 현대 Frontier 장신구 작가전 (갤러리Ho, 서울)
11인의 장신구 기획초대전 (컬트갤러리, 대전)
한국현대금속공예역사 100인전 (갤러리각, 서울)
Metal Craft 특별기획전 人體+Spring (갤러리각)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수상
2005 UM갤러리 청년작가 공모전, 당선
2003 KOFAC(한국패션악세사리) 공모전, 장려상
2002 KOFAC(한국패션악세사리) 공모전, 특선
2001 (주)동원세라믹 Interbath 욕실설계공모전) -소품디자인 부문, 입선

2005 M.F.A, metal art and desig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2002 B.F.A, metal art and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09 n his Grace - solo exhibition(The Beautiful Land,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09 Korean Crafts Council Exhibition (KEPCO Plaza, Seoul)
2007-09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Seoul Art Center, Seoul)
2003-09 Hong-ik Metal Art Association Exhibition (Gallery Iang, Seoul)
2008 The Young Artist Prize winner Exhibition, TYGA
(GS Tower Gallery -The street, Seoul)
2007 Exhibition for the Frontier Jewelry Artists in the Modern Korea
(Gallery Ho, Seoul)
Jewelry of 11 (Kult Gallery, Daejeon)
100 Korean Contemporary Metal Craft Artists (Gallery Gac)
Body +Spring (Gallery Gac)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AWARDS
2005 UMgallery Young Artist contest -selected
2003 Korean fashion & accessory contest -prize for encouragement
2002 Korean fashion & accessory contest -special selected
2001 Dongwon Ceramic CO. Ltd, Bath product design contest -selected



1987 뉴욕주립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SUNY at New Paltz)
198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2009 은리 아트앤크래프트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빛갤러리
2008 GS타워 로비갤러리 더스트릿
가나아트스페이스
2007 갤러리각

단체전
2009 일상의 기호 (스페이스홀앤코너)
2008 경기의 사계 (포천반월아트홀)
2007 사고의 확장 (가원미술관)
2006 아름다운 선물 (뽀띠르갤러리)
2005 TANGRAM 스페인교류전 (제비울미술관)
2004 100개의 거울 (코엑스컨벤션홀)
2003 엄마와 딸을 위한 장신구 (인사아트센터)
2002 Crazy Dog (가인로갤러리)
2001 생활속의 미술 (분당삼성플라자갤러리)
2000 12일간의 미각여행 (이따미미술관/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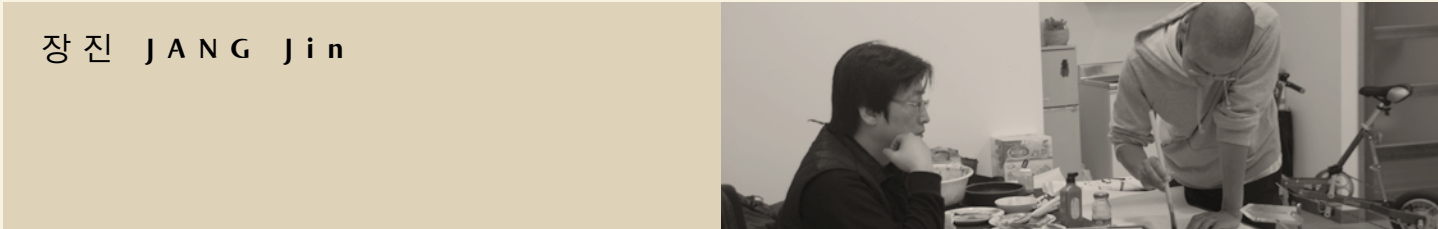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1987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New Paltz / Master of Fine Arts
1985 Hongik University / Bachelor of Fine Arts

SOLO EXHIBITIONS
2009 Only art & craf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Light Gallery
2008 GS tower Lobby Gallery The Street
Gana art space
2007 Gallery Gac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Symbols of everyday life (Space hole and corner)
2008 The Four Seasons of Gyeonggi (Pocheon Banweol Art Hall)
2007 Expansion of the thinking (Gawon Museum)
2006 Beautiful Present (Santir Gallery)
2005 TANGRAM Spain Exhibition (Jebiwool Museum)
2004 100 of the mirrors (COEX Convention Hall)
2003 Jewelry for mother and daughter (Inssa Art Center)
2002 Crazy Dog (Gainro Gallery)
2001 Art in life (Bundang Samsung Plaza Gallery)
2000 12 day's Journey of Aesthetic (Museum of ITAMI/Japan)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2007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졸업,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
199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09 와 달다 금호미술관, 서울
2008 below the moon, 신세계 갤러리 초대전, 인천
2007 氣象圖,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06 시적 공간, 토포하우스, 서울
2002 소 · 금 · 꽃, 모인화랑, 서울 외 다수

단체전
2009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예술의 전당
이상 시 그림전, 선+갤러리
강화별곡-천검, 부평역사박물관, 신세계 갤러리
2008 동양철학의 회화와 몸 전, 성균 갤러리
철학과 예술의 향연, 정 갤러리
2007 남도가는 길- 강진, 동덕 갤러리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천 역사- 문화 탐방전, 신세계 갤러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미술은행)
동아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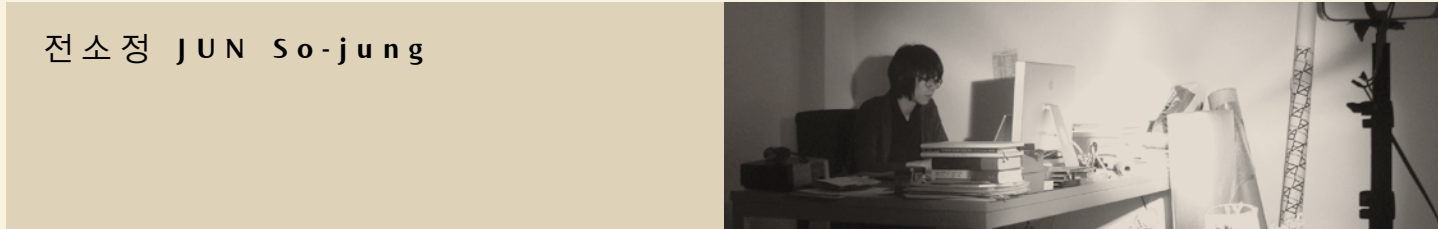
2007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hilosophy at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and now... the doctors's course of Oriental philosophy at Sungkyunkwan university
1999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09 sympathy with my heart, kum-ho museum of art, Seoul
2008 Scenery of Heart -below the moon, Sin-sae-gae gallery, Incheon
2007 Scenery of Heart, Hak-kgo-jae gallery, Seoul
2006 Poetic Space, To-po house, Seoul / He-won gallery, Incheon
2002 Salt flowers, Moin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Modern transfiguration of Korean, Pawning of art in seoul
poem and picture of lee sang, 線+gallery
a new tune-kang hwa, bu-peong tradition museum
2008 pictures and dancing of the Oriental philosophy, Sungkyun gallery
Art and Oriental philosophy festival, jung gallery
2007 A passage to Namdo, Dongduk gallery, Kangjin
Exhibition for History and Culture of Incheon with youth, Sinsaegae gallery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rt Bank)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t Bank)
Dong-a Pharmaceutical



2006-09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
2001-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개인전
2009 One Man Theater, 성균갤러리, 서울, 한국
2008 The Finale of a Story, 공근혜 갤러리, 서울, 한국
The Finale of a Story, 갤러리 킹, 서울, 한국 외 다수

그룹전
2009 요코하마 국제 아트 앤 미디어 페스티벌 2009, 요코하마, 일본
플랫폼 인 기무사, 옛 기무사 건물, 서울, 한국
Jeune Création 2009, CENTQUATRE 104, 파리, 프랑스
요술.이미지 The Magic of Photography,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한국
드라마 방송국 3.0, 대안공간 아트포럼 리, 인천, 한국
Glogauair – Souvenir, 쿤스트라움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Kom.Post, Gallery Visite ma tente, 베를린, 독일
2008 연극 되어지다,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서울, 한국
한국 현대미술 기획전, Galerie Deburaux Aponem, 파리, 프랑스
폐차쿠차의 밤 V.6, 남산 드라마 센터, 서울, 한국
풍경과 상상, 그 뜻밖의 만남,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신진기예전, 뉴욕 아트오마이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모작가전,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공간의 생산, 성남아트센터, 성남, 한국
Wake Up,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 gallery LUX, 서울, 한국
2007 디지털 확성기,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6th Funny Sculpture & Funny Painting, Gallery Sejul, 서울, 한국
Stationary and Flowing, Xu Beihong School of Art, 베이징, 중국
The virtual self, Kimi Art,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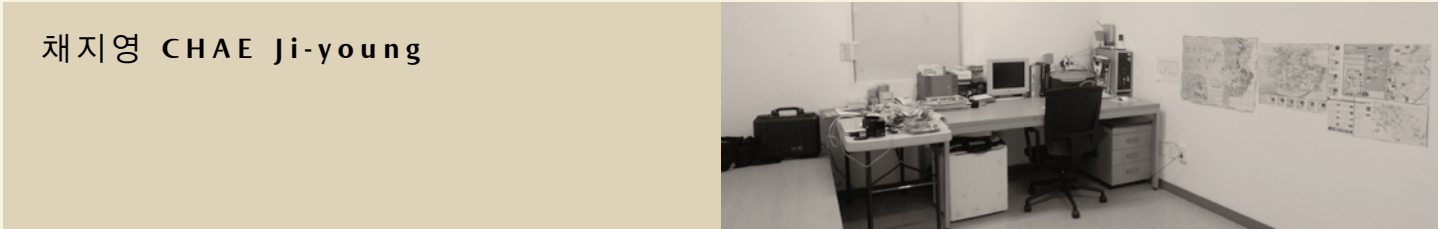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0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 한국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8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헬싱키, 핀란드
GlogauAIR,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베를린, 독일

2006-09 MFA,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Yonsei Univ.
2001-05 BFA,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

SOLO EXHIBITIONS
2009 One Man Theater, Sungkyun Gallery, Seoul, Korea
2008 The Finale of a Story, Gallery Kong, Seoul, Korea
The Finale of a Story, Gallery King, Seoul, Korea
and other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Cream: International Festival for Arts and Media Yokohama 2009, Yokohama, Japan
Platform in KIMUSA, KIMUSA, Seoul, Korea
Jeune Création 2009, CENTQUATRE 104, Paris, France
The Magic of Photography, HANMI Photograph Museum, Seoul, Korea
DramaStation 3.0, alternative space Artforum RHEE, Incheon, Korea
Glogauair – Souvenir, Kunstraum Bethanien, Berlin, Germany
Kom.Post, Gallery Visite ma tente Berlin, Germany
2008 Between the Lines,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Korean Contemporary Art, Galeria DeburFranceaux Aponem, Paris, France
PechaKucha Night Seoul V.6, Nam San Drama center, Nam San Drama center, Seoul, Korea
Landscape and Imagination, The Unexpected Meeting, Aram Museum, Goyang, Korea
Up-and- Comers, Art Omi Residency Program_competition, Total Museum, Seoul, Korea
Product of Space, Seongnam Art Center, Seongnam, Korea
Wake Up, Gallery LUX, Seoul, Korea
2007 Digital Loudspeaker, Duckwon Gallery, Seoul, Korea
6th Funny Sculpture & Funny Painting, Gallery Sejul, Seoul, Korea
Stationary and Flowing, Xu Beihong School of Art, Beijing, China
The virtual self, Kimi Art, Seoul, Korea

RESIDENCY PROGRAMS
2010 International Artist Studio Program, Changdong, Seoul, Korea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HIAP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Program, Helsinki, Finland
2008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GlogauAIR, Berlin, Germany



2003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M.F.A. 과정, 조소 전공졸업	2003	M.F.A., Sculpture,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USA
1998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졸업	1998	M.F.A.,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 Seoul, Korea
1995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1995	B.F.A., Sculpture, The College of Art and Design, Ewha Womans Uni. Seoul, Korea

개인전		SITE-SPECIFIC INSTALLATIONS	
2008	Site-Specific, 인사동 큐브 스페이스 Words and Beyond, Pulchri 갤러리, Gemeente 미술관 후원, 네덜란드 헤이그	2008	Words and Beyond: Hwang Jin-Yi, Artist society Pulchri, Hague, The Nederland (Collaborations with composer Seung-Ah Oh and Slagwerkgroep Den Haag)
2007	Substance and Light, Utica Public Library, 미국 뉴욕주 유티카	2006	Substance and Light, Utica Public Library in Utica, NY
2005	Breads Installation,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2005	Breads Installation,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Omaha, NE, USA Gazebo, Art Mission Gallery, Parlor City Commons in Binghamton, NY, USA
2005	Gazebo, Art Mission Gallery, 미국 뉴욕주, 빙햄튼	2004	Milky Way, Accessibility 2004, Federal Building, Sumter, SC, USA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조각적인 것에 대한 저항전, 서울 시립미술관 야생동물, 도라산역, 경기도	2009	Against the sculptural 3 dimensions of Uncertainty, Seoul Museum of Art, Korea Wild-Animals, Dorasan Railroad Station, Korea
2008	하이 서울 페스티벌, 덕수궁 돌담길 설치미술전	2007	Korean-Japan artist Exhibition, Gallery Ewha, Seoul Magam News Outdoor Installation, Nerigul, Ansung
2007	화해와 화합의 한일전, 이화갤러리 마감뉴스 야외설치전, 안성 너리굴 문화 체험 마을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S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2005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2005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Omaha, NE, USA
2004	미국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스	2004	Yaddo,, Saratoga Springs, NY, USA
2003	The MacDowell Colony, 미국 뉴햄프셔주 피터보로 Space, 미국 뉴욕주 유티카	2003	The MacDowell Colony, Peterborough, NH, USA
2002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미국 버지니아주 스윛트브라이얼 The MacDowell Colony, 미국 뉴햄프셔주 피터보로	2003	Sculpture Space, Utica, NY, USA
		2002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Sweet Briar, VA, USA
		2002	The MacDowell Colony, Peterborough, NH, USA

기타		ETC.	
2008	Festival Dag in de Branding 참가, 네덜란드, 헤이그 Visiting Artist, Gemeente Museum Den Haag, 네덜란드 헤이그	2008	Participated in Festival Dag in de Branding and Netherlands Fund for Performing Arts Visiting Artist, Gemeente museum Den Haag / Gemak (The Hague City Museum),
2006	Visiting Artist, Munson-Williams-Proctor Arts Institute, 미국 뉴욕주, 유티카	2006	Visiting Artist, Munson-Williams-Proctor Arts Institute, Utica, NY, USA
2005	Christo & Jeanne Claude 의 The Gates 프로 트 참여, 뉴욕, 센트럴파크	2005	Crew in Gates Project by Christo and Jean-Claude, Central Park in NY
2001	Ann Hamilton 과 Meredith Monk 의 ‘Mercy’ 퍼포먼스 참여,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	2001	Performer in Mercy performance by Ann Hamilton and Meredith Monk, Columbus,OH



2008	홍익대학교대학원 사진학과 졸업	2008	MFA Photography,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3	BA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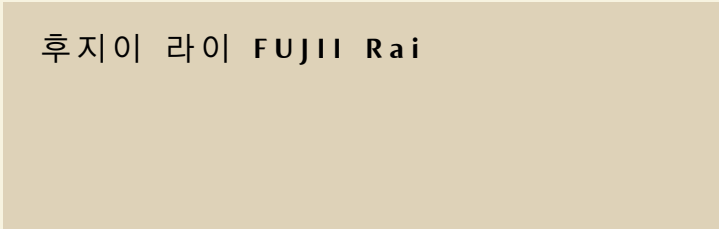
개인전		SOLO EXHIBITIONS	
2008	KTF갤러리theOrange기획홍상현사진전, KTF갤러리 theOrange, 서울 건축공간변주(SeMA 신진작가지원프로그램), 토포하우스, 서울 건축공간변주, 갤러리 룩스, 서울	2008	HONG Sang-Hyun solo exhibition, KTF gallery the Orange, Seoul, Korea SeMASeoulMuseumofArtEmergingArtistSupportingProgram, TOPOHAUS, Seoul, Korea The Photographic Variation on Architecture, Gallery LUX, Seoul, Korea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황홀한 도시의 난맥, 몰파스페이스, 서울 CORÉE!, rue de la Liberté, 아를르, 프랑스	2009	Endraptured disorder of the city, Mulpa space, seoul, Korea CORÉE!, rue de la Liberté, Arles, France
2008	건축전, 관훈갤러리, 서울	2008	the archetype,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2007	포스트포토, 토포하우스, 서울 제12회 중국국제촬영전 수상작 전시, 리슈에이, 중국	2007	post-photo, TOPOHAUS, Seoul, Korea China 12th International Photographic Art Exhibition, Lishei, China
2006	포스트포토, 관훈갤러리, 서울	2006	post-photo,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2005	1/38[휴:], 스페이스 함, 서울	2005	1/38[Hue:], space haam, Seoul, Korea

전시기획		CURATING	
2006	르네상스展, 갤러리나우, 서울	2006	renaissance, Gallery NoW,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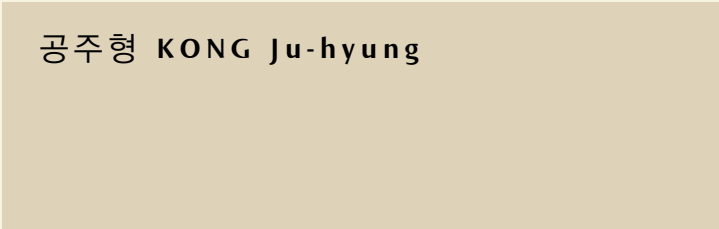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기타		ETC.	
2008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	2008	1st SeMA (Seoul Museum of Art) Emerging Artist Supporting Program



2003	무사시노 예술대학 중퇴
2000	무사시노 예술대학 입학(일본화 전공)
개인전	
2009	료쿠인유소 (아트 갤러리 칸칸쿄) 칸케이 (바자 커뮤니티, 코가네조 지구 메니지먼트 센터)
2008	카제노타요리 (아트 갤러리 칸칸쿄)
단체전	
2007	예술가 오사라기 지로를 만나다 (오사라기 지로 기념관)
2006	일본화 (요코하마 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7	아트스트 인 뮤지엄 (요코하마 미술관)
작품소장	
요코하마 미술관	

2000-03	Studied Nihonga(Japanese Painting) at Musashino art university, left midcourse
SOLO EXHIBITIONS	
2009	RyokuinYuhsoh (Art Gallery KanKanKyo) KanKei (Bazar Community,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2008	KazeNoTayori (Art Gallery KanKanKyo)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7	Artist meets OSARAGI Jiro (OSARAGI Jiro Memorial Museum)
2006	NIHONGA Painting (Yokohama Museum of Art)
RESIDENCY PROGRAMS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2006	Artist In Museum (Yokohama Museum of Art), Yokohama, Japan
COLLECTION	
Yokohama Museum of Art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및 동대학원,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2001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등단
1997-00	학교재 갤러리 큐레이터, 디렉터
저서	
2009	박수근-착한 그림, 선한 화가(도서출판 예경)
2008	천재들의 미술 노트(도서출판 향연)
2007	아이와 함께 한 그림(아트북스)
2006	색깔 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토토북)
2004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줘(도서출판 학교재)
현재	
홍익대 및 동 대학원 출강, 서울 신문, 조선 닷컴 미술 칼럼 연재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B.A., M.A., Ph.D. Hongik University, Arts Major	
2001	Literary debut at ChosunIlbo's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Art Critique
1997-00	Hakgojae Gallery Curator, Director
WORK	
2009	PARK Sookuen-Kind Art, Kind Artist (Yekyong Publishing Co.)
2008	Art Notes of Geniuses (Hyangyeon Publishing Co.)
2007	Drawing with Children (Art Books)
2006	The World without Colors is Boring (Toto Book Publishing Co.)
2004	If you love them show them Art(Hakgojae Publishing Co.)
CURRENT	
Lecturer at Hongik University for graduate and post graduate courses, art columnist for Seoul Shinmun and Chosun.com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김원방 KIM Won-bang

홍익대학교 미술대 조소과 졸업	
파리 국립장식미술대학(Arts Deco) 후 (입체조형/미술이론 복수전공)	
파리 1 대학(Panthéon-Sorbonne) 예술학부 석사/ 박사	
저서	
2008	김원방 편, 『낭비(expenditure)-2008 부산비엔날레 도록』
1998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 몸과 권력 사이에서』, 도서출판 예경
2009	共著 『한국현대작가론』(假題), 문화예술위원회 편, 학고재출판사
2005	共著 『기술매체시대의 예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共著 『몸의 위기』, 피종호 외, 도서출판 까치
	외 다수의 논문과 평론
전시기획	
2008	<2008년 부산비엔날레> 예술감독
2001	<Unreal Time Video: 한국 유럽 비디오 작가전>, 미술회관
1998	공동기획 <도시와 영상전>, 시립미술관
1997	<Projet 8 : 프랑스 한국 현대미술 展> 토탈미술관
	外 다수
현재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1984	Hong-Ik University, Seoul
1998	Studied contemporary art theory and Sculpture at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ecoratifs, Paris
2001	Doctor's degree at the UniversityofParis1
SELECTED WRITINGS	
2008	Expenditure, Catalogue of Busan Biennale 2008, Busan
1998	Art in the Ttheater of Cruelty, Seoul,Yekyong
with OTHER AUTHORS:	
2009	Mappings of Korean Contemporary Art, Seoul, Hakgojae
2005	Art in the Age of Technological Media, Yonsei University Press
2004	Crisis of the Body, Seoul, Kachi

SELECTED EXHIBITION CURATINGS	
2008	Busan Biennale 2008 (Artistic Director)
2001	Unreal Time Video, Korean Art and Culture Foundation, Seoul, 2001
1998	City and the Projected Image, Seoul Metropolitan Museum,1998
1997	Project 8 : French Contemporary Artists, Total Museum, Seoul,1997

CURRENT	
Professor of art criticism at the Graduate School of Art, Hong-Ik University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최민 CHOI Min

1993	파리 1대학 예술학 박사
1972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
1968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 학사
경력	
2004-	중앙미술대전 운영위원장
1999-02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1995-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교수
논문 및 저서	
저서:	
“미술비평의 역사”, 열화당, 2000	
“인상주의”, 열화당, 2000	
시집 “상실”, 민음사	
시각과 언어 1집 “산업사회의 미술” 공편, 열화당	
역서:	
“서양미술사”(곰브리치), 열화당	
“동서미술론”(로울랜드), 열화당	
“베르메르”(보나프), 열화당	
주요논문	
2005	“떠도는 섬” 김영수 사진작품집
2000	“저공비행, 활강, 그리고 놀아-이미지/텍스트에 관한 몇몇 질문”, 영상문화저널 Trans
1993	“미술 속의 영화, 영화 속의 미술”, 월간미술 “1960~1970년대 프랑스 신구상회화에 미친 영화의 영향”, 파리1대학 박사학위 논문
1986	“자크 모노리에 미친 영화의 영향”, 파리1대학 조형학부 미학과 DEA 학위논문
1985	“의사소통으로서의 미술”, 현실과 발언, 열화당 “최소한의 윤리-비평가의 자세에 대하여”, 시각과 언어2
1982	“현대로 이어진 서구의 풍속화정신”, 계간예술24
1981	“이미지의 대량생산과 미술”, 문예중앙
1980	“미술가는 현실을 외면해도 되는가”, 계간미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1993	Doctorate in Fine Arts, Universite Paris 1 Pantheon - Sorbonne
1972	Masters in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68	Graduate of Archeological Anthropology
WORK HISTORY	
2004-	Administrative Chairman with JoongAng Fine Arts Prize
1999-02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man
1995-	Assistant Profess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THESIS & PUBLICATIONS	
PUBLICATIONS	
History of Art Critique, Youlhwadang Publisher, 2000	
Impressionism, Youlhwadang Publisher. 2000	
Book of Poetry “Loss”, Minumsa Publishing Group	
Coeditorship of Visual Language Vo1. 1,	
Art in the Industrial Society, Youlhwadang Publisher	
TRANSLATED WORKS	
The Story of Art (Gombrich), Youlhwadang Publisher	
Art in East and West (Rowland), Youlhwadang Publisher	
Vermeer (Bonafe), Youlhwadang Publisher	
MAIN THESIS	
2005	Wandering Island, Photo essay by KIM Yung-soo
2000	Low-altitude Flight, Descent, and Play-Questions on image/test, Visual Culture Journal, Trans
1993	Cinema in Art, Art in Cinema, The Art Magazine Wolganmisool
1993	The effect of Cinematography on French Nouvelles Figuration in the 1960s~1970s, Doctorate Thesis at Universite Paris 1 Pantheon - Sorbonne
1986	The Effect of Cinematography on Jacques Monory, DEA degree thesis for Universite Paris 1’s Art and Design, Aesthetics course
1985	Art as Communication, Reality and Speech, Youlhwadang Publisher
1985	Bare Ethics-On being a Critic, Visual Art 2
1982	The Western Genre Painting Mentality of Modern Times, Art Quarterly 24
1981	Art and Mass Production of Image, Literary JoongAng
1980	Can artists afford to ignore reality?, Art Quarterly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김한수 KIM Han-su

1999 창작집 『양철지붕 위에 사는 새』문학동네 간행
1998 창작집 『그대 기차 타는 등 뒤에 남아』문학동네 간행
1997 전작장편 『하늘에 뜬 집』실천문학사 간행
1995 연작장편 『저녁밥 짓는 마을』문예마당 간행
1992 창작집 『봄비 내리는 날』창작과 비평 간행
1988 창작과 비평 겨울호 『성장』으로 소설 등단
1987 『전환기의 민족문학』에 ‘아버지’외 4편으로 시 등단
1965 전남 장성 출생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9 Participated in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1999 Fiction 『Bird on the Tin Roof』
published by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1998 Fiction 『Standing behind while you get on the Train』
published by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
1997 Novel 『House Floating in the Sky』
published by Silcheon Munhak Publishing Co.
1995 Novel Series 『The Village Preparing Dinner』
published by Moonyemadang
1992 Fiction 『The Day Spring Rain Came』published by Changbi
1988 Fiction debut with 『Growing』by Changbi’s Winter Edition
1987 Literary debut with ‘Father’ and 4 other works in
『National Literature in Transition』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홍인기 HONG In-ki

2004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졸업)

작품 활동

1999 계간 『작가들』로 작품 활동 시작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희망세상』객원기자.
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 1,000만원 받음

작품집

소설 창작집 『숲의 기억』(도서출판 작가들, 2007)과
공동소설집으로 『오, 해피데이』, 『로맨스 파파』가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인천

2004 Graduate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 Creative Writing

WORK HISTORY

1999 Literary debut with quarterly publication 『Writers』
Member of Korea Writers Association
Guest reporter for monthly 『Hope World』,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5 Awarded KRW 10M for Creative Aid from Arts Council Korea

WORKS

Novel 『Memories of the Forest』(Jakkadul Publishing Co., 2007)
Novel Collection 『Oh Happy Day』, 『Romance Papa』

RESIDENCY PROGRAM

2009 Incheon Art Platform Residency Pilot Program, Incheon, Korea

INCHEON ART PLATFORM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재)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공연예술, 문예창작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해나가고자 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옛 개항장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창안하여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 간의 창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여러 지역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함으로써 역동적인 도시 인천이 지향하는 문화의 꿈을 실현시켜가고자 합니다.

Incheon Art Platform is an arts and cultural complex that Incheon Metropolitan City built as part of the city redevelopment project. Modern buildings of the port opening period and surrounding buildings were bought and reconstructed to create the culture and art complex.

Through the residency program, Incheon Art Platform run by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spires to perform its role as creative art incubator by supporting artists and researchers of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n visual art, performing arts, and creative writing to focus on their creative and research activities.

By reinterpreting the old port in a cultural context, Incheon Art Platform hopes to emerge as a new model for loc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overall process of creation, distribution, appreciation, and education of art, IAP encourages creative discussions between various artistic activities, and free exchange between artis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citizens in effort to realize the cultural aspirations of dynamic Incheon.

FACILITIES 시설현황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규모** 2단지, 13개동, 지하1층~4층 | 대지면적 8,450.3m2(2,556.22평) | 건축연면적 5,593.43m2(1,692.01평)

LOCATION Haean-dong, Jung-gu, Incheon, Korea **SCALE** 2 complexes, 13 buildings with 1 story below and 4 above ground | Ground area - 8,450.3m² | Gross area - 5,593.43m²

A 교육관

주요시설 안내데스크, 교실(3개실), 라운지, 사무실

특징 일반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드나들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A EDUCATION HALL

Main Facilities
Information Desk, room(3 classrooms), Lounge, Office

Characteristics
Venue where general public can gain free and easy access for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s.



B 전시장

주요시설 전시장, 수장고

특징 인천아트플랫폼 자체 기획 전시, 레지던시 특별전시가 진행될 전시장

B GALLERY

Main Facilities
Gallery, storage

Characteristics
Gallery for exhibitions organized by the IAP and special exhibitions by resident artists.



C 공연장

주요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특징 춤, 연극, 콘서트, 상영회 등 공연 예술 행사가 진행될 공연장 및 세미나와 강연 등이 열리는 다목적실

C THEATER

Main Facilities
Theater, Multipurpose Room

Characteristics
Theater for performing arts events such as dance recitals, plays, concerts, and film showings. Multipurpose Room for seminars and lectures.



D 아카이브

주요시설 자료관

특징 인천아트플랫폼이 구비한 문화예술관련 전문 서적과 잡지를 열람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자료관

D ARCHIVE

Main Facilities
Archive

Characteristics
Archive for access to culture & art books, periodicals, and data searches via Internet.



E1, E2, E3 스튜디오

주요시설 스튜디오 1호~20호, 미디어랩1,2, 공동작업실, 세탁실, 공동휴게실

특징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 공간

E1, E2, E3 STUDIO

Main Facilities
Studio 1~20, Media Lab 1,2, Communal Studio, Laundry Room, Community Room

Characteristics
Spaces to support the creative work of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Program



F 게스트하우스

주요시설 게스트룸 1호~9호

특징 공연예술, 문예창작, 비평, 큐레이팅 등의 레지던시 참여 작가의 창작지원공간 및 VIP의 단기 체류 주거 공간

F GUEST HOUSE

Main Facilities
Guestroom 1~9, Guest Lounge, Laundry

Characteristics
Space for supporting the creative work of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Program such as performing artists, creative writers, art critics, and curators. Also used for short-term accommodation for VIP guests.



G1, G2, G3 아트&디자인 스튜디오

주요시설 아트&디자인 스튜디오 1,2,3

특징 입주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 공간이자 지역민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

G1, G2, G3 ART & DESIGN STUDIO

Main Facilities
Art&Design Studio 1,2,3

Characteristics
Creative work space to support resident artists and others. Also used for experiential art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and the general public.



H 커뮤니티관

주요시설 작가 지원실, 프로젝트 룸, 카페

특징 작가들이 기획자들과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협의 공간인 작가 지원실, 소규모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룸, 시민들의 휴게시설로 구성

H COMMUNITY HALL

Main Facilities
Artist Support room, Project Room, Café

Characteristics
Artist Support room is for artists to consult and hold meetings with commissioners, curators, producers and visitors. Project Room is for holding small-scale exhibitions. Café is provided as a resting area for local residents.



IAP PROGRAMS 운영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지원하고 작가들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문예창작 분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비평가, 큐레이터 등의 연구 활동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 지원 외에도 홍보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함께하면서 입주작가들 간의 협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키워줍니다.

입주작가 모집

- 모집 분야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예창작, 문화일반 등
- 입주 기간 : 장기(1년) / 중기(6개월) / 단기(3개월)
- 지원 내용 : 스튜디오 또는 게스트룸 1실, 공동작업실, 미디어랩실, 기타 프로젝트 수행 지원

아티스트 참여 프로그램

플랫폼 살롱

플랫폼 살롱은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이 인천 시민을 만나고 인천의 지역성을 알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작가가 자신의 스튜디오에 손님을 초대하여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작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알릴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주민 및 타 작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며 예술과 지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RESIDENCY PROGRAM

The IAP runs an artist-in-residence program designed to provide for a certain period art studio/living spaces and promotional support for artists of various genre so that they may concentrate on their creative work in an optimal environment.

IAP aims to serve as a creative art incubator by supporting artists of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n visual-performing arts and creative writing to focus on their creative activities, while supporting research activities of critics, curators, etc. In addition to providing support of physical space, IAP also provides support in promotion-project implementation, and software support so that resident artists can work together to enhance their creative capabilities.

Residency Application Information

- Fields of recruitment: Artists in visual arts/performing arts/literature creation/ general cultural field, etc.
- Term of residence: Long-term (1 year)/ mid-term (6 months)/ short-term (3 months)
- Support/assistance to be provided: 1 studio or guestroom, communal studio, media lab, support for project implementation, etc.

Artist Participation Programs

Platform Salon

The Platform Salon program was created to reflect the need for resident artists to meet with people of Incheon and learn of local characteristics. Artists can invite guests to their studio to present their work and talk about art. Through the program, artists can promote their work as well as converse comfortably with guests and other artists exchanging their views on art and the city.

이론가/입주작가 매칭 프로그램

이론가/입주작가 매칭 프로그램은 관련분야의 이론가를 작가의 작업실로 초빙하여 작품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품이 창작되는 작업실에서의 만남과 토론을 통해 입주 작가들은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작업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기회를 가지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큐레이터, 평론가, 대학교수 등의 관련분야 이론가와 인적네트워킹의 기회를 갖습니다. 한편 참여 이론가로부터는 작가와의 개별적인 토론 내용과 작품분석에 관한 내용을 도큐멘테이션화한 결과물을 받고, 이를 출판하여 미술관, 갤러리 및 국내외 유사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작가들의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인천 리서치 투어

인천 리서치 투어는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인천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여러 장소를 답사하는 체험 행사입니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들이 인천이라는 도시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받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입주 작가와 인천의 미술인 및 문화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충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픈스튜디오, 오픈 쇼케이스, 전시, 공연, 출판물 등

프로젝트 결과 보고

작가들의 개인 혹은 협업을 통한 작업의 결과물과 작업과정을 전시, 공연, 스튜디오의 개방, 오픈 쇼케이스, 출판물 등을 통해 발표하고 평론가, 기자, 큐레이터, 일반 관람객과 만나는 행사입니다. 또한 입주작가들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미술관, 갤러리 및 국내외 유사기관에 배포하여 홍보합니다.

지역연계프로그램

입주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과 각 스튜디오 예술가들의 작업 특성을 살린 아트&디자인 스튜디오의 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술가와 시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Theorist and Resident Artist Matching Program

The Theorist and Resident Artist Matching Program presents an opportunity for artists to invite relevant art theorists to their studios for open discussions about their work. Such studio meetings and discussions with art theorists will be an inspiring opportunity for artists to create new ideas and explore new directions for their artworks. In addition, the program helps artists to build personal network with a range of art theorists such as curators, art critics and professors in the field. Meanwhile, participating theorists are required to submit documentation of discussions with individual artists and their analysis-critique, which is published and distributed at art museums, galleries, and similar organizations both domestic and abroad to support and promote participating artists.

Incheon Research Tour

The Incheon Research Tour is an experience program which takes resident artists of IAP to various venues that best reveal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The program aims to provide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gain artistic inspiration through the city tour and offers support for artists to work with the locals citizens. Participants will also be able to forge and strengthen their networks by promoting their ties with fellow resident artists in addition to meeting and communicating with members of the Incheon culture and arts sector.

Project Outcome Report : Open Studios, Open Showcases,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Publications

Artists will introduce their individual or collaborative works, as well as the creative process involved through exhibitions, performances, studio openings, open showcases, and publications. Artists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art critics, journalists, curators, and the general audience through such events.

In addition, a report on the accomplishments of the resident artists will be published, distributed, and promoted to art museums, galle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within and outside of Korea.

Regional Liaison Program

IAP aims to create a space of fre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s and locals by operating project-type programs, and art&design studio experience programs based on the studio artist's work characteristics.

IAP PROGRAMS 운영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매개가 되어 해외 유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작가 교환 프로그램 등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문화예술교류(기관 및 인력) 및 상호 문화지리적 특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세미나, 워크숍, 예술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획 프로그램

전시, 공연, 다원문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새로운 예술의 경향을 탐구하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자체 기획 전시, 공연, 다원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여 예술향유기회를 증진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감상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화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냄으로써 대안적인 문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입주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강좌형 프로그램, 지역 학교와 연계해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인턴십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예술가와 대중의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하여 예술의 벽과 경계를 허물도록 노력함으로써 예술의 존재 방식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Incheon Art Platform supports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etworks including partnerships with related foreign institutions and artist exchange programs by virtue of cultural artistic projects based on residency. Through this effort, IAP seeks to expand the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of institutions and personnel, as well as help expand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art and mutual 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Moreover, IAP plans to create new means of artistic and cultural communication by holding international seminars, workshops, an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for artists.

GENERAL PROGRAMS

Exhibitions, Performances, Multi-cultural & Public-participating Events

Incheon Art Platform seeks to expand art appreciation opportunities by hosting IAP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multi-cultural events that encourage exploration and discussions on new artistic trends. In addition, IAP aims to work together in creating an alternative cultural space by opening projects with active civilian participants, in collaboration with artists. Participating citizens go beyond than being a mere observer and assume a more active role in cultural events.

EDUCATION PROGRAM

The education programs consist of project-type programs that bring together resident artists and locals; culture & arts lecture type program to enhance interest and understanding in art; on-site education program linked with local schools for children and teenagers; and internships-volunteer programs contributing in nurturing the agents of arts and culture. By encouraging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and the public, IAP aims to test the existence of art form by attempting to bring down the barriers of art.

아카이빙 프로그램

예술 창작 활동의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각종 도서와 영상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입주작가들은 물론 현대 예술을 이끄는 동시대 작가들과 시민들에게 예술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여러 예술가들의 각종 포트폴리오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포트폴리오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마련하여 지식과 자료의 집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ARCHIVING PROGRAM

IAP provides new information on forefront contemporary art to resident artists and citizens by building an archive that records and preserves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allows free access to various books and visual aids. In addition, IAP possesses portfolios and related materials of various artists and operates a portfolio registry that contains a database of the materials. IAP also provides an online archive that accumulates information and materials offering a wealth of knowledge.



